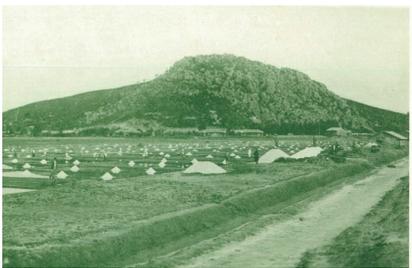


바라지의 고장 **시흥**



| 책머리에 |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 시흥,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가 되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는 매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속 시군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에 관한 이해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여 도정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0년도 사업의 주제 중 하나는 ‘경기서부권 문화의 조망’이었고, 그 조사대상 지역으로 시흥시가 선정되었다. 경기서부권은 일제가 1914년에 시행한 행정구역 통폐합의 결과를 광복 이후 시정하지 않고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 따라 수도권권을 재편성하는 바람에 전통사회와 단절된 신흥 도시들이 다수 출현한 지역이다. 시흥시는 이러한 신흥 도시 중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부침(浮沈)이 가장 심한 지역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변동과 정체성의 혼란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경기도 신흥 도시들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판단되었다.

시흥시는 수도권 재편성 과정에 희생된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1914년 시흥, 과천, 안산이 병합되며 거대한 행정구역을 형성했던 시흥군은 광복 이후 서울의 확장과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안산이 위성도시로 독립함에 따라 그 광활했던 영역을 차례로 떼어 주며 하염없이 위축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시흥군은 이름만 시흥이지 조선시대의 시흥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에 해당하던 부천군에서 편입된 소래읍과 조선시대 안산군 지역이었던 군자면·수암면만 남은 상태에서 시로 승격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 시흥시의 북부와 남부를 이루는 이들 두 지역은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시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시흥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명칭은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이다. 시흥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표현이야말로 시흥시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선 경종 때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통해 호조벌을 조성하여 백성을 구휼하였던 곳, 서울에서 내쫓기다시피 이주해온 철거민과 빈민들이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틀었던 곳, 아낌없이 자신의 살을 도려내주며 수도권외의 재편에 이바지했던 곳. 시흥시의 과거는 실로 돌보다, 돕는다는 의미를 지닌 ‘바라지’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 결과 시 승격 직전 시흥군에 남아 있었던 땅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와 절대농지, 황폐화된 포구와 염전 지대가 태반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단지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오늘의 시흥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모습 이면에는 나뉠대로의 상처 또한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처는 빨리 발견하여 조치를 취해야 치유가 되기 때문이다. 옛 인천과 안산 지역의 봉합에서 기인한 시흥 북부와 남부의 역사·문화적 이질감은 한쪽 지역이 개발되어 편차가 생길 때마다 상대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며 지역갈등이 유발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껏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금번 시흥시 기록화 사업은 시흥시의 형성 및 도시화 과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문화 변동을 다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시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도시공동체성 향상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미진하나마 이러한 노력이 시흥시의 균형 잡힌 발전과 시민들이 상부상조하는 도농복합 도시의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시흥시 기록화 사업의 구성 인원 및 단위별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이지훈(경기학센터장)

기획총괄 : 윤소영(경기문화재단 선임연구원)

집필자 : 이현군(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김준기(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강호정(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은희(경기도 문화재위원)

시지은(경기대학교 박사/민속학자)

장수아(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집필 단위	현지 조사 및 집필자
책머리에	김성태
1부 시흥의 역사지리학	이현군
2부 시흥시의 근·현대 역사적 전개양상과 현황	김준기
3부 시흥의 산업과 시민운동	강호정
4부 시흥시 소재산 인근 집성촌의 지속과 변화	김은희
5부 시흥 신천리 마을 공동체 형성과 변화	시지은
6부 시흥시, 전통마을과 근현대 마을의 공간점유 방식과 의미	장수아

이번 사업은 2020년 2월에 기획되었고, 4월~5월 현지 방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집필진과 담당 집필 내용을 확정된 후 11월 간행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기일이 다소 지체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원고를 완성해준 집필자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사업의 진행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시흥문화원의 하세용 사무국장과 시흥시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C o n t e n t s

목 차

1부

시흥의 역사지리학

1. 시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_10
2. 서울의 시흥인가, 경기도의 시흥인가? _12
3. 일제강점기 이후 시흥은 어디인가? _30
4. 1970년 이후 경기 남부와 시흥의 변화 _34
5. 경기도의 시흥을 다시 생각하다. _37

2부

시흥시의 근·현대 역사적 전개 양상과 현황

1. 서언 _42
2. 시 성립 이전 시흥 지역의 양상 _46
3. 시흥시의 성립 후 역사적 전개 양상 _69
4. 마무리 _110

3부

시흥의 산업과 시민운동

1. 시흥의 산업 _116
2. 시흥의 시민운동 _125
3. 시흥 시민운동으로 파생된 문화자원 _152

4부
시흥시 소래산 인근
집성촌의 지속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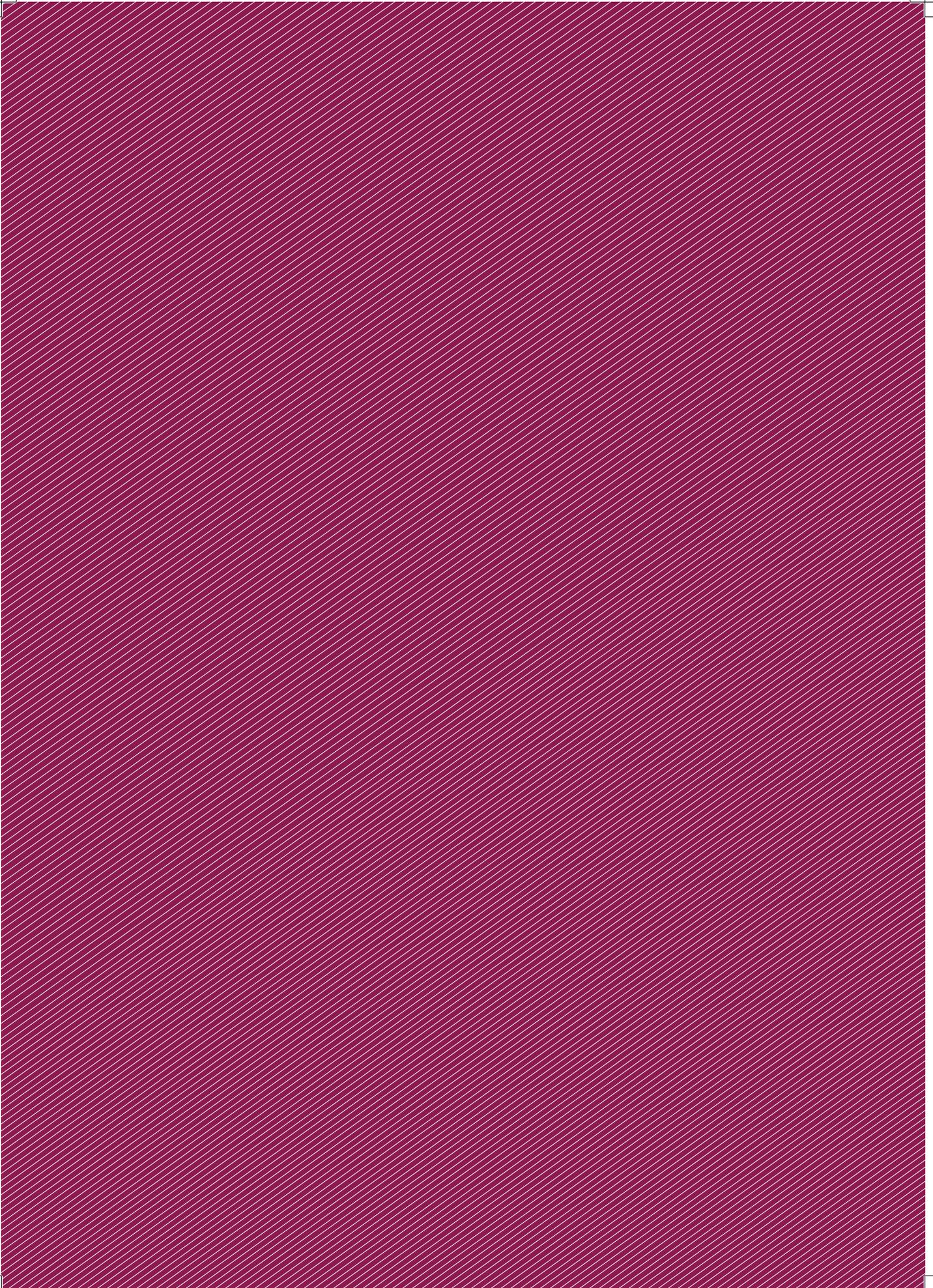
1. 시흥시의 역사와 소래산 _160
2. 소래산 인근 집성촌 마을 _165
3. 집성촌의 지속과 현재 _196
4.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길목 _213

5부
시흥 신천리
마을 공동체 형성과 변화

1. 주거공동체 복음자리 마을 형성 _221
2. 공동체생활과 문화 그리고 주거공동체의 확장 _239
3. 마을공동체 활동과 변화 _261
4. 복음자리작은자리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_282

6부
시흥시, 전통마을과
근현대 마을의
공간점유 방식과 의미

1. 시흥시 도시공간의 특징과 자연마을의 현황 _299
2. 자연마을의 입지적 특징과 변화 _312
3. 파리 도시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_323
4. 결론 _332



1부

시흥의 역사지리학

이현군(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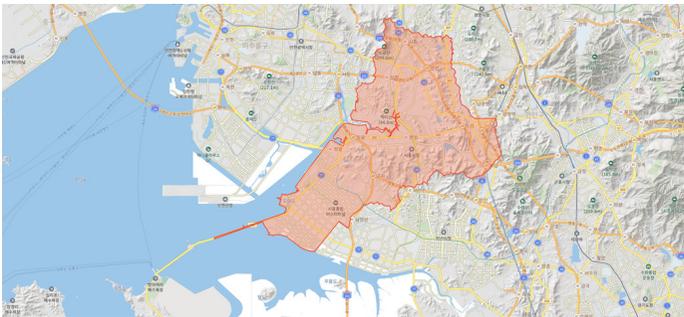
1. 시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글에서는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경기도 시흥시를 이해 하고자 한다. 역사지리적으로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장소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동일한 공간도 시간의 맥락에 따라 장소의 의미가 달라진다. 조선시대의 시흥, 일제 강점기의 시흥, 해방 이후의 시흥, 1960년대의 시흥, 1970년대 이후의 시흥을 거쳐 현재의 경기도 시흥시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대별로 여러 층위의 시흥이 존재 하며 시흥에 대한 이해는 시공간적 다층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지역의 성격은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경기도 시흥시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에도 시흥동이 있다. 시흥에 대한 이해는 시대별로 지역 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파악하고 시흥만의 변화가 아니라 서울의 변화, 경기도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군현 체제였다. 한양 도성이 있고 도성 밖은 성저십리로 불리웠다. 도성과 성저십리를 합한 지역이 조선시대 한성부였다. 한성부는 현재 서울에서 한강 북쪽 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한강 남쪽 지역은 조선 시대에는 경기도였다. 한강 남쪽에 있었던 경기도 군현이 양천, 시흥(금천), 과천, 광주였다.



< 현재 경기도 시흥시. 네이버지도 >

시흥시의 작은 현재는 서울 특별시에 포함되는 금천구 시흥동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은 한반도 전체의 행정구역 개편

이 있었던 해이다. 일제는 2-3개의 군현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군으로 만드는데 시흥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시흥의 변화와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해는 1936년이었다. 조선시대 한성부는 한강 북쪽이었는데 1936년에 처음으로 한강 남쪽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된다. 이 때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이 조선시대 시흥지역이었다.



< 시흥 주변 군현, 조선후기 경기도 지도 >

해방 이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다. 1949년에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지역의 일부가 또 다시 서울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시흥을 비롯한 한강 남쪽의 경기도 군현들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해는 1963년이다. 조선시대 한강 남쪽 군현이었던 양천, 시흥, 과천, 광주 땅이 대대적으로 서울로 편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경기도의 시군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북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수도권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면(面)이 읍(邑)으로, 출장소나 읍(邑)이 시(市)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경기도 시흥에 속했던 지역에 새로운 시(市)가 등장하게 된다.

시대별로 지역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도 달라지고 경기도도 달라졌다. 서울의 변화, 경기도의 변화와 연관되어 시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는 지도와 지리지이다. 조선시대 옛지도인 대동여지전도, 대동여지도, 조선후기 군현지도를 통해 시흥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옛지도를 읽으며 동시에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를 활용하여 시흥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2. 서울의 시흥인가, 경기도의 시흥인가?

1) 대동여지전도와 대동여지도의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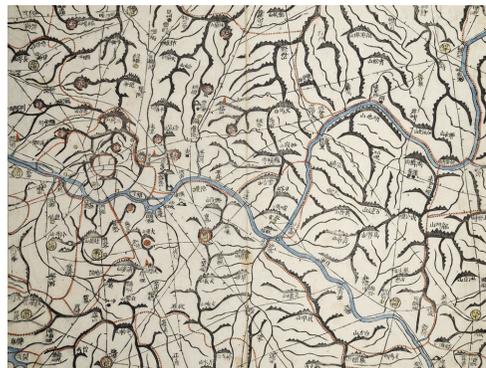


< 대동여지전도의 조선시대 시흥주변 지역 >

한강 북쪽에 ‘경(京)’이 표시되었고 한강 남쪽에는 현재 서울이었지만, 조선시대 경기도였던 군현들이 표시되었다. 한강 남쪽에 과천, 과천의 서쪽에 시흥, 시흥의 서쪽에 양천, 김포, 통진이 보인다. 시흥 남쪽으로는 안산, 서남쪽에는 부천과 인천이 그려져 있다. 시흥은 과천, 안산, 인천, 부평, 양천과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서 시흥주변 지역을 살펴보자. 도성에서 나온 길은 한강을 건너 동작(진)으로 연결되고 이 길은 관악산 옆의 남태령을 지나 과천으로 연결된다. 동작진 서쪽에 노량(진)이 그려졌고 노량진에서 시흥으로 길이 연결된다. 시흥 옆에는 금주산이 그려졌다. 시흥에서는 세 길로 다른 군현과 연결된다. 서쪽으로 문학산 뒤쪽의 인천으로 가는 길, 남쪽으로 안산으로 연결되는 길, 과천 남쪽의 사근(참)을 통해 수원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한양 도성에서 시흥으로 연결되는 길은 대동여지도의 경조오부도에 상세히 그려져 있다. 남대문에서 동작진을 거치는 길은 과천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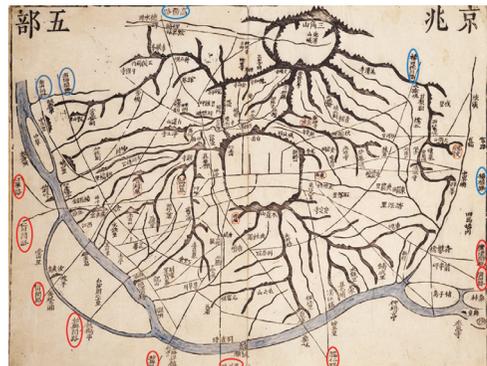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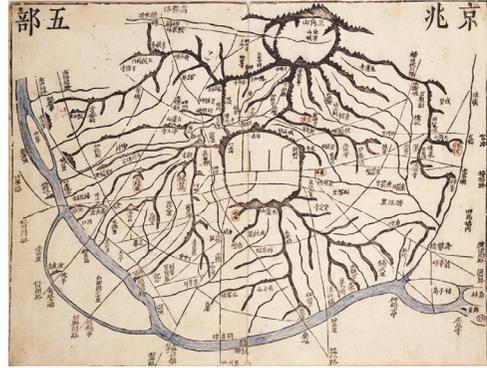


< 대동여지도의 시흥주변 지역 >

다. 청파역에서 한강을 건너는 또다른 길은 노량진행궁을 거친다. 이 길이 시흥로이다.

2) 금천현 또는 시흥군

이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후기 군현지도를 통해 옛 시흥을 찾아보자. 정조 19년(1795)년 이전까지는 금천현으로 불리웠기에 조선전기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는 시흥군이 등장하지 않는다. 경기도 금천현 편을 찾아야 한다.



< 경조오부도 시흥가는 길 >

<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衿川縣) >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11리이고,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16리이며 서쪽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17리이고 북쪽으로 양천현 경계까지는 27리이며, 노량(露梁)까지는 23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31리이다.

산천: 삼성산(三聖山) 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호암산, 양화도(楊花渡), 바위곶(巖串), 대택(大澤), 하택(下澤), 대천(大川) 현 서쪽 4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과천현 관악, 청계 등 여러 산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양천현 철곶포(鐵串浦)에 흘러든다.

누정: 효사정 노량 나루터 남쪽 언덕에 있는데 우의정 노한의 별장이다.

학교: 향교

역원: 반유역, 관음원, 양화도원

불우: 안양사 삼성산에 있다.

사묘 : 사직단, 문묘, 성황사, 여단

고적 : 영랑성, 호암산성

비고

방면 : 현내, 서면, 남면, 동면, 상북(上北), 하북(下北)

성지 : 삼성산고성, 호암산고성

진도 : 양화진(楊花津), 방학호진(放鶴湖津)

교량 : 만안교, 기탄교

궁실 : 행궁(行宮)

사원 : 충현서원

동국여지승람의 시흥부분을 재 정리해 보자. 과천, 안산, 부평, 양천과 인접한 군현이 시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량까지 23리라고 한 것은 한양에서 노량(진) 나루를 건너서 오는 고을이었기에 따라 기록하였다.

관악산이 큰 산이지만, 시흥의 진산은 삼성산(금주산)이다. 관악산은 과천의 진산이다. 옛 읍치 근처에 있는 산이 호암산이다. 양화도를 산천에 표시한 것은 당산리까지 시흥의 범위에 포함되었기에 기록한 것이다. 도립천, 안양천이 시흥(금천)에서 나와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행궁은 노량진에 있던 용양봉저정이다. 방면을 보면 동서남북 방향을 기초로 면 명칭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조선후기 시흥현 지도를 읽어보자. 고려 초에는 금주(衿州), 조선 태종대에는 과천과 합하여 금과현(衿果縣), 양천과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불리기도 했다. 태종 16년(1416)부터 금천현(衿川縣)으로 불렀다가 정조 19년(1795)부터 시흥현(始興縣)이 되었다. 조선시대 시흥현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일부지역,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이 중심부였다. 금천구는 1995년에 구로구에서 분리되어 생겼다. 경기도에 시흥시가 있으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조 이전의 지명인 금천을 사용한 것이다.

동쪽을 위로 하여 그린 지도이다. 왼쪽 아래가 한강이다. 관악산 왼쪽에 그려진 하천은 도림천인데 오른쪽에 그려놓은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들어간다.

관악산 아래 그려진 삼성산(三聖山)이 진산이다. 삼막사(三幕寺), 성주암(聖住菴), 호압사(虎壓寺) 등의 사찰이 보인다. 신림리, 봉천리, 상도리, 난곡리, 가리봉, 독산리, 구로리, 당산리, 영등포, 선유봉, 철산리, 광명리, 일직리, 안양리, 박달리 등은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지명이다.



< 시흥현지도(始興縣地圖, 규10368), 조선후기 지방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속했는데 영등포 주변 지역은 1936년에 처음 경성부에 속하였고 대부분 지역은 1963년이 되어서야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시흥군 안양면이 경기도 안양시가 되었고 영등포구에서 관악구가 분리되었다. 1980년에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리되고, 1981년에 경기도 광명시가 생겼다.

성주암 아래 자하동(紫霞洞)이 보인다. 관악산 호수공원에 조선후기 인물인 자하신위(紫霞 申緯)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지도 중앙부의 읍치(邑治)에는 행궁(行宮), 객사(客舍), 향교(鄕校) 등을 표시하였다.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 근처이다.

지도 왼쪽에 노량진(露梁津)이 보이고 그 옆에는 장생현(長牲峴, 장승배기)을 표시하였다. 지도 오른쪽에는 만안교(萬安橋)를 그렸다. 노량진, 장승배기, 시흥 읍치, 만안교를 연결하는 길이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가던 길이다.

3) 안산인가, 시흥인가

조선시대 시흥군과 달리 현재 경기도 시흥시는 옛 안산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 지방지도에서 경기도 안산군을 살펴보아야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安山郡) >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5리, 남쪽으로 남양부 경계까지 35리 서쪽으로 인천부 경계까지 11리, 북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14리이며 서울까지는 51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이다.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치었고 고려 초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었으며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탄생한 곳이므로 승격하여 군(郡)을 만들었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하였다.

군명

장항구(獐項口) 장구(獐口) 연성(蓮城)

형승

땅이 큰 바다에 접했다. 김수온의 시에 “땅은 큰 바다에 접했고 또 산에 의지하였는데, 고을 성에 사는 백성은 아득한 안개 사이로다” 하였다.

산천

수리산(修理山) 군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으며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 한다.

취암(鷲岩) 수리산에 있다.

오자산(五子山) 군 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마하산(麻河山) 군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광덕산(廣德山) 군 서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바다 군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오질이도(吾叱耳島) 군 서쪽 47리 되는 곳에 있다.

석을주도(石乙注島) 군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

소홀도(召忽島) 군 서쪽 15리에 있으며 주위가 32리이고 목장이 있다. 본래 남양부에
예속하였는데 성종 17년에 본군에 옮겨 붙이었다.

여월음양(余月音洋) 오질이도 서쪽에 있으며 수로가 10리인데 세곡(稅穀)을 수송하는
배가 지나는 곳이다.

개교천(介橋川) 근원이 취암 아래에서 나와서 객사 남쪽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포오천(浦吾川) 군 북쪽 12리 되는 곳에 있다.

별사곶(別士串) 군 서쪽 12리 되는 곳에 있다.

토산(土山)

소금 소어 수어 석수어 황석수어 백어 은구어 병어 노어 흥어 진어 민어 전어 호독
어 오적어 낙지 해양 조개 황합 죽합 석화 토화 소라 게 청게 대하 중하 백하 자하
어표 사자발쭉

관방

초지량영(草芝梁營) 군 서남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이다.

봉수

오질이도봉수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

학교

향교(鄕校) 군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역원

석곡역(石谷驛) 군 서쪽 7리 되는 곳에 있다.

쌍록원(雙鹿院) 군 남쪽 5리 되는 곳에 있다.

불우

원당사 정수암 모두 수리산에 있다.

수월암 안양산(安陽山)에 있다.

사묘

사직단 군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사당이 둘 있는데 하나는 군 서쪽 21리 되는 곳에 있고, 하나는 군 서쪽 32리 되는 곳에 있다.

여단 군 북쪽에 있다.

고적

강희맹묘 군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총묘

장항폐현(獐項廢縣) 군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고성(古城) 군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으며 흙으로 쌓았는데 주위가 9천 5백 65척이다.

명환

본조 이숙번 지군(知郡)이 되었을 때 태종을 도와서 정도전의 난을 평정하였다.

조석문 지군이 되어서 행정 성적이 최고임으로 홍주목사로 승진하였다.

인물

고려 김은부(金殷傅)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목종 때에 어주사(御廚使)가 되었으며 현종이 거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니 은부가 그 때 공주절도사로 있으면서 마음껏 공궤하고 인하여 그 딸을 바치었는데 곧 원성왕후이다. 원혜 원평 두 왕후도 또한 그의 딸이다. 뒤에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제수하였으며 죽은 뒤에 후(后)해서 개부의 동삼사 수사공상주국 안산군 개국후를 증직하였다.

비고

연혁

고종 32년 군으로 고쳤다(문헌비고)

진보

혁폐 초지진(草芝鎭) 서남쪽으로 30리인데 범리면에는 수군만호가 있어 효종 7년에 강화로 옮겼는데 성의 옛 터가 남아있다.

방면

용건(龍巾) 동쪽으로 10리이다.

잉화곡(仍火谷)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15리이다.

초산(草山) 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15리이다.

군내(郡內) 남쪽으로 12리이다.

대월(大月) 서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25리이다.

마유(馬游) 서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0리이다.

범리(凡里) 서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30리인데 본 군(郡)의 옛 소재지가 있다.

이를 재정리해보자. 조선시대 안산군 과천현, 남양부, 인천부, 금천현(시흥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며 큰 바다에 접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리산, 오질이도(오이도) 등 현재에도 익숙한 산천이 등장한다. 초지진이 등장하는데 4호선 안산전 역명이 초지이다. 이 초지진에서 따온 역명이다.

이제 조선후기 안산군(安山郡) 지도를 읽어보자. 이 지도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를 그렸다. 현재 시흥시의 옛모습을 보기 위해 조선시대 시흥군 지도만 보

아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시흥군의 중심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이다. 안산군지도를 같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안산시에서 일동, 이동, 본오동, 성포동 등은 조선시대 광주부 땅이라 제외된다. 현재 시흥시의 거모동, 군자동, 월곶동, 장곶동, 장현동, 정왕동, 죽률동,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하상동, 하중동 등이 조선시대에는 안산군에 속하였다. 이 지도는 동쪽을 위로 하여 그렸다. 방향을 표시하는 '동(東)' 글자 오른쪽 아래에 그려진 수리산(修理山,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의 경계에 있는 산)이 안산군의 진산(鎭山)이다. 원으로 그려놓은 읍치(邑治, 행정 중심지)는 안산시 수암동이다. 읍치 오른쪽에 객사(客舍)를 적어놓았다.



< 안산군 지도(규10343), 조선후기 지방지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안산 객사 >



< 안산 읍치 선정비 >

‘읍치(邑治)’ 왼쪽에는 ‘연성군김정경고지(蓮城君金定卿古址)’라고 적었다. 김정경(1345-1419)는 조선초기 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방원에 협력하여 연성군에 봉해진 인물이다. 연성은 안산의 다른 지명 중 하나이다. 이 사람의 옛 집터를 표시한 것이다.



< 안산 읍치 은행나무 >

이 지도 오른쪽 위 첫 부분에 ‘읍치후유은행수삼주즉연성군수종(邑治後有銀杏樹三株即蓮城君手種)’이라고 적혀 있다. 읍치 뒤쪽에(邑治後)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有銀杏樹三株) 곧(即) 연성군이 손수 심은 것이다(蓮城君手種)라는 말이다. 안산 읍성에 답사가 보면 새로 만든 객사 뒤편에 은행 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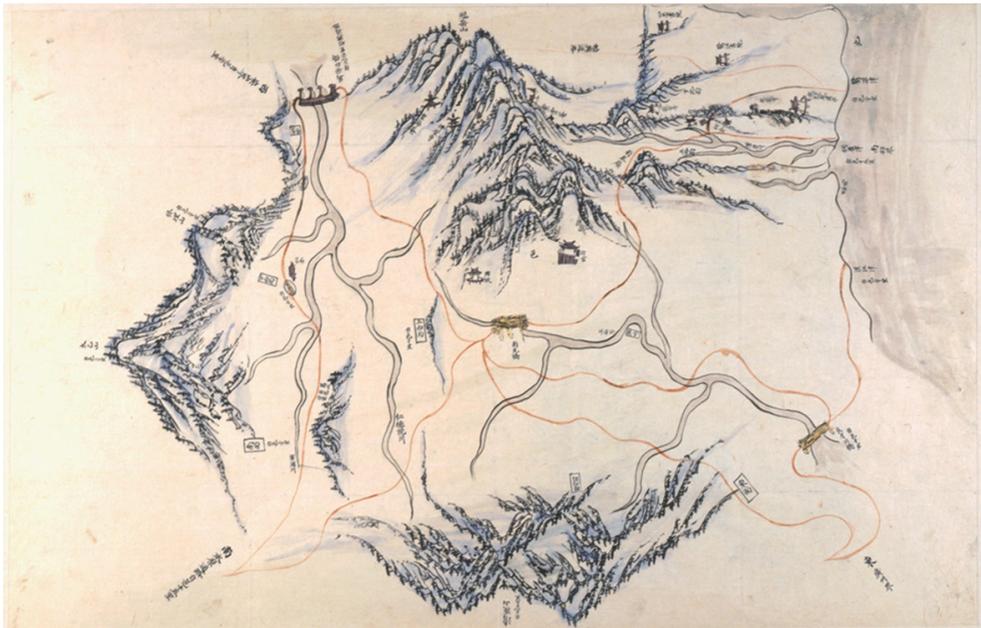
지도 아래쪽은 서해바다이다. 큰 섬에 ‘오이도(烏耳島, 시흥시 정왕동)’라고 적었다. 오이도는 이 지도에서는 섬으로 나타나지만 현재는 육지에서 오이도까지 매립되어 시화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시화방조제가 출발하는 지점에 해당하기도 하다. 오이도 왼쪽 위에 그려진 봉수대는 정왕산 봉대이다. 시흥시 정왕동은 정왕산과 연관된 지명이다.

지도 오른쪽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구초지(舊草芝, 안산시 초지동)’라고 적혀 있다. 바닷가에서 외적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었다. 옛 구(舊)를 쓴 것은 이곳에 있던 초지보(草芝堡)가 1656년(효종 7)에 강화도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지도로 지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여백에는 안산과 관련한 지역 정보(연혁, 주변

군현, 산줄기, 물줄기, 봉수대, 사찰 등)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가운데 부분에 ‘안산군본고구려장항구현신라경덕왕개장구군고려초개금명(安山郡本高句麗獐項口縣新羅景德王改獐口郡高麗初改今名)’이라 적었다. 안산군은 본래 고구려 장항구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이라 고쳤고 고려 초에 고쳐서 지금 이름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조선전기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똑 같다.

4) 과천현인가 시흥군 과천인가?



< 과천지도(果川地圖, 규10370), 조선후기 지방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현재는 독립된 도시이고 조선시대에도 별도의 군현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시흥군에 포함되기에 조선후기 과천지도를 읽어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울목군(栗木郡), 신라 경덕왕 때는 울진군(栗津郡), 고려 초에는 과주(果州)라 불렀다. 조선 태종 13년(1413)부터 과천(果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주변 지역과 합해진 시기도 있었다. 고려 현종 9년에는 광주(廣州)에, 조선 태종 14년에는 금천(衿川)과 합해져 금과(衿果)라 불리기도 했다. 세조 때에도 잠시 금천에 합해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선시대 내내 독립된 군현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과천은 현재 서울 특별시의 서초구, 동작구 등과 과천시 등을 관할하였다.



< 과천 읍치 온온사 입구 >

과천시 문원동, 중앙동 일대에 해당하는 과천 향교 근처, 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일대가 읍치였다. 1914년 3월 1일 군면 폐합에 의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과천면으로 불렸다. 2014년 이전까지의 과천시 중앙동 주민센터(온온사)를 옛 면사무소 위치로 보면 된다. 1982년부터 정부 제 2 종합청사와 서울대공원이 들어섰고 1986년 1월 1일부터 과천시로 불린다.

한강을 지도 오른쪽에 배치하였다. 나루터인 노량진, 동작진, 한강진을 표시하였다. 노량진과 동작진 옆에 그려놓은 용양봉저정은 정조가 배다리를 건넌 후 쉬어갔던



< 과천 읍치 선정비 >



< 온온사 >



< 과천 향교 >



< 관악산 >

곳이다.

지도 위쪽에 그려 놓은 산이 과천의 진산(鎭山)인 관악산이다. 연주대와 자운암이 보인다.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향했던 두 갈래 길이 보인다. 관악산 서쪽을 지나는 길은 시흥통로이다. 만안석교를 지나는 길이다. 또 다른 길은 남태령을 넘어 과천행궁을 지난다.

관악산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발원지가 된다. 관악산 서쪽에서는 도림천이 나와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 하천은 조선시대 시흥 땅에 해당하므로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관악산 동쪽에서는 양재천이 나와 탄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지도 오른쪽 아래에 양재천교를 그려 놓았다. 동작진 옆에 그려진 승방천은 지금은 복개된 사당천이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강남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였다.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과천현이었다. 지도 아래쪽에는 청계산이, 왼쪽에는 수리산이 그려졌다. 그 사이에는 안양장, 군포장, 군포천, 인덕원천이 표시되었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조선시대 과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남태령 >

5) 옛 시흥을 찾아서

현재 경기도 시흥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시흥군 일대를 옛지도를 들고 걸어보았다. 시흥의 역사적 연원을 찾고 현재 시흥시로 넓어지기 전, 그 출발점을 상상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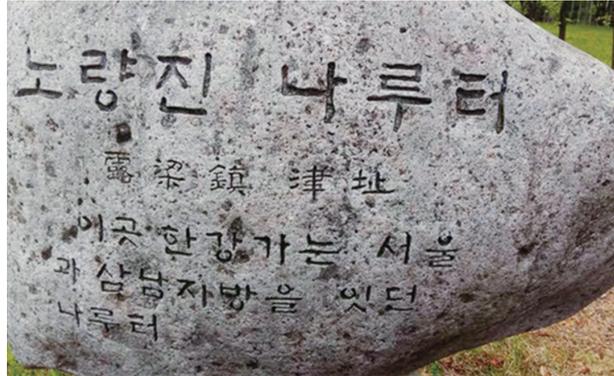
시흥 옛지도를 보면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가던 길이 보인다. 노량진, 장생현, 시흥 읍치, 만안교를 연결하던 길이다.

제 1 한강교였던 한강대교 근처에 있던 나루터가 노량진(露梁津)이었다. 임금이 한강에서 배다리를 통해 건너와 쉬던

곳이 용양봉 저정이다. 노량진 옆에 장생현(長牲峴)이라 표시된 곳이 장승배기이다. 한양 도성 안은 유교적 공간이다. 원칙적으로 승려와 무당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길 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던 장승은 도성 안에 세워질 수 없었다. 무속 신앙적 성격을 띄는 장승은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한양이 되는 곳, 노량진에 있었다.

지금은 노량진에서 시흥으로 통하는 여러 길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산리(독산동) 옆을 지나 시흥 읍치에 이르렀다.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로 가면 길 한 가운데에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 경기도 시흥현 현령(縣令)들의 선정비와 영세불망비들이다. 시흥현 중심부가 이 일대였음을 알려준다.

옛 읍치였던 곳에서는 오래된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은행나무 사거리 주변



< 노량진 나루터 >



< 용양봉 저정 >

을 보면 큰 은행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호수 안내판을 보면 약 880년 된 나무들이다. 은행나무 사거리, 은행나무 마트 앞, 시흥5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오래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 시흥 현령 선정비 >

관아 건물들은 남아 있지 않고 은행 나무 마트 왼쪽의 나무 아래에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동헌 관아 자리’라고 표시하고 이곳이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 행차 때 이용하던 행궁(行宮)이었다고 설명해 놓았다.



< 시흥동 은행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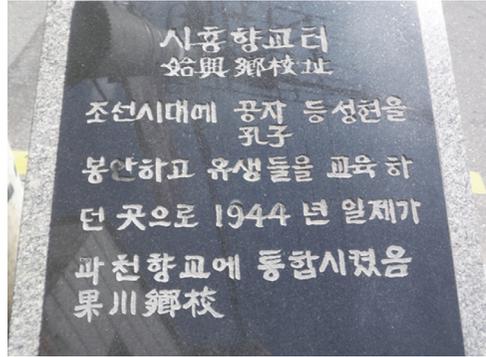
옛지도를 보면 객사와 행궁이 표시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옛 길을 은행나무 사거리라고 보면 실제 행궁의 위치는 은행나무 마트에서 좀 더 뒤쪽으로 간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석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 세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각 고을마다 있던 학교가 향교(鄕校)이다. 옛 지도에는 향교가 등장하지만, 시흥 향교는 1944년에 사라졌다. 과천향교에 통합되었다고 전한다. 시흥향교는 그 터만 표시해 놓았다.

옛 지도에 읍치 앞을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양천 위에 만안교(萬安橋)가 보인다. 만안교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9번지에서 볼 수 있다. 설명문을 살펴보면 정



< 시흥 관아터 >



< 시흥 향교터 >

조 19년(1795)에 만든 다리이고 조선시대 위치는 약 460m 남쪽에 있었는데 1980년에 국도를 확장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가는 길은 노량진 또는 동작진을 지나 남태령을 넘어 과천을 지나는 길이었다. 과천은 사도세자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김상로(金尙魯)의 형, 김약로(金若魯)의 무덤이 있어 이 곳 시흥의 만안교를 지나 화성으로 갔다고 전한다.

만안교 옆에는 만안교비(萬安橋碑)가 세워져 있고 만안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새로 만안정(萬安亭)을 지어 놓았다.



< 만안교비 >



< 만안교 >

옛 시흥을 찾아 경기도 안양시까지 왔으니 안양시에 있었던 다른 유적지도 찾아 보기로 하였다. 김중업 박물관 옆에 있는 중초사지(中初寺址)를 찾았다. 보물 제 4호인 당간지주(幢竿支柱)와 삼층석탑(三層石塔)이 나란히 서 있다. 당간지주는 826년



<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



< 안양사 부도와 귀부 >

무렵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삼층석탑은 고려 중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신라 흥덕왕 때 세워진 중초사는 900년경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안양사(安養寺)로 이름을 바꾼다. 16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절이다.

지금 볼 수 있는 근처의 사찰인 안양사는 새로 지은 절이다. 옛 안양사의 터는 김중업 박물관 일대이다. 옛 안양사에 있었던 부도(浮屠)와 귀부(龜趺)는 새로 지은 안양사 대웅전 앞에서 볼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이후 시흥은 어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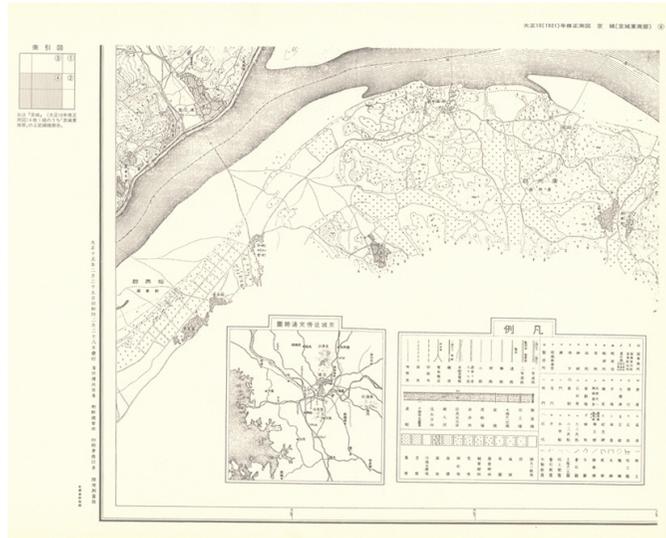
1) 일제강점기의 시흥

한반도 전체 행정구역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해가 1914년이다. 조선시대 군현 체제가 일제에 의해 통폐합되었기 때문이다. 2-3개의 군현이 하나의 군으로 바뀌면서 통합된 군현은 면(面)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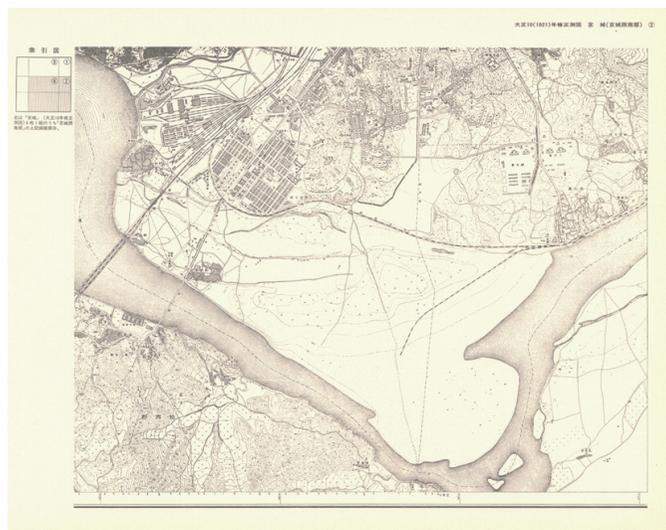
이 변화는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졌고 경기도의 군현들도 통폐합되면서 시흥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포천과 영평이 합해져 포천이 되고, 용인과 양지가 합해져 용인이 된 것처럼 조선시대 독립된 군현이었던 과천과 안산이 시흥에 합해졌다. 과천 초등학교, 온온사, 과천향교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된 군현으로 존재했던 과천은 시흥군 과천면이 되고 복원된 안산객사가 있는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안산군은 1914년을 기준으로 시흥군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의 시흥군은 동면, 신동면, 서면, 남면, 북면(영등포면), 과천면, 안양면, 수암면, 군자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시흥의 중심부는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해당한다. 구로구를 분리하면서 새로운 구 명칭을 찾는 과정에서 금천구로 정해졌다. 시흥은 이미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용하기에 조선 정조 이전의 시흥 지명이었던 금천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금천구 시흥동을 중심으로 경기도 시흥군은 안산, 과천을 통합하는 넓은 영역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흔적이 지명으로 남아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이다.

과천 땅이 시흥에 편입되면서 시흥군의 동면(東面) 옆에 새로운 동면, 신동면(新東面)이 생기게 되고 그 이름을 따서 신동초, 신동중이 된 것이다. 과천 땅이 시흥에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 시흥의 영역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 대정 10년(1921), 시흥군 신동면, 국토정보 플랫폼 >



< 대정 10년(1921), 시흥군 북면, 국토정보 플랫폼 >

1936년에 시흥군 북면에 해당하였던 영등포 일대와 한강 대교 근처의 동면 상도리가 경성부에 포함된다. 경성부의 외곽인 여의도에 비행장이, 영등포 일대가 공업지대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2) 해방 이후 경기도의 변화와 1963년의 시흥

한강 남쪽 지역에서 옛 시흥군의 영등포일대와 동면 상도리만 경성부에 포함되
었던 서울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시기가 해방 이후인 1949년이다.

좁았던 경성부에서 서울시로 바뀌면서 서울의 공간적 확대가 이루어진다. 서울
의 확대는 옛 한성부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194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경성
부의 서쪽 경계 밖에 있었던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편입된 지역은 고양군의 용강
면, 연희면, 은평면 등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에 속했지만 일
제가 식민지의 중심부인 경성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군에 포함시켰던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고양군 한지면, 송인면, 양주군의 노해면, 고양군 딱도면, 양주군 구
리면의 서쪽이 서울시가 된다. 양주군 노해면의 편입은 도봉산 아래까지 서울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성부와 경성부의 동쪽 경계는 중랑천이었다. 고양군 딱도면과
양주군 구리면의 서쪽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것은 중랑천을 넘어 아차산과 잠실까
지 서울시 성동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변화는 경기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강 남쪽 1936년에 이미 경성부에
포함된 영등포 주변 지역도 1949년에 서울시에 편입되는데 시흥군의 도림리, 번대방
리, 구로리가 서울이 된다. 이 때 경기도 시흥군 안양면은 안양읍으로 승격된다. 경
기 남부에서는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은 수원시가 되고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이름
을 바꾸게 된다.

조선시대 한강 남쪽에 있던 경기도 군현은 김포, 양천, 시흥, 과천, 광주 등이었
다. 경기도였던 이곳이 대대적으로 서울시에 편입된 시기가 1963년 1월 1일이다. 현
재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1963년에 서울이 된 것이다. 김포군의
양동면의 양서면, 부천군 오정면(2개리)과 소사읍(7개리), 시흥군 신동면과 동면 5개리,
광주군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 대왕면(5개리)이 한강 남쪽의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
뀌었다.

양주군의 노해면과 구리면의 5개리도 서울이 되는데 현재의 노원구, 도봉구, 중
랑구와 광진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경계가 북쪽으로는 도봉산

과 수락산까지, 남쪽으로는 관악산까지 넓어진 것이 1963년 1월 1일이다.

1936년에서 강남개발이 이루어진 1970년대까지 서울에서 한강 남쪽의 중심지는 영등포였다. 1963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서울시의 한강 남쪽의 구 명칭은 영등포구만 있었다.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 영동(永東) 지구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서울이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구로 분구(分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서울의 확장과 경기도의 변화는 같이 이루어졌다. 1963년 1월 1일에 서울의 북쪽 경계에 맞닿은 양주군 의정부읍은 의정부시가 된다. 양주군 화도면(3개리), 진접면(1개리), 가평군 외서면(3개리)는 합해져 수동면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양주군에서 갈라져 나온 현재의 남양주시 수동면에 해당한다. 여주군 개군면은 양평군으로, 용인군 고삼면은 안성군으로 편입되었다.

1963년 경기 남부 시흥 주변 지역도 변화를 맞게 된다. 화성군 일왕면(9개리)가 의왕면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다. 태장면(8개리)와 안용면(6개리)는 통합되어 태안면이 되고 남은 화성군 태장면의 3개리, 안용면의 6개리, 일왕면의 11개리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서해안의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에 속했던 작약도는 인천시로 편입된다.

4. 1970년 이후 경기 남부와 시흥의 변화

변화는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시흥의 변화는 시흥만의 변화가 아니라 경기도의 변화이기도 하다. 1970년대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에 새로운 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경기도의 변화 속에서 옛 시흥도 변화과정을 맞는다.

197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가 된다. 이 때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 부천군 소사읍은 부천시로 승격된다.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가 동시에 새로 생겨났다.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가 되면서 부천군은 없어지고 부천군 소래면은 시흥군에 포함되고 부천군 계양면과 오정면은 김포군이 된다. 부천군의 영종면, 북도면, 용유면, 덕적면, 영흥면, 대부면은 옹진군에 속하게 되었다. 경기남부 지역이 시로 승격하는 데 비해 경기 북부는 서울시에 편입되거나 면(面)이 읍(邑)으로 바뀌는 수준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고양군 신도면에 속했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울시가 되었고 양주군 구리면, 파주군 아동면, 임진면, 가평군 가평면, 강화군 강화면, 고양군 신도면은 읍(邑)이 된다. 1970년대부터 경기 북부보다 경기 남부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8월 10일은 후에 안산시가 되는 경기도 반월출장소가 설치된 시기이다. 반월 출장소의 설치에 시흥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성군의 반월면 1리, 2리, 4리, 팔곡2리와 함께 시흥군의 수암면에 속했던 양상리, 부곡리, 성포리, 월피리, 고잔리, 와리 등과 시흥군 군자면에 속했던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초지리, 원곡리, 선부리 등이 반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이 된다. 시흥군의 수암면과 군자면이 안산시로 바뀌는 계기가 이 때이다.

1980년 12월 1일에는 시흥군 의왕면이 의왕읍, 소래면이 소래읍이 된다. 이 때 광주군 동부면, 고양군 벽제면, 중면(일산읍), 남양주시 와부면, 파주군 주내면도 읍으로 승격된다.

시흥군은 1989년 1월 1일에 시흥시로 바뀐다. 시흥군의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

을 합해서 시흥시가 되었고 시흥군 군포읍은 군포시가 되고 시흥군 의왕읍은 의왕시가 된다.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리된 것이다. 이 때 함께 시로 바뀐 곳이 오산시, 미금시, 하남시이다.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 남양주시 미금읍이 미금시,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상산곡리를 통합하여 하남시가 되었다.

시군간 경계 조정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김포군 계양면은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되었고 용진군 영종면, 용유면은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된다. 경기 북부에서는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가 연천군 연천읍으로 바뀌게 된다.

옛 시흥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다. 1995년 3월 1일에 조선시대 시흥에 속했던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광명동 일부가 서울이 되었고 한강 북쪽의 고양시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안산과 시흥은 계속 행정구역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 1995년 4월 20일에는 시흥시 의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시흥에서 분리된 군포시의 산본동의 일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편입되었다. 경기 남부의 수원, 화성, 평택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 화성군의 태안읍 화리와 망포리는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되었고 평택시 진위면의 갈부리, 청호리, 고현리 일부는 오산시에 속하게 되었다.

1970년대, 1980년대 경기도 시흥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 7월 1일에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고 1979년 8월 10일에 시흥군 수암면, 군자면이 반월출장소로 편입된다. 1980년 12월 1일에 소래면이 소래읍이 되고 1989년 1월 1일에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이 시흥시로 승격되었다. 현대사에 있어서는 부천, 안산과의 연관성이 깊다.

부천시는 1931년 4월 1일에 부천군 계남면이 소사면으로 바뀌고 1941년 10월 1일에 소사면이 소사읍으로 바뀌었다가 1973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부천군 소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부천군은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래면은 시흥군에, 계양면과 오정면은 김포군에, 영종면, 북도면, 용유면, 덕적면, 영흥면 대부면은 용진군에 포함된다.

안산시는 광복 당시 수원군 반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1976년 12월 31일 경기도 반월도시 개발지원 사업소가 설치되었다가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반월출장소로

승격되었다가 1986년 1월 1일에 안산시가 되었다.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는 조선시대에 없던 군현명이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시흥에 포함된 지역이 새로운 시가 된 것이다. 과천시도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군현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시흥이 통합되었다가 다시 시가 된 곳이다.

경기 남부의 새로운 시(市)는 옛 시흥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곳이다. 각각의 시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양시의 기원은 조선후기 시흥군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72년 지도에 안양리가 등장한다. 1914년에 시흥, 과천, 안산이 통합되면서 시흥군 서면에 속하였다가 1941년 10월 1일에 안양면이 되었다. 1949년 8월 14일에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바뀌었고 1963년 1월 1일에 시흥군 동면 신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광명시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시흥군(금천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옛지도에 광명리 명칭이 등장한다. 1914년 시흥, 안산, 과천이 통합되면서 시흥군 서면에 속하게 되었다. 1970년 6월 10일에 시흥군 서면 광명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광명리, 철산리를 관할하였는데 1974년 6월 1일에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 시흥군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1년 7월 1일에 시흥군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군포시는 과천군 남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3월 1일에 시흥, 과천, 안산이 통합되면서 시흥군 남면이 되었다가 1979년에 시흥군 군포읍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 군포시가 된다.

의왕시의 지명은 1914년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을 통합하면서 수원군 의왕면이 생겨나면서 등장한다. 수원군 일왕면(1936년), 화성군 일왕면(1949년), 시흥군 의왕면(1963년), 시흥군 의왕읍(1980년)으로 고쳐 불리다가 1989년에 의왕시가 되었다.

1986년에 시로 승격된 과천시는 조선시대는 독립된 군현으로 과천이 존재했지만, 1914년 3월 1일에 과천군과 안산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 과천면이 되었다. 1982년 6월 10일에 경기도 과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6년 1월 1일에 과천시가 되었다.

5. 경기도의 시흥을 다시 생각하다.

지역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행정구역과 장소의 의미가 달라진, 시공간적 다층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시흥시이다.

시흥은 조선시대에도 경기도였다. 한양 도성에서 남대문을 지나 노량 나무를 건너면 나오는 군현이 시흥이었다. 한강과 맞닿은, 한양과 붙어있는 군현이었다. 정조가 수원화성 가는 머물렀던 행궁이 있었던 곳이 시흥이었다.



오이도 빨강등대

지금의 시흥은 한강이 아니라 서해안의 도시이다. 시흥의 서남쪽이 오이도이다. 등대와 선착장이 있고 그 주변의 갯벌은 매립되어 시화공단이 되었다.



< 시흥의 서남쪽 오이도 >

오이도 북쪽, 시흥의 대표적 유원지가 된 갯골 생태공원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과거 염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강이 아니라 서해바다를 접한 곳이 시흥이 되었다. 시흥의 지리적 위치가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 군현 통폐합과정에서 옛 안산군과 과천군을 흡수하면서이다.

한강 남쪽의 작은 고을이 서해를 낀 넓은 지역이 된 것이다. 시흥은 수도권 지역 변화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이다.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쪽으로는 안산시, 동쪽으로는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북쪽으로는 부천시와 접하고



< 시흥 갯골 생태공원 >

있다.

1936년 경성부가 한강 남쪽을 포함하면서 시흥군의 북쪽 지역은 경성부로 바뀌었고 1963년 서울의 공간적 확장과정에서 조선시대 시흥군은 서울의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흥군에 속했던 지역은 1970년대 경기 남부에 여러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리되었다.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등은 일제 강점기에는 시흥군이었던 지역이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는 공단 형성, 택지개발, 이주에 의한 신주민의 유입을 불러 일으켰다. 수도권 제 1 순환도로, 제 2 경인고속도로, 제 3 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시흥시를 지난다. 서울의 지하철이 오이도까지 연결된다.

한강변의 군현이었던 시흥군은 시흥시로 바뀌어 서쪽으로는 바다, 갯골, 어시장을 품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통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시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참고문헌|

국토정보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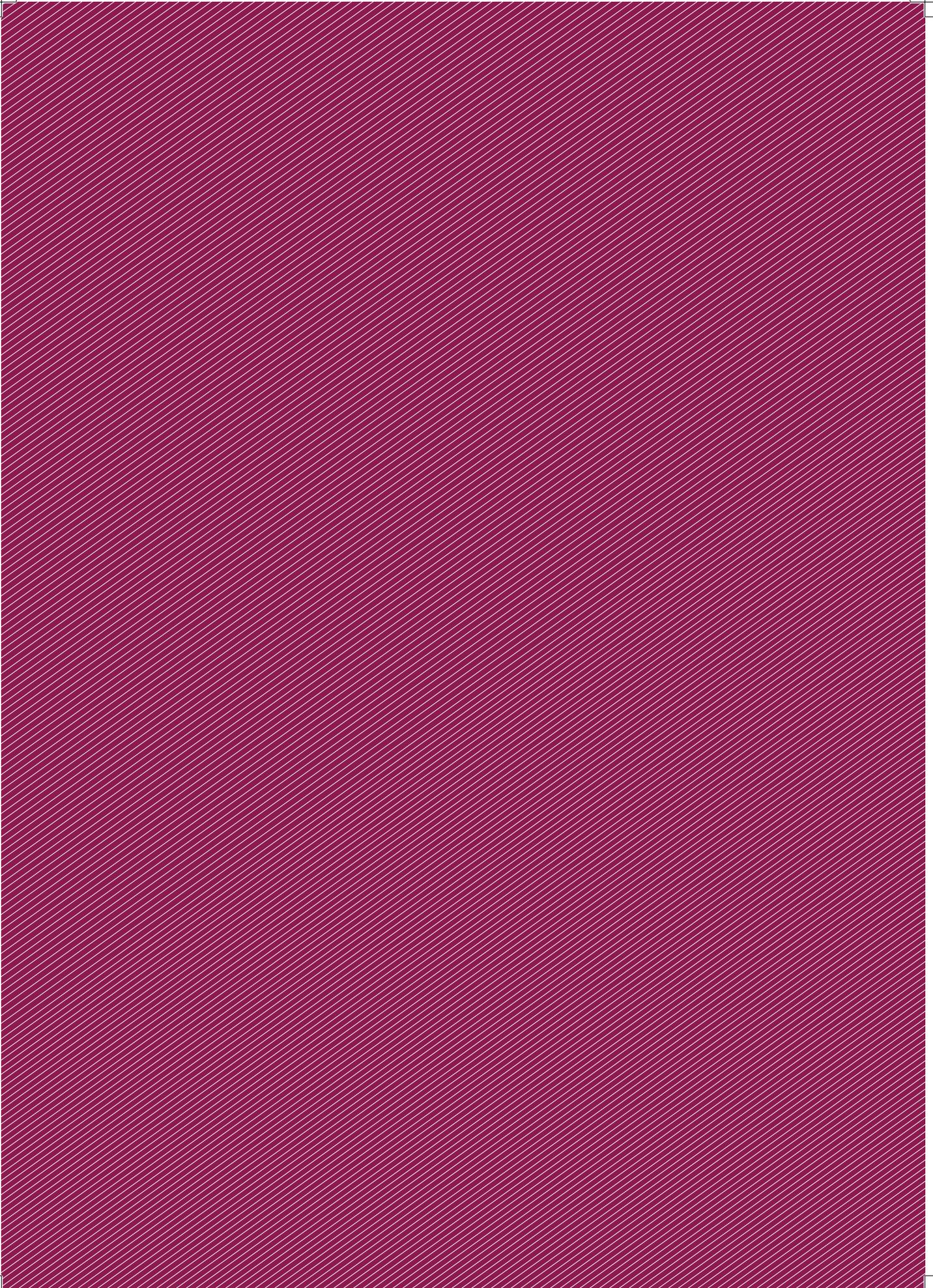
대동여지도(18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전도(18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신증동국여지승람, 1969, 민족문화추진회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지명총람, 1985, 한글학회



2부

시흥시의 근·현대 역사적 전개 양상과 현황

김준기(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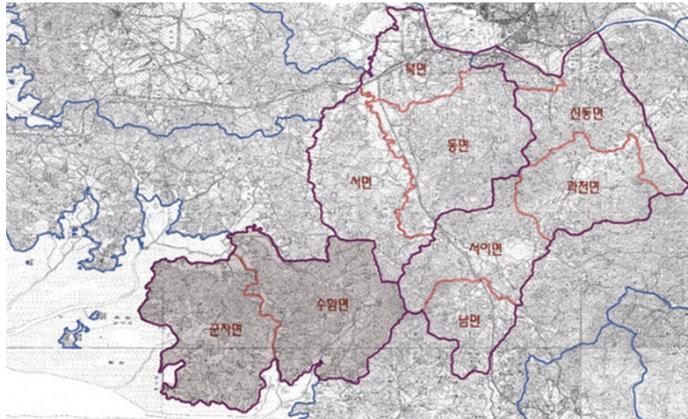
1. 서언

1) 시흥시 근·현대사 고찰의 의의와 목적

경기도의 중서부 지역은 근·현대의 역사적 변동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부천, 광명, 성남, 의왕, 안양, 군포 등 전통사회에서는 없던 행정구역이 탄생되기도 했고, 시흥, 과천, 안산 등도 전통사회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심지나 범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시흥의 경우에는 전통사회의 시흥과 공통분모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시흥시를 구성하는 지역은 조선시대 인천부와 안산군에 속했던 지역이고,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는 금천구와 영등포구, 광명시가 조선시대 시흥현(금천현)에 속했던 지역인 것이다. 그러니 흔히들 ‘시흥에는 시흥이 없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시흥시의 입장에서 이 말이 결코 달가울 리 없지만은 근거 없는 공연한 말은 아니다. 실제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흥하면 금천구 시흥동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시흥까지 가주세요.”하면 십중팔구는 금천구 시흥동에 내려준다는 경험담은 단지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쩌면 시흥시가 지자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오해는 지속적으로 존속할지 모른다.

시흥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발단은 물론 1914년에 있었던 행정구역 통폐합이다. 이때 조선시대 시흥현을 중심으로 과천, 안산이 통합되며 시흥군이라는 광역행정구역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흥시라는 정체불명의 행정구역이 탄생하는 원인을 모두 이 발단이 되는 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후 시흥군이 해체되고 그 일부 지역이 시흥시로 승격되는 것은 1989년의 일이니 시흥시의 형성과정에는 해방 이후 수도권이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재편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해야 한다. 이 와중에 시흥시는 전통적인 시흥현과 전혀 무관한 지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접하여 먼저 개발된 광명, 안양, 과천, 군포 등이 분리되어

결국 인천, 부천을 거쳐 시흥으로 이관된 북부 지역과 안산 지역이었던 남부 지역이 통합되며 시가 되는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시흥군 지역(시흥시사). 이중 수암면과 군자면이 현재의 흥시 남부 지역이고 이때 시흥시의 북부지역이 되는 소래면은 부천군에 속해 있었다.

현재의 시흥시가 출범한 지도 이제 30여 년이 지

났지만 이러한 이질적인 지역의 느슨한 통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해결이 안 된 듯하고, 이와 더불어 시흥시를 확실히 부각할 수 있는 지역적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라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의 시흥시를 성립시킨 근·현대적 사건들과 그에 따른 시흥 지역의 변모 양상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시흥이라는 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문제를 넘어서 시흥시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조망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시흥시 형성의 역사적 기점

시흥시에서는 2014년 '시흥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친 바 있다. 시흥시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시 형성의 역사적 기점이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때부터라는 것이다.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테지만 당시 이 행사를 두고 학계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가장 큰 불만을 지녔을 쪽은 조선시대 시흥현의 중심지였던 서울시 금천구일 터이다. 시흥시에서 사용하는 '시흥(始興)'이라는 명칭은 금천현을 조선 정조 이후에 시흥현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천구에는 시흥동이라는 지명으로 존속하며, 시흥관아터·시흥향교터 등의 기념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옛 시흥 읍치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시흥의 역사를 100년으로 축소시키는 듯한 이 행사가 달가웠을 리가 없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흥시 자체의 대내적인 불만이었다. 현재의 시흥시를 구성하는 지역은 1973년 부천군에서 시흥군 소래면으로 편입된 북부지역과 1914년 안산군에서 시흥군 군자면과 수암면으로 편입된 남부지역이다. 시흥시에서는 이 남부지역이 시흥이라는 지명을 획득한 시점이 1914년이므로 이를 시흥시의 출발 기점으로 삼은 것이지만 당시 소래면 지역은 시흥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시흥시의 출발 기점은 1973년이다. 현재의 시흥시를 구성하는 각 지역은 인천 혹은 부천으로서의 역사나 안산으로서의 역사 등 나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시흥 지역으로 통합되는 시점이 바로 1973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시흥 지역은 적지 않은 지역의 변화를 겪게 된다. 1981년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이 광명시로, 1986년에는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같은 해 과천지구출장소가 과천시로, 또한 1989년에는 군포읍과 의왕읍이 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논란의 여지없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현재 시흥시의 출발 기점은 1989년이다. 1989년이야말로 시흥 지역이 시로 승격이 되는 기점인 동시에 현재 시흥시의 영역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상기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글에서는 시흥시의 역사적 기점을 1989년 시흥시의 시 승격 시점으로 잡기로 한다. 그렇다고 시흥 지역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이 글에서 시 승격 이전의 상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시흥 북부와 남부 지역은 1973년 이전에는 소속 된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권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므로 이들 지역들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흥시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려고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시흥시의 남부 지역이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에 시흥군에 편입되며 얻은 것은 '시흥'이라는 허울 좋은 지명일 뿐이지, 전통적 시흥의 역사와 문화는 아니다. 또한 현재의 시흥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기 이전 중앙 정부에서 행정구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하며 형성된 시이다. 이렇게 설정된 시흥시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에도 별 검토와 고민없이 꾸러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흥 지역을 해체해서 문화권이 같거나 영향력이 큰 지자체에 편입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별로 실행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흥'이라는 지자체 명칭의 변경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질적인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실행은 시급하다고 본다.

시흥시의 연혁

고구려 : 475년(고구려 장수왕 63)

- 수암면, 군자면은 장항구현, 소래읍은 매소홀현

신라 : 757년(신라 경덕왕 16)

- 장항구현은 장구군, 매소홀현은 소성현

고려 : 940년(고려 태조 23)

- 안산현-> 안산군, 소성현은 경원군 -> 인주 -> 경원부

조선 : 안산군, 경원부는 인천군 -> 인천도호부 -> 인천부

1914년 : 시흥군+과천군+안산군 -> 시흥군으로 통합 확장

- 인천부의 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 -> 부천군 소래면

1963년 : 화성군 일왕면 9개 리가 시흥군에 편입

1973년 :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1980년 :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승격

1981년 :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어 분리

1986년 :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과천지구출장소가 과천시로 승격되어 분리

1989년 : 군포읍과 의왕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시흥군 소래읍과 군자면, 수암면이 합쳐져서 시흥시로 승격

1991년 : 중립, 연성의 2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동으로 승격

1995년 :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및 화정동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

1997년 : 시청 소재지를 신천동에서 장현동으로 옮김

2. 시 성립 이전 시흥 지역의 양상

1) 시흥시의 성립 이전 시흥군의 재편 양상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 경기도 중서부에는 시흥군이라는 광역행정구역이 만들어진다. 조선시대 시흥현(금천현)에 과천현과 안산현이 편입된 지역이었다. 이렇듯 거대한 지역을 포함하였던 시흥군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의 수도권 재편 과정을 거치며 대다수의 구성 지역들이 분할되어 독립해나간다.

시흥현에 속했던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와 경기도 광명시로 분리되었고, 과천현에 속했던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로 분리되었다. 다만 안산현에 속했던 지역 중 경기도 안산시로 분리되고 남은 지역이 1973년 시흥시가 성립될 당시에 시흥군에 속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흥현(금천현)	과천현	안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결국 오랜 기간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시흥군은 조선시대의 시흥현과는 무관한 지역이 되고 말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개발되고 인구가 급증하여 도시화되는 지역마다 단계적으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계적 분리 과정은 시흥군의 발전 동력뿐만 아니라 성장 의지까지 빼앗아갔다. 더욱이 이들

지역들 중에는 시흥군을 이끌어가던 군청소재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때마다 시흥군은 중심축을 잃고 휘청거리야 했다. 조선시대 시흥현의 읍치였던 시흥동은 서울시 금천구로, 일제강점기 시흥군청이 있었던 영등포동¹⁾은 서울시 영등포구가 되었다. 심지어 1963년 안양시가 분리되었을 때 안양동 역시 시흥군청의 소재지였다. 당시 시흥군은 알짜배기 땅들은 다 분리되어 나가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옛 안산군의 땅 군자면과 수암면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군청소재지로 마땅한 중심가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인지 1970년대 말까지 시흥군청은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안양동에는 안양시청과 시흥군청이 이웃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1973년 부천군이 소사읍을 중심으로 부천시로 승격되었을 때 부천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된다. 소래면은 조선시대까지 인천부에 속해 있다가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었던 지역이었다. 당시 마지막까지 시흥군으로 남아 있던 지역은 군자면과 수암면으로 조선시대 안산군에 속해 있다가 1914년에 시흥군에 편입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역사적 전개 양상이나 지역 문화 생활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경종 때 조성된 호조별과 일제강점기 조성된 소래염전을 공유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지역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이 같은 군으로 통합된 역사는 1973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때 형성되었던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으로 재편된 시흥군이 결국 1989년 시흥시로 승격이 되는 것이다. 이후 군자면과 수암면의 일부 지역이 안산시에 편입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흥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2) 시흥 북부 소래면 지역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시흥시 윤곽이 잡힌 시기는 1973년 소래면이 부천군에서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어쩌면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은 기울어져가던 시맥을 일으킬 수 있는 며느리가 시집을 온 격이었다. 군청 소재지였던 안양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을 당시 시흥군으로 남아 있던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현재의 남부 지역(군자면, 수암면)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소래

1) 1911년부터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기 전까지 영등포읍 영등포리에 시흥군청이 있었다.

면은 부천군 시절부터 상당히 잘 나가던 지역이었다. 소래면의 면소재지였던 신천리에는 뱀내장터라는 유명한 장이 섰고, 이에 부수되는 주막거리와 상점가가 밀집되었던 곳이다.

(1) 시흥군에 편입되기 전 소래면의 양상

소래면은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고개면(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러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부천군에 편입되며 소래면이 된 것이다. 소래면의 이름은 신고개면에 있는 소래산에서 유래되었고, 당시 소래면의 면사무소 소재지가 신고개면에 있던 신천리였던 것으로 보아 세 개의 면 중에는 신고개면이 가장 발달했던 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보아도 거의 산지로 이루어진 황등천면과 전반면에 비해 신고개면은 산지와 해안과 평야지대가 잘 조화를 이룬 곳이었다. 면의 북쪽인 대야동 지역은 소래산 동쪽 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방산동과 포동은 서해와 접해 있는 연안 지역이었으며, 미산동은 평야지대로 호조벌의 중심에 해당하는 농경지였다. 또한 신고개면은 조선시대부터 교통도 발달된 고장이었다. 조선시대의 길에는 육로와 더불어 수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육로의 경우 평택-수원-안산-인천-김포-개성을 연결하던 경기해연로라는 길이 이곳을 통과했으며, 수로의 경우는 해안에 접한 포구와 염전 지대인 포동과 방산동뿐만 아니라 그 상류까지 밀물 때는 배를 끌고 올라갈 수 있었다. 이에 육로와 수로의 접합 지점인 신고개면의 사천리(蛇川里)²⁾는 조선후기부터 고유어로 뱀내장이라고도 부르는 사천장이 서면 지역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1914년 통폐합)	현재
신고개면(신현면)	소래면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방산동, 미산동, 포동
황등천면		계수동, 과림동, 무지내동
전반면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2)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사천리와 신촌리가 병합되며 신천리가 되었고, 현재의 신천동으로 이어진다.

○ 경기 서부를 대표하던 뱀내장

사천장은 고유어로 뱀내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장을 흐르는 하천이 뱀처럼 꼬불꼬불 흘러내린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매월 1일과 6일에 개장하는 오일장으로 장터는 신천리를 중심으로 대야리 경계까지 펼쳐졌다. 현재 신천연합병원 가는 길에 있는 교회 근처가 장터의 중심지였는데 우시장 터는 소래농협 앞 동쪽이고, 일반 시장은 이곳에서 소래약국 앞까지 이어졌다 한다.

뱀내장은 조선후기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시장이다. 조선 후기 서해안 지역의 장시(場市)는 해상 교통이 발달된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뱀내장은 이른 시기부터 큰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간척 사업으로 경기만 일대가 육지화되어 뱀내장터가 내륙에 입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현재 내륙인 해안선을 따라 밀물 때 선박을 이용해 갯골이나 소하천을 따라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뱀내장은 농산물·수산물·직물 등도 거래하였지만 축산물 거래가 대부분인 우시장의 성격이 강했다. 뱀내장은 19세기 인천·안산의 유일한 우시장이었었는데, 당시 경기 남부 일대의 큰 우시장인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과 연계된 장돌림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2·7일 안성장을 시작으로 3·8일 오산장, 4·9일 수원장을 거쳐 1·6일 뱀내장의 순서로 소가 유통된 것이다. 따라서 뱀내장의 우시장은 막장의 성격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는데, 수원장 → 뱀내장 → 소사장 → 황어장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서부의 대표적인 우시장권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뱀내장이 한창 잘 나갈 때는 200~300마리 정도의 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1920년대 뱀내장의 1년간 축류 매매고는 23만 6,108원으로 수원장 다음으로 많았다. 1970년대 중반 경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원장의 출장 두수는 500두, 뱀내장 200두, 황어장 130두, 안양장 120두, 소사장 80두라 하니³⁾ 뱀내장의 출장 두수는 1970년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뱀내장 주변으로는 소 20마리가 목을 수 있는 큰 규모의 마방이 네 군데 있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를 맡길 수 있었다. 또한 신일옥·해주옥·금천옥 등

3) 김성훈, 『한국 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 1977.

의 음식점이 있어 소를 매매하러 왕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곤 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온 주막거리의 전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뱀내장은 우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의 거래는 많지 않아 이 일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다른 장에서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뱀내장은 우시장이 폐장된 후 극도로 장세가 약화되었고, 1980년대 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폐장되지만 그래도 1980년대 폐장될 때까지 부천 상권과 연계하여 상업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도 큰 상가와 시장이 들어서서 신천동과 대야동 일대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소래면이 1980년 소래읍으로 승격하는데, 뱀내장이 이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2)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 과정

조선시대 인천부의 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이 1914년 부천군으로 편입되며 소래면이라는 하나의 면으로 통합이 된다. 하나의 면으로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황등천면과 전반면 지역은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 전통사회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의 계수동과 과림동, 무지내동이 속해 있던 황등천면 지역은 산지로 막혀 있어 면소재지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었고,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이 속해 있던 전반면 지역 역시 호조벌에 해당하는 논농사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와 달리 신현면 지역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면사무소가 위치한 신천동 일대였다. 물론 이곳이 뱀내장 때문에 조선후기에서부터 발전되었던 지역이기는 했지만 장터와 주막거리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확장된 면의 행정지역으로 나름의 근대 지역으로서의 개발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더욱이 신현면과 북쪽으로 이웃해 있던 소사읍⁴⁾이 부천군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소사읍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도 이곳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소사읍 사람들이 뱀내장을 많이 이용했고, 신천면 사람들도 소사역과 군청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했던 것이다. 이 길이 신천리 - 대야리 - 소사리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지금의 소사삼거리에서 신천육교삼거리로

4) 소사읍은 일제강점기 계남면 - 소사면 - 소사읍으로 발전하며 소사읍 심곡리는 부천군의 군청소재지가 된다.

이어지는 호현로(36번 국지도)가 이 길의 후신이다. 시흥시에서 가장 먼저 시가지를 형성하였다고 해서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속칭 ‘은신대’라고 하는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인데, 이 지역이 소래면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시기는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판단된다.

한편 신현면 지역의 남부인 방산동과 포동은 조선 후기 포구마을이기도 했지만, 염전을 짓기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⁵⁾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인 자염법으로 제염을 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이 일대의 해안 간석지에는 엄청난 규모의 소래염전이 조성 된다. 소래염전은 조선총독부에서 건설한 제4기 염전 중 하나로, 현재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방산동과 포동 외에도 그 맞은편인 월곶동과 장곡동도 포함되며 1935년부터 1937년에 걸쳐 준공되었다. 일제는 이곳에 대대적인 소래염전을 조성하고 생산한 소금을 수인선 철도를 통하여 인천항으로 옮긴 뒤, 조선 내에서는 수도권으로, 국외로는 일본과 만주로 운송하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도 민영화를 거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소래염전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금을 생산하였다. 1970년대에는 소래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국내 수요의 30%를 담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저렴한 중국산 천일염이 수입되고, 염부들의 인건비는 변하지 않은 가운데 소금값은 내려가는 바람에 염전 운영의 채산성이 떨어진 끝에 1996년 7월을 마지막으로 소래염전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소래염전이 1970년대까지 시흥의 경제적 발전에 공헌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시흥 북부인 소래면 지역은 부천군에 속해 있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1973년 경에 이르기까지 부천군의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하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1973년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나머지 부천군 지역은 모두 인천, 김포, 시흥 등지로 이관된다. 이때 소래면도 시흥군으로 이관되었다.

어찌 보면 소래면은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지금이라도 해체되어 인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지역 관계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흥시 전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5) 조간대가 광활하고 평탄하며, 갯벌의 토질은 점토와 모래로 절반씩 구성되어 있어 염전 바닥을 다지고 물을 증발시키기에 유리했다. 또한 조석의 차가 10.86 m로 매우 커서 수분을 증발시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며, 유입되는 하천도 소하천뿐이라 바닷물의 염도도 낮지 않았다.

당시 소래면이 시흥군에 포함된 것은 안양시가 시흥군에서 독립해나간 시기와 맞물린다. 1973년 시흥군의 군청소재지이자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던 안양읍이 안양시로 독립하며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바람에 시흥군에 남은 지역이라고는 수암면과 군자면밖에는 없었다. 이 두 면은 당시 개발된 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이었으므로 이 두 면만으로는 도저히 시흥군이 존속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안양시 대신 소래면에 의존하며 군을 유지시키는 방향을 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소래면은 부천시와 안양시의 탄생을 위한 희생양이었고, 시흥군 편입에는 나름의 역사, 문화적 타당성보다는 시흥군을 존속시키기 위한 임시방편과 같은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결코 이러한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음은 ‘부천시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당시의 회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전국의 행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상명하달식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물론 소사읍이나 안양읍이 시로 승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시흥군은 1973년 버려진 두 지역이 병합되며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된다. 소래면은 시흥군에 편입된 후 군의 중심이 되어 발전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소래면의 전 지역이 고르게 도시화 된 것은 아니다. 소래면의 면소재지는 신천리였고 인근의 대야리와 은행리를 묶어 ‘은신대’라고 부르는데, 이들 지역이 1도심 체계를 형성하며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승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공적은 지금도 이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서울 철거민의 이주와 시흥 은신대 지역의 산업화 과정

뱀내장이 쇠퇴하는 1970년대 말 소래면의 소재지인 신천리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다. 도시철거민들이 유입되어 그들에 의해 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연립 등이 건설되어 새로운 집단 공동체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천리가 당시 면소재지였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와 장터를 제외하고는 허허벌

판에 불과했다. 시흥군청이 안양시 안양동에 계속 유지되었던 이유도 군소재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에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빈민과 철거민들로 구성된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일구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여 새로운 산업화의 시대를 연 것은 소래면이 소래읍이 되고 신천리 일대가 군의 중심지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터이다.

그 출발점이 되는 복음자리는 1976~1977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과 문래동에 살다가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만든 마을이었다. 당시 철거를 당하면 20만 원씩 이주보상금을 받았다. 복음자리 마을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건설한 사람은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였고, 정일우 신부가 양평동과 문래동을 오가며 이주민을 모집했다.

아무튼 이 허허벌판의 땅에 이주민들은 대형천막을 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주택 건설은 이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여했는데, 미장이·목수·벽돌공 등 건설현장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단독주택 형태로 가로로 길게 지었는데 한 동에 3~4세대가 입주했다. 생활용수는 대형 물탱크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했고,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했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 뼈대를 세우고 지붕만 씌우면 바로 입주했다. 2차로는 연립주택의 형태가 건설되었다.

복음자리의 성공적 사례에 힘 입어 한독마을이 연이어 들어섰다. 한독마을은 공교롭게도 당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던 옛 시흥현의 읍치였던 시흥동⁶⁾의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한독마을은 은행동 찬우물 북쪽에 자리했는데, 독일 구호 단체인 미제레올재단의 후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리고자 한국의 ‘한’자와 구호 단체 소속 국가인 독일의 ‘독’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1978년 기공식을 갖고, 1979년 입주를 시작했다. 마을회관을 먼저 지은 후 천막생활을 하며 복음자리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되었는데, 한 가구는 8평으로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였다. 한독마을에는 164세대가 입주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까지 외부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은 시흥 북부 은신대 지역이 산업화시대로 접어드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복음자리 주택이 형성되었을 때는 신천리가 면소재지여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6) 시흥동은 이후 구로구를 거쳐 현재 금천구에 속하게 된다.

이주민들은 서울로 통근하거나 시흥에서 하루 일당을 받으며 노동과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당시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들의 시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원주민들은 이주민을 서울 변두리 판자촌에 살다가 철거되어 온 빈민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이주민의 청년들은 신천동, 은행동, 미산동에 사는 청년들과 시비가 더러 있기도 했다. 이는 서울놈과 촌놈의 경쟁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약간 존재하는 듯하다.

복음자리청년회의 결성과 협동조합의 설립은 시흥 북부지역의 산업화를 이끌어내는 데 무시 못 할 동인으로 작용한다. 복음자리청년회는 1977년에 발기인대회를 열고, 1978년경에 설립되었다. 이 모임은 봉사활동과 문화활동, 노래자랑대회와 체육대회, 단오제를 개최하며 당시 이주 청년들의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여기서 활동한 청년들이 장년으로 접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모임은 후에 소래장·청년회로 변경되어 유지된다.

신용협동조합은 1978년 5월 7일에 창립되었다.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마을이 자리잡았다고 해도 여기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옛날 빈곤층이 살던 방식 그대로 막걸리나 마시고 싸움질을 해대며 원망과 시비로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이에 서로 도우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합을 출발점으로 공동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주민들의 생계를 꾸릴 대책을 마련하면서 렉스 토끼 조합, 우(소)협동조합, 판넬조합, 보금자리 잼 공장을 만들어 조합원 형태로 시작하게 된다.

처음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될 때는 제정구 선생의 동생인 제정원 신부가 일일이 이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입금 받았고, 사무는 제정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재천 씨가 맡았다. 신용협동조합은 1982년 200여 명에서 1987년 1000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발전을 거듭했고, 후에 경기시흥신협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활동에 힘입어 시흥북부 지역에는 공장들이 들어서며 산업사회의 시대가 열린다. 1980년대 중반경이 되면 시흥은 방값 싸고 일자리가 있는 고장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철거민이 아니라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도시 빈민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목화마을이 설립되는

시기도 이와 맞물린다. 목화마을은 1985년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목화마을의 주택도 방 한 칸에 주방 겸 거실에 연탄보일러였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지만 신축건물에 방도 넓어 연줄이 있어야만 방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 이하였고, 월세 계약은 목화마을자치위원회를 통해 했다. 목화마을에는 105세대가 입주하였다.

시흥 북부 지역이 산업화되며 일어났던 현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운동과 노조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의 배후에는 복음자리청년회(소래장청년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들이 아지트로 사용했던 곳은 작은자리회관이었는데, 이곳은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의 종교자산이었고 실제로 신천성당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이에 경찰들도 함부로 투입될 수 없었고 외부인에게는 ‘빨갱이들의 모임 장소’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회관은 주로 청년과 노조원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었고, 노조원 교육, 토론회, 문화행사와 풍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광덕물산 등 인근 공장의 노조뿐만 아니라 군포 등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의 노조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고, 풍물패들은 적극적으로 동네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하였다. 이때를 기억하는 청년회원들은 한 마디로 ‘모두가 열심이었던 시절’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외에도 복음자리청년회(소래장청년회)는 시위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이 기억하는 시위중에는 수인산업도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사회를 위한 시위도 다수를 차지한다. 당시 산업도로 상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될 기미가 없었다. 이에 복음자리청년회에서는 피켓을 준비하고, 복음자리, 한독, 목화 주민들을 총동원해서 도로 검거 시위를 했다. 어찌 보면 이들 마을의 이주민들은 집회와 시위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다. 풍물패를 앞세운 이들이 삼거리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자 인근의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해산시키기에는 경찰력이 역부족이자 결국 군에서는 이들과 타협을 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다. 1991년 한국화약이 특혜로 받은 매립허가에서 얻게 될 부당한 이익을 시흥시민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도 제정구 선생을 위시한 소래장청년회가 주동이 된 단체였다.

또한 복음자리청년회가 주관했던 단오제는 마을잔치라기 보다 읍내 큰 잔치가 가깝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행사 상품으로 선물을 기증 받았는데, 선풍기, 장관, 촬

영권, 장릉, 가전제품들이었다. 하지만 후에 집회의 성격이 강해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운동단체, 노조 등이 대거 참여하는 통에 단오제 때가 되면 경찰들이 진을 치고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열심이었던 시절’은 제정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구심점의 상실과 개발의 논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복음자리마을에는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한독마을은 은계지구 택지 개발로 녹원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목화마을의 경우는 지금도 남아 있지만 언제까지 그 모습이 남아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한때 마을의 축제로까지 부상했던 복음단오제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중단된 지 오래인데, 폐지될 당시 시에서 대신 맡아 주기를 바라는 청원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맡으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소래면에 이상촌을 건설하려 했던 복음자리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었고, 소래면 더 나아가 시흥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

3) 시흥 남부의 군자면 지역

시흥의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안산군이 해체되면서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나뉘어져서 편입되는데, 이때 대월면과 마유면이 군자면으로, 초산면과 인화면이 수암면으로 병합되며 시흥군으로 이관되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1914년 통폐합)	현재
대월면	군자면	거모동
마유면		월곶동, 장곡동, 장현동, 군자동, 정왕동, 죽율동
초산면	수암면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논곡동,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인화면		능곡동, 화정동

(1) 포구와 염전 지대였던 군자면

군자면은 서해연안에 접해 있는 포구지역이기도 했지만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어 조선시대부터 염전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군자면의 서해 연안지역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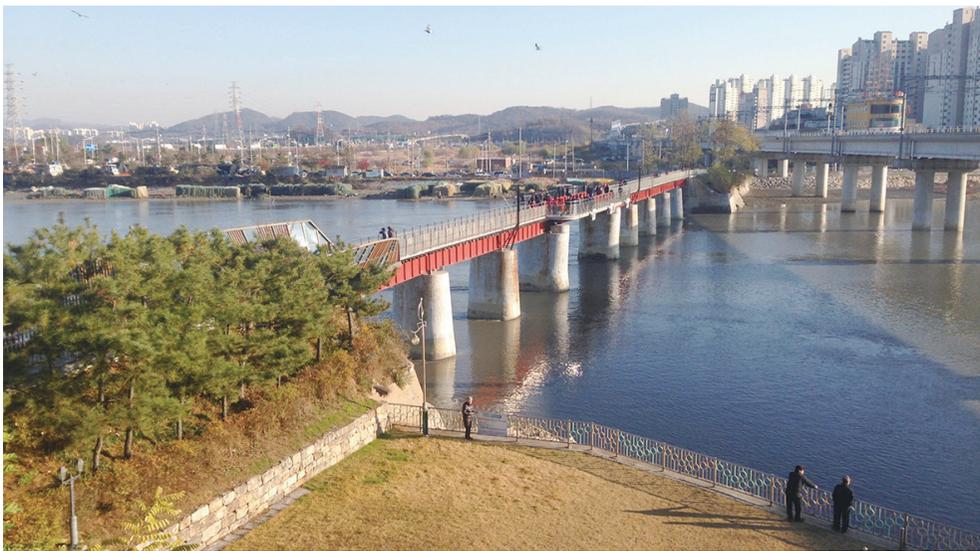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초기의 지도. 이 지도에는 일제강점기 군자염전이 건설되기 전 군자면의 지형이 잘 나타나 있다.

1917년(대정 6년)에 측도된 지도는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대대적인 간척사업과 군자염전이 개발되기 이전 조선후기의 이곳 지형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역은 군자면의 정왕리와 죽울리, 거모리 일대이다. 정왕리와 오이도를 잇는 대대적인 간척사업은 200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까지는 정왕리의 봉수산 일대부터 해안지역이었다. 그런데 정왕리 동남쪽에 위치한 죽울리는 아무리 보아도 원래 섬 지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죽울리에서 정왕리, 거모리 사이에 있는 전답지대는 아무래도 간석지였던 곳을 간척하여 형성된 지역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방증은 거모리에서 찾을 수 있다. 정조 때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현재의 거모동 금호가 거모포리라는 명칭으로 등장하

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이 마을이 포구였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대월면 조에는 거모포를 거무개로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는 하천의 퇴적물이 쌓여서 된 갯벌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모포는 본래 바닷가 마을로 검은 포구, 거모개는 검은 갯벌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거모가 넓은 들을 의미하는데 후에 들을 ‘뜰, 털’로 석차해 거모(巨毛)가 되었다거나 지형이 거머리처럼 생겨 ‘거머리 <거모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민간어원설에 불과하다. 현재의 죽울동도 『호구총수』에 죽울리로 표기되어 있어 당시에도 마을의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주며 이곳의 간척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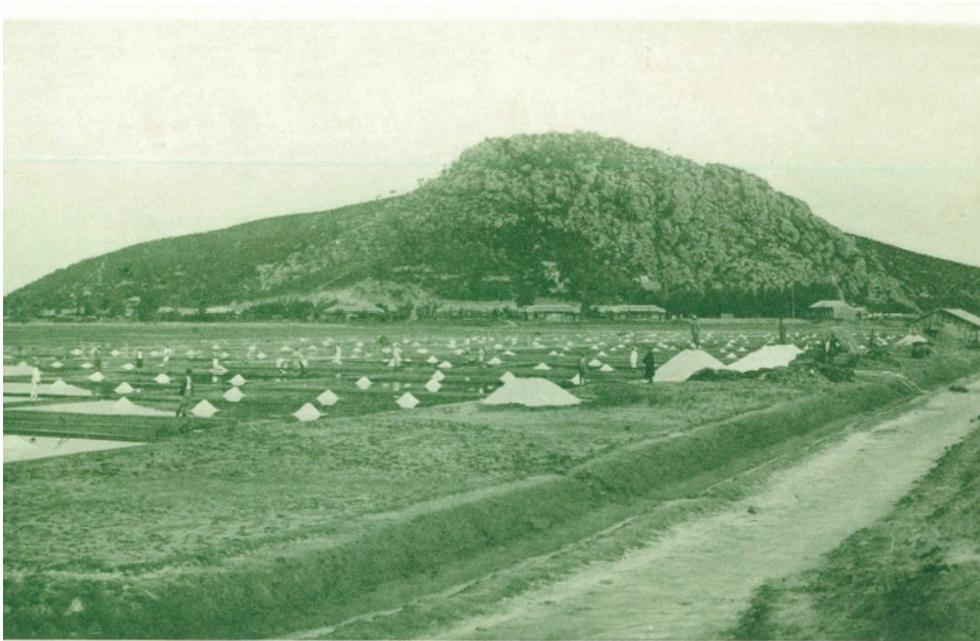
군자면의 서부와 북부에 해당하는 해안 지역은 염전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이 지역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바닷물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만입지 등 넓은 간척지가 발달하여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포함된다. 그러다 1925년에는 군자면 서부지역에 오이도와 육지 사이를 연결하는 군자염전이 조성되었고 1937년에는 군자면 북부인 현재 월곶동과 장곡동의 해안지역에 소래염전이 조성되었다.⁷⁾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은 인근에 위치한 1921년에 조성된 남동염전과 함께 경기만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염전 지대로 명성을 얻게 했다.



수인선 철도

7) 소래염전은 소래면, 군자면에 걸쳐 조성된 염전으로, 군자면 맞은편 북쪽인 현재 방산동과 포동의 해안 일대도 소래염전 지역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염전은 착취의 수단이었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산출된 소금을 일본과 국내 각지로 이동하고자 수인선(水仁線)이 부설되고 이곳 해안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간척사업을 통해 염전을 조성했지만 염부들의 생활은 열악했고, 그들이 생산한 소금은 전매품으로 반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주민의 생활 향상이나 이 고장의 번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듯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은 식민지 수탈이 점철된 아픈 과거이면서 동시에 이곳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역동적인 역사 현장이었다.



일제강점기 군자염전 중 옥구도 일대의 모습

광복 이후 1961년 12월 ‘염전매법’이 폐지됨으로써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기존의 염 전매권이 중지부를 찍음에 따라 1962년 1월부터 제염 사업은 완전히 민영화로 바뀌었게 되었고, 이후 군자염전은 최전성기로 들어섰다. 군자염전의 천일염 생산량은 남동염전, 소래염전과 함께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다 소래염전과 마찬가지로 군자염전은 값싼 중국산 천일염의 수입과 염부들의 인건비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진 끝에 1996년 폐쇄되고 만다.

군자염전은 1925년 조성 이후 1987년 폐쇄될 때까지 70년 이상 지속적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며 시흥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흥 지역 해안선의 경관을 대부분 바꿀 정도였고 주민들의 생업과 환경에 미친 영향 또한 대단하였다. 대규모 염전이 들어서면서 염부 노동자로 중국인과 전쟁 이후 정착한 평안도 출신 사람들이 속속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고, 군자염전은 염전 인근 주민들의 주 생업터이자 삶의 터전 그 자체였던 것이다. 또한 군자염전은 위상이 약화된 채로 1990년대 초까지는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며 시흥 지역의 시 승격과 발전에 상당 부분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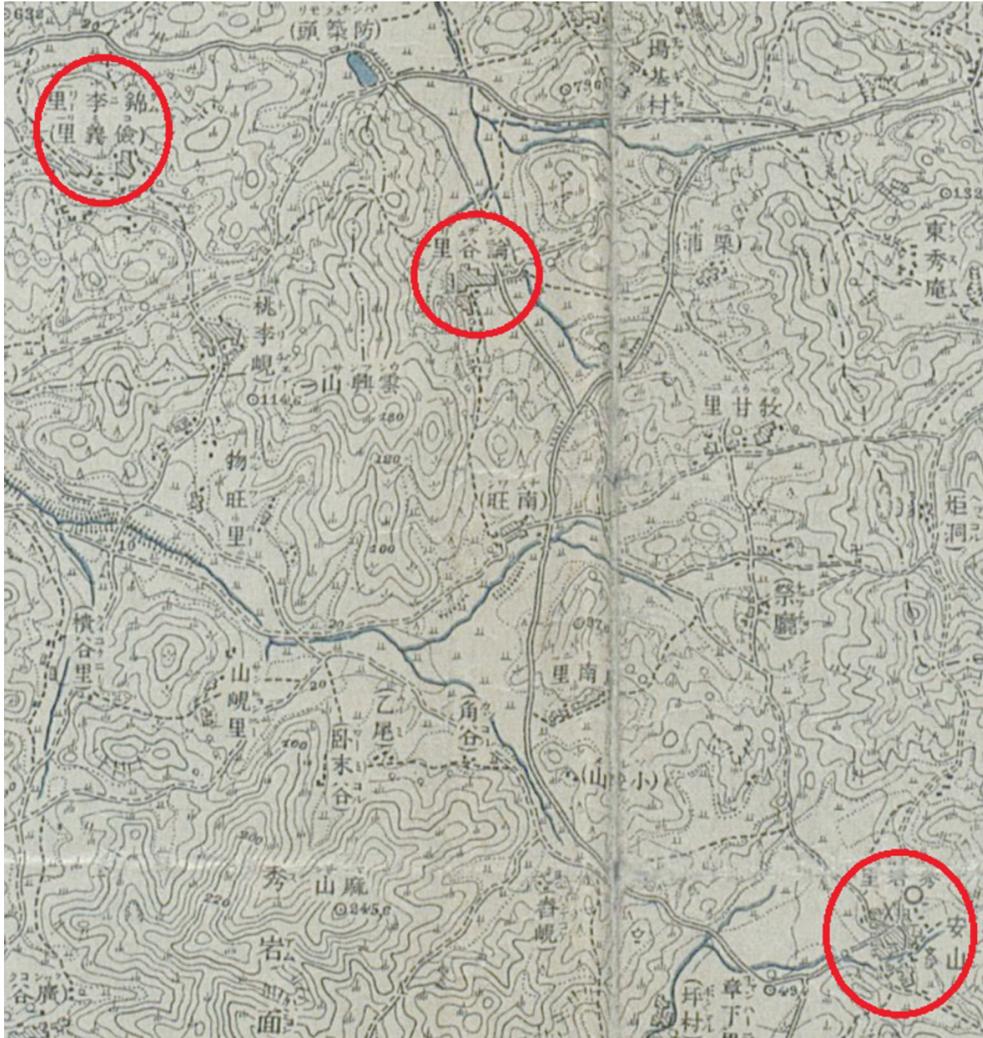
4) 시흥 남부의 수암면 지역

현재 시흥 남부의 수암면 지역은 조선시대 안산군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 1914년 안산군의 군내면, 인화면, 초산면이 합쳐지며 시흥군 수암면이 성립된 것이다. 이 중 인화면과 초산면 일부 지역과 군내면은 안산시가 성립될 때 안산시로 환원되었다. 현재 시흥시에 남아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안산군 초산면 : 광석동, 하상동, 하중동, 목감동, 논곡동,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 안산군 인화면 : 능곡동, 화정동

안산군에서 시흥군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된 지역이라 해도 수암면 지역은 군자면 지역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수암면은 해안지역이 아니라 내륙지역이었는데, 현재의 하중동과 하상동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초지면의 서부 일대는 호조별의 일부 지역으로 국가에서 조성한 농경지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농지보다는 산지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수암면은 안산에서 인천을 이어주는 옛길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길이 신경준의 『도로고』에 소개된 '경기해연로'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1917년 측도된 지도에 의하면 옛 안산의 읍치였던 수암리를 지난 도로는 논곡리를 관통하여 금이리로 이어진다.

현재의 논곡동은 조선시대 초산면 논곡리로 당시 인천부 전반면 금이리와 인접한 마을이었다. 논곡리 토박이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전 시흥에서 제일가는 곳 이어서 일논줄이라고 불리었고, 시흥의 관문이었으며, 일대의 논을 여기서 다스렸다’고 한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허언이 아님은 조선후기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 1917년에 측도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곡동은 논지곡 혹은 논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유래는 조선 중엽 연안 이씨 인 대신이 이곳에 살아 때때로 중신들이 마을에 와서 국사를 논의하여 논지곡이라

했다가 논곡리라 부르게 되었고, 중신들이 줄을 서서 논줄이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논줄 혹은 논곡은 논이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지만, 지체 높은 양반이 지주였던 마을이라는 것 역시 사실인 듯하다. 1917년 지도에 나타난 바로는 논곡리가 옛 안산의 읍치였던 수암리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다. 또한 지도에 표시된 도로는 옛 경기연해로의 후신일 터인데 이 길은 남양·수원에서 올라오는 길이 조선시대 안산의 읍치 수암리를 지나 논곡리 마을의 중심을 관통하여 금이리로 이어졌다. 따라서 논곡리는 예전 인천으로 향하는 안산의 관문이었고, 현재로는 안산으로 향하는 시흥의 관문이 된 것이다.

아무튼 논곡리-금이리를 통과한 이 도로는 은행리, 신천리를 거쳐 인천으로 이어지므로 옛 '경기해연로'의 후신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이 일대의 논을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도 허투루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논곡동 서쪽으로 차례로 이어지는 물왕동, 광석동, 하상동, 하중동은 호조벌의 남동부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 일대의 대표적 곡창지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이 곡창지대를 논곡동에 사는 대신 등 대지주들이 경영했는지는 몰라도 이후 이곳에서 산출되는 곡식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동시에 도농복합도시 시흥시의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5) 시흥시 성립 직전의 시흥 지역 양상



시 승격 직전의 시흥군 위치도(1988년 8월 8일 경향신문)

1914년 일제에 의해 광역행정구역이 되었던 시흥군은 1936년 영등포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변화를 맞기 시작하다가 광복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수도권 지역이 재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역 축소가 이루어진다. 1963년 일부 땅덩어리를 서울시에 넘겨주면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광명, 과천, 안양, 안산 등지가 분할된다. 정작 본체는 군으로 남아 있고 지체는 시가 되어 독립해 나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흥군에 있었던 관공서들이 독립되어 분리된 지역에 계속 잔존함으로써 시흥군민들은 거주 지역별로 뿔뿔이 나뉘어져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지에 있는 관할 행정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당시 시흥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1988년 8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잘 보도되어 있다.

민원에 따라 관할 지역이 다른 경기도 시흥 군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시흥군은 현재 군포 의왕 소래 군자 수암 등 5개읍 면에 인구가 23만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화 치안 세무 소방 등 각종 민원처리관할 관청들이 각기 다른 인접도시에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민원처리 관할청을 찾아다니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⁸⁾

※ 시흥군 읍·면 관할 행정관서(1988년 현재)

행정관서	지역별 관할
전화국	군포·의왕 = 안양시 소래 = 부천시 수암·군자 = 안산시
경찰서	군포·의왕 = 안양시 소래·수암·군자 = 광명시
세무서	군포·의왕 = 안양시 소래·수암·군자 = 광명시
소방서	군포·의왕 = 안양시 소래·수암·군자 = 부천시
농협	군포·의왕·소래·수암·군자 = 안양시
교육청	군포·의왕·소래·수암·군자 = 안산시

기사에서 언급한 1988년 현재 읍·면 관할 행정관서는 위의 표와 같다. 전화국

8) 경향신문 1988.8.8. 기사 “郡(군) 민원 인근 5개 市(시)서 담당·始興(시흥) 내용따라 처리지역 달라 “民怨(민원)”

의 경우에는 군내의 전화를 담당하는 전화국이 각각 달라 의왕읍에서 소래읍으로 통화를 하려면 시외전화요금을 무는 부담까지 안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시흥군민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안겨 주었던 일은 시흥군청이 안양시 안양동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흥군에 속해 있던 시절 안양 지역은 시흥군의 대표적인 중심지였고 1947년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청이 안양면으로 이전된 이후 계속 군소재지의 역할을 해왔다. 1963년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어 나간 이후에도 안양시 안양동에 시흥군청이 남아있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시흥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데도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안양시와 인접해 있던 군포읍과 의왕읍은 시흥군에 내는 세금을 안양시의 금융기관에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세금이 안양시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환불을 받아야 했고, 시흥군에서는 납부기간을 어긴 것이 되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담배의 지방세 수입이 40~60%를 차지하던 시절이어서 1980년대 말에는 “담배 내 고장서 사자”라는 캠페인이 시·군마다 펼쳐졌었는데, 안양시내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시흥군청 직원들은 담배를 살 때마다 안양시를 벗어나 시흥군내 담배판매점까지 가서 담배를 사다 피우곤 하였다.⁹⁾

결국 시흥군청의 안양시 더부살이 신세는 시흥이 시로 승격하여 시청 청사를 대야동의 소래읍사무소로 옮길 때까지 계속된다. 후자는 1980년대 초에 시흥군청이 안양시 안양동에서 소래읍 신천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 자료, 시흥군의 통계연감을 통해 확인하건대 1988년까지 시흥군청은 안양시에 있었다.

시흥군의 고충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시흥군의 주변지역들이 아예 시흥군을 해체하여 자신의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자주했다는 사실이다.

거기다 최근엔 시흥군 5개 읍·면을 놓고 인접 인천, 부천, 안양, 안산 등 4개 시가 편입을 해가려고 눈독을 들여 시흥군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민원담당관할 관청이 산산조각나 자존심이 손상된 터에 행정구역개편도 되기 전에 이웃 사촌들

9) 경향신문 1988. 2. 11. 기사, “애연(愛煙)은 애향(愛鄉) 담배 내고장서 사자”

이 땅넓히기 운동으로 로비활동까지 벌이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¹⁰⁾

이 기사에서 말하는 로비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시흥군민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한다든가 하는 활동이 펼쳐진 것은 사실이다.

1987년에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시세의 확장을 위해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소래읍의 인천시 편입을 내무부 등 중앙관청에 건의한 바 있었고, 부천시 또한 소래읍이 원래 부천군 소래면에서 시흥군으로 편입된 지역이라는 연고권을 내세워 부천시로 끌어가려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안양상공회의소는 인접 지역이자 같은 문화권에 있는 군포와 의왕읍을 안양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끊임 없이 펼쳤다.

일부 군민들이야 그들의 말에 솔깃하여 동조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인근 시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끈하며 편입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편입반대운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시흥군으로 남아 있던 지역들의 이해타산을 따지며 의견이 갈라진 것이 문제였다. 당시 남아 있던 시흥군 지역은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인구밀도가 $1km^2$ 당 1천1백2.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자립도 역시 87%로 부자군으로 떠올랐다. 시흥군의 총인구 역시 1987년 11월 1일 현재 22만 6천8백88명으로 1986년에 비해 18.4%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규모는 읍·면별 인구수로 미루어 보면 시흥군을 이루는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인구는 군포읍이 7만9백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왕읍으로 7만3천5백61명이었으며, 소래읍은 5만1천9백91명이었다. 반면 수암면은 1만7천1백84명이었고, 군자면은 1만3천1백85명에 불과했다.

당시 시승격의 기준이 5만 명 이상의 군·읍 단위였기 때문에 군포읍과 의왕읍, 소래읍은 자체로서 시로 승격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암면과 군자면은 두 면을 합친다고 해도 시 승격에는 턱없이 모자라므로 3읍 중에 한 곳에는 편입되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위치상 동떨어져 있는 군포읍과 의왕읍에 병합되는 것은 힘들었고, 인접해 있는 소래읍이 병합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10) 경향신문 1988. 8. 8. 위의 기사

군포는 지난 82년 4만1천여명에 불과하던 군포읍의 인구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8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불과 6년 사이에 인구가 두배로 늘어난셈. 농사짓는 인구는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가 비농가인구이다. 시흥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구의 70% 이상이 서울 등지에서 이주해온 외부인이라고 밝힌다. 전체주택 9천 1백여가구 가운데 54.3%인 4천8백여가구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형태로 되어있다.¹¹⁾

시흥군의 시 승격 논란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군포읍이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군포읍은 1988년 거의 수도권 도시로 성장해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당시는 군포에 제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었고, 1990년에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군포읍과 인접해 있는 의왕읍의 경우는 당시 고려합섬, 한국 야쿠르트 등의 대규모 기업이 들어서며 수도권 공업 지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었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었다.

이에 군포읍과 의왕읍민들은 안양시 편입을 반대하며 두 읍을 통합하여 시흥시로 승격시키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갔다.

한편 대한노인회 시흥군지부(지부장 서병익 76) 회원 20명은 지난달 26일 안양시 편입을 절대반대 군포와 의왕읍 통합 「시흥시」로 승격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노인회원들은 이어 지난 5일 군포읍민회관에서 3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승격추진읍민결의대회를 연 뒤 군포읍새마을금고회관에서 시흥시승격추진위원회 현판식도 가졌다.¹²⁾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내 제일이었던 雄郡(웅군)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흥이라는 이름을 지켜야한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던 이 지역의 군민들이 결국 시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각각 군포시, 의왕시로 시 승격이 되며 독립해 나갔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 지역은 조선시대 과천과 광주에 소속된 지역이었

11) 매일경제 1988. 11. 28. 기사 “시 승격 후보지를 가다(3) 군포(시흥군)”

12) 경향신문 1988. 8. 8. 앞의 기사

으므로 시흥이라는 이름에 집착할 만한 지역은 아니었으니, 지역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안양처럼 언제인가는 떨어져 나갈 지역이었다.

소래읍민들도 인천시나 부천시로 편입되느니보다 독자적인 ‘소래시’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 속에 소래시 승격 추진운동을 조용히 벌이고 있었다.

소래읍민 한영복씨⁽⁴⁸⁾는 “처음 인천과 부천 쪽에서 편입건의가 있을 때는 일부 시민들이 솔깃, 그쪽으로 기우는 듯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요즘 와선 독자적인 소래시로 승격하지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으며 이곳 토박이임을 내세우는 김한섭씨^(47 상엽)도 “소래읍이 시로 승격하는 것은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면서 “시 승격 때 같은 시흥군인 군자 수암도 소래시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소래읍이 시흥군에 편입된 것은 1973년의 일이니 소래읍의 입장에서는 시흥이라는 군의 이름에 애착감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자신의 지역을 시흥군으로 팔아버린 부천군이 소사읍을 중심으로 부천시로 승격되었으므로, 소래읍이 중심이 되어 시가 되고 싶어 하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강하게 작용했고 단독적으로 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고, 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군자면과 수암면은 당시 각각 바닷가와 농촌지역에 불과했으므로 전략적으로 갈 데 없는 이들 지역을 수용함으로써 시 승격을 앞당길 생각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에서 인용한 소래읍 주민의 예견대로 소래읍은 군자면과 수암면을 포함하여 시흥시로 승격된다.

1989년에는 시흥군 지역에서 3개의 시가 탄생되는데, 군포시와 의왕시가 시 승격을 선수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머지 시흥군 지역인 소래읍과 군자면, 수암면을 묶어 시흥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소래시를 염두에 두었던 소래읍의 입장에서는 시의 명칭을 양보한 셈이 된다.

그런데 어찌보면 바로 이 시 승격의 시점이야말로 시흥시가 아닌 소래읍민들이 주장하던 소래시가 되었다면 허울 좋은 ‘시흥’이라는 지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시흥시를 구성하는 어떤 지역도 전통적인 시흥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흥은 단순히 일제의 잔재에 불과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시흥이라는 지자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 이제 소래

시라는 이름은 지자체명에서 고려되는 이름은 아닐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 승격 당시와 달리 군자면과 수암면에 속해 있던 남부 지역의 위상이 소래읍에 속해 있던 북부 지역보다 높아져 있는 탓에 소래라는 명칭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3. 시흥시의 성립 후 역사적 전개 양상

1) 행정구역과 행정체계의 개편 과정

(1) 법정동과 행정동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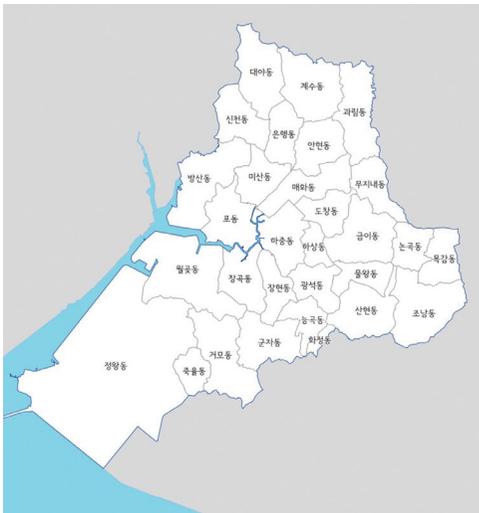
시흥 지역 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그 영향은 시흥시의 승격 이후에도 남아 있어서 도시의 생활권을 현재도 시흥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옛 소래읍 지역인 시흥시 북부는 인천 및 부천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반면, 옛 수암면과 군자면 지역인 시흥시 남부는 안산의 영향권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큰 분류일 뿐이고 좀 더 세부적인 생활권은 안산, 부천, 인천, 광명, 안양 등으로 쪼개져 있다. 일례로, 목감동은 안양 편입 운동이 거셴던 지역이며, 목감지구 입주 이후 시흥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입주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광명이나 안양으로의 편입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과림동은 서울 개봉전화국에서 관할하였던 곳이고 원래 한 동네였던 옥길동은 광명과 부천으로 분할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시흥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며, 차라리 시흥시를 찢어서 인천, 안산, 광명, 부천 등지에 분할 편입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1989년 시로 승격된 후 시흥시는 읍면제를 폐지하고 동제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흥시의 행정체계는 구체(區制)로 시 승격 이전의 읍·면 단위를 반영하여 소래구, 군자구, 수암구가 적합해보인다는 측면에서 조금 의외로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시흥시가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모든 지역을 공평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흥시는 다음과 같이 30개의 법정동과 18개의 행정동으로 운용되고 있다.

옛 지역	행정동	법정동
소래읍	과림동	과림동, 무지내동
	대야동	대야동, 계수동
	매화동	매화동, 금이동, 도창동
	신천동	신천동
	신현동	미산동, 방산동, 포동
	은행동	은행동, 안현동
수암면	능곡동	능곡동, 화정동, 군자동 일부(옛 군자면)
	목감동	목감동, 논곡동,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연성동	광석동, 하상동, 하중동, 장현동(옛 군자면)
군자면	군자동	군자동, 거모동
	월곶동	월곶동
	장곡동	장곡동
	정왕본동	정왕동, 죽울동
	정왕1동	정왕동
	정왕2동	정왕동
	정왕3동	정왕동
	정왕4동	정왕동
배곧동	정왕동	

우선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동네라는 의미이고, 공문서 등 법률적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이다. 현재의 법정동 체계가 성립된 것이 비록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하지만, 법정동은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던 마을지명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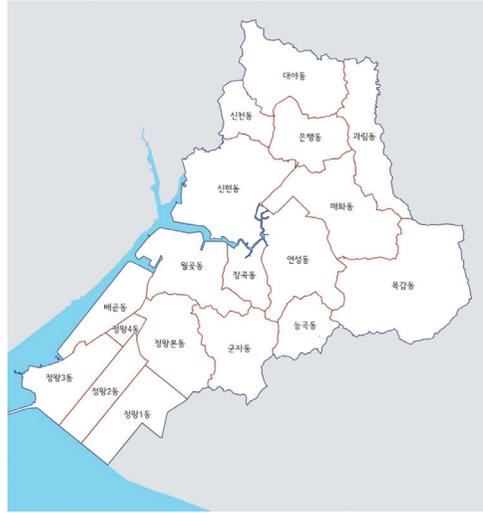


시흥시의 법정동

시흥시의 경우도 조선시대 안산군에 해당했던 군자면과 수암면은 대부분의 법정동이 정조 때 간행되었으리라 추정되는 『호구총수』에 기록된 마을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인천부에 해당했던 소래면은 『호구총수』에는 포동에 해당하는 포촌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일리, 이리 식의 순번을 붙인 마을명
이므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구한말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지
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현재와 직
결되는 마을의 명칭이 나타난다.

따라서 시흥시의 법정동명은
적어도 조선후기로부터 이어온 전
통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
로 그 마을의 역사적 뿌리를 상징
하는 명칭이고 주민들에게 나름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갖게 하는 문화
소인 것이다.



시흥시의 행정동

행정동은 법정동과는 별개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설
정한 구역이다. 한 행정동당 동사무소(주민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여기서 민원업무와
주민관리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므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되고 폐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이 별로 없는 법정동의 경우 여러 법정동들이 묶여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지만, 주민이 많은 법정동의 경우는 반대로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
정동으로 나뉠수 있는 것이다. 시흥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되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동이 성립될 당시 법정동들의 인구수나 개발 정도를 시사
해주는 지표이므로 주목할 만하다.

○ 법정동이 묶여 하나의 행정동이 된 경우

- 과림동+무지내동 → 과림동
- 대야동+계수동 → 대야동
- 매화동+금이동+도창동 → 매화동

- 미산동+방산동+포동 → 신현동
- 은행동+안현동 → 은행동
- 과림동+무지내동 → 과림동
- 대야동+계수동 → 대야동
- 매화동+금이동+도창동 → 매화동
- 미산동+방산동+포동 → 신현동
- 은행동+안현동 → 은행동
- 능곡동+화정동+군자동 일부 → 능곡동
- 목감동+논곡동+물왕동+산현동+조남동 → 목감동
- 광석동+하상동+하중동+장현동 → 연성동
- 군자동+거모동 → 군자동
- 정왕동+죽울동 → 정왕본동

이 경우에 속하는 법정동들은 주민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법정동들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물론 같은 행정동으로 묶었다고 해서 법정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사는 동네는 당연히 자신의 주소지인 법정동이며 행정동의 이름은 민원업무를 볼 때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옛 수암면 지역은 전체의 법정동이, 옛 소래읍 지역은 신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동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이 지역들이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으며 그간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것과 상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개의 법정동은 두세 개가 묶여 행정동을 이루는데, 행정동 연성동과 목감동의 경우는 네 개와 다섯 개의 법정동이 묶여져 있다. 최근 이 일대는 연성·장현지구, 목감지구로 설정되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는 이 지역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가장 변화가 심할 지역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심지어 능곡동의 경우는 연성동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년

능곡택지지구개발로 인해 연성동에서 능곡동으로 분리된 것이다.

○ 법정동이 나뉘어 여러 행정동이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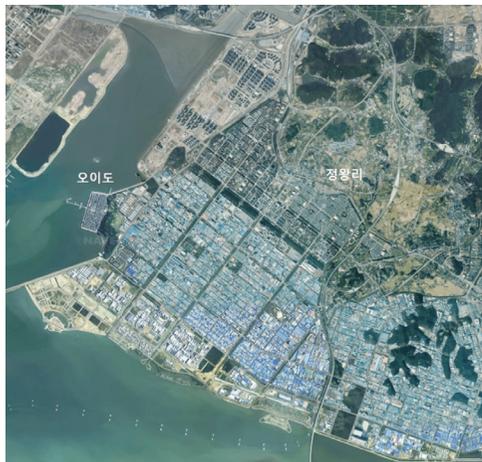
- 정왕동의 간척 지대 - > 정왕1동~정왕4동, 배곧동

법정동이 나뉘어 여러 행정동이 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법정동이 묶여 하나의 행정동이 된 경우와 정반대의 사례로 도시의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극심한 변화가 야기되어 불가피하게 분동(分洞)을 한 것이다. 시흥시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왕동의 간척지대가 유일하다.

정왕동은 서해연안에 접해 있던 작은 어촌마을이었고, 옥구도와 오이도는 정왕동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섬이었다. 따라서 이 일대는 썰물 때는 드러났다가 밀물 때는 잠기는 갯벌지역이 펼쳐져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군자염전이 조성되었다가 1980대 염전이 폐쇄되며 그 이후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애초 대규모의 간척으로 이루어진 곳이니 절대농지로 묶여있을 리도 없고, 개발제한이 있을 리도 없었다. 이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이곳으로 대규모의 공단들이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시흥일대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탈바꿈된다. 시화지구개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정왕동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19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왕본동과 1,2,3,4동으로 분동을 거듭하게 되었다.



1907년 오이도와 정왕리 일대



현재의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

○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 신천동, 월곶동, 장곡동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어 인구가 확보된 후 발전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신천동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월곶동과 장곡동은 이와는 달리 최근 개발이 진행되어 독립된 동사무소가 필요할 만큼 인구가 급증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행정동에서 분리된 경우이다. 2014년 장곡동은 연성동에서, 월곶동은 군자동에서 분리되었다.

(2) 시흥시의 마을들

가. 소래읍 지역

시흥시의 옛 소래읍 지역은 시흥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인천부의 신현면(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에 속했던 곳으로 1914년 부천군 소래면이 되었다가 1973년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80년에는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시흥시가 출범한 뒤 읍·면제가 폐지되고 동제가 시행되며 동명만 유지되고 있다.

○ 행정동 대야동 : 대야동, 계수동

- 대야동

시흥시의 가장 북쪽에 있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소래산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는 의미로 '댓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 대야동이었던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대야리, 1980년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대야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아랫대야리, 웃대야리, 방아다리, 여우고개, 쟁골, 하우고개 등이 있다.

도농복합 지역이기는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 기능이 조금 더 강하고, 옛 소래면 지역의 중심지인 신천리와 접해 있어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시흥대야동

우체국, ABC 행복 학습 타운, 시흥 보건소, 대야 종합 사회 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 기관이 위치해 있다.



시흥시와 부천시를 이어주는 하우고개(2013. 시흥시 향토자료실)

- 계수동

시흥시 북쪽에 있는 범정동으로 행정동인 대야동에서 관할한다. 부천시와 경계로 부천시에도 계수동이 존재한다. 계수동이란 동명은 이 지역의 자연 마을이었던 '계일'의 '계'와 '수노골'의 '수' 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조선시대 인천부 황등천면 5, 6, 7리였고, 1914년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계수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계수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웃계일(부천시 계수동), 아랫계일(시흥시 계수동), 수노골, 구미, 건지정(건지불), 고갱이 등이 있다.

계수동은 현재 시흥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곳의 많은 토박이들이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다.

○ 행정동 신천동 : 신천동

- 신천동

시흥시 북서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이다.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신고개면)의 신촌리, 사천리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두 리가 병합되며 신촌리의 '신' 자와 사천리의 '사' 자를 따서 '신천리'라고 하였다. 신촌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사천은 고유어로 뱀내라고 하는 뱀처럼 꾸불거리는 하천 옆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얻은 이름이다.

1973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1980년 소래읍 신천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신천동이 되었다. 신천동은 조선후기부터 뱀내장이 섰던 곳으로 소래읍의 읍소재지이기도 했으므로 시흥시가 성립될 당시에는 주거, 상업, 행정,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신천동의 자연마을로는 새말(신촌)과 뱀내(사천) 외에도 새마을 사업이 전개되던 시절 처음으로 집단 취락 단지로 조성된 명진마을, 하연 선생 묘와 관련한 전설이 깃든 계란마을, 6.25전쟁 때 피란민이 정착한 현장마을(신흥동), 복숭아밭과 포도밭이 있던 도원동(벌터),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문화동, 인천광역시와 경계를 이루는 용해부리마을 등이 있다.



뱀내장터로. 뱀내장이 섰던 곳이다. 『시흥땅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60쪽.

○ 행정동 은행동 : 은행동, 안현동

- 은행동

시흥시 동북부에 있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으로 안현동까지 관할한다. 동명은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던 커다란 은행나무가 안산 기슭에 있어서 마을을 ‘은행리’라 불렀던 데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 삼리였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은행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1980년 소래읍 은행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은행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은행정, 한정(찬우물), 검암(금바위), 상기동(우터골)이 있었다. 그러나 우터골과 금바위에 1990년대 후반 은행단지 조성되면서 마을의 옛모습이 사라지고 아파트단지와 검바위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찬우물 북쪽에는 한독마을이 있었으나 녹원아파트로 재개발되었고, 찬우물마을 주변도 빌라촌이 형성되었다. 은행정마을 역시 현재 은계 택지 지구 개발로 마을의 흔적이 사라졌고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은행동 일대는 구릉성 산지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학생들의 소풍 지역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은행택지지구개발로 대야동과 경계를 이루던 생매산이 사라지고 비둘기공원이 들어섰으며 시민들에게 각종 체육 시설, 공연장,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안현동(鞍峴洞)

경기도 시흥시 북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은행동에서 관할한다. 안현동이라는 동명은 자연마을이었던 길마재를 한자어로 바꾸어 붙인 것으로 마을에 있는 고개가 소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해 올리는 길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길마고개[鞍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하지만 정작 길마고개는 1976년 42번국도(수인산업도로)를 포장할 때 사라져 버렸다.

조선시대 인천부 전반면 1리와 2리였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안현리, 1980년 소래읍 안현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안현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양지동(양지밭), 송내동(솔안밭, 길마재), 가대동(가대밭), 장락동(장락골) 등이 있다. 대체로 낮은 야산과 언덕이 있는 구릉지대에 마을이 들어서 있고 그 앞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해의 바닷물이 안현동까지 들어왔는

데 밀물 때에 올라오는 배들이 길마재마을의 360년 된 팽나무를 등대 삼았고, 이 나무에 배를 묶어 두기도 하였다 한다. 이 팽나무는 현재 시흥시 보호수(경기-시흥-9)로 지정되어 있다.



안현동의 팽나무. 『시흥땅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134쪽.

○ 행정동 신현동 : 방산동, 미산동, 포동

- 방산동

시흥시 중서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신현동에서 관할한다. 방산동의 동명은 방곡리의 '방' 자와 산정리의 '산' 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방곡리는 밤골이라 하여 '밤송이를 닮은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산정리는 산우물이라 하여 '대동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라 한다.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 방곡리, 산정리였다가 1914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1973 시흥군 소래면 방산리, 1980년 소래읍 방산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방산동

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방곡(방골), 산정(산우물) 외에 고잔, 다지동(다지골), 죽원(다니), 사음리(말음어) 등이 있다.

개발이 덜 되어 아파트 단지나 상업 시설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으며 공장은 많이 들어서 있는 편이지만 농촌 마을에 더 가깝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기도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염전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전통 마을의 성격은 아직 살아있어서 방골에서는 홀수해 음력 10월 초 도당제를 지내고, 산우물에서는 다지골 주민과 함께 매년 음력 정월 14일 당제를 지낸다.

- 미산동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신현동에서 관할한다. 미산동이라는 동명은 마을 앞으로 펼쳐져 있는 호조벌에서 쌀이 많이 나오므로 이곳을 ‘미산(米山)’ 또는 ‘살미’로 불리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의 창동, 고기동, 이리(二里)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미산리, 1980년 시흥군 소래읍 미산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미산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간땀, 구시미, 양우재, 고기동, 월촌, 창동 등이 있다. 구시미는 조선시대에는 ‘사동’, 일제강점기 때는 ‘구곡’이라 부르기도 한 마을인데 현재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인가가 없다. 고기동은 미산동의 자연 마을 중 가장 오래된 마을이므로 ‘옛터골’이라고도 부른다. 창동은 조선시대에 곡식을 저장하는 큰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창동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은 ‘월촌’이라 불렀다. 미산동은 드넓은 호조벌 가운데 솟아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농촌마을의 특성이 강한데, 현재 창동, 월촌, 고기동에는 공장과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다.



미산동 앞에 펼쳐진 호조벌. 『시흥땅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86쪽.

- 포동(浦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신현동에서 관할한다. 포동은 바닷가에 연해 있는 마을로 전통사회 어업의 전진기지인 포구(浦口)가 있던 바닷가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포촌이었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포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포리, 1980년 소래읍 포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포동이 되었다. 포동은 정조 때 제작된 『호구총수』에 포촌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지도에도 포촌리, 포리포 등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서가 깊은 어촌마을이었다. 포동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였다고 한다. 1936년에는 호수가 150여 호에 인구는 700~800명 정도의 큰 마을로 대부분의 주민은 어민이었다. 어업이 번창했을 때에는 연평도까지 조업을 나갔으며 어획물은 조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포리, 방산리 일대에 소래염전이 조성되면서 점차 염전일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1960년대 이후로 어업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고, 1980년 초 염전 쇠퇴로 원주민들이 타도시로 이주하거나 직업을 변경하였다. 현재 포동운동장이 염전자리였고, 해방 이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운영하였는데, 포동게이트볼장이 대한염업사무실 자리였다 한다.¹³⁾

포동의 자연 마을로는 걸뚝과 신촌, 새우개 등이 있다. 현재 포동 일대에는 임대형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현동 주민센터가 자리한 걸뚝은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변화한 마을로 변해 있다.

○ 행정동 과림동 : 과림동, 무지내동

- 과림동(果林洞)

시흥시 동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으로 무지내동을 관할한다. 과림동은 옛 지명인 목과(木果)의 ‘과’자와 중림(重林)의 ‘림’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므로 과일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인천부 황등천면의 1, 2, 3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천군

13) 『시흥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 6, 26-27쪽.

소래면 과림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과림리, 1980년 소래읍 과림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과림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두곡(두무저리, 두무절이), 목과동(모가울), 불아위(부라위, 각암), 중림, 탄평(숯두루지) 등이 있다. 대부분의 마을은 봉재산에 기대어 남향으로 모여 있는데, 주변으로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공장들도 다수 들어서 있다.

- 무지내동(茂芝內洞)

시흥시 북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과림동에서 관할한다. 무지내동은 ‘못지내’라는 옛 지명에서 비롯되어 무지리라고 불리다가 1989년 시 승격과 함께 무지동으로 개칭되었으나 어감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1995년 시 조례에 의해 무지내동으로 개칭하였다. ‘못지내’의 유래는 못[池]과 내[川]가 없는 마을이라 하여 ‘무지내(無池川)’라 칭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한자를 잘못 파악하여 생긴 민간어원설이고 수풀이 무성한 마을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현재도 무지내동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인천부 전반면 칠리에 해당하던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무지리, 1980년 소래읍 무지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무지동이 되었다가 1995년 무지내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지내동의 자연마을에는 능안말, 신흥동, 은행동, 중동 등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들 마을들 간의 거리가 총 ‘칠리(七里)’였다 하여 칠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감조개, 토란이마을도 있는데 감조개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 조개를 캐던 곳이었다 한다.

○ 행정동 매화동 :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 매화동

시흥시 북동쪽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으로 법정동인 도창동과 금이동을 관할한다. 매화동은 매자기, 매차기, 매체기, 매착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땅

의 형세가 매화꽃이 벌어지거나 떨어지는 형국이므로 ‘매화’라 하였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다른 설로는 매화동 앞으로 펼쳐진 들판인 호조벌의 간척 사업이 있기 전에 썰물이 지나가는 자리가 매화꽃이 떨어진 듯한 무늬를 남겨서 ‘매화’라 했다고도 하고, 배가 드나들던 시절 어부들이 등대 대신 마을 호롱불빛으로 거리를 가늠했는데 이 불빛이 매화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화골이라 했다고도 한다.

매화동은 조선시대 인천부 전반면 이리인 매착리와 울동이었다가 1914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매화리, 1980년 소래읍 매화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매화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새터말(신기촌), 매채기(매착리), 섬말, 이선이, 바티골 등이 있다. 매화동은 호조벌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농촌마을이었지만 서능아파트가 들어서며 도농복합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 금이동(錦李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매화동에서 관할한다. 금이동이라는 동명은 거멸[검월리]에 있는 금월산의 ‘금’ 자와 도리재의 ‘리[이]’ 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밭이나 논, 임야가 주를 이루며 예전부터 안산에서 인천을 이어주는 길이 지나가던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 인천부 전반면 사리, 오리, 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금이리, 1980년 소래읍 금이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금이동이 되었다.

금이동의 자연마을로는 진촌(진밭), 거멸(검의리, 검월리), 도리재(도현동), 방죽마을 등이 있다. 거멸이라는 지명은 마을이 위치한 금월산에서 나온 것으로 ‘금월산>검월산>거멸산’으로 음이 변한 것으로 추정되며 덕수 이씨와 온양 방씨의 세거지였다. 도리재라는 이름은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많은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죽마을은 1939년에 저수지(칠리제저수지, 방죽말저수지)가 생기자 논곡동과 거멸 등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 도창동(道倉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매화동에서 관할한다. 도창동은 자연마을인 도두리(道頭里)의 ‘도’ 자와 강창리(江倉里)의 ‘창’ 자를 한 글자씩 따서 붙인 지

명이다. 한편 ‘도두리’는 길이 마을 위로 지난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고, ‘강창리’는 마을에 창고가 있던 곳이란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다.

도창동은 인천부 전반면 삼리에 속해 있다가 1914년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 1973년 시흥군 소래면 도창리, 1980년 소래읍 도창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도창동이 되었다.

도창동의 자연마을로는 도두리와 강창리, 점말 등이 있다. 강창리에 있었다던 창고는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에서 내린 짐을 쌓아두었던 창고라는 이야기도 있고,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수로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창동은 에이스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마을을 벗어나면 드넓은 농지가 펼쳐져서 도농복합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을 동남쪽에는 1941년에 조성된 대규모의 저수지가 있어 넓은 농지의 관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저수지는 도창동뿐만 아니라 매화동과 금이동에 걸쳐 있어 마을마다 도창저수지, 매화저수지, 금이저수지라고 불린다.



도창동 강창리(강쟁이)의 2013년 모습. 시흥시 향토사료실.

나. 군자면 지역

시흥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군자면 지역은 조선시대 안산군 마유면과 대월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안산군이 시흥군에 병합될 때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 지역이 시흥군 군자면이 되는 것이다. 이후 안산시가 성립될 때 와리면 지역은 안산으로 모두 환원된다.

○ 행정동 군자동 : 군자동, 거모동

- 군자동(君子洞)

시흥시의 서남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으로 법정동인 거모동을 관할한다. 마을 인근에 군자산이 있어 군자리로 칭하다가 군자동으로 된 것이다. 군자산의 명칭에 대해서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안산군 와리면 목내리(현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 하여 군자산이라고 했다는 유래담이 전해온다. 군자산은 조선 후기에 군자봉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 안산군 마유면 구정리(구지정리, 구지물), 산북리(산뒤)였으며 1914년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군자동이 된다.

군자동의 자연마을로는 구지물(구지정리, 구지물), 산뒤마을(산북리), 새털말, 양지편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구지물은 조선 초 가뭄이 계속되자 이 마을주민들이 황고개 아래에 9개의 우물을 판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산뒤마을은 마을이 군자산 뒤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현재 마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군자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개발이 덜 된 농촌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 거모동(去毛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군자동에서 관할한다. 거모동은 본래 바닷가에 있던 마을로 거모포, 거무개라고도 불린 것으로 보아 검은 갯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설에 의하면 마을이 넓은 들이었는데, ‘들’이 ‘털’로 변하였다가 ‘털’로 되어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지형이 거머리처럼 생겨 거머리 또는 거모리라 했다는 설도 있다.

조선시대 안산군 대월면의 석곡리와 거모포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거모동이 되었다. 지금은 거모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 군자동이지만, 처음 행정동제가 시행되었을 때는 반대로 거모동이 행정동이어서 법정동 월곶동, 거모동, 군자동을 관할했었다. 그 이유는 안산시에도 군자동이 있어서 동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거모동을 행정동으로 택했다가 1995년 안산시의 군자동이 원곡본동으로 이름을 바꿈에 따라 지금과 같이 군자동이 행정동이 되어 거모동을 관할하게 된 것이다.

거모동의 자연마을에는 거모포(거부개), 도일(석곡리), 망고개, 배우물 등이 있다. 거모동은 오래 전에는 어업이 성하였던 곳이나, 점차 농경지로 변모하였고,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며 경관이 많이 바뀐 지역이다. 도일은 조선시대부터 서해안의 교통의 요충지로 석곡역이 있었던 곳이어서 석곡리라고도 하는데, 시흥시의 대표적 전통 시장인 도일시장을 비롯하여 군자초등학교, 군자농협 등이 자리 잡은 마을로 한동안 군자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 행정동 월곶동 : 월곶동

- 월곶동(月串洞)

시흥시 서남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이다. 월곶동은 마을의 형세가 육지에 서 바다로 내민 모습이 마치 반달 같아서 얻은 이름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수군(水軍) 만호(萬戶)가 설치될 만큼 군사상 중요한 곳이어서 월곶진(月串鎭)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조 때의 『호구총수』에 월곶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1911년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안산군 마유면 월동리, 월서리로 되



월곶포구

어 두 마을로 분리가 되었던 듯하다. 1914년에는 시흥군에 편입되어 군자면 월곶리로 환원되었고 1989년 시흥시 월곶동이 되었다.

월곶동의 자연마을은 분향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이로 작은 하천이 흐르며 농경지와 염전이 펼쳐져 있었는데, 바다였던 지역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매립하여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월곶포구 등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월곶포구는 어물시장과 횃집, 각종 위락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었지만 처음 생겼을 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인선 전철이 월곶을 지나므로 교통이 편리해져 수도권 관광객이 즐겨 찾는 포구가 되었다.

○ 행정동 정왕본동, 정왕1,2,3,4,동, 배곧동 : 정왕동, 죽율동

- 정왕동(正往洞)

시흥시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는 법정동이다. 정왕동은 정왕산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의 안산군 산천조(山川條)에는 “정왕산이 안산군 읍치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봉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정왕산이라는 이름이 봉수대를 관리하는 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고 해서 관리의 조건인 ‘바를 정(正)’ 자를 따서 산 이름을 정왕산이라 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오이도 포구

정왕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마유면 정왕리(봉화재)와 오이도(옥귀섬)였는데, 1914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정왕동이 되었다.

정왕동은 시흥시에서 가장 변화가 극심한 지역이다. 자연마을로 봉현(봉우재),

높은우물, 함줄, 삼한, 사랑, 뒷방울이 있었고, 6.25 때의 피난 동네인 피양촌도 있었다고 하나 1987년 시화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 후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정왕산도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가 봉수터의 흔적도 찾기 어렵고 정왕동에서 오이도까지 조성되었던 군자염전지대도 사라져 버렸다. 이 군자염전지대를 뒤덮으며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정왕동은 면적이 32.92km²에 이르는 엄청난 지역이 되었고, 시화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시화공단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도 급증하여 결국 정왕동은 정왕본동, 정왕1,2,3,4,동, 배곧동 등 6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죽울동(竹栗洞)

시흥시 서남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정왕본동에서 관할한다. 죽울동은 예전에 대나무와 밤나무가 무성하였다 하여 ‘죽울리’라 불렀다고 하지만, 죽울리의 고유 명칭으로 ‘대암이’라는 기록도 있으므로 죽울은 ‘대암이’라는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차자(借字)일 가능성이 높다. ‘대암이’는 마을 서쪽 숫통피산에 있던 큰 바위를 ‘대암(大巖)’이라 일컫었는데, 그 후 민가가 들어서면서 마을 이름을 바위 이름을 따서 대암이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바위는 1922년 군자염전 조성 당시에 제방 축조 공사에 사용되어 지금은 볼 수가 없다.

죽울동은 안산군 마유면 죽울리(대암이)였다가 1914년 시흥군 군자면 죽울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죽울동이 되었다.

죽울동의 자연마을로는 대암(한배미), 새말, 정촌(대장간마을), 큰말 등이 있었다. 아파트 대단지와 임대형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모습이 변하였지만 외곽으로는 농경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동쪽으로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 행정동 장곡동 : 장곡동

- 장곡동(長谷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이다. 장곡동이라는 동명은 자연마을인 장하리(長下里)에서 ‘장’을 응곡리(鷹谷里)에서 ‘곡’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정조 때의 『호구총수』에는 안산군 마유면 장종리와 응곡리, 1911년 「조선지리지

료』에는 안산군 마유면 장하리(진말우), 응곡리(매뜰)로 기록된 마을이다. 1914년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장곡동이 되었다. 『호구총수』에 기록된 장중리는 현재 장현동에 속하는 장상리와 장곡동에 속하는 장하리를 합친 곳으로 추정된다.

장곡동의 자연마을로는 장하리(진말우), 도촌리(섬뜰), 응곡리(매뜰)가 있었으나 1990년대 연성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 행정동 연성동 : 장현동

※ 연성동은 실재 존재했던 동명이 아니라 하중동, 하상동, 장현동, 광석동을 통합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어진 행정동명일 뿐이다. 하지만 연성이라는 용어는 옛 안산군의 별칭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행정동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장현동(長峴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연성동에서 관할한다. 장현동의 동명은 자연마을인 장상리(長上里)의 ‘장’과 조현리(鳥峴里)의 ‘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조선시대 안산군 마유면 조현리와 장상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장현동이 되었다.

장현동의 자연마을로는 군자봉 뒷쪽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뒤일이라 불렀던 안두일과 조현리라고도 하는 새재가 있다. 새재는 예전에 마을에 새가 많아서 얻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마을 고개의 지세가 새의 형국이므로 새재가 됐다고도 한다.

새재마을에는 연성지구개발로 대동아파트와 청구아파트가 들어섰고, 1997년에는 시흥시청이 신천동에서 이전해 온 데 이어 연성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각종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시흥시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장현택지개발로 안두일마을에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는 등 현재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다. 수암면 지역

수암면 지역은 시흥시의 남동부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안산군의 군내면, 인화면, 초산면을 합쳐 일제는 1914년 시흥군 수암면에 편입시킨다. 이후 안산시가

복원되며 군내면은 안산시로 환원되었다.

○ 행정동 연성동 :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 광석동(廣石洞)

시흥시 중남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연성동에서 관할한다. 광석동이라는 명칭은 마을 앞에 넓은 들판이 있으므로 '넓은들'이라 하였다고도하고 마을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넓은돌'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마을 어른들은 나분들이라고 발음한다.

광석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광석리와 하하리(하직곶하리, 두터골)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광석동이 되었다.

광석동의 자연마을로는 나분들과 둔터골이 있다. 둔터골은 조선시대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높은 둔덕에 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전란 때 군인들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현재 나분들에는 공장들이 다수 들어와 있고, 1970년대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마을 내에 공판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구멍가게조차 없을 정도로 주민수가 적었던 둔터골은 현재 장현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마을이 사라진 상태이다.

- 하상동(下上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연성동에서 관할한다. 『호구총수』에는 하중동, 하상동 일대를 하직곶리(下職串里)와 중직곶리(中職串里)로 적고 있다. 이렇듯 지명에 직곶(職串)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어 상직·중직·하직으로 나뉘고, 하직은 또다시 상·중·하로 갈라진다. 이러한 지명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지역을 구분하기 위함일 터인데,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상동은 안산군 초산면 하상리(하직곶)와 중직리(중직곶, 요골)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하상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하상동이 되었다.

하상동의 자연마을로는 하지골과 요골이 있다. 하지골은 조선시대 학자인 강희맹이 1463년(세조 9)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 전당(錢塘)에서 연꽃 씨를 가져와 이 마을에다 심었다고 하여 연꽃 '하(荷)' 자와 못 '지(池)' 자를 따서 '하지골'이라 하



하중동의 성마루마을

였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시대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뽕죽하게 내민 땅인 데다가 강희맹의 묘를 쓴 곳이라 하여 직곶이라 했는데 후대에 하직으로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조선시대 안산군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 조수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하짓굴, 하지동이라 하였다는 설도 전한다. 요골은 물왕동 얼미인 상직과 하지골인 하직 사이에 있어서 중직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마을의 산이 용의 허리에

해당하여 요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요골은 연성택지지구개발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다.

- 하중동(下中洞)

시흥시 중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연성동에서 관할한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하직곶중리, 베실고지)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하중동이 되었다.

하중동의 자연마을에는 돌장재, 베실구지, 샌말, 샛터말, 성마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돌장재는 광복 직후 실향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고, 성마루는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남쪽에 진을 쳤는데, 마치 성을 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베실구지마을은 서해에 연한 마을로 지세가 바다 쪽으로 뽕죽하게 내민 곳이어서 관곡(官谷)이라고 부르다가 벼슬골, 베실구지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 서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남북으로 길쭉하게 자리한 매봉이 있다. 또한 마을에 수령이 1천 년 이상된 향나무가 있어 시흥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에서 당고사를 지내고 있다.

○ 행정동 능곡동 : 능곡동, 화정동

- 능곡동(陵谷洞)

시흥시의 중남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으로 화정동도 관할한다. 능곡동이란 동명은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묘를 이 마을에 쓰러다가 지금의 안산시 목내동 능안에 예장하였는데, 그 후부터 능터를 잡았던 곳이라 하여 ‘능골’이라 부르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능터가 있었던 능골마을에는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柳自新)의 묘 및 신도비가 들어섰다.

정조 때의 『호구총수』에는 안산군 잉화면 잉화곡리와 북곡리였고,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는 안산군 인화면 능곡, 북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에 시흥군에 편입되어 수암면 능곡리가 되었으며, 1989년 시흥시 능곡동이 되었다. 행정동 연성동에서 관할하던 동이었지만, 2010년 행정동으로 승격하였다.

능곡동의 자연마을로는 능골, 북곡(뒤일, 두일), 삼거리, 목실 등이 있다. 이중 목실은 능곡동의 자연 마을 중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인데, 과목(果木)이 많아 ‘목실’이라 불렀다 하며 경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였다. 뒤일은 군자봉 북쪽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일’이라 불렀다. 본래 장현동 뒤일과 같은 마을이어서 장현동 뒤일을 ‘안뒤일’이라 부르고, 능곡동 뒤일을 ‘밖뒤일’이라 불렀다. 안뒤일과 밖뒤일 사이에는 뒷일재고개가 있었고, 이 고개를 통해 두 마을을 오고 갔다. 2002년 ‘시흥 능곡지구’로 택지 개발되어 현재의 능곡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 화정동(花井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능곡동에서 관할한다. 동명은 화정(花井)이라는 한자의 뜻대로 ‘꽃우물’에서 유래하였다. 이곳 토박이 어른들은 ‘고주물’이라 발음하는데, 1911년경 간행된 『조선지지자료』에도 한자로는 ‘화정리(花井里)’, 언문으로는 ‘꽃쥬물’이라 적혀 있으므로 옛날부터 이러한 발음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화정동의 이름을 유래시킨 꽃우물. 우물이 있는 곳은 현재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시흥땅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422쪽

조선시대 안산군 인화면 화정리와 광곡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1989년 시흥시 화정동이 되었다.

화정동은 본래 고주물마을, 광곡마을, 가래울마을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주물마을에는 동명을 유래시킨 꽃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시흥시 지명 유래』에는 “우물이 풍수로 보아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으로 오랜 옛날 이곳에서 매화꽃이 피었다 하여 꽃우물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우물 앞에는 1993년 마을 주민들이 세운 꽃우물 유래비도 있는데, 우물 아래쪽에 살던 선녀들이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떠먹었다는 전설도 적혀 있다. 하지만 1995년에 고주물과 광곡마을이 안산시로 편입하고 가래울마을만 시흥에 남게 되어 안산 화정동과 시흥 화정동으로 나뉘게 된다. 가래울마을에는 현재 개인 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다.

○ 행정동 목감동 : 논곡동, 목암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 목감동(牧甘洞)

시흥시의 중동부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으로 물왕동·산현동·조남동·논곡동까지 관할한다. 목감동의 명칭은 조선 중엽 이곳에 있었다는 목암사(牧巖寺)라는 사찰에서 유래되었다. 사찰 경내에 단감나무가 유명하였는데, 사찰 인근에 인가가 들어서면서 마을 이름을 목암사의 ‘목’ 자와 단감나무의 ‘감’ 자를 따서 ‘목감리’라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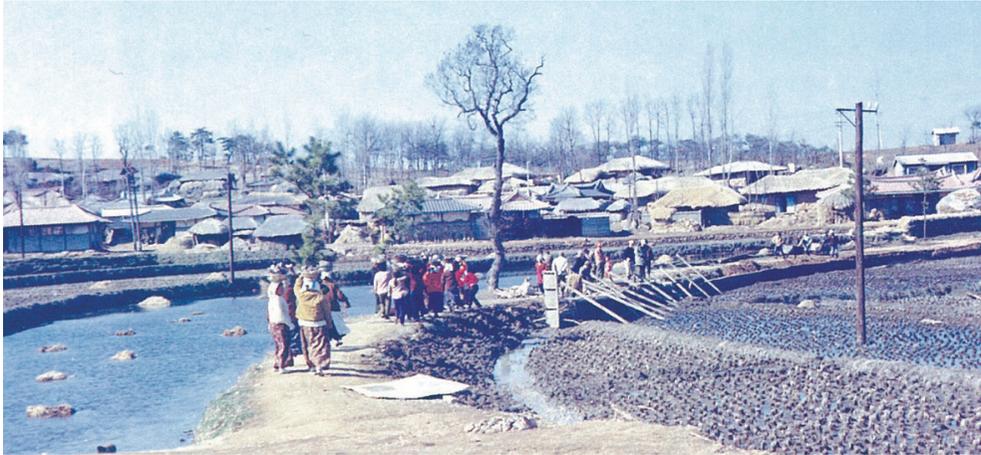
목감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목감리, 율포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목감동이 되었다.

목감동의 자연마을에는 고저지, 더푼물, 목감, 사거리, 율포 등이 있다. 목감마을은 원목감이라고 부르며 감나무골 축제도 열리지만 현재 감나무는 별로 없다. 고저지는 마을의 지세가 높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율포는 이곳 주민들이 밤깎, 뽕깎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밤나무와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일대는 목감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

- 논곡동(論谷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목감동에서 관할한다. 논곡동은 논지곡리(論知谷里)라고 기록된 문헌도 있는데, 토박이들은 흔히 논줄이라고 부른다. 논줄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잘나가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조선 중엽 연안 이씨(延安李氏)의 어느 대신이 이곳에 살았는데 국사를 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서 줄을 썼기에 논줄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논곡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논곡동이 되었다.



논곡동 논줄마을의 1972년 모습. 『시흥의 역사와 행정』

논곡동의 자연마을로는 논곡마을, 논줄(건너말, 윗말, 아랫말), 방죽말, 가능골 등이 있다. 토박이들은 논곡동이 예전 시흥의 관문이었고 시흥에서 제일 가는 곳이어서 이 일대의 논을 여기서 다스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논곡마을에는 대략 24개의 성씨가 거주했다고 하고, 논줄은 건너말 뒤에 있는 당집에서 균용제를 지내고, 큰 우물에서 우물제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마을이 규모가 큰 논곡동의 중심이었다고 보인다. 방죽말은 저수지 주변에 마을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고 가능골은 가늘고 긴 골짜기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현재 논곡동에는 아파트도 들어서 있지만 몇 동에 불과하고 연립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다.

- 물왕동(物旺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범정동으로 행정동인 목감동에서 관할한다. 물왕동은 만물이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물항동리(勿項洞里)’라 표기되기도 하므로 물이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일 것이다.

물왕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물왕리(물항동리)와 상직리(상직곶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물왕동이 되었다.

물왕동의 자연마을에는 능골, 물왕골, 안말, 얼미, 장자골 등이 있다. 물이 많은

고장답게 이들 마을은 물왕저수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저수지 상류 쪽으로 안말, 능골, 장자골 등이 위치해 있고, 저수지 바로 아래에는 얼미가 있는 것이다. 얼미는 조선시대 상직리라고 부르던 곳인데, 이곳 뒷산에 높은 관직을 역임한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물왕저수지는 1940~1945년에 조성된 저수지인데, 준공 당시에는 시흥과 부천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흥의 ‘흥(興)’자와 부천의 ‘부(富)’를 합해서 흥부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소래면이 시흥에 편입한 이후로는 물왕저수지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저수지는 원래 주변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되었지만 현재는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낚시터로 변모하였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전용 낚시터로 사용한 것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재 물왕저수지는 낚시터로 뿐만 아니라 시흥 9경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저수지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해서 수도권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 산현동(山峴洞)

시흥시의 중동부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행정동 목감동에서 관할한다. 산현동이란 동명은 마을에 마하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과 고개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고유어로는 뫼재라고 불렀다.

산현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와 궤곡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산현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골월, 깨골, 뫼재(산현리, 묘재), 사티골(궤곡리, 살뫼골), 아랫말 등이 있다. 골월은 골짜기의 길이가 5리이므로 골오리라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 하며, 사티골은 조선시대 궤곡리라 부르던 마을로 수암면에서 가장 오지였다고 한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아무 피해가 없었으므로 살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하여 살대곡이라 하였다가 음이 변하여 사티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명 유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산현동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농촌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목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산현동의 전통적 모습은 자취도 없어질 것이다.

- 조남동(鳥南洞)

시흥시 중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목감동에서 관할한다. 조남동이란 동명은 자연 마을인 새미 뒤편에 있는 매봉재의 산세가 풍수로 보아 새가 남쪽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국이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조남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 조남리와 제청리였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를 거쳐 1989년 시흥시 조남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새미(조남, 새암이), 남왕, 장군곡(제청리, 장군곶), 소능메, 을미, 방화 등이 있다. 사방으로 이어진 산줄기 사이 골짜기마다 자리했던 농경지 대부분은 목감택지지구개발과 도로의 건설로 사라지고 있으며 을미마을은 예전 모습을 잃고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비교적 자연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새미마을과 장군재마을에도 임대형 공장들이 늘어나며 점차 변화되고 있다.

2) 시흥시의 발전에 따른 도시 구조의 변화 양상

(1) 시흥 북부 ‘은신대’ 지역 중심의 원도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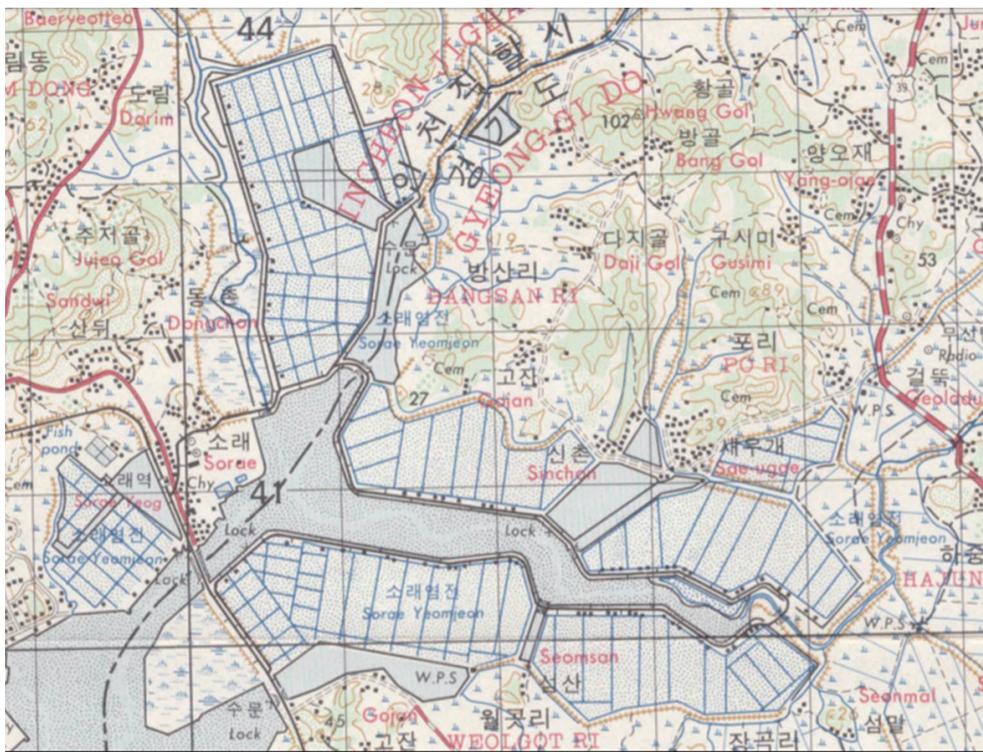
시흥은 시 승격 이후 1990년대까지 은신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은신대는 옛 소래읍의 북서부 지역이었던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의 첫 글자를 따서 합성한 용어로 당시 시흥시의 최고 변화가였다. 당시 도시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역, 곧 도심이라고 부를 지역은 시흥시에서는 은신대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시흥시는 원도심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은신대 지역의 중심은 신천리였는데 일제강점기 소래면 시절부터 면소재지로 이 일대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 자리를 지켜왔다. 더욱이 이 지역은 1973년까지 부천군 소속이기도 했지만 그해 시로 승격되어 신흥위성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소사읍, 곧 부천시의 시청 소재지인 심곡동이나 부천역(옛 소사역)을 따라 형성된 부천 도심과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므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기도 했다. 이에 시의 승격 이전까지 안양시에 있었던 시흥군청이 드디어 시흥시의 새로운 중심이 된 신천동으로 옮겨오게 되고¹⁴⁾, 시흥의 은신대 원도심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 반면에 이 시기 시흥시는 은신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

14) 처음 시흥시청은 옛 소래읍사무소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시흥보건사무소가 있는 곳이라 하니 시청의 정확한 주소지는 신천동이 아닌 대야동이다.

을과 바닷가 마을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흥시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미산동,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등 호조벌이 펼쳐진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고, 북동부에 위치한 계수동, 과림동, 무지내동 등은 말이 농촌마을 이지 산촌마을과 진배가 없었다. 물론 경기 서부의 곡창지대인 이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쌀과 근교농업지대로서의 이점을 살린 채소 등의 농산물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시흥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우르과이라운드로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전면 수입으로 농업이 위축되었고,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젊은층들의 농촌이탈은 가속화되기만 했다.



폐쇄되기 직전 소래염전 일대의 지도

또한 서해와 맞닿은 해안지역인 방산동, 포동, 월곶동, 정왕동(현 정왕본동)은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소래염전, 군자염전 일대였고 포구마을도

상당수 잔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염업이 사양산업에 들어선 이후 근근이 버티던 염전들은 1990년대 중반경이 되자 폐쇄되며 갈대만 무성한 버려진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 위치해 있던 포구들도 서해 어획량의 감소로 대부분의 어부들이 전업을 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흥시가 시로 성립된 후 시의 성장 동력이 된 도시지역은 은신대가 유일했고,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시흥시의 남서부 정왕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시흥 남서부 정왕지역의 도시화 과정과 이도심 체계

시흥군이 북서부의 은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 과정을 밟으며 시로 승격이 된 이후 한동안 시흥시는 원도심 체계를 유지하였지만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은신대 지역은 정체 상태를 맞게 된다. 시흥시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옛 군자면의 정왕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을 받으며 산업화·도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은 시화공단과 시화주택단지의 건설에 의한 개발 위주의 발전이었으므로 은신대와 같이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굴러들어온 이득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시화호와 시화공단의 조성

시흥시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옛 안산군 마유면과 대월면 지역이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시흥군 군자면이 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바닷가 연안으로 어촌과 반농반어의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옥구도와 오이도는 정왕리에서 마주보이는 섬이었다. 1922년 오이도와 옥구도, 정왕리의 간석지에는 군자염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제방을 쌓으면서 두 섬들이 내륙지역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경기만 일대의 행정구역을 요동치게 만든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요즘 안산스마트허브(Ansan Smart Hub)라고 불리듯이 군자면과 남쪽으로 인접한 지역에 안산시가 성립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산업단지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

산재한 중소기업, 공해업체의 공장들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이전, 계열화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였고,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주거, 교육, 생활 환경 등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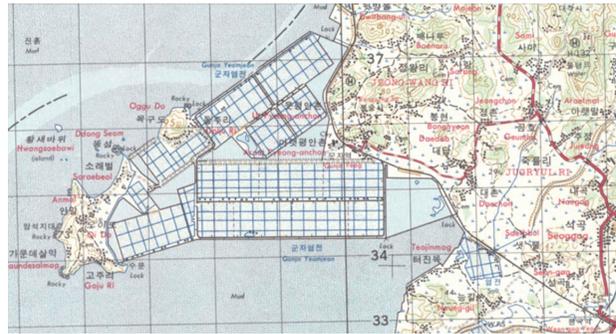
해결하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를 함께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결국 이 산업단지로 인해 1979년 화성군 반월면에 반월출장소가 개설되고 1986년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안산시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 성립 이전부터 군자면과 수암면 지역은 조선시대 같은 안산군 지역이었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의하여 안산시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시흥이 시로 승격된 1989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¹⁵⁾

반월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흥군 정왕리를 중심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조성 기간은 1986~2006년에 이르렀다. 이때 군자염전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 대대적인 간척과 매립이 이루어지며 자연 지형으로는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사실 이중 본래의 정왕동은 정왕본동과 오이도, 옥구도뿐이고, 나머지 정왕1~4동, 배곧동은 모두 간척과 매립에 의해 새로 생긴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애초에 개발을 위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가장 고질적인 개발의 장애물이었던 그린벨트와 무관한 지역이었고, 더욱이 국가적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시흥시 지역의 발전 방향은 산업단지 일대에 쏠리게 되었고, 시흥시의 관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자 자연스럽게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이 인구를 수용하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흥군 군자면 지도. 군자염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간척사업이 이루어진다.

15) 1995년에는 시흥시에 속해 있던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및 화정동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되기도 했다.

기 위해 정왕신도시가 건설된다. 1989년 시흥이 시로 승격할 당시에 9만 3000여 명에 불과했던 군자권의 인구가 2004년에는 39만여 명을 넘어섰고 2018년 4월 말 현재에는 공단에 취업한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46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1990년대 중반 정왕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정왕동은 그 행정구역의 변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흥시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고장이 된다. 다른 마을들은 법정동 몇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지만, 정왕동은 그 반대로 하나의 법정동이 정왕본동과 정왕 1,2,3,4동, 배곧동의 여섯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 2도심 체제의 성립과 지역 갈등

정왕지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원도심이었던 은신대 지역이 정체 상태에 빠지는 시기이다. 시흥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소래읍을 독립된 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을 만큼 독립성이 강했던 소래읍 주민들은 시흥시의 중심지가 갑자기 옛 군자면의 정왕지구로 쏠리게 되자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소래읍이 시흥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소래는 부천시와 시흥시 양쪽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불만이 있기는 정왕지구도 마찬가지였다. 정왕지구가 속한 옛 군자면은 조선시대 안산군 지역이기도 했고, 안산시가 복원된 후에도 반월공단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생활권은 안산시였지 시흥의 북부지역인 소래권이 아니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들과 연고가 다른 소래권의 주민들이 시흥시의 실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실제 군자권을 시흥시에서 분리하여 안산시로 편입시키려는 운동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배후 도시로 들어선 정왕동의 12만 계획 도시는 일차적으로 시화공단이라는 산업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오이도까지 연결됨으로써 서울 시내와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으로 부분 편입되기까지 했다. 또한 쇼핑몰과 상가 등이 들어

서 생활 지원 기능이 갖추어짐과 동시에 인접한 안산시 반월공단과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적 성격을 가지게 되어 '안산 반월-시화 정왕'의 독자적인 생활권을 갖는 시가지가 되었다. 특히 정왕동 일대의 아파트 지대는 가장 도시화되었고, 규모가 큰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역사적 과정이나 공간적 배치, 사회적 연결 정도 그리고 대표성에서 시흥시의 중심 시가지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기존 시흥시의 정주(定住) 역사와 가장 동떨어진 별개의 공간이라는 역설적 성격을 갖고 있다.

3) 시흥시의 균형적 발전과 통합을 위한 노력

○ 시의 중앙인 장현동으로 이동한 시흥시청

시흥시가 북쪽 은신대, 남쪽 정왕동의 2도심 체제가 되자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도시 구조도 중간이 텅 빈 형태가 되어 버렸다. 더욱이 이 두 개 도심이 서로 힘겨루기까지 하는 통에 시흥시는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2도심 체계를 극복하고 시흥 지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2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와 절대농지로 묶인 개발제한 지역이 도처에 지뢰처럼 배열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지뢰들을 제거하거나 피해 다니며 부분적으로 도심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현재 시흥시가 택한 방법은 은신대와 정왕동 사이의 중간 지점이자 시흥시 전체의 한복판에 해당하는 장현동으로 시흥시청을 이전하고 새로운 시흥시의 행정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실 1989년 시 승격 당시부터 시흥시는 행정기관의 지역적 분산, 유통 시설의 부족,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의 부족, 교통의 불편과 공해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시흥시 내부가 생활권의 구심력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장현동 시청 시대는 이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물론 황량한 벌판에 시청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 지역으로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장현·연성지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도심을 건설하고 있다.



장현동 시흥시청과 주변 모습. 『시흥땅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409쪽

하지만 1997년 시청이 신천동에서 중앙의 장현동으로 옮겨지자 시흥 북부에서 체감하는 박탈감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정체되어가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행정기관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고 느껴진 것이다. 이는 정왕동 쪽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의 규모나 인구의 수, 교통의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시흥의 중심지로 변한 정왕동이고 자체의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행정력을 갖춘 새로운 도심이 생기는 것을 반가워할 리는 없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순히 시의 중앙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허벌판인 지역에 인위적인 도심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장현동의 시흥 시청은 수도권전철 서해선의 개통으로 교통 상으로는 상당히 편해지기는 했지만 서해선 시흥시청역에 내리면 온통 벌판뿐이고 멀리 숲 속에 자리하고 있는 시청 건물이 보인다. 그러니 장현지구 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외딴 도심이 되어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도심 세 군데가 따로 노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야심차게 추진한 연성지구 개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장현, 장곡동 지역 아파트들이 1999~2000년 사이에 들어섰고, 곧 이어 2010년대에는 능곡지구까지 개발되었지만 이 세 곳을 제외한 시흥 중앙부의 인근 지역들은 아직껏 허허벌판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린벨트에서 빠진 소규모 취락지구 또한

그 넓이 그대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어 중구난방의 도시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시흥시의 미래 도시 계획

현재의 시흥시는 도시 전체가 이렇듯 개발제한이 걸린 지역들을 피해 찢어지고 합쳐지며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시흥시 도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흥시는 시내의 생활권을 크게 북부·중심·동부·남부의 네 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흥시 도시 기본 계획

- 북부 생활권

대야동·신천동·은행동 등 북부 생활권은 기성 시가지 과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중저밀로 개발한다. 은계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그 중 하나이다.

- 중심 생활권

신현동·연성동·능곡동·군자동·월곶동 등 중심 생활권은 친환경 저밀 개발을 위주로 행정 업무 기능을 활성화한다. 장현 택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동부 생활권

과림동·무지내동·매화동·목감동 등 동부 생활권은 공장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 도시 산업 기능을 강화한다. 목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 남부 생활권

정왕본, 1,2,3,4동과 배곧동 등 남부 생활권은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무공해 산업으로의 변모를 추구하는 한편 해양 관광의 복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흥 전역을 끌고루 발전시킬 도시 기본 계획을 설계한 후 북부 생활권에서는 은계 보금자리 주택이, 중심 생활권에서는 장현 택지 사업이, 동부 생활권에서는 목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남부 생활권에서는 배곧신도시가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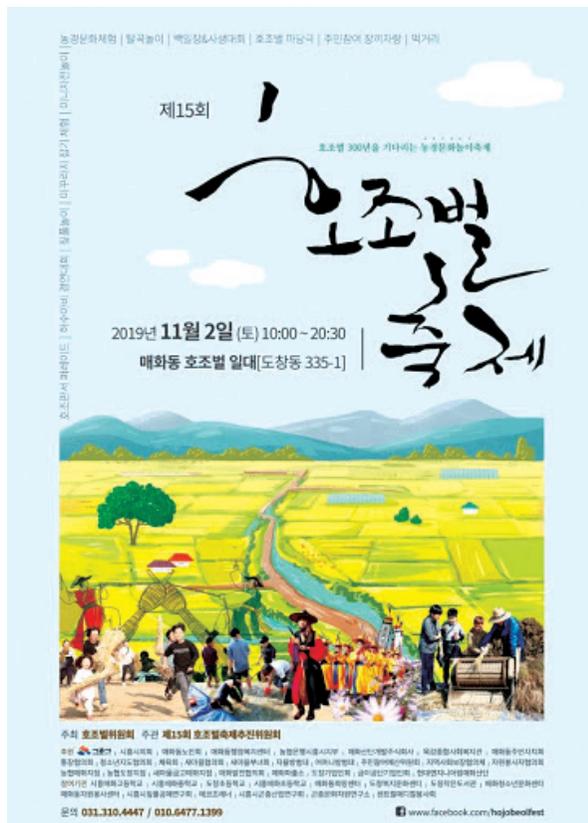
따라서 시흥시에서는 나름대로 각 권역에 따른 도시개발을 균형 있게 펼쳐져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성사진을 통해 시흥시 각 생활권의 개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중구난방식 개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흥시에 부과되고 있는 제약을 나름대로 극복해가며 이루어낸 차선의 결과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시흥시는 시흥시일 뿐, 주변의 다른 시가 드넓은 평야지역에 신도시를 유치하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백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한다는 등의 사례를 끌고 와서 비교를 하는 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혜택이야 대규모 간척사

업을 통한 시화공단의 조성
과 정왕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도 차고 넘치는 것이다.

○ 농촌마을, 포구마을, 전원 마을이 어우러진 시흥시

수도권 지역에는 도농 복합도시를 표방하는 시·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시흥시처럼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이 짙은 지자체는 별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시흥시야말로 수도권 도농복합도시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시흥시의 중앙지대에 펼쳐져 있는



2019년 호조별 축제 포스터

호조별은 조선후기에서부터 이어져온 경기 서부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그간 시흥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시흥시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근교농업지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도처의 산간 지역은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근교 전원지대로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와 비교될 수도권 지역으로는 경기 동부의 양평군을 들 수 있다. 양평은 한강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온갖 제약을 받으며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지만 그 반면에 산자수려한 환경이 보존된 채로 남아 있어 문화관광의 시대에 청정한 전원도시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평은 구태여 산업화를 거치지 않더라도 인구 100만의 전원도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기서부는 경기동부에 비해 엄청난 산업화·도시화 과정이 진행된 지역이다. 과거 읍이나 면 정도의 규모에 불과했던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소사 등이 시가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과정 속에서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진 난개발로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갔다. 어쩌면 이 주변도시들의 난개발을 위하여 시흥시의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시흥시는 이러한 주변 도시들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연성·목감지구의 개발처럼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번 개발되면 다시는 자연환경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시흥시는 서해연안의 포구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물론 오이도에서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고 시화호가 담수호로 변한 관계로 연안 지역이었던 정왕동 남쪽 지역이 내륙지역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는 대부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내륙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당포구, 성곶포구, 사리포구 등 포구의 도시로서 안산시의 위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취조차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는 월곶포구와 오이도포구가 살아있다. 안산의 사리포구는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140여 척의 어선이 드

나들던 포구로 인천의 소래포구, 화성의 마산포구와 더불어 경기만의 3대포구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시화방조제가 건설됨에 따라 바닷길이 막히고 포구는 폐쇄되었는데, 이곳의 어부와 어선 중 상당수가 시흥시의 월곶포구와 오이도포구로 옮겨오게 된다. 이에 포리포구 등 전통 포구의 폐쇄로 포구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던 시흥시가 포구의 도시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신흥 포구들은 현대식 부두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통적인 포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대식 포구의 모습은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을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 시흥시의 해양문화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지리적 환경에 따른 지역적 특징이 시흥시가 가진 경쟁력일 텐데 이러한 다양성을 획일적인 개발로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개발의 제약에서 오는 지역적 생활 문화 수준의 편차를 시의 차원에서 조절해줌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흥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듯 농촌마을, 포구마을, 전원마을이 어우러진 시흥의 건설이야말로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과는 차별화되는 시흥시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시흥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시흥시민으로서의 동질성 형성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균형적 개발 문제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시흥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유대감을 공고히 하여 하나의 전체로서의 시흥시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시흥 북부의 옛 소래읍 지역과 시흥 남부의 옛 군자면, 수암면 지역이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시흥시가 출범하면서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인 이후로는 당연히 통합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처음으로 지적할 만한 원인은 시흥이 시로 승격한 이후로도 주위를 둘러싼 인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남아 있는 소금창고

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의 세 확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다. 이에 시흥의 각 지역들은 생활문화권이 이들 주변 시들에 포함이 된 채로 지내왔던 것이다. 또한 시흥시가 주변의 시들에 비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낙후되었던 시의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시류에 따라 유리한 지역에 편중하여 개발이 이루어진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지역 개발은 그때그때 선택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하였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이웃 시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흥시는 인접 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시흥 자체의 생활문화권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시의 발전 계획에는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 외에도 시흥시민들의 지역적 동질감을 진작시킬 수 있는 문화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어차피 현재 시흥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전통적 군현의 읍치였거나 해당 지

역의 문화를 이끌던 중심지였던 곳은 없다. 시흥의 북부와 남부가 전통적으로 인천(부천), 안산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 때문에 두 지역의 갈등구조가 필연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찌보면 조선 경종 때 호조독의 축조로 형성된 호조별은 시흥의 남북지역을 포괄하는 중부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후기의 간선도로인 '경기해연로'가 조남동, 논곡동, 금이동, 도창동, 매화동, 안현동, 은행동, 신천동을 통과하며 안산과 인천지역을 연결하였다는 사실 역시 두 지역이 적어도 조선 후기부터는 역사적 공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일기기는 하지만 방산동, 포동, 월곶동, 장곡동 일대에 조성된 소래염전도 이러한 지역 공조의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흥시에서는 현재 매년 10월 매화동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호조별 축제를 호조별에 속한 모든 동들, 더 나아가 시흥 전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차원의 축제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유대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흥시에서는 소래염전 지대에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시흥갯골축제를 거행하고 있다. 이 축제가 소금만들기체험이나 생태학습의 장이 되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축제 또한 소래염전이 지닌 지역민들의 아픈 역사를 반영하여 시흥시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비극적 역사를 관광상품에 활용하는 '다크투어리즘'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축제에도 도움을 주면 주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흥시를 관통하며 안산지역과 인천지역을 연결했던 '경기해연로'를 재현하여 탐방로를 조성할 것도 제안해본다. 경기해연로의 본선은 옛 수암면에서 옛 소래읍으로 이어지지만, 본선에서 갈라지는 지선- 특히 옛 군자면에서 생산된 어염을 실어나르는 길-까지 감안하면 시흥의 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조선후기에 가동하고 있었음을 시흥시민에게도 각인시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가 먼저 시로 독립한 인접 도시와의 관계는 불과 몇 십 년도 안 된 일이니 생활권이 다른 시와 가깝다는 이야기는 부추겨진 허상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흥시의 도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특히 장현·연성·능곡 지구의 개발이 완성되어 시흥시의 중앙이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잡으면 자연스레 이 지역 생활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호조별

호조별은 시흥시의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미산동·포동·매화동·도창동·안현동·하중동·하상동 일대에 걸쳐 펼쳐져 있는 4.83km²(약 150만 평)에 이르는 평야지대를 말한다. 이 평야지대는 조선시대 경기도 안산군 초산면 돌장재(현 시흥시 하중동)과 인천부 신현면 포리 걸뚝(현 시흥시 포동) 사이에 방죽을 쌓아 바닷물의 유입을 막고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만들어졌다.

호조의 소속기관인 진휼청의 주관으로 방죽의 축조와 간척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호조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호조별은 1721년(경종 원년)에 완공되었으니 그 역사가 무려 300년에 이른다. 이 국가적 간척사업을 통해 새로 확보된 토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 논을 경작하기 위해 삼남 지방에서 농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정착하면서 호조별 일대의 마을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시흥시 중부지역의 자연마을들은 이 시기 형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시흥시의 역사는 ‘시흥’이라는 명칭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일제강점기로 잡을 것이 아니라 현재 시흥시의 중심 지역에 마을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정착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가 형성되었던 호조별의 조성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특정 지역의 역사적 기점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상징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이 지역이 시흥군에 편입되는 1914년이 아닌 호조별의 형성으로 시흥 지역이 대외적으로 역사에 알려지는 1721년을 시흥시의 역사적 기점으로 부각시키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물론 호조별의 조성 당시에는 이곳이 인천과 안산에 포함되는 지역이었다 해도 현재의 시흥시의 중앙을 이루는 곳에 대규모의 국가적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며 삼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마을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시흥의 정체성을 상징할 역사적 가치는 차고 넘친다.

4. 마무리

- 바라지의 땅, 시흥의 정체성으로 자리잡다

시흥이 시로 승격된 지도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당시 시흥시의 출범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이 병합되며 형성되었던 광활한 행정구역은 해방 후 수도권의 재편성 과정에서 먼저 위성도시화된 지역들이 하나씩 독립되어 나가며 왜소해졌고,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농촌 지역과 염전 투성이의 해안가 지역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흥시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만한 역력이 있었던 지역은 1973년 부천군에서 편입되어 온 옛 소래읍 지역뿐이었다.

이때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시한 대로 시의 명칭이나 행정구역이 결정되었겠지만, 이 과정에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시흥군에 속해 있었거나 시로서의 독립이 예정된 지역들의 로비활동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이에 소래읍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던 해안지역인 군자면과 구룡성산지역인 수암면이 병합되며 시흥시가 성립되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시대의 시흥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다만 시흥군에 끝까지 남아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시흥시의 행정구역은 당시 소래읍 측에서 주장하던 방안대로 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제안했던 '소래시'라는 시의 명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래읍은 전통적으로 인천에 속해 있다가 일제강점기 부천에 속해 있던 곳이었고, 군자면과 수암면은 전통적으로 안산에 속해 있다가 일제강점기 시흥에 편입된 곳이었으니 이들 지역을 통합하는데 소래라는 명칭이 알맞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돌아켜보면 이때야말로 일제강점기의 주먹구구식 시군 통폐합에 의해 얻어진 허울 좋은 시흥이라는 지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역사·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지역의 불편한 동거로 시작된 시흥시는 수도권 위성시로 먼저 독립한 주변의 시들과 경쟁하며 시정을 꾸려나가야 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이에 지금이라도 시흥 지역을 해체하여 인근 시에 편입하는 편이 나올 것이라는 냉정한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시흥시는 이러한 우려와 혹독한 평가 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해왔고, 인구 50만의 도농복합도시를 굳건히 꾸려나가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중 시흥시처럼 다양한 도시경관이 펼쳐지는 지역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들이 자랑하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 따라 들어선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산업공단 시설은 물론이고, 서해연안의 도시답게 월곶포구와 오이도포구 등 해양관광지도 있으며, 드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호조벌도 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소래산, 군자봉, 양지산, 관모산, 학미산, 운흥산, 마산 등 완만한 구릉성 산지가 군데군데 솟아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경관 중 시흥시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관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흥시의 특징이자 자랑거리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시흥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이 다양한 경관을 유지하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왕지구의 시원하게 뚫린 대로와 밀집해있는 아파트 단지와 공단지대를 조사하다가 낡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곧 은신대 지역을 방문해 보면 2000년대의 도시와 1980년대의 도시가 같은 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호조벌이 펼쳐진 중앙의 농촌지역까지 비교대상에 올리면 각 지역별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정체된 지역·개발이 안 된 지역 사이의 생활 정도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시흥시는 시 승격 당시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 결합되며 형성된 도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내홍(內訌)으로 치닫게 되기 십상이고 지속적으로 시흥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들 지역 간의 역사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시흥시민으로서 통합하게 하는 가치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시흥시에서는 ‘바라지’ 정신에서 그 해답을 구한 듯하다. 300년 전 호조벌에 정착했던 현 시흥 지역의 선조들은 땀과 눈물로 ‘소금기 가득했던 척박했던 땅’을 사 람을 구출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이러 한 점에 착안하여 호조벌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함축해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 시, 시흥’을 도시브랜드로 정하고 호조벌이 가지고 있는 바라지의 정신과 가치를 구 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바라지란 ‘돌보다’, ‘돕는다’, ‘기원한다’란 뜻의 순 우리말로 시흥에 오래 산 토박이들이 예부터 방죽, 논, 간척지를 가리켜 ‘바라지’라 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바라지의 정신이야말로 시흥의 미래를 보장할 정신적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바라지의 정신은 당분간 시흥시의 지역 간의 갈등과 발전의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내부를 향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흥시를 이루 는 모든 지역들이 시대에 따라 지역의 발전에 공헌을 하지 않은 지역이 없고 현재 시흥의 다양한 경관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부디 이 바라지의 정 신이 뿌리를 내려 시흥시가 수도권 도농복합도시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 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도로고』

『임원경제지』

『조선지리지자료』

『호구총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행정구역명칭총람』, 2018.

김성훈, 『한국 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 1977.

김준기 외, 『경기도 장시와 포구』, 경기문화재단, 2018.

시흥문화원, 『2014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목감공공주택지구와 그 주변 마을, 2014.

시흥문화원, 『2013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호조별 동편 마을, 2013.

시흥문화원,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복음자리, 한독주택, 목화연립, 2012.

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 유래』,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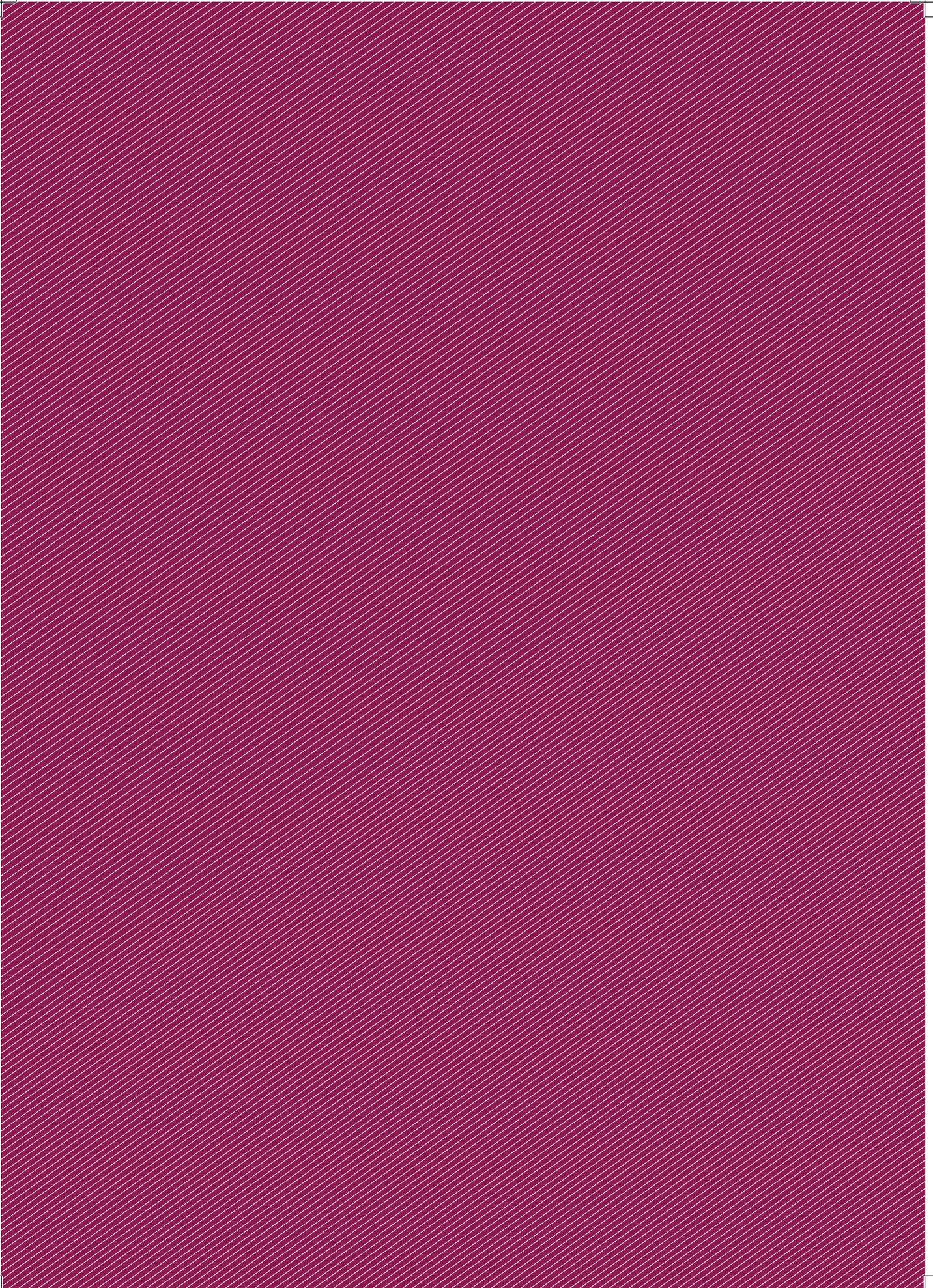
시흥시청, 『시흥 땅 이름에 남아있는 향기』, 201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2007.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

시흥문화원(<http://shculture.or.kr>)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3부

시흥의 산업과 시민운동

강호정(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1. 시흥의 산업

시흥은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정부의 공업 정책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 신도심이 개발되기 전까지 안산과 더불어 수도권 공업도시로 기능하였고, 이후 신도심이 형성되어 베드 타운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시흥의 산업구조는 과거 1980년대서울 청계천·영등포 등지에서 이전한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형성되었던 대야·신천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대규모로 조성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산업의 중심이었던 대야·신천동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등장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현재에는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2020년 기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을 시작해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1.1 대야·신천동 - 신미산업단지

시흥시 대야·신천동은 과거 서울에서 이전한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다. 이런 형성과정 때문에 작은 자리, 복음자리, 목화연립과 같은 도시빈민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⁶⁾ 과거 시흥이 커나갈 시점에는 이곳이 산업경제



도시 소공인 집적지구 - 소공인 지원센터

16) 이는 후술할 시민운동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의 중심지였으나, 현재에는 시흥 남부의 시화단지에 밀려 과거만큼의 위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현재 이곳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해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¹⁷⁾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2017년 시흥 대야·신천동에 지정되어 2019년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에 시흥시 대야·신천동(기계금속), 용인시 영덕동(전자부품), 양주시 남면(섬유제품) 등 3곳을 포함해 전국 11곳에 불과하다. 이런 특성은 대야·신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⁸⁾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는 시흥 대야·신천동 일대가 2017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지원받아 개소한 곳으로, 센터 내에는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류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공동인프라로 3차원 측정기, 화상측정기, 3D 스캐너, 조도측정기,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공동활용 장비를 구비한 ‘공동장비실’, 소공인들을 위한 ‘회의실’, CAD·CAM 등 실습 중심의 ‘장비교육장’, 50인 규모의 ‘다목적 강의실’ 등이 구성됐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시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집적지구



신미산업단지 파노라마

17) 시 내 읍·면·동 40개사 이상 입주해 있으면 지정 가능하다. 현재 시흥 대야·신천동은 기계금속으로 2017년 지정되어 있다. 시흥시 사업체조사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시흥시 전체 사업체의 10%대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이곳에 산재되어 있다.

18)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고, 550개에 육박하는 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이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목화연립 앞에 형성되어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 마케팅, 인력 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대상으로는 시흥 대야·신천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소재한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 소공인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다. 대야·신천동은 1980년대 청계천·영등포 등지에서 이주하여, 시화산단을 연계한 3차 이하 하청업체 약 843개사가 자연스럽게 모여 형성된 곳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하다.

198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후, 시흥 남부의 시화공단의 형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안고 있던 대야·신천동의 소공인들은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의 개소로 기계장비 공동인프라 구축등을 통한 제품개발의 일정단축 효과, 제품 완성도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케 되어 시흥 북부와 남부의 경쟁력 격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시흥은 시내 남북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1.2.매화일반산업단지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시흥시의 시가지에 분포하는 공업 지역을 외곽으로 이전시

켜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구분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시흥 북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 조성 가능지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이는 시흥시 도시 발전 계획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를 통해 시흥시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남부 지역을 신경제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시흥시의 도시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대야1동 공업 지역, 대야2동 공업 지역, 대야3동 공업 지역, 은행동 공업 지역, 목감동 준공업 지역 등 공업 지역 5개소의 이전을 목적으로 이곳의 총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시흥시 매화동 일원을 공업 지역으로 대체하고자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였다.¹⁹⁾ 이를 통해 시흥시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6월 12일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2013년 10월 29일 완료되었으며²⁰⁾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는 2016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도 분양 공고를 통한 분양이 진행중에 있다.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총면적은 37만 6097 m^2 이며 세부적인 토지 이용은 산업 시설 구역 18만 2000 m^2 , 지원 시설 구역 3만 4000 m^2 , 공공 시설 구역 16만 m^2 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내에 15%에 달하는 부지를 공원과 녹지로 꾸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²¹⁾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물류 시설이나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여 산업 활동이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흥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체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의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주변개발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안산선 매화역설치가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 국도 42호선인 수인산업도로가 산업단지의 바로 앞으로 통

19)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7조의 규정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의 행사 제한]에 따른 대야동, 은행동, 목감동의 업체를 이전할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20) 경기도 고시 제2013-301호

21) 시행자는 민간 합동 출자 법인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이며 총 사업비는 약 2,699억 원이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은 특수 목적 법인(SPC)으로 설립되었으며, 시흥시에서 40%를 출자하고 민간 기업 컨소시엄에서 60%를 투자하였다. 민간 기업별 투자 비율은 현대엔지니어링(주) 5.9%, 풍창건설(주) 40.1%, 동서건설(주) 2.0%, 한국투자증권(주) 12.0%이다.

과하고, 10분 이내의 거리 안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서의 교통적 편의성이 돋보인다.

2020년 9월 기준 매화일반산업단지는 분양중에 있으며, 입주할 업종으로는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²²⁾,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있다. 2017년 4월 말 기준, 78개 업체가 입주 예정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조만간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시화국가산업단지

서울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확장 개념에서 새로운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 개발한 곳이다. 1986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과 소재 전문 산업단지를 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인접한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손꼽힌다. 서울에 집적한 산업을 주변 지역인 경기 남부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지 장소로 시흥 남부의 시화 지역이 선택되게 되었다. 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경기 남부에 많은 발전이 진행되었다. 서해안 간척지에 공업 벨트를 형성하는 계획도 조성 목적에 포함된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시흥 스마트 허브라 불리며 세부적으로 특화 산업단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1986년 9월 27일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 반월 특수 지역 개발 구역 변경이 지정되었고²³⁾, 이를 토대로 시화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고시되기 시작했다.²⁴⁾ 1986년 12월 17일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1986년 12월 30일 공업단지 조성 공사 도급 계약까지 체결되었다. 1987년 4월 29일 시흥시 오이도와 해안 사이의 간척지를 대상으로 시화지구 제1단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이 개정되었고, 산업

22) 기계 및 가구 제외.

23) 건설부 고시 제424호

24) 건설부 고시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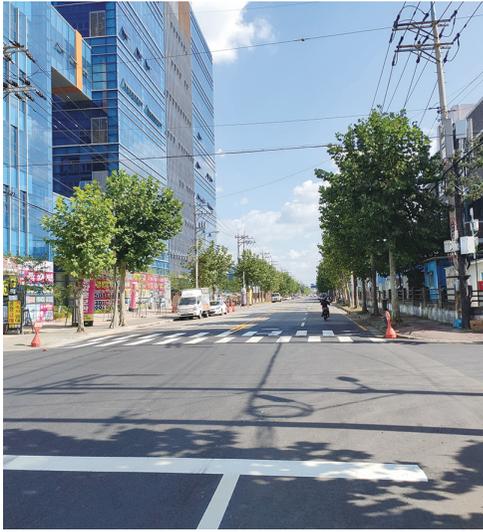


시화 제약협동화 단지 파노라마

단지 구조의 고도화 계획이 반영되어 설계가 수정되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기간은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89년 시화국가산업단지의 1차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9월 24일 시화 국가산업단지 최초로 공장 설립에 착공하였다. 1991년 4월 13일 대성제재소가 제 1호 준공 업체가 되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2017년에 이르면 업체 입주 후 근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온 노후된 공장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신청 이에 선정되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근로 환경 개선, 생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시화국가 산업단지 중 입주가 빠른 지역을 재정비하고, 산업단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바탕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총면적은 22.627km^2 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 시설 구역 13.185km^2 , 지원 시설 구역 2.212km^2 , 공공 시설 구역 5.144km^2 , 녹지 구역 2.086km^2 등으로 구성되었다. 입주 자격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수도권 내 이전 촉진 권역과 제한 정비 권역에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기존의 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 시기



타원 산업단지



시화 도금단지

시흥 북부에 있던 공장들도 많이 이전을 진행 하였다. 더불어 서해안 일대에 시화산
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단지의 용수 공급량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 사정을
고려해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염색 및 가죽 업종과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종은 입
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업체 현황은 1만 115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그 가운데 1만 682개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다. 주요 업종으로는 기계 관련
업체가 6,631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전기·전자 1,664개, 석유·화학 803개,
철강 742개, 운송·장비 454개, 목재 및 종이 282개, 섬유·의복 172개, 음식료 59개
업체 등이다. 고용자는 모두 13만 290명이며 남자 10만 4293명, 여자 2만 5997명
으로 남성 노동력이 월등하게 많다. 업종별 종사자는 기계가 5만 4566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기·전자 2만 8304명, 석유·화학 1만 2911명, 운송·장비 1만 565명, 철강
8,387명 등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흥시의 일자리 창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액은 월평균 약 4조 원이며, 기계 관련 업종에서의 생산액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 전기·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서도 생산액이 높다. 해
외 수출액은 월평균 약 4억 달러이다.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출액
이 많은 반면 음식료와 비금속 부문에서는 수출액이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다.

시화산업단지에서도 가장 끝에 해당하는 정왕동에는 철강 가공 및 유통단지를 위한 오이도철강단지가 있다. 오이도철강단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지원 업무 시설로 총 5구역의 철강 유통 업무 시설 부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주로 철강 절삭 및 가공, 유통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우리나라 철강 유통의 중심지로 평가 받고 있다. 원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와 구로구 등지에 분산 입지한 공구 상가를 한 곳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실제 오이도철강단지를 스틸랜드라 부르며, 표기하기도 한다.



오이도 철강단지 파노라마

철강 유통 상가는 1980년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와 구로공단 일대에 200~500개씩 몰려 있었으나, 뉴타운 개발 계획에 밀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경기 남부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대량의 철강재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철강 유통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단위 철강 유통단지를 건립하게 되었다.

오이도철강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이 발표된 2004년부터 많은 시민 단체와 사회 단체의 저항을 받았다.²⁵⁾ 2006년 5월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흥시 9개 시민·사회 단체가 철강단지 조성 사업이 대기오염 및 교통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25) 이 부분은 시민운동에서 후술.

줄 뿐만 아니라 철강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적 제441호인 시흥 오이도 유적의 훼손 및 미관 저해 등을 우려해 철강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허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⁶⁾ 2006년에는 시흥시장 당선자까지 나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까지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시흥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철강단지의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고 한다. 결국 철강단지 개발은 2006년 9월에 착공되어, 오이도철강단지 내 상가가 2007년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1 단지가 2008년 4월에 건립되었다. 2009년 5월부터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철강단지의 추가 업체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다. 오이도철강단지는 총면적 22만 3067㎡에 철강 유통이 이루어지는 철강 상가 20개 동, 단지 내 상가인 스틸플라자(steel plaza) 1개 동과 랜드플라자(land plaza) 1개 동, 철강비즈니스센터(SB center) 1개 동, 2,5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철강 상가는 총 3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A블록에 9개 동, B블록에 5개 동, C블록에 6개 동이 설치되어 있다.

2017년 현재 오이도철강단지 철강 상가에는 A블록에 245개 업체, B블록에 160개 업체, C블록에 2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모두 61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스틸플라자와 랜드플라자²⁷⁾에는 각각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철강비즈니스센터에는 50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철강 원자재 구입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무인 전자 관리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다.

26)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과 시화 개발 지구 환경 운동,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27) 오이도 철강단지의 별칭으로도 불리나, 사실은 구역별 명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2. 시흥의 시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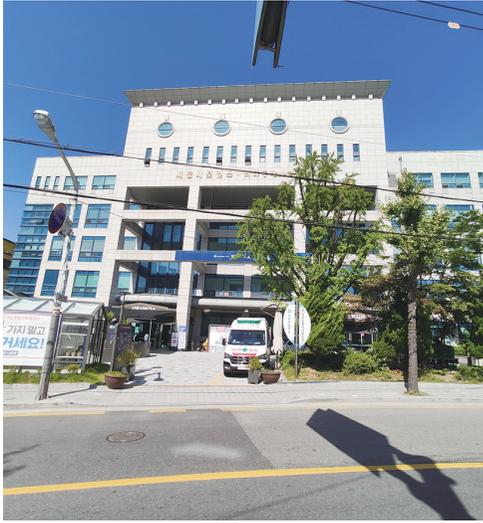
시흥의 산업발달은 다양한 시민운동을 잉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흥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개발논리와 보존의 논리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시민운동의 발전과도 관계가 깊다. 특히 시흥은 과거 도시빈민운동의 역사라 한다면, 현재에는 환경운동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흥의 시민운동을 제정구 의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도시빈민운동인 복음자리운동에서 파생한 다양한 주민 밀착형 풀뿌리 운동과, 환경운동단체인 시흥환경운동연합 설립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시흥 시민운동의 역사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활동을 하는 정치 참여의 형태로, 특히 시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나갔다. 이는 시흥이 가지고 있는 공업도시의 역할과 수도권 베드타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시민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시민단체인 시흥환경운동연합이 있어 환경운동에 있어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민운동의 일반적인 인권, 환경, 평화, 정치 개혁, 행정 감시, 제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법적인 캠페인, 집회, 여론 형성, 서명, 모금 등의 활동이 나타난다.

시흥 지역의 시민운동은 출발부터 지역 밀착형 운동이자 자발적 주민 참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77년 신천동에 자리 잡은 복음자리마을과 1986년 설립된 신천연합병원은 시흥 지역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1991년 방산업체인 한국화약주식회사²⁸⁾의 정왕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시민 단체를

28) 1993년 (주)한화로 상호가 변경된다.



신천동 시흥보건소



작은자리 비석

발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흥의 시민운동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중앙 중심적 운동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시흥은 제정구 의원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복음자리 빈민 운동의 발상지로서 한국 사회 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주민 밀착형 풀뿌리 운동을 정착시켜 나간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77년부터 신천동에 자리 잡은 서울 철거민 이주 마을인 복음자리는 이주민 공동체를 넘어 지역 주민 운동으로 활동을 넓혔다. 주민센터 격인 작은자리는 마을 주민의 복지와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지의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중요 근거지이자 휴식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86년 신천동에 들어선 신천연합병원은 전국 보건 의료 운동 조직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출범을 주도하는 등 보건 의료 운동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출발 당시부터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복음자리와 신천연합병원은 시흥시 시민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1991년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 반대 시흥시민위원

회²⁹⁾의 발족은 시흥시의 시민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위는 시흥의 사회 운동 활동가와 양심적 지역 인사를 총결집시켰고, 일반 시민까지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흥시 최초로 성공한 주민 운동이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주민 운동의 상을 제시하였다.

한반위 활동은 1995년 전개된 소래산 살리기 운동 과정에서 시흥시 최초의 시민 단체인 시흥환경운동연합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7년 시흥YMCA·시흥여성의전화·시흥시자원

봉사단체협의회, 1998년 실업극복 시흥시민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를 발족시키는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단체들의 출현을 앞당겼다.

시흥의 시민 단체들은 초기부터 강한 결집력으로 연대와 협력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제정구(諸廷丘), 양요환 등 시흥 시민운동 1세대는 이정근, 서정철, 김상신, 임미경 등 2세대 활동가들과 힘을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시흥 시민을 이끌었다. 한반위 활동이나 2000년에 전개된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은 이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시흥의 시민운동은 다른 지역에는 없거나 취약한 분야의 사회 운동을 개척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황선희가 중심이 된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모델을 만들었다. 시흥 시민운



제정구의원 추모비

29) '한반위로 불림.'

동의 창조성은 2005년 시민 기자 중심의 『시흥시민뉴스』 창간과 인터넷 기반의 미래형 환경 운동 조직인 녹색평화시흥시민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이어졌다. 시흥 시민들의 이러한 운동 전통은 지역 밀착형 시민운동의 전국적 모범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서해 연안 문화 도시로서 시흥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2.2. 시흥시의 주민 밀착형 풀뿌리 운동

2.2.1. 도시 빈민 운동

복음자리 빈민 운동은 도시 철거민의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 없었던 1970~1980년대 경기도 시흥 지역에 집단 이주를 성사시킨 자생적 주민 운동이다.



현재의 복음자리



목화 연립

제정구(諸廷堉)와 정일우(鄭日祐)[John Vincent Daly] 신부가 주민들과 함께 경제적 자립,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사회 운동이자 우리나라 사회 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 집단 이주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소공인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주민밀착형 풀뿌리 운동으로 시흥시 보건 의료 운동까지의 계보를 잇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1970년대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



현재의 한독마을

아래 도심 곳곳의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를 단행했다. 판자촌 주민들의 주거권이나 생존권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판자촌에 들어가 생활하던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철거민들이 함께 이주할 방안을 찾아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당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

천리의 부지를 매입해 복음자리마을 건설에 착수하였다. 복음자리는 좁은 의미로는 1977년 입주한 복음자리마을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1979년 들어선 한독마을과 1985년 완공된 목화마을까지 통칭한다. 복음자리 빈민 운동 역시 세 마을의 이주 경위에서부터 정착과 변화를 위한 노력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³⁰⁾

복음자리마을은 1977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동, 문래동 등지의 철거 판자촌 주민 170세대가 공동 이주해 형성되었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의 주선으로 독일 천주교 후원 재단 미제레올(Misereor)에서 5만 달러를 빌려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33번지 일대 3,200평[1만 579㎡]을 매입하였다. 1977년 6월부터 이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여 1977년 9월 24일 첫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1977년 말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한독마을은 1979년 서울 당산동, 신림동, 시흥동, 봉천동 등 9개 지역 철거민 164세대를 모아 2층짜리 연립주택 6개 동을 지어 입주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85년에는 목화마을이 들어섰다. 목화마을은 서울 목동의 철거민이 이주한 곳이다. 목동은 원래 1960년대 말 서울 후암동 등지의 철거민에게 주어진 대토(代土) 부지였으나, 또다시 이곳에서도 철거를 당해 쫓겨나게 되었다. 목동 철거에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주거권과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목동 철거민 105세대가 이주한 목화

30) 현재 목화연립을 제외한 복음자리와 한독마을은 재개발이 이뤄져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다.

마을은 당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에 3층짜리 연립주택 3개 동으로 지어졌다.³¹⁾

복음자리라는 이름은 원래 1975년 서울 양평동 판자촌에서 명명되었다. 1975년 11월 양평동 판자촌으로 들어간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가 5평짜리 판잣집을 마을 사랑방으로 사용했는데, 1976년 2월 11일 양평동을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이 축성 미사를 올리고 ‘예수회 복음자리’라고 명명하였다. 이 명칭이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 마을의 이름이 된 것이다. 소득과 생활이 불안정한 철거민 마을은 이주 과정에서부터 불신과 반목이 심각했다.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주민 모임과 마을 잔치를 수시로 열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강좌도 계속 마련하였다. 1985년 복음자리의 공간적 거점이 되는 ‘작은자리회관’이 설립되었다. 복음자리마을과 한독마을 사이에 지어진 작은자리회관은 복음신용협동조합, 복음장학회 등의 업무 공간은 물론 강의실을 갖추고 유아원, 풍물반, 한글반, 서예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단오 축제와 연말 주민 잔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작은자리회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민주화 운동 단체의 모임, 노조 결성 준비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으며 제도화된 사회복지 기관이 없던 시절 지역 복지 거점의 역할을 해냈다. 작은자리회관은 1996년 2월 작은자리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2001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되었다.

작은자리의 시작은 복음자리 공동체를 이끈 제정구(諸廷堧), 정일우(鄭日祐) 신부 등이 외국 재단의 지원을 받아 복음자리마을과 한독마을 사이에 3층 건물을 짓고 1985년 2월 작은자리를 개관하면서 부터이다. 개관부터 1986년까지 초기에 제정구 가족 등과 복음자리마을로 들어온 샬트르 성바오로회 소속 수녀들이 공동으로 운영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한글, 서예, 풍물 교실, 복음 유치원 등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동네 주민들의 환갑잔치, 결혼식 등을 거행하는 장소였으며 해마다 성탄과 연말에는 주민 잔치를 크게 열었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야 민주 단체의 회합, 노조 준비 모임 장소의 역할도 했다.

1987년 이후에는 신명호가 운영을 맡았고 청년 모임도 활성화되었다. 복음청년

31) 현재에도 목화연립인 설립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회, 한독청년회와 지역 청년·지역 노동자가 결합하여 한울림청년회로 발족했다. 한울림청년회는 지역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철거민 공동체를 넘어 시흥 지역 주민운동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울야학을 운영하고 노동 상담과 해고자 상담 활동도 벌였다.

1992년 이후에는 복음자리 공동체를 넘어 시흥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였다. 향토사 시민 강좌, 한글 교습, 풍물 교육, 예비 학부모 교실, 가정 보건 강좌, 청소년 영화 마당 등 시흥시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현재 작은자리는 1996년 2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겨주었다.



제정구 생명마당



작은자리 종합복지관

제정구는 복음자리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곤경을 타개할 목적으로 1978년 5월 복음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복음신용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세대에 출자금 10배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복음신용협동조합은 또한 이주 당시 빌린 융자금을 갚기 위한 저축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3년 3월에는 복음장학회도 설립되었다. 서강대학교 김어상 교수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복음장학회는 2002년 제정구장학회로 개편될 때까지 복음자리마을 자녀

들의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복음자리마을 입주가 끝난 직후부터 경제적 자립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였다. 현재까지도 복음장학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학생들에게 소중한 장학금을 이어나가고 있다. 렉스(Rex)토키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건축자재임대협동조합 등을 차례로 시도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했다. 렉스토키협동조합과 한우협동조합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건축자재임대협동조합은 5년 동안 지속되며 사업성을 보였다.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모색은 계속되어 각종 차와 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보금자리를 설립하였다.

제정구 의원 사후,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복음자리에 세워졌으나, 재개발로 인해 신천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인 작은자리 복지관 옆 제정구 생명마당으로 이전해 지금까지 그의 얼을 기리고 있다.

2.2.2. 시흥시 보건 의료 운동

보건 의료 운동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흥 대야동의 신천연합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시흥지역에서 보건 의료 운동의 시작은 1970년대 도시 지역 빈민 운동의 출발 또는 사회 민주화 운동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지역민을 중심으로 의료 사고에 대한 환자 상담과 피해 구조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1982년 의료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도와주면서 의료 소비자 운동이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시흥 지역의 경우 보건 의료 운동은 빈민 운동과 결합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빈민 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제정구가 복음자리마을을 마련하면서 시흥시는 빈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시흥 지역에 있었던 신천연합의원³²⁾이 한국 보건 의료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기에 시흥시는 보건 의료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시흥시는 우리나라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터전이었으며,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은 복음자리마을 주민과 신천연합의원이 수행하였다. 복음자리 빈민 운동

32) 지금은 신천연합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은 지역 센터 중심의 지역 주민 운동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민주화가 성숙한 후에는 지역 복지 운동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신천연합의원은 민주화 운동 속에서 보건 의료 운동을 새롭게 개척하여 시흥 지역 단위의 보건 의료 운동을 전국적인 보건 의료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신천연합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동아리인 사회의학연구회 출신인 의사 양요환, 안용태, 고경심이 1986년 4월 지역 의료 활동을 위해 만든 병원이다. 당시 양요환 원장은 질병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을 넘어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질병이 생성되고 치유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 뜻을 같이 한 후배들과 함께 신천연합의원을 설립하였다. 신천연합의원은 초기에 지역 의료 운동의 실천 대상으로 북읍자리마을을 선정하여 북읍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철거 투쟁에서 다치거나 노동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운동의 목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1988년 인천의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992년 93병상의 병원으로 승격한 신천연합병원은 보건 의료 운동 차원에서 지역 의료 체계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지역의료센터와 지역정보보건센터를 만들었다. 또한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사업을 개시하는 등 지역 의료 사업을 확대시켜 왔다.

시흥시의 보건 의료 운동은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성장 및 변화해 왔으며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신천연합병원의 양요환 원장은 지역 의료 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른 재단과 결합하여 녹향메디컬³³⁾이라는 노인 전문 병원을 또다시 설립하였다.

2.3. 시흥시의 환경운동

2.3.1. 환경 운동의 역사

환경 운동은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행위자들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환경 파괴 행위를 감시하거나 환경 파괴 정책을 지속적으로

33) 지금의 녹향의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로 감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 또는 개인의 활동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아울러 환경 파괴의 실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도 환경 운동에 속한다. 특히 시흥은 공업도시로서 발전의 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흥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되게 되는데, 시흥의 환경운동은 이 단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에 발전의 논리에 의해 건립된 시화호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양호했던 시흥의 자연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시흥을 비롯한 안산·화성 환경 운동 단체는 다양한 시위와 행동을 통해 ‘죽음의 호수’로 변한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시화 신도시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받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운동을 계속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갯벌 매립을 통한 개발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환경 운동 단체들과 개발 주체 간의 갈등도 깊어졌다. 시흥 지역에서 환경 운동은 산업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시화호와 시화지구가 조성되기 전 시흥 지역은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4년 조성된 시화호의 수질은 급격히 나빠졌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정부는 1996년 6월 시화호 갑문을 불시에 개방하였다. 결국 1998년 말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사실상 포기되었고, 2001년 2월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초기에 시화방조제 바깥 해양오염을 우려해 시화호 방류를 반대했던 환경 단체들은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해수 유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화호 수질은 2005년에야 물막이 공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86년부터 추진된 시화국가산업단지도 사실은 태동부터 반환경적이었다. 시화호 남측 갯벌 1,730만 평^[57.2km²]에 공단을 조성해 중소기업 전문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등지의 공해 유발 사업장을 반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6년 입주를 시작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인 시화 신도시 주민들도 악취와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정왕동 주거 단지 사이에 완충 녹지를 조성했으나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시화지구의 환경 오염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5년 소래산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시흥환경운동연합이 발족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수질 개선과 시화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시화호 수질 개선 운동 과정에서 1999년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 연대 회의’를 결성하여 시화호를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화지구 종합 개발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세지자 건설교통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시화호 남측 간석지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원안보다 축소된 720만 평[23.8km²] 규모의 개발 계획으로 축소, 확정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의제 21[Agenda 21]’을 지역 차원에서 설정하고 실천할 ‘맑고 푸른 시흥21 실천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흥의 환경 단체와 시민들은 2000년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 2001년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 2006년 시흥 갯골 소금창고 복원 운동 등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 환경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갯벌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2014년 성과를 거둔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 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3.2. 시화 개발 지구 환경 운동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화호가 만들어지고 담수화가 시작되자 수질이 급격하게 오염되었다. 이 악화된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1990년대~2000년대 내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화호 주변에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를 조성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를 비롯한 안산시, 화성시 시민 및 환경 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시화호 수질은 2001년 담수화 포기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은 2004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1987~1997년 시화방조제 12.7km가 건설되면서 3억 3233만 톤의 물을 가두는 시화호가 만들어졌다. 또한 5,200만 평[약 1만 7200ha]의 간석지가 생겼다. 시화호는 호수 내 물 순환 부족과 하수 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죽음의 호수’로 변해 갔다. 아

울러 호수 주변 땅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딪쳐 갈등이 발생하였다.

시화호 수질은 1989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8ppm 수준이었으나 1994년 5.7ppm, 1995년 11.1ppm, 1996년 20.3ppm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 1996년부터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태도 빈발하였다. 결국 1998년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사실상 포기되었다.



시화호 전경

1999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환경 단체가 모여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 연대’를 결성하였다. 환경 단체들은 초기에는 시화호 갑문을 개방해 해수가 드나들도록 하면 시화방조제 바깥 바다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해수 환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오염이 갈수록 악화되자 오히려 바닷물을 순환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2001년 2월부터 갑문 개방이 결정되었다. 해수 유통 이후 시화호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2005년에는 연평균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3.53ppm으로 낮아졌고, 물막이 공사 1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2년

부터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 9마리가 관측된데 이어, 개체 수가 늘어 희귀 물새들의 집단 서식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 4월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신길동에 걸친 시화지구 북측 간석지 317만 평^[약 10.5km²]를 매립해 첨단 정보 통신 업체 등을 입주시키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2020년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친환경 첨단 벤처 업종과 유통 시설, 상업 업무 시설,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 연대’는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철새 서식지를 훼손하며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화호와 인근 지역 환경오염 총량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였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40여 차례 논의와 토론, 공동 학습을 통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07년 원래 계획 면적보다 줄어든 약 9.3km² 규모로 착공되었다.

이 밖에도 2001년에는 지식경제부³⁴⁾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화지구 간척지를 지나는 송전선로 38.25km 설치 사업을 확정 고시해 환경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시화호 남측 간석지 398만 평^[13.2km²]에 인구 9~11만 명 규모의 관광·레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시화지구 종합 개발 구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시흥시 환경 단체들은 시화지구 종합 개발 구상안 역시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1년 2월부터 시화호 갑문을 개방하면서 해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자 시화호 수질은 물막이 공사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민 운동의 결과, 2007년 당초 계획 면적보다 축소된 규모 공사로 착공되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 시화방조제 공사는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보다 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거듭 진행하였고, 시화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은 시흥 시민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에 반발하였

34)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다. 시흥시의 시민과 환경 단체는 시화 간석지가 친환경적인 생태 공업 단지로 거듭나야 하며, 시화호 주변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2.3.3. 소래산 살리기 운동과 시흥환경운동연합의 탄생

한국도로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래산 산마루 일부를 절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자 소래산을 지키려는 시흥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사 저지 운동을 펼쳤다. 시흥 시민들은 1995년 가을부터 1996년 봄까지 약 179일 간의 현장 농성, 시민 서명 운동, 시민 공청회, 시민 식목 행사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절개 공법이 아닌 터널 공법으로 공사 방식을 환원시켰다. 소래산 살리기 운동은 시흥시의 환경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래산에서 바라본 소래터널 원경



소래터널 근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³⁵⁾ 소래산 구간은 1992년 환경 영향 평가 당시 900m 터널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이 해당 구간의 암반이 단단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환경 재평가 절차 없이 1995년 10월 초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과 부천시 성주산 사이 산마루를 절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흥 시민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에 농성 텐트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구간

를 설치하며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시흥 시민들은 즉각 소래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래산 절개 반대 및 소래산 살리기 서명 운동'에 착수해 단기간에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참여 시민들은 1995년 10월 초부터 1996년 3월까지 179일 간 소래산 현장에서 절개가 예상되는 경사면에 천막과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겨울철인데도 캠프 농성을 이어갔다. 농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흥 시민이 400여 명에 이르렀다. 1995년 10월 20일에는 시흥시의회와 공동으로 '소래산 살리기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1995년 11월 11일에는 소래산 살리기 시민 결의 대회 겸 시흥환경운동연합 창립 대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3월 2일에는 환경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주점을 열기도 하였다. 1996년 4월 5일에는 남녀노소 시흥 시민이 대거 참여한 소래산 살리기 승리 기념 시흥 시민 나무 심기 행사를 펼쳤다.

한국도로공사는 결국 절개 공법을 다시 터널 공법으로 환원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 2월 22일 설계 변경을 통해 터널 공사에 착수해 1999년 11월 26일 상행과 하행 각각 편도 2차선인 소래터널을 완공하였다. 소래산 살리기 운동에 참여 하였던 시흥 시민들은 1998년 8월에도 배수지 건설을 위해 소래산 벌목이 진행되자 다시 텐트 농성에 들어가 소래산 숲을 지켜 냈다.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천시의 경계에 위치한 소래산은 소래산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시흥 시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시흥 시민들의 식목 행사가 해마다 이어져 예전보다 더 울창한 숲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래산과 성주산을 잇는 산마루는 보존할 수 있었으나, 다만 가재가 서식하던 소래산 계곡은 터널 건설로 사라졌다. 또한 소래산 살리기 운동은 시흥환경운동연합의 탄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래산 살리기 운동으로 인해 탄생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오염의 실태를 감시하는 한편 생활 속 환경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가는 시흥 지역 환경 운동 단체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시흥은 공업 도시와 수도권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는 도시로 지금까지 개발논리를 우선해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시흥의 원래 모습인 하늘과 땅과 물, 거기에 자리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히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환경운

동연합은 생활 속의 환경 운동을 통해 시흥 지역을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 10월 '소래산 절개 반대 및 소래산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으로 뜻있는 시민들과 군소 지역 환경 단체들이 모여 1995년 11월 11일 시흥환경운동연합 창립 대회를 개최하고 시흥 지역 연합 환경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11월 11일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후원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시흥 지역 환경 운동을 위한 조직 사업,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시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환경 피해 지역과 지역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연대 사업,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제도 개선 사업, 국내외 환경 단체와 환경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기타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있다. 조직 구성은 총회 밑에 고문과 감사, 공동대표 밑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환경교육센터와 소모임을 이끌고 있다.

2.3.4. 군자 매립지 반대 운동

경기도 시흥 지역 시민운동으로 특혜성 군자 매립지 공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시흥 지역 최초의 주민운동이다. 한국화약주식회사³⁶⁾에서 공사중이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대규모 매립 사업이 재벌·권력 간 비리 의혹이 있는 특혜 사업이라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범시민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사회 운동을 하던 인사들은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흥시 사회 단체와 시흥시정자문위원회, 각 학교 자모회, 종교인 등 정치적 입장과 소속을 떠나 시흥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줄기찬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1998년 (주)한화로 부터 개발 이익 환원 각서를 받아 냈다.

36) 1993년 (주)한화로 상호변경 됨.

한국화약주식회사가 1986년 12월 30일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 147만 평^[약 486만㎡]에 대한 매립 허가를 받고, 1987년 경기도로부터 시행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매립 허가일은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 발효되기 하루 전이었다. 개정 법률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으나, 이전 법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갖도록 하고 있었다. 제5공화국에서 자주 발생했던 권력과 재벌 간의 특혜성 비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매립 공사를 진척시키는 가운데 이를 인지한 당시 이철규 시흥시장³⁷⁾이 이러한 사실을 시민사회에 알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권익을 찾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왕동 일대

1991년 2월 11일 제정구(諸廷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³⁷⁾가 발족되었다. 한반위는 운동의 의의에 찬성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시민 행진, 서명 작업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갔다. 1991년 10월에는 소래국민학교³⁸⁾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정구는 면허권자인 경기도청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주도하였다. 한반위는 1992년 이후에도 군

37) 통칭 한반위.

38) 지금의 소래초등학교.

자 매립지와 반대 운동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파고다공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어 매립 면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운동을 이어갔다.

한반위는 이미 매립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립 저지보다는 개발 이익을 시흥으로 환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활동을 벌였다. 1997년 매립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개발 이익 환수와 군자 매립지를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내세운 화약 성능 시험장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추진위원회가 시흥시청 내에 설치되었고, (주)한화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15만 평[약 49만 6,000㎡]을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흥시의회가 1998년 6월 20일 한화 매립지 개발 이익 환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거듭 촉구하여 (주)한화로부터 추가 이익 환원 이행 각서를 받았다. (주)한화와 시흥시의 최종 협약은 2002년 4월 체결되었고, 시흥시는 2006년 군자 매립지를 (주)한화로부터 매입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군자 매립지는 배곧 신도시로 명명되어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배곧신도시 147만평이 개발되고 있으나, 군자매립지에서 시흥으로 환원되어야 할 7만5천평이 446억원이라는 돈으로 환산될 상황에 빠져있다. 2019년 12월 시의회에서 노용수 시의원은 기존의 합의대로 돈이 아닌 땅으로 환수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제쳐 놓고라도 시흥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낸 시흥시 최초의 성공한 주민운동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시민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향성이 다른 사회 단체와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널리 동참해 권력형 특혜로 귀결될 뻔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민의 땅으로 되찾았다. 이 운동은 시 승격 2년에 불과한 신생 도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결집시킴으로써 시흥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3.5.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의 배경에는 시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개발의 논리와 환경보호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에서 시작한다. 시흥시는 도심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의 사업체들을 시화공단 내로 이주하기 위해 '시화지구 이주 단

지를 조성하려 하는데, 이로 인해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의 조개더미 유적이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시흥YMCA 등 시민 단체, 종교 단체와 오이도 주민들이 저지 행동과 서명 운동, 법적 투쟁 등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펼쳤다. 그 활동으로 발굴 재조사를 실현시키고, 2002년에는 국가 사적 지정을 이끌어 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파노라마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에는 신석기시대 조개더미가 섬 전체에 산재해 있고,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등 서해안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많다. 1980년대 말 시화지구 이주 단지 조성 과정에서 오이도 신포동·소래벌·가운데살막 조개더미가 사라졌다. 특히 지표 조사를 담당한 서울대학교 박물관 측이 일부 유물과 유구(遺構)만 발견되었다고 발표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을 훼손시키며 이주 단지 조성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분개한 시흥시 시민 단체와 오이도 주민이 힘을 합쳐 2000년 조개더미 보존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오이도 선사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장 답사와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존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건의서를 문화재청 등 각계에 보냈다. 2000년 5월 16일에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문화재청이 시흥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1년 4월 6일 시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발굴 기관이었던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중요 유물이 없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으며 2001년 9월 27일 다시 굴착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진정서와 항의 공문을 보내고 현장 공사 책임자를 고발하

였다.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발굴 재조사 결과, 오이도 뒷산막에서 신석기시대에 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었다. 2001년 3월 2일 문화재청은 현장 보존 조치를 통보했으며 시민대책위원회는 2001년 11월부터 오이도 선사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역사 체험장과 역사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2002년 4월 1일 문화재청은 시흥 오이도 유적을 국가 사적 제441호로 지정하였다. 국내 조개더미 유적으로는 다섯 번째다.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은 시흥시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시흥시 향토사료실, 지역 언론인 시흥저널, 오이도어촌계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운동이다.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을 통해 주민 운동의 영역이 유적과 문화 영역으로 넓혀졌으며 서해안 연안 도시로서 시흥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 운동으로 오이도 선사 유적 공원이 설립되어 오이도 주민들이 현장의 문화 유적 교육 및 안내자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 19시대에 맞춰 시흥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자주 찾는 문화자원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탐방로

이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8년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촬영지로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특히 서울 근교에서 당일치기로 교육적 기능과 생태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이 드물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해놓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시민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3.6. 소래염전 소금창고 복원 운동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소래염전 부지의 소유주에 의한 무단 철거 직전의 소래염전 소금창고를 박물관, 미술관, 체험 학습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벌인 운동이다. 2006년 6월 4일 소래염전 부지의 소유주였던 (주)성담이 현장에 남아 있던 소금창고 40동 가운데 38동을 방화 등으로 무단 철거하였다. 이에 시흥 지역 시민 단체와 문화 연대 등이 '구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항의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항의 촛불 집회 등을 전개하였다.

2006년 당시 문화재청은 소래염전 터에 남은 소금창고의 가치를 인정하여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심의를 진행중이었다. 소래염전 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주)성담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여 2006년 6월 4일 기습적으로 소금창고 38동을 방화 등의 방식으로 하룻밤 사이에 철거하였다.

'구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항의 시민행동'은 (주)성담에 강력 항의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주)성담이 운영하는 이마트 시화점과 서울 이마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2007년 7월 31일 연성문화포럼이 시흥문화원에서 소금창고 복원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시민 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소금창고 16동을 복원해 소금 박물관, 시흥 갯골 자연 생태 미술관, 국제 미술 창작 스튜디오, 습지 체험 학습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흥시는 2007년 8월 17일 시흥 갯골 축제 현장에서 소금창고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시흥시는 전문 용역을 발주해 시흥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창고 복원 및 활용 방안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시흥 갯골의 상징이었던 소금창고를 되살리자는 운동을 통해 연안 생태계의 보

고이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흥 갯골의 중요성을 시흥 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금창고 복원 운동은 진보적 시민 단체는 물론 지역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문학회, 시흥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개발 이익을 노린 무분별한 갯골 파괴에 경종을 울린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1930년대 조성된 소래염전 일대에는 산출된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가 많았고, 폐염전된 이후 2014년 장곡동 일대 (주) 성담 솔트베이가 운영하는 솔트베이 골프클럽 옆 시흥갯골생태공원에 2개 동의 소금창고가 원형 복원되었고, 3개 동의 신(新) 소금창고를 복원해 위치하고 있다.

이 소금창고는 단순히 소금을 보관하는 기능적인 장소만이 아니다. 천일염이 금값이었던 시절에는 ‘소금 1가마=쌀 1가마’인 때도 있었고, 농촌에 수박과 참외 서리가 있었다면 해안의 염전 일대에는 ‘소금 서리’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소래염전과 소금창고는 그곳을 생업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내용이자 추억이고 지역에 축적된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소래염전 소금창고는 천일염을 산출함과 동시에 간수를 제거하고 소금을 외부로 보내기 전의 필수적인 보관처로 건립되었다.



원형 복원 소금창고 A동



원형 복원 소금창고 B동

염전은 전쟁과 휴전으로 북쪽에 집중되었던 소금 산출을 극복하고자 경기만, 특히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소래염전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산출량을 보였기 때문에 건립된 소금창고의 수도 급속도

로 늘어났다.

1996년 폐염전 조치된 이후 노동자의 거주지와 부속 시설 등은 소멸했지만, 목재 건물인 소금창고는 1990년대 후반까지 수십 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폐염전된 공간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금창고가 철거된 적도 있었다. 이후 주민의 항의로 소금창고가 다시 복원되는 해프닝도 발생하였다. 소래염전 부지였던 장곡동 일원에 조성된 약 23만㎡의 시흥갯골생태공원에는 관련 시설과 함께 소금창고가 복원되어 있고, 염전체험장과 생태교육장이 들어서 있다.

염전의 핵심 시설은 소금창고를 비롯하여 염부들의 주거 공간, 도구 보관 창고, 부속 건물 등이다. 산출된 소금은 자루에 넣지 않고 산 형태로 쌓아둔 채 간수를 빼기 때문에, 소금창고의 내부 벽면은 소금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릴 때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외부는 콜타르로 방수 처리를 하여 시커멓다.



신(新) 소금창고 3개동



염전 체험장

시민운동이 개발논리로부터 소금창고를 지켜내었고, 현재 시흥시민에게는 생태공원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다. 과거 염전의 역사와 같이했던 소금창고는 시흥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매년 시흥갯골축제라는 형태로 2020년에는 15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올해 축제는 코로나 19 여파로 ‘시흥갯골랜선축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시흥갯골생태공원 전경 파노라마

2.3.7.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

2000년 말 시흥시가 개발 토지 확보를 명분으로 오이도 갯벌 51만 5702 m^2 [15만 6000평]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 하자 시흥 시민들은 갯벌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2001년 1월 오이도 갯벌 보존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기관 항의 방문, 서명 운동, 집회와 농성,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끈질긴 반대 운동을 펼쳤다. 결국 2001년 9월 해양수산부가 시흥시의 매립 면허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

시흥시는 1992년부터 오이도 이주민단지와 한국화약주식회사[1993년 (주)한화로 상호 변경] 매립지[지금의 군자 매립지] 간 1.4km를 연결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199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 승인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 본격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시흥 지역에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갯벌 매립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대 입장이 많았다. 민자 사업자의 선정 무산 등 우여곡절 끝에 시흥시가 매립 면허 만료를 앞두고 본격 개발에 나서자 반대 운동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흥 시민과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단체로 결성한 오이도 갯벌 보존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자 시흥시의회는 2001년 5월 시흥



오이도항 선착장



오이도 빨강등대

시에 사업 추진 유보를 권고하였다. 시흥시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는 듯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2001년 8월 해양수산부에 매립 면허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2001년 9월 해양수산부가 시흥시에서 신청한 매립 면허 사업 기간의 연장 자체를 불허함으로써 오이도 갯벌 매립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시흥시는 설계 등에 들어간 비용 12억 원과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 되었다.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은 시흥 시민들의 힘으로 무분별한 개발 위주 정책을 막아 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서해안 갯벌 매립 사업에 경종을 울린 운동이었다.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은 시기적으로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과도 겹치고 있는데, 두 운동은 오이도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 보존이라는 시민들의 자각과 힘을 보여 준 대표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적 가치가 높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항은 개발논리로부터 시흥 주민의 시민운동으로 지켜난 문화유산이며, 앞으로 유지 전승시켜야 할 시흥의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2.3.8.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 역시 생태문화자원인 경기도 시흥시 하중

동 연꽃테마파크를 지키기 위해 인근의 레미콘 공장 건설을 막아낸 시민운동이다. (유)정보기업이 2014년 6월 하중동 보통천 옆에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자, 주부·학부모·농민 등 시흥의 문화와 생태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였다.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2만 7000여 명이 서명하였고, 1인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지자 시흥시는 2014년 10월 (유)정보기업의 공장 설립을 불허하였다. (유)정보기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시흥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하중동 레미콘 공장 예정 부지는 보통천과 바로 인접해 있고, 근처에 시흥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연꽃테마파크가 있다. 보통천은 시흥 갯골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이자 홍부저수지³⁹⁾의 물을 호조별에 공급하는 물길이다. 레미콘 공장이 건설될 경우 보통천의 오염과 인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 운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주부·학부모 등이 인터넷 밴드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반대 여론 형성에 앞장섰다. 단 나흘간의 서명운동에 시민 1만 7000명이 동참하였고, 최종 서명 시민은 2만 7000여 명에 달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흥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는 행위 변경 불허가 처분을 선언해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유)정보기업은 2014년 12월 시흥시를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유)정보기업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사를 거쳐 2016년 9월 9일 시흥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월 21일 대법원은 시흥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시흥시 주민운동의 전통에 따라 평범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생태 자산을 지켜냈다. 단기간에 시흥 시민 2만 7000명이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고, 1인 릴레이 시위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흥시는 보통천과 연꽃테마파크라는 생태문화자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39) 물왕저수지

2.3.9. 장곡동 노루우물 보존 운동

장곡동 노루우물은 500년간 이어 온 장곡동의 젓줄이다. 욕심쟁이 부자가 노루바위의 목을 깨뜨려 솟아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노루우물은 전통 시대에는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였고, 1990년대 후반까지 마을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던 소통의 장소였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시흥시 장현지구 보금자리 사업으로 장곡동 노루우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2013년 장현지구 사업 설명회 당시 노루우물 보존을 약속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약속을 번복하자 주민들이 맞섰다. 2014년 7월부터 주민들은 노루우물 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 대회,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의 1인 시위, LH 규탄 대회, 노루우물 보존 기원제 등을 잇따라 전개하여 마침내 2015년 11월 노루우물 보존을 관철시켰다.

장곡동 노루우물 보존 운동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노루우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인일보, 한빛방송 등 언론의 보도가 2014년 7월 이후 이어졌다. 2014년 11월 14일 KBS 1TV가 다큐멘터리 ‘노루우물 깨지는 날’⁴⁰⁾을 방영하여 주민들의 보전 노력을 널리 알렸다. 2015년 6월 군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노루우물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장곡동 주민들의 반발에도 노루우물 보존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11월 18일 노루우물을 보전하기로 장현지구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장곡동 노루우물 보존 운동은 시흥시 장곡동 주민들이 소중한 마을의 중심 공간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보존 운동을 통해 지켜낸 성공 사례이다. 특히 노루우물 전설의 스토리텔링이 교육적 효과가 높아 어린이들이 보존 운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돋보인다. 노루우물 보존 운동의 성공을 계기로 2015년 장곡동의 마을 축제인 ‘장곡 노루마을 축제’가 생겼다. 장곡 노루마을 축제는 노루우물이라는 문화자원을 지켜내고, 이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현재까지도 이런 전승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매년 10월경에 축제가 열리고 있다. 노루우물만으로는 그 전승 주체를 특정 지을 수 없기에 매년 인근 초등학교와 장곡동주민센터, 시흥갯골생태공원 등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0) <https://www.youtube.com/watch?v=BC9vc6EWpil>

3. 시흥 시민운동으로 파생된 문화자원

시흥의 시민운동은 시민 주체적인 힘으로 개발 논리에 맞서 시흥시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지켜낸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시흥 시민운동의 결과물들은 다시 시흥시민에게 생태공원이나, 자연환경, 문화콘텐츠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지닌다. 소래산,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선착장, 빨강등대, 보통천과 연꽃테마파크, 장곡동 노루우물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은 다른 지역보다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생태공간을 보존하여 부가적 가치인 축제자원 역시 활발하게 유지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소래산살리기 운동을 통해 소래산 산마루를 보존하여서 대야동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래산 행복축제가 2016년부터 개최할 수 있었다. 소래산 행복축제는 소래산 자락 대야동 미관광장에서 진행되며 대야동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캘리그래피, 생태놀이체험, 자연과 곤충체험, 김밥만들기, 심폐소생술체험, 사진인화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장원이요(문과, 무과 과거시험 재현),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성인문해시화전”, “수라관”(요리대회), “웃놀이”와 같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다. 대야동 주민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하며, 시민이 지

켜낸 소래산을 통한 주민 한마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오이도 선사 유적지 보존 운동을 통해 지켜낸 오이도선사공원은 선사유적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를



제4회 소래산 행복축제

체험할 수 있는 ‘오이도 1박 2일 선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민 중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6천 년 전 오이도에 살았던 선사시대 신석기인의 삶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사시대 시간여행을 통해 현대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생존의 삶을 살았던 방법을 그대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장으로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가능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으로 지켜낸 역사교육문화자원이다. 오이도 1박 2일 선사캠프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는 5~6월 사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당 8팀의 가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소래염전 소금창고 복원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시흥갯골생태공원에는 2020년 유일하게 축제자원인 ‘시흥갯골 랜선축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물변신 드레스룸’ 프로그램을 통한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우리집 생태공작소’ 프로그램은 자연소재인 갈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 제작, ‘지구를 지키는 워크숍’에서는 친환경을 위한 소재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 ‘건강지킴 꾸러미’인 마스크·소독제·비누 만들기, ‘갯골동물 퍼즐놀이



2019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오이도 1박 2일 선사캠프 참가자 모집

신석기시대로 떠나는 1박2일 간의 시간여행!

캠핑 일정

상반기	하반기
1회차 5월 25일~26일	4회차 8월 31일~9월 1일
2회차 6월 15일~16일	5회차 9월 7일~8일
3회차 6월 22일~23일	6회차 9월 28일~29일

서단법인 동아시아고고학연구원와 대동고고학포럼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참가 대상
7~13세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선석손 마감(1회당 8가족)
※매당 연령에 맞는 어린이만 참가 가능

참가 비용
인 가족당 8만원
※집대 5인까지
※제당 및 식사 일체 포함

참가 방법 및 문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oidomuseum.siheung.go.kr/>
문의전화 031-310-3460/3458
오이도 선사유적 [oidomuseum](#)

캠핑 장소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아영마을

신석기시대(중기)도굴유적과 토기도굴유적이



오이도 1박 2일 선사캠프



2020년 시흥갯골 랜선축제

이'를 통한 갯골 생태계 생물 교육, '셀프 갯골 걷기 여행', '갯골 피크닉', '갯골 전국미술대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시대에 맞는 언택트(Untact) 프로그램으로 갯골랜선예술제가 기획되어 있어 '랜선 클래식 음악제', '랜선 국악 음악제', '랜선 무용 예술제', '랜선 어쿠스틱 음악제', '갯골인형극제'와 같은 다양한 예술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갯골랜선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습관으로, 코로나 19 시대에 환

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역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앞으로 미래세대의 환경시민운동을 키우는 자양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 19시대에 시흥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금창고 복원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자원을 지켜낸 소중한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오이도 갯벌 매립 반대 운동으로 지켜낸 오이도 선착장 인근은 사실 이전부터 시흥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었다. 자연의 보고인 갯벌을 단순한 개발논리로 매립하고자 했던 행위는 시흥시민들에게 생태문화자원인 오이도 갯벌을 빼앗아 가는 행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다. 오이도 인근은 과거 2005년부터 오이도

조가비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다.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매년 가을 밀물 때 맞춰 2일간 진행되었다. 1일차 주요 행사로는 사물놀이,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공연, 특산물 전어 잡기, 개막식 등이 행해지고, 오이도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흥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준비한 주민 공연이 펼쳐졌다. 2일차에는 폐막 및 불꽃놀이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지며 제51사단 군악대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또한 오이도 음식 문화 시범 거리 대표 음식의

무료 시식, 오이도 특산품 할인 판매, 시흥시 특산품 연(蓮)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 등의 부스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맨손 장어잡기 체험, 갯벌 조개잡이 체험, 망둥어 낚시 체험, 후릿그물⁴¹⁾을 이용한 고기잡이 체험, 수산물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이틀간 펼쳐졌다. 2009년에는 신중 플루 창궐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이 행사는 오이도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꾸며 향후 서해안 제일의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 오이도 축제 공모 사업에서 오이도 조가비 축제가 탈락하게 되어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

41) 갯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

시흥바닷길 걷기축제



몸과 마음에 건강을 가져다 주는 바닷길 걷기

2019.04.27(토) 13:00~18:00

출발지 | 배곧생명공원 잔디광장

접수일정 2019.04.01(월)~04.15(월)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http://sgfestival.com> 시흥바닷길걷기축제 게시판)

참가비 1인 10,000원 (시흥화폐시루 5,000원, 완주 시 리워드 제공)



바닷길 코스(왕복 6km)
배곧한울공원 수변산책로 > 관광휴게동 반환 >
배곧한울공원 갯벌체험장 > 배곧생명공원

동대 코스(왕복 12km)
배곧한울공원 수변산책로 > 오이도 행정동대 반환 >
배곧한울공원 갯벌체험장 > 배곧생명공원

프로그램

10가지 걷기 미션

외다리걷기, 같이걷기, 지압한 걷기, 행명이 걷기, 나란히 걷기,
모부랑걷기, 미로걷기, 뒤로걷기, 허들걷기, 바포걷기

걷기운동연구소

바닷길콘서트, 건강포럼고사,

걷기영양연구소

떡가비촌, 마크닉촌

2019년 시흥바닷길 걷기 축제

이후 2017년부터 오이도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오이도 바다 축제'가 대신 개최 되어 2018년에는 '시흥 라라라 바닷로 걷기 여행축제'로, 2019년에는 '시흥 바닷길 걷기 축제'로 이름을 바꿔가며 축제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직접참여라는 축제의 특성 때문에 코로나 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되었다. 오이도 갯벌이라는 생태자원의 보존이 이와 같은 축제자원으로서 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시흥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식의 발현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오이도 인근의 어로 문화 역시 축제라는 이름으로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을 통해 지켜낸 생태문화자원인 연꽃테마파크는 관곡지 주변과 갯골생태공원 물왕저수지 주변 18ha의 논에 조성되어 있다. 주로 연꽃 개화시기인 7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해 7월 말경에 절정을 이루지만 10월 말까지 시민들이 몰린다. 연꽃이 다양한 수상식물들이 있어 시민들이 지켜낸 시흥시의 소중한 생태문화자원이다. 연꽃테마파크는 관곡지와 이어진다. 관곡지는 시흥 지역에 맨 처음 연꽃을 들여온 강희맹의 후손이 관리하는 곳이다. 강희맹은 남경의 전당지에 핀 연꽃에 반해 돌아오는 길에 그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이후 이곳은 연꽃이 피는 마을인 '연성(蓮城, 연꽃의 고을)'이라는 마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8만5천950m²(2만6천여 평) 규모의 들판에 봄부터 늦가을까지 피는 수련과 여름 태양을 이고 핀 다양한 연꽃이 있으며, 테마파크는 중앙 전시포를 별 모양으로 조성, 테마별 연꽃을 식재해 방문객들에게 매년 여름철 다양한 연꽃이 있다. 또한 저어새, 금개구리, 백로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아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7월경 시흥 관곡지 연꽃축제의 장이 되던 곳인데, 2019년에는 7월 2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요 수생식물 품종으로는 가시연, 빅토리아, 온대수련, 호주수련 등이 구역화 되어 심어져 있다. 연재배하우스 앞 열대수련 전시포에는 땃샬, 에버블루, 블루 카펜시스 등 세계 각국의 열대수련 12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해살이풀로 열매와 잎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가시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시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식물이다. 가시연은 대규모 습지준설과 수질 오염에 취약함에도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과 더불어 꾸준히 수질환경

을 개선하여 재배에 성공하였다. 또한 밤에만 볼 수 있는 홍련과 백련, 물양귀비 역시 이곳의 재배 품종이다.

테마파크는 잔디광장, 생태놀이터, 자생화식물원, 그늘막쉼터, 곤충돔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연성문화제, 가을에는 연근 캐기 체험, 겨울에는 족욕 체험 등을 통해 계절별 다양한 축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흥의 태생적 특성 때문에 개발논리와 생태환경보존이라는 딜레마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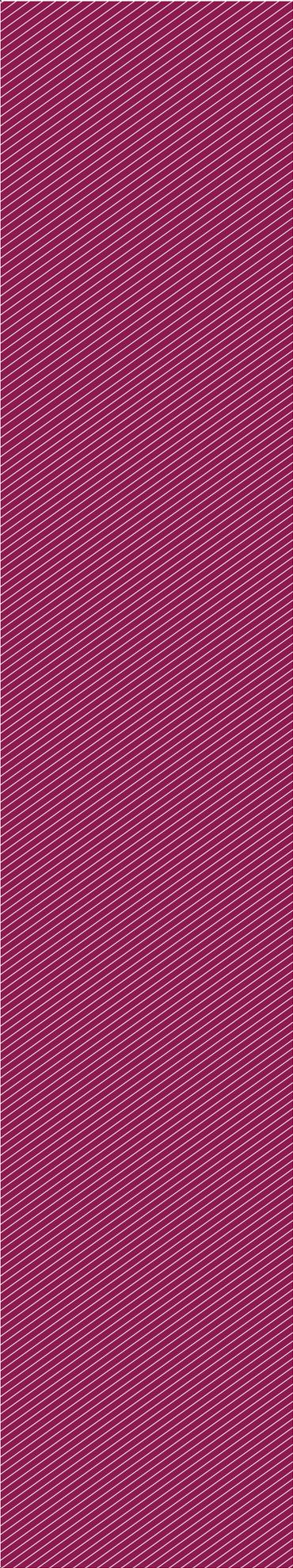
만약 시흥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시민운동이 꽃피우지 못했다면 위에 서술한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파생된 축제자원들 모두 사장되었을 것이다. 이는 시흥이 평범한 공업도시로 생태환경자원이 없는 삭막한 산업도시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흥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참여로 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생태 문화자원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특수성 때문에 시흥은 현재에도 시민운동이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며, 축제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생태체험활동을 통해 미래 시민운동세대들을 육성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시흥시의 시민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2019년 연성문화제

| 참고문헌 |

- 『2016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 연구회 연구보고서』(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 연구회, 2016)
- 『길 위에서 만난 시흥』(시흥시평생교육원, 2012)
- 『서부공단 50년사』(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 『시흥시사』(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 『신현동지』(시흥문화원, 1999)
- 『어촌 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6)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 『한국산업단지 총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 김미, 민현정, 「한국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경험적 분석」(『한국거버넌스학회보』 11권 제2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12.)
- 「시화공단에 국내 최대 철강 유통단지 조성」(『동아일보』, 2004. 6. 4.)
-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5)
-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 사업 지구' 선정」(『시흥신문』, 2017. 4. 1.)
- 「시흥 시민·사회 단체, '오이도 철강공단지'-허가 철회 요구」(『뉴스시』, 2006. 5. 17.)
- 「시흥 오이도 갯벌 매립' 논란」(『문화일보』, 2000. 6. 20.)
-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첫 삽 뜨다」(『컬처인시흥』, 2016. 4. 28.)
- 「시흥시 오이도 갯벌 매립 추진...환경단체·주민 반발」(『조선일보』, 2001. 5. 3.)
- 「오이도 갯벌 매립 백지화의 의미」(『에코뷰』월간 함께사는길』, 2002. 4.)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개장식」(『경기시사투데이』, 2018. 4. 11.)
- 「촛불은 광장에서 의회로 진군한다」(『한겨레21』, 2009. 4. 23.)
- 「하중동 레미콘 소송, 대법원에서 시흥시 최종 승소」(『시흥저널』, 2017. 1.22)
- 배곧 신도시(<http://baegot.siheung.go.kr>)
- 스틸랜드(<http://www.steelnd.net>)
- 시흥갯골생태공원(<http://gaetgol.siheung.go.kr>)
-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http://smcd.kr>)
- 시흥시 시흥통계 사업체조사보고서 <https://www.siheung.go.kr/>
- 시흥환경운동연합(<http://shihung.kfem.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



4부

시흥시 소래산 인근 집성촌의 지속과 변화

김은희(경기도 문화재위원)

1. 시흥시의 역사와 소래산

시흥시는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존재해 왔으나, 역사의 굴곡 속에서 그 현재적 모습은 전통과 역사에 관한 면모가 많이 상실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의 시흥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보금자리 건설사업과 재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작업 등으로 인해서 변화의 흐름을 급격하게 겪어왔다. 이러한 개발 작업으로 인한 지역의 전통적인 면모의 변화는 물론 고려와 조선에 이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겪으면서 지역 경계선의 해체와 통합·분리의 큰 흐름 속에 정체성 혼란을 겪어 왔다. 이는 시흥시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흥은 경기도 남서부권에 해당하는 안산,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주변의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안산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해안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임해공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1980년대 이후 도시화 공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포함되었다.

시흥은 또한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북쪽에는 소래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에는 양지산(140m)이,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운흥산(104m), 군자봉(198m), 봉화산(116m) 등이 있다. 이들 산줄기와 함께 골짜기를 따라 뱀내천, 장현천 등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형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소래산의 기슭의 소래권과 군자봉 기슭은 군자권, 양지산 기슭의 수암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흥시 북부의 여러 마을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소래산은 인천의 남동쪽에서 경기도 시흥의 북서쪽에 이르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산으로 고도 299.4m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소래산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인천부읍지」에서 확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소래산은 “인천부 동쪽 24리 되는 곳에 있으며 인천

의 진산(鎭山)”으로 확인된다. 또한 『여지도서』의 「인천도호부」 ‘산천’ 항목에서도 소래산이 확인되는데, “(인천도호)부의 동쪽 20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과천의 수리산 서쪽 기슭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북쪽으로 30리에 이르러 (소래산이) 된다.”로 중요한 산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 등에서는 ‘소래’라는 지명이 삼국 시대 신라 무열왕 7년(660)에 당나라 장수였던 소정방이 나당연합군으로 왔을 때 ‘소정방이 와서 머물렀던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그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지형적 특징에서 왔다는 설, ‘냇가에 소나무 숲이 있어 그 일대가 솔내로 불렸다.’는 설 등이 확인된다. 그 지명이 『조선지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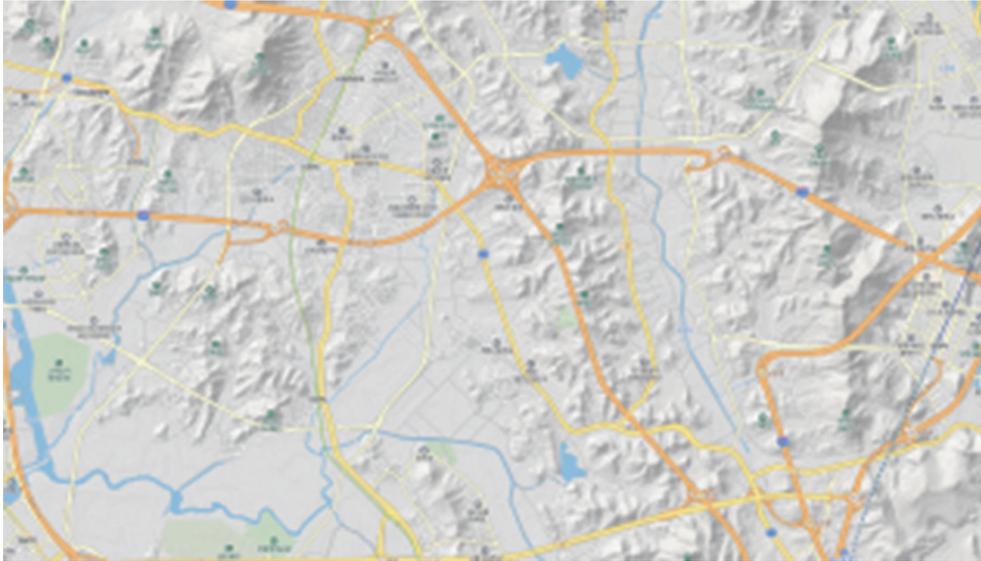
특히 시흥시의 북부에 위치한 소래산 인근에 위치한 마을들의 경우 현재 시흥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의 흐름 속에 속했었던 지역들이다. 이들 시흥시 북부의 소래산 인근에 위치한 마을들은 과거 인천의 관할 구역에 속했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잠시 부천으로, 해방 이



시흥시 행정구역 관내도 (출처 : 시흥시청 홈페이지)



군자·수암·소래권 위치도 (출처: 『시흥시사』 5권, 21쪽)



〈소래산(좌상단)과 시흥의 마을들〉

후 다시 시흥의 관할구역 안으로 내포하게 된 지역들이다. 오랫동안 인천의 경계 안에서 역사를 쌓아온 이들 지역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인천의 권역 밖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흥시 북부의 마을인 과림동(과림동·무지내동), 매화동(매화동·도창동·금이동), 대야동(대야동·계수동), 신천동, 은행동(은행동·안현동), 신현동(방산동·포동·미산동) 등의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개가 소래산(299m) 인근 지역에 형성된 마을들로 소규모의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거주집단을 이어왔다. 조선시대까지만 인천부에 속했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부천군 소래면으로 편입되었다가, 해방을 거치고 나서 1973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다시 시흥군 소래면에 편입되면서 현재까지 시흥시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된 지역이다. 그리하여 그 뿌리가 인천에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 대 초반까지 약 60여 년간 부천시에 포함되었다가, 지금은 시흥의 일원이 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흥북부의 소래산을 기대고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의 흔적은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으로 유지해 왔으나, 더 이상 그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행정구역의 변화만큼 그 외형적 변화를 맞이했고, 삶의 양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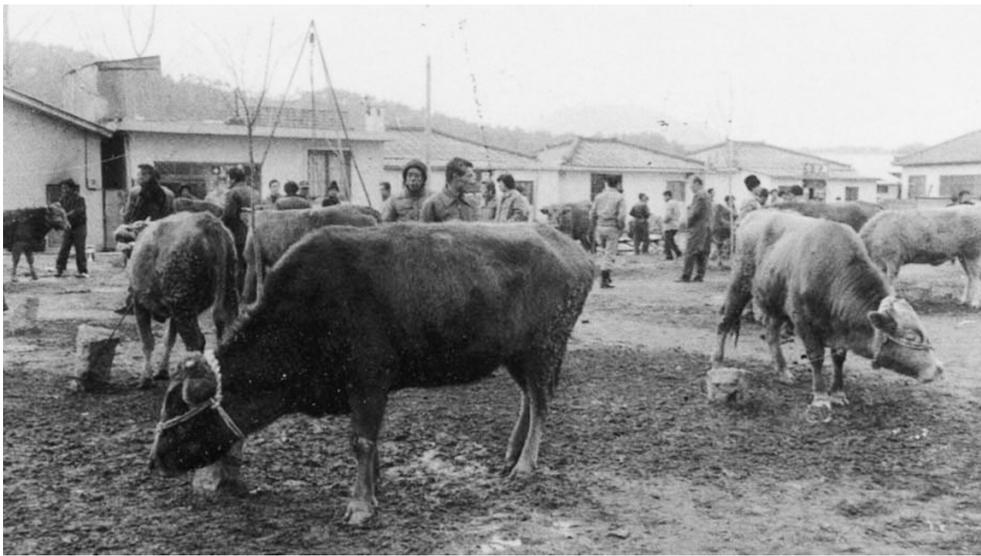


시흥시 초기에 형성된 신천권 시가지 (출처: 『시흥시사』 권1, 263쪽.)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시흥시에서 가장 일찍 생활중심권으로 성장해 온 지역이 바로 이들 소래권이다. 시흥 지역은 임해지역이며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어서 전통적으로 농업은 물론 어업과 염업 등이 두루 발달한 지역이다. 군자권과 소래권의 해안가 지역에서는 염업이 성장했으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수도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 은행동 등을 포함하는 소래생활권은 수인선 주요 간선도로가 위치하면서 대규모의 도·소매 상가 및 점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등이 들어서서 상권을 크게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소래상권은 곧 뱀내장의 위치와 중요한 영향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시흥북부지역의 생활중심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조선시대 이래로 오랫동안 소래산 그늘에 생활터전을 잡고 과림동(과림동·무지내동), 매화동(매화동·도창동·금이동), 대야동(대야동·계수동), 신천동, 은행동(은행동·안현동), 신현동(방산동·포동·미산동)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왔고, 현재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변화를 크게 몸을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변화

의 집중적인 흐름 속에 있는 집성촌 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과거에 소래산에 터전을 삼아 살았던 사람들의 20~30년 전까지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뱀내우시장(1970년대 모습) (출처 : 『시흥시사』 9권, 220쪽)

2. 소래산 인근 집성촌 마을

2.1. 시흥시 전통마을의 형성

2.1.1. 시흥의 형성과 전통마을의 형성

바다에 연접한 서쪽에 위치한 시흥은 지리적으로 서쪽은 바다에 접하고, 한강 남쪽으로 과천·용인·인천·안산의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시흥은 고대사회에서 전쟁 주력부대가 도하하는 지역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전략요충지로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시흥은 각 정치체의 변동에 따라 그 역할이 변동되면서, 초기철기시대나 원삼국시대에 마한의 소국으로서 독자성이 일정 정도 유지되다가, 3세기경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백제의 영역에 속했었다.⁴²⁾

시흥 북부지역이 속했던 인주(仁州)는 신라 경덕왕이 소성이라 고쳐서 울진군의 관할하에 들어간 현이 되고, 시흥 남부지역인 안산(安山)현은 고구려의 장항구현에서 신라 경덕왕 대에 장구군으로 바뀌고, 고려초에 안산현으로 바뀌게 된다. 고려 현종대에 지방제도의 기본구조가 마련되게 되는데, 1018년에 이르게 되어 시흥지역의 인주는 수주(樹州)를, 안산현은 수주(水州)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문종대에 시흥지역의 행정단위가 경기도에 편입되면서 개성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어, 경기도의 좌도에 속하게 된다.

고려 시대에 오랫동안 인주(仁州)로 불리던 지역은 지금의 시흥시 북부와 이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으로, 고려 말 공양왕(恭讓王) 재위 시절에 한 때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되었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 원년(1392)에 인주(仁州)라는 명칭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려시대에 양광도 수주군에 속했던 안산군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 2년(1402)과 태종 13년(1413)에 단행된 지방제도와 개명 개혁에 의해 경기

42) 『시흥시사 2권-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에 정리된 시흥시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다.

좌우도(京畿左右道)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에 예속된다. 이후 200년 이상 지속되던 안산군의 행정 명칭과 위계는 현종 4년(1633)에 다시 안산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안산군과 안산현으로 환원과 강등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게 된다. 안산군의 별칭인 연성(蓮城)은 영·정조대의 인물인 이공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과 순조대의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말기인 고종 32년(1895)에 칙령 제98호가 발표되면서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되어, 태종 이후 지속되어왔던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二十三府制)가 시행되었다. 이때, 안산군은 인천부(仁川府)에 예속되었으나, 이듬해인 고종 38년에 칙령 36호로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개정의 건’이 발표되면서 23부제에서 13도제가 시행되고, 안산군은 경기도에 속하게 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시행된 지방행정제도 개편 단행으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변경 및 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1914년 3월 1일자로 지금까지의 행정구역이 아닌 새로운 행정구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지금의 시흥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부의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은 부천군으로 통합되어 부천군 소래면에 포함되고, 안산군은 시흥군으로 통합되는데, 당시의 시흥군에는 기존의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통합되게 된다.

그러나 시흥군은 해방 이후,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수 없이 많은 행정구역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지속적인 분리와 분열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흥시가 정립된 이후 지역적인 분리운동들이 이어지고,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 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시흥시는 서북쪽으로 인천광역시에 접하고, 북으로는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등 5개의 행정구역에 접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과거 시흥군으로부터 분리된 지역들이 많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과정과 관할구역의 변모되는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서울인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이 조성되는 조선시기부터 시흥을 둘러싼 일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진행된 수도의 이전은 경기지역에 중앙정치세력과 중앙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정치세력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경제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서 경기지역에 지배세력의 경제적 토대가 다수 형성되면서 소규모로 세거를 새롭게 형성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경기도의 거점지 중 하나로 떠오른 곳 중에 현재의 시흥에 해당하는 당시의 인천과 안산지역을 들 수 있다.

시흥에는 15세기에 이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새롭게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이숙번, 강희맹, 하연 등의 인물들과 그 가계의 정착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⁴³⁾

이숙번(李叔蕃, 1373~1440)의 경우 그의 정치적 고향을 안산으로 삼아왔던 인물에 속한다. 이숙번은 조선 초의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인물로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다. 조선건국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등장한 혁명가로 세종에 의해 태종(太宗)을 보필하여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 인물이다. 세종은 이숙번에 대해, 젊은 나이에 능히 천리 밖에 있으면서 승리를 읽어 내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이숙번은 안성 태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숙번은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문과에 합격하여 안산의 수령인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근무하고 있었다. 1398년 8월에 있었던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이 펼친 1차 왕자의 난에서 정권의 핵심인물로 급부상하였다. 이숙번은 이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방원에게 크나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 등이 이방원을 위해할 것으로 예측한 이방원의 연락을 받고 병갑(兵甲)을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은(南園)의 첩 집에 모여있는 정도전·심효생 등을 기습하는 데 일조한다. 1차 왕자의 난 이후 이숙번은 우부승지가 되어 정종의 행보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정종이 즉위 후 한양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왕위계승을 놓고 정안군 방원과 회안군(懷安君) 방간(芳幹) 사이에서 벌어진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이숙번은 정안군 측이 승세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숙번은 주력군을 편성하여 교전현장에 뛰어들어서 상대 진영의 주력을 꺾고, 회안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잘못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회안군이 이숙번의 관할지역인 안산으로 유배되면서 회안군의 세력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태종의 정권 유지에서 중요한 역

43) 관련된 내용이 『시흥시사 2권-시흥의 전통시대』, 252~ 쪽에 정리되어 있다. 이하는 『시흥시사 2권』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할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외척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태종의 왕권 안정화를 위해 진행된 외척제거사건에서도 민씨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으로 이숙번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겸손하지 않은 자세와 거리낌 없는 성격 등으로 인해 후에 태종은 이숙번을 공신직과 관직을 박탈하여 정권의 핵심에서 밀어내고 함안에 머물도록 하였다. 말년에 유배가 풀려서 돌아간 곳은 결국 안산이었다.

이러한 이숙번이 정착했었던 안산이라는 지역은 이후 양아들인 강희맹의 정착 과도 연계된다.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조선 초기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세종조에 출생하여 성종조까지 정치가이자 문장가로 활동하였다. 특히 조선초기 유교적 예치체제에 대한 정비과정의 핵심에서 활동하면서, 『국조오례의』, 『사숙재집』, 『금양잡록』 등의 기록을 남겼다.

강희맹은 안산을 진주 강씨의 일파가 안산을 세거지로 정하는 데 출발점을 마련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관직에 출사한 초기인 문종 때에 세종의 소상(小祥) 절차에 대한 오류로 파직되고, 사육신 사건으로 형 강희안이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으나, 세조대에 이르러 판통례문사를 거쳐 당상관에 올라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 지는 듯했다. 그러나 곧 1467년(세조 13)에 이시애의 난으로 인해 세조의 질타를 받고 다시 파직되었다가 예종의 즉위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후 성종의 왕위계승 과정에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던 잘산군(성종)의 위치를 인지시키는 데 중요한 공이 인정되어, 좌리공신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대에 이르러 그의 관직생활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종이 왕위에 오른 후 강희맹은 공신으로, 훈구(勳舊) 가문의 일원으로, 성종의 파트너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활약한 것이다.

강희맹의 집안의 입지는 정치적 굴곡을 겪었지만, 세종대에 공고해지기 시작했고, 강희맹 당대에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강희맹에게 세종은 사적으로 이모부였고, 문종·세조와 이종사촌 간이었다. 강희맹의 고조대부터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앙관료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강희맹 당대에 와서 단단해지게 되었다. 특히 강희맹의 양부(養父)인 강순덕이 이숙번의 사위로 혼맥을 통한 명문집안의

입지를 다지기도 하며, 이어 강희맹 역시 순흥 안씨의 안승효의 딸과 혼인하면서 세거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 더욱이 강희맹의 양부인 강순덕이 이숙번의 사위가 되면서 이숙번의 사패지 중 안산 일대의 농장을 상속 받게 된다. 강희맹은 『세조실록』 및 『예종실록』 등의 편찬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세조대 『신찬국조보감』, 성종대의 『동문선』·『동국여지승람』 등의 사업에도 관계하는 등 주요업적을 남겼다.

이숙번, 강희맹과 함께 시흥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게 된 주요한 인물로 하연(河演, 1376~1453)을 들 수 있다. 하연은 승평수문(昇平守文)의 재상으로 일컫는 인물로, 세종대의 성세에 핵심관료의 한 명으로 임금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다. 또 하연과 함께 그의 아들 하우명(河友明)의 효성은 지극한 효심으로 이름을 알렸다. 고려 개경에서 관직을 맡은 아버지 하자종을 따라 서울생활을 시작해서, 정몽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조선의 개국 이후 스승인 정몽주의 죽음을 지켜본 후 낙향하여 고향인 진주에서 살고자 하였다. 당시 외종질인 강희백이 권유로 서울에서 살면서 21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여, 예조와 이조의 낭관을 역임한다. 시와 서에 능통하여 명성 또한 얻었다. 태종에 의해 승정원에 발탁되어 당상관(堂上官)에 오른 후 세종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연은 유교관료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인물로 불교 관련 정책에서 단호함을 보이면서 유언으로 철저한 유교적 의례를 당부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한다. 하연은 전국의 사찰을 선종과 교종으로 양분하고 도 단위로 2~3개 정도만 남기고 정리하도록 제안한 것은 물론, 세종 말년에서 문종대에 불교행사가 성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하연은 세종대의 전세제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물론 경상도관찰사 재직 시절에 『경상도지리지』 편찬의 책임을 맡았고, 형조판서 시절에 『오례의(五禮儀)』 등 국가 편찬사업에도 관여한다.

특히 하연의 집안의 효행과 관련해 많은 행적을 남겼다. 하연이 부친인 하자종을 극진히 모셨는데, 조선의 개국을 반대한 부친의 뜻에 따라 도성 안이 아닌 돈의 밖에 거처를 정했고, 부친 사후에는 생전 거처하던 곳을 영모당(永慕堂)으로 칭하고 생전과 같이 공간을 보존하고 참배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의 아들 하우명 역시 효행이 널리 알려져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여 복호(復戶)하였다고 한다.

한양 천도 이후 하연 일가가 처음 근거지를 마련한 곳은 인천(陽州)였는데, 하연

은 소래산 일대를 새롭게 확보하여 세거하게 된 것이다. 강희맹이 하우명을 위해 『정문기(旌門記)』를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소래산 별장으로 지칭되는 장소가 소래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연의 사후에 소래산에 묘소가 조성되고, 그의 셋째 아들인 하우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소래산 기슭에 거주하면서 세를 이어 가게 된다. 소래산과 하연의 인연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부친인 하자종이 안산의 수령을 역임한 적이 있고, 하연이 동생 하결(河潔)에게 쓴 시에 ‘소산(蘇山)’이라는 명칭이 등장해 일정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강희맹 집안과의 친분이 소래산 인근에 정착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이숙번, 하연, 강희맹과 같은 인물들이 시흥 일대에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 삼의 터전으로 삼게 되자 시흥지역의 지배세력에 일정한 변화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선 시기 대대로 높은 관직을 역임한 문벌 세력들의 자취가 남겨지게 되고, 그 흔적이 수 많은 묘소로 남겨지게 된다. 실제 16세기 이래 사림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학문적 수수관계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족들을 견인하게 되는데, 특히 시흥에 정착한 진주 강씨와 창녕(昌寧) 성씨(成氏)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17세기에 이르면 정치적으로 사림계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시흥을 주요 지역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 가게 되고,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 사림계 가문들이 중앙정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문들에서 당색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17세기에 주목되는 시흥지역 세거 가문으로 문화 류씨, 청주 한씨, 안동 권씨, 덕수 장씨, 반남 박씨, 파평 윤씨 등이 있다.

시흥 일대는 사족들이 국혼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고, 국왕에게 받은 사패지에 묘소를 마련하여 후손들이 세거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사족세력을 형성하여 가문 보존을 위해 유력한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관료로 진출하여 문벌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시기에 따라서 주류를 이룬 가문이 당색을 가지면서 달라졌으나 이러한 세력들이 시흥 일대에 세거하면서 관료가문의 묘산 소재지로서 잠시 우거하는 곳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

2.1.2. 행정구역 개편과 소래산 인근 전통마을의 유입

현재의 시흥시는 취락의 전개양상이 행정구역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는데, 현재는 소래권, 군자권, 수암권으로 크게 삼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소래권은 13개 법정동이 해당되는데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방산동, 미산동, 포동, 은행동, 안현동, 과림동, 매화동, 도창동, 무지내동, 금이동으로 시흥의 북부지역에 해당한다. 소래권은 현재 시흥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

소래권의 중심지인 소래산은 북쪽으로 주안산, 철마산에 이어 고려시대 계양도호부의 진산인 계양산으로 연결되며, 인천·부천·시흥의 산맥을 이루는 주산이라 할 수 있다. 소래산은 예로부터 부평과 소사·과천·안산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소래포구를 거쳐 바다길을 잇는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소래권은 조선시대에 인천부(仁川府)에 속했던 황등천면(黃等川面), 신현면(新峴面), 전반면(田反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서해에 맞닿아 있어서 어촌적 삶을 일구고 경지를 개간하여 점차 농업의 기능이 더해진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들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변경 및 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1913년도에 공포됨에 따라서 1914년도에 부천군(富川郡)의 관할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천군 소래면(蘇萊面)으로 통합되었다. 당시 인천부에서 부천군으로 관할이 이전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시흥시사 권5』에 정리된 아래의 표와 같다. 시흥시 소재 소래권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표 2〉 소래권의 변화

조선시대 후기		일제시기(1914.03.01.)		2005년 이후	
				법정동	행정동
인천군 황등천면	일리(두곡), 일리(목과동), 일리(불아위), 이리(중림), 삼리(탄평)	부천군 소래면	과림리(두무절이, 모갈, 부라위, 중림, 솟두루지)	과림동	과림동
	육리(수노곡), 육리(구미), 육리(가일), 육리(건정리), 육리(고공리), 칠리(내곡), 칠리(후곡), 칠리(덕석리)		계수리(수노골, 구미, 가일, 건지물, 고갱이, 안골, 뒷골, 덕석골)	계수동	대야동

44) 『시흥시사 권5』, 22쪽. 〈표 4〉 소래권의 변화

조선시대 후기		일제시기(1914.03.01.)		2005년 이후	
				법정동	행정동
인천군 전반면	일리(양지리), 일리(가대동), 일리(송내동), 이리(장낙동)	부천군 소래면	안현리(양지면, 대말, 길마제, 장낙골)	안현동	은행동
	이리(매착리), 이리(신기촌)		매화리(매채기, 새터말)	매화동	매화동
	삼리(도두리), 삼리(강창리)		도창리(도두머리, 강창리)	도창동	매화동
	사리(진촌), 오리(검의리), 옥리(도이리)		금리리(지말, 거말, 도리제)	금이동	매화동
	칠리(능내동), 칠리(중동), 칠리(신흥동), 칠리(은행동)		무지리(능안말, 중동, 신흥동, 은행동)	무지내동	과림동
인천군 신고개면	대야동	대야리	대야동	대야동	
	신촌리, 사천리	신천리(새말, 뱀내장터)	신천동	신천동	
	죽원, 산정리, 방곡리	방산리(다니, 산우물, 방골)	방산동	신현동	
	포동, 국동	포리	포동	신현동	
	창동, 고기리, 이리	미산리	미산동	신현동	
	삼리	은행리	은행동	은행동	

또한 이들 지역은 해방 이후 법률 제2597호(1973년 3월 12일 공포)가 1973년 7월 1일에 시행되면서, 부천군이 폐지되고 부천시가 되면서 그 관할구역 중 소래면(蘇萊面)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시흥군(始興郡)에 편입된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소래염전 549정보(약 165만 평)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문화와 경제가 바뀌게 된다. 1930년대에 시흥지역의 총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염업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래염전의 조성으로 이들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면서 지역문화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즉 평안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유입과 ‘쿨리’라고 불리는 중국인 염전노동자의 유입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정체되었던 소래지역의 문화는 새로운 문화들이 혼합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소래염전의 설치와 함께 1937년에 수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인구의 유입은 물론 물자의 유통이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군자염전이 조성된 군자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전쟁을 거치면서 시흥과 소래권 일대의 지역이 침체되었으나, 이후 경인공업지대 개발로 인해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시흥지역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소래권의 경우 경인공업지대와 연결한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대거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흥지역의 인구변화 추이를 조선시대 이래로 1973년까지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⁴⁵⁾

〈표 3〉 조선시대~1973년 인구성장 추이 (단위: 가구, 명)

구분 연도	시흥지역				소래권 인구	군자권 인구	수암권 인구
	가구	총인구	남자	여자			
1789	3,672	15,044	7,977	7,067	3,118	5,721	6,205
1912	4,267	17,012	9,143	7,869	5,277	5,573	6,162
1930	4,983	26,177	13,425	12,752	7,885	9,968	8,324
1962	9,554	55,309	27,887	27,422	19,601	20,775	14,933
1968	9,672	55,653	28,228	27,425	20,261	19,934	15,458
1973	10,426	57,067	29,099	27,968	21,983	19,560	15,524

1983년도에 소래권에 속한 옥길리와 계수리가 광명시와 부천시에 편입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동시에 부천시와 인근지역의 성장, 수도권 산업화와 도시화는 소래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과 부천생활권이었던 소래권에서는 인구증가 폭과 규모가 커졌고 1987년도에 이르면 시흥 총 인구 82,360명으로 1973년도에 비해 2만 5천명 가량 증가한 가운데, 소래권 인구가 51,991명으로 시흥 전체 인구의 63%에 해당할만큼 급성장하게 된다. 1973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소래권은 136.5%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소래권은 현대에 이르면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시흥 관내에서 산업화 도시로의 성장을 가장 빨리 시작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흥의 현재적인 모습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소래권의 자연 마을

2.2.1. 소래산 지역 자연마을의 형성 배경

소래산은 시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북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299.4m로 정동방향의 수암봉 능선에 있는 봉우리와 함께 중요한 산으로 통한다. 소래산 능

45) 『시흥시사 1권』, 166쪽.

선은 인천 및 부천과 시 경계를 이루다가 동단에서 남쪽으로 양지산과 운흥산을 지나 목감동에서 수암봉 능선과 만나고, 이 능선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미산과 군자봉으로 이어지면서 시흥 관내를 감싸고 있다. 소래산 능선의 서쪽에는 신현동과 신천동이, 동쪽에는 은행동이 자리잡고 있다. 산줄기에서 이어지는 뱀내 또는 사천(蛇川)으로 알려진 신천천은 학미산 지맥 능선과 소래산 주능선 사이를 흘러 소래포구 북쪽으로 흘러내린다.

소래산 인근 지역과 관련된 조선시대 군현읍지의 기록은 ①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규장각도서, 古915.12-In2b), ②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규장각도서, 奎17632), ③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규장각도서, 圭10713), ④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장서각소장, k2-4290)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⁴⁶⁾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서 지도, 건치연혁, 관원, 군명, 성씨, 풍속, 산천, 방리, 토산, 성지, 봉수, 역원, 사묘, 불우, 총묘, 고적, 공해, 창고, 호구, 전부, 관속, 봉림, 제영(仁民堂記), 인물(효자·열녀·충신·명환(洪元用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서 시흥의 전통적인 자연마을들이 일정한 촌락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를 넘어서라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 이후 마을 동·리의 수가 증가되고, 농업 발전을 이루는 경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취락 발달이 진행된 것은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후 지속적인 가문들의 유입으로 1953년의 조사통계가 실린 『경기도지』를 통해 시흥의 주요 동족마을 분포상황을 확인한 『시흥시사』의 자료를 참고하면,⁴⁷⁾ 시흥의 주요 동족마을 분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시흥의 주요 동족마을은 14세기 중반부터 입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8세기에 들어서서 형성된 것으로 정리된다. 정리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46) 『시흥시사 1권-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139~140쪽.

47) 『시흥시사 1권』, 253쪽.

48) 표의 내용은 『시흥군지-상』(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886쪽에 실린 자료를 인용한 『시흥시사 1권』의 표를 재인용한 것이다. 동족마을의 '형성 시기'는 2003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표 4〉 시흥 지역의 동족마을 분포

	지역	성 관	세대수	형성시기		지역	성 관	세대수	형성시기
소 래 권	방산리	김해 김씨	27호	750년 전	군 자 권	월곶리	경주 최씨	55호	268년 전
	방산리	창원 황씨	20호	530년 전		월곶리	순흥 안씨	43호	320년 전
	과림리	여흥 민씨	35호	400년 전		정왕리	밀양 박씨	77호	318년 전
	과림리	청주 한씨	21호	320년 전		정왕리	김해 김씨	43호	190년 전
	금이리	평산 신씨	31호	350년 전		정왕리	원주 원씨	23호	300년 전
	매화리	강릉 함씨	45호	420년 전		정왕리	청주 한씨	33호	250년 전
	포리	전주 이씨	30호	300년 전		정왕리	전양 천씨	29호	240년 전
대야리	경주 이씨	31호	200년 전	죽율리		순흥 안씨	42호	300년 전	
수 암 권	화정리	김녕 김씨	35호	300년 전		죽율리	김해 김씨	24호	300년 전
	화정리	밀양 박씨	28호	250년 전		거모리	순흥 안씨	43호	370년 전
	논곡리	안동 권씨	32호	300년 전		거모리	청주 한씨	23호	350년 전
	하중리	안동 장씨	21호	220년 전		군자리	전주 이씨	34호	359년 전
	하중리	경주 김씨	20호	250년 전		장현리	안동 권씨	27호	650년 전
						장곡리	전주 이씨	81호	355년 전
				장곡리	덕수 장씨	23호	350년 전		

정리된 자료⁴⁹⁾를 통해서 시흥일대에서 미산동과 은행동에 많이 거주하는 파평 윤씨가 대성했으며, 인조의 장인이었던 문익공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의 후손인 청주 한씨들이 군자동·거모동에 거주하며, 1449년 영의정이 된 하연(河演, 1376~1453)의 후손들인 진주(진양) 하씨들이 신천동에 거주하고, 그 외 안동 권씨·청풍 김씨·경주 이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한 것은 물론, 광해군 즉위 후 국구(國舅)가 된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류자신(柳自信, 1541~1612)의 후손들인 문화 류씨들이 능곡에 사패지(賜牌地)를 갖고 있으며,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의 후손들이 장곡동에 사패지를 갖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된다.

실제 이향시기를 알 수 있는 신현동 12개 성씨 중 절반 정도가 18세기 초중반에 입지를 시작했고, 한 세기 반이 지나면서 지역기반을 갖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전주 이씨 익령군파와 익양군파는 18세기 초에, 영월 엄씨 선교량공파는 18세기 중엽에, 진주 강씨 진양부원군파는 19세기 초에, 풍천임씨 죽애공파와 파평 윤씨 소부공파는 18세기 초에, 나주 정씨 초암공파는 18세기 중엽에 입향하여 19세기 후반경

49) 『시흥시사 1권』, 254쪽.

에 집성촌을 구성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향을 통한 집성촌 형성이 가능한 것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 분묘를 꾸밀 수 있는 임야가 제한되면서 타지역으로 분기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지개간 등을 통해 자연마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흥의 경우 이러한 경지개간의 일환으로 진행된 호조별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 호조들의 등장은 농경지 증대와 농경지역을 평야·저지대로 확산하는 등의 효과를 주었고, 이는 곧 집촌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 소래권은 20세기 중반 이후 시흥의 주요한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갔다. 일찍이 시흥시에는 광대한 염전이 논으로 변모하고, 바다가 메워지고 시창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취락이 형성되고, 아파트촌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시흥시의 발전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 1989년도에 시흥이 시로 승격한 이후 1995년까지 대야동과 신천동이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45% 내외를 차지했고, 1997년까지 시흥시창이 신천동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소래권이 시흥의 주요한 위치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1995년경부터 시화간척지에 시가지 및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정왕동이 분동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연성동이 새롭게 확장되면서 연성동과 정왕동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야동과 신천동의 인구수는 시흥 전체의 약 20% 정도만 차지하게 되었다. 곧 교통의 발달과 택지조성 및 신시가지화, 공업기반의 확대 등으로 시흥의 여타 지역들인 군자권과 수암권으로 가구 및 인구분포가 크게 확산되면서 도시화의 축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소래권에 형성된 마을 중 신천동 일대는 옛 시창이 자리했던 곳이며, 시흥시 초기 택지개발지인 '은행단지'가 속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말엽 수원, 인천, 소사(현 부천), 김포 등 경기 일원에서 손꼽히던 우시장인 뱀내장[蛇川場]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뱀내장의 개설은 지금의 신천동·대야동 일대가 시흥시의 중심지로 변창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의 영향으로 폐시되고 일반시장(삼미시장)이 대신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이후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승격된 이래로 시흥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화했던 곳으로 구시청소재지인 대야동 일대를 들 수 있다.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에 걸쳐져 있는 이들 구시가지에는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북쪽의 대

야동이나 남쪽의 신천동까지 대체로 아파트가 채워져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농업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신천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흥에 정착한 동족집단들은 미산동과 은행동에 많이 거주한 파평 윤씨(尹氏)가 대표적으로 대성한 사례로 들 수 있으며, 광해군 즉위 후 국구(國舅)가 된 류자신(柳自信)의 후손들인 문화 류씨(柳氏), 인조의 장인인 문익공 한준겸의 후손인 청주 한씨(韓氏), 하연(河演)의 후손인 진주 하씨(河氏), 계곡 장유(張維)의 후손, 안동 권씨, 청풍 김씨, 경주 이씨, 전주 이씨의 여러 종파 등이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집성촌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호조별을 들 수 있다. 호조별은 자연마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죽 축조를 통한 경지개간을 이룬 성과에 해당한다. 현재의 은행천 양안에 자리한 미산동, 은행동, 매화동, 도창동, 포동, 물왕동, 하상동, 하중동 등이 광활한 충적평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시흥에서 ‘호조방죽’을 축조하여 만든 ‘호조들’이라고 부른다. 호조들은 정조와 관련된 설화를 전하고 있으나 실제 호조방죽은 경종 대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조에서 정조에 이르는 160여 년간 조선의 치수사업이 부흥기를 이루었고,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개간사업은 이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되면서둑과 제방, 저수지 개발 등으로 인해 농경이 가능한 평야와 저지대가 확산되었고, 이를 주도하는 재지사족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지역에서의 입지도 탄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2.2.2. 소래권 자연마을의 현황⁵⁰⁾

현재 시흥시에는 14개의 행정동과 30개의 법정동이 있다. 이 가운데 소래권에 속하는 소래산 인근 마을의 행정동 및 법정동 현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⁵¹⁾

50) 『시흥시사 5권』, 45~74쪽에 정리된 소래권 마을에 관한 형성과 변화 및 마을별 주요 성씨 등에 관한 내용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정리된 내용의 일부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2020년 현재의 마을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1) 『시흥시사 4권-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94쪽.

〈표 5〉 소래권 마을의 행정동 및 법정동 현황

행정동	법정동
대야동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신천동
신현동	방산동, 포동, 미산동
은행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이들 소래권의 지역은 일찍이 상업지구가 발달하고 인근 지역과의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추진되고,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거 건축되면서 인구 증가가 꾸준히 있어왔다. 시흥시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인구수를 통해 소래권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90년대 까지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14년 12월말 기준 시흥시 주민등록 인구현황⁵²⁾

행정동	세대	인구수			인구점유율(%)
		계	남	여	
전체	156,293	394,639	206,925	187,714	100.0
대야동	13,559	34,857	17,804	17,053	8.8
신천동	16,717	43,132	22,123	21,009	10.9
신현동	4,578	11,912	6,220	5,752	3.0
은행동	10,242	30,931	15,599	15,332	7.8
매화동	5,103	13,477	6,994	6,483	3.4

〈표 7〉 시흥시 인구수(2020년 9월 기준)⁵³⁾

행정동	세대	인구수			인구점유율(%)	통	반	면적(km ²)
		계	남	여				
전체	206,249	493,005	257,762	235,243	100.0	586	3,180	138.66
대야동	18,133	43,606	22,152	21,454	9.5	59	243	9.42
신천동	15,998	36,721	19,047	17,674	7.4	40	270	3.44

52) 시흥시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법정동" 자료, 통계자료 2014년 12월말 기준.

53) 시흥시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법정동" 자료, 통계자료 2020년 9월말 기준.

행정동	세대	인구수			인구점유율(%)	통	반	면적(km ²)
		계	남	여				
신현동	4,337	10,046	5,268	4,778	2.0	21	66	12.65
은행동	17,791	49,040	24,596	24,444	9.9	59	276	6.41
매화동	5,093	12,195	6,371	5,093	2.5	22	111	11.21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 까지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율을 보이던 소래권의 자연마을들은 시흥시의 정왕동, 연성동 등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인구유입이 줄고 도시의 활기가 반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래권은 아파트 택지 개발 등의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일정한 정체기에 있었다. 이제 소래권은 다시 본격적인 개발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태풍이 어디까지 불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자연마을들의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에 속한 마을들의 현황은 살펴보면서 이러한 앞으로의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전통적인 집성촌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집성촌 문화의 형성과 변화는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 또는 현대적인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현재적인 양상에 대한 면모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먼저 현재의 자연마을들에 대한 집성촌문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계수동

계수동은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황등천면의 오리, 육리, 칠리였다.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년 경)의 인천부 황등천면에 속한 오리 계일(桂日), 육리 수로곡(壽老谷, 수누골), 구미(九美, 귀미), 가일(佳日), 건지정(乾井里, 건쥬물), 고공리(古孔里), 칠리 내곡(內谷, 안골), 후곡(後谷, 뒷골), 덕석곡(德石谷, 덕석골) 등이 계수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계수동은 이 가운데 계일의 ‘계’와 수로곡(수누골)의 ‘수’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행정동은 대야동에 속한다.

지명의 변천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황등천면 五里·六里·七里
1912년	桂壽里
1989년	桂壽洞

계수동에 마을들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수노골 경주 이씨의 경우 9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건지정 창원 황씨와 전주 이씨는 3대째, 가일의 진주 유씨는 6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 경주 이씨는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이태화(李泰和, 1694~1767)가 이 일대로 들어와서 9대째 거주하고 있다. 이태화의 묘소는 계수동에 있다. 창원 황씨들은 군자동 구준물에 살다가 이쪽의 땅을 사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며, 전주 이씨는 김포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건지정은 창원 황씨(昌原黃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군자봉 근처의 구준물마을에서 오래된 성씨로 일컬어지는 '설·기·황·당' 네 성씨 중 하나로 구준물에서 살다가 이곳에 땅을 사서 정착한 지 3대째이다. 건지정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가일은 다시 큰가일과 작은가일로 나뉜다. 건지정의 창원 황씨는 방산동 방골의 창원 황씨와 마찬가지로 사직공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일의 진주 유씨 문성공파는 마을에 정착한 지 6대에 이르고 있다.

계수동은 시흥시에서 가장 일찍 포도와 복숭아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으로 만든 땅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로는 비육우도 많이 사육했다. 현재 계수동에는 축사용 건물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구미에는 덕수 이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가골은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만든 마을이다. 이 일대에서는 경주 이씨와 덕수 이씨가 유력 성씨였다고 한다.

(2) 과림동

과림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7.65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한다. 동쪽은 목감천을 경계로 광명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은 매화동, 서쪽은 은행동, 북서쪽은 대야동과 접해 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황등천면에 속하는 두곡(杜谷, 두무저리)·모과동(木果洞, 모갈)·불아위(佛阿尉, 부라위)·중림(重林)·탄평(炭坪, 숯두루지) 등이 과림동에 해당하는 마을

이다. 과림은 목과동의 ‘과’와 중림의 ‘림’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一里·二里·三里
1912년	果林里
1989년	果林洞

과림동은 4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라위, 모갈, 안부라위, 두무절 등이 3통에 속하여 있다. 모갈과 두무절이에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 자손이 대성이었으나 모갈은 각성바지 마을이 되었다. 4통에는 중림이 속해 있으며 주씨, 한씨 등이 오래 살았다. 5통은 숯두루지라고 하여 탄평동으로 불리며 진천 송씨들이 많다.

부라위는 전주 이씨 온녕군파가 입향하여 400년 이상 거주하였다. 조선 태종의 11남 온녕군(溫寧君, 程, 1397~1453)을 파시조로 하여 그의 아들인 무풍군의 자손들이 대성을 이룬 곳이다. 온녕군파의 18세손인 이성규 씨에 따르면, 12대조(중길)가 황해도 해주에서 연산군 때 폐비 윤씨의 반대파로 몰리자 피난하여 이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한다고 한다.

중림에는 500여 년 가까이 세거한 신안 주씨와 청주 한씨, 여흥 민씨 등이 마을의 중심 성씨를 이루며 살았다. 중림마을의 아랫말에는 신안 주씨가 주로 살았다. 주봉환(87세) 씨에 따르면 15대조이며 주희의 22세 손인 법홍(法弘)이 인천에서 처가인 하동 정씨 일가가 살던 이곳 중림마을에 입향하여 500여 년 가까이 세거하고 있다. 최근까지 주씨 일가는 거의 흩어지고 10여 호 정도 남았었다. 하동 정씨가는 진주에서 중림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과거 중림마을에는 신안 주씨 외에도 서쪽 산 바로 아래쪽 안말에는 청주 한씨,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가 있는 간텃말은 여흥 민씨 등이 마을의 중심 성씨를 이루며 살았다.

비석거리에는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三世積善碑)’가 있는데 이 기념비는 한말과 일제시기에 신안 주씨가 행한 빈민구제를 치하한 비석이다. 부라위와 중림에는 신안 주씨 10여 명의 선대 묘가 있으며 계수동에도 묘소가 있어서 대략 50여 기의 묘가 남아 있다. 시제는 15대까지 10명의 묘제를 지낸다. 시제는 춘추로 하며 봄에는 한

식, 가을에는 10월 15일에 지낸다. 한식과 추석에는 5대 이하의 20여 명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 중친회는 한식과 추석에 모임을 가지며 대략 30여 명이 참석한다.



과림동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각 (출처 : 『시흥시사』 5권, 73쪽)

(3) 매화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이리 매착리(梅着里)와 울동(栗洞)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의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어 부천군에 편제되면서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매화리로,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시흥군 소래읍 매화리로 개칭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전반면의 매착리·신기촌(新基村, 새터밭)·울동(밤배섬) 등이 매화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세가 풍수로 보아 매화꽃이 벌어지거나 떨어지는 형국이어서 ‘매화’라 부른다거나, 매화동의 앞뜰인 호조벌의 간척사업이 있기 전 바닷물이 들어오던 때에 썰물이 지나가는 자리가 매화

꽃이 떨어진 듯한 무늬를 남겨서 ‘매화’라고 부른다는 등의 지명 유래가 있다.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二里
조선 말기	梅着里·栗洞
1912년	梅花里
1989년	梅花洞

매화동은 새터말, 매채기(梅着里), 섬말, 이선이(週末農場), 바티골(田反谷)의 취락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새터말과 매채기가 가장 큰 마을로, 해방 무렵 각각 80호가량 거주하였다. 이선리와 바티골(혹은 밤뒤골)은 산골로 몇 가구 거주하지 않았다. 섬말은 새터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해방 무렵에는 12가구가 거주하였다. 취락마을은 공동묘지가 있던 송장골 인근에 위치하는데 1970년대 말 정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새터말과 섬말의 대성은 강릉 함씨이다. 타성도 여남은 집이 있었으나 대부분 강릉 함씨와 친척관계다. 강릉 함씨는 칠리울공파(또는 울리파)로, 1700년대 초 이 일대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9~11대째 거주하고 있다. 강릉 함씨의 집성촌가 가장 번성할 때는 1945년경으로 60세대 정도가 거주하였다. 현 거주자는 시조로부터는 32세손 이하이며 입향조로부터 10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1700년경 함수장이 섬말에 들어와 익만(益萬), 익주(益柱), 익관(益寬), 익로(益老), 익한(益漢)의 다섯 형제를 낳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포천 선산에는 11대에서 16대까지의 묘소가 있고 물왕산에는 10대 이후의 묘소가 있다. 함씨가는 포천에서 시월 보름에 시제를 지내며 물왕산에서는 시제를 지내지 않는다.

매채기에는 경주 이씨가 처음 정착한 이후 파평 윤씨, 경주 김씨, 행주 기씨 등이 들어와 살고 있다. 매착동, 즉 매채기라는 이름은 이 마을이 매화가 떨어진 모양인 매화락지형(梅花落地形)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입향시기가 가장 빠른 성씨로 경주 이씨와 파평 윤씨를 꼽는다. 매채기의 경주 이씨는 ‘국당공파 문천군 문중’으로 지칭하는데 시조 알평(謁平)으로부터 17세손인 국당공(菊堂公) 천(堧)을 중시조로 한다.

국당공의 넷째 아들 정순공 성중(誠中)의 현손인 문성군 석정(碩貞)은 호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문천군 극정(克正)은 공조판서를 지냈으나 연산군조에 국정에서 축출되면서 이곳으로 피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이씨가의 극정이 정착한 이래 40호 가까이 번창했던 적도 있었다. 윗대조는 모두 화장하고 10기 정도의 묘소와 지손의 산소들이 있다. 매채기에 거주하는 종손이 시제와 별초 등을 맡아 하는데,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지낸다.

신기동은 함씨네가 입향하면서 새로 만든 마을이라고 하였다. 새터말을 지나 현 매화초등학교 부근이 섬말, 교회 뒤쪽 대성빌딩, 영동아파트 부근은 뒷무골이었다.

매화동은 예전부터 밭농사가 적고 논농사가 많았는데 ‘호조별’ 부근의 미산동, 안현동, 도창동, 은행동, 하상동, 하중동 중 매화동이 논이 제일 많아 ‘부촌’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140호 내외로 거의 4,000명 가까이 살았다.

(4) 도창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道頭里)·강창리(江倉里)였는데,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전반면이 신현면·황등천면과 함께 소래면으로 편제되어 신설된 부천군에 속하게 됨에 따라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으로 시흥군 소래면 도창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시흥군 소래읍 도창리가 되었다가, 1989년 시흥시의 승격으로 시흥시 도창동으로 자리잡았다. 행정동은 매화동이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도두머리)와 강창리가 도창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도창’은 도두리의 ‘도’자와 강창리의 ‘창’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三里
조선 말기	道頭里·江倉洞
1912년	道倉里
1989년	道倉洞

도창동에는 도두머리, 강창말, 점말 등의 마을이 있다. 도두머리는 수인산업도로에서 매화동으로 들어가는 매화로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강창말은 수인산업도로에서 도창초등학교로 빠지는 길에서 600m가량 들어가면 나온다. 점말은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마을로 도창초등학교에서 길 건너편으로 100m가량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해방 무렵 도두머리에는 50호가량이 거주하였다. 도두머리에 많이 사는 성씨는 수원 백씨이나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밀양 박씨이며, 그 다음으로 경주 김씨, 수원 백씨가 차례로 들어왔다고 한다. 수원 백씨는 5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다.

강창말은 다시 아랫말과 웃말로 나뉜다. 1950년대에는 아랫말, 웃말 합쳐서 모두 35호가량이 거주하였다. 이 일대에는 ‘일강챙이 이도리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강챙이(강창말)가 이 일대에서 제일 잘 살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이동 도리재였다는 의미라고 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자기 땅이 아닌 터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축권을 팔고 나가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주요 성씨로는 안동 권씨, 밀양 박씨, 파주 염씨 등이 있고 나머지는 각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들어온 성씨는 권씨이며 다음으로 박씨, 염씨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35호가량이 거주하던 시절에 권씨는 6~7집 정도 살았다. 가구수가 줄기 전까지 박씨와 염씨도 권씨와 비슷한 호수로 살았다.

점말은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가마는 모두 세 개가 있었는데, 서씨, 박씨, 이씨네가 운영하였다. 이 중 가장 먼저 시작한 집안은 서씨네였다. 가마는 해방되고 나서 바로 없어졌다. 각성만이 마을로 박씨, 윤씨, 서씨, 송씨, 이씨 등이 있었다.

(5) 금이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道頭里)·강창리(江倉里)였는데,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전반면이 신현면·황등천면과 함께 소래면으로 편제되어 신설된 부천군에 속하게 됨에 따라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으로 시흥군 소래면 도창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시흥군 소래읍 도창리가 되었다가, 1989년 시흥시

의 승격으로 시흥시 도창동으로 자리잡았다. 행정동은 매화동이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전반면의 삼리 도두리(도두머리)와 강창리가 도창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도창’은 도두리의 ‘도’자와 강창리의 ‘창’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四里·五里 儉義里·六里
1912년	錦李里
1989년	錦李洞

금이동에는 거멸, 진말, 도리재, 방죽머리 등의 마을이 있다. 거멸과 진말은 금이 1통에 속하며 도리재와 방죽머리는 2통에 속한다. 거멸은 수인산업도로에서 물왕저수지로 빠지는 금이로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인가를 쉽게 찾을 수 없다.

거멸에는 과거 60호가량이 살았으나 지금은 30호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거멸에 많이 살았던 성씨로는 온양 방씨 외에 덕수 이씨와 의령 남씨가 있는데, 서너 집이 살았다. 그 밖에는 모두 각성들이다. 온양 방씨가 거멸에 정착한 것은 17~18대 전이라고 한다. 거멸마을에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왕시 고천동 사근내에서 뱃내장으로 가는 소장수들이 하룻밤 묵는 마방이 있었다.

진말은 물왕동 월미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편에 호조들이 있다. 전주 이씨가 터를 잡고 살았으며, 호수는 서너 집밖에 되지 않는다.

도리재는 운흥산 서쪽에 위치하며 박석고개를 넘으면 물왕동 안말과 연결된다. 방죽머리는 칠리저수지 위아래로 있는 마을이다. 도리재에는 55호가량이 있었으나 현재는 20호가량만 남아 있다. 방죽머리 역시 15호에서 6호로 수가 줄었다. 도리재에는 평산 신씨와 경주 김씨가 많이 살았으며, 나머지는 다 각성들이다. 도리재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성씨는 허씨이며, 그 다음으로 평산 신씨가 들어왔다고 하나, 허씨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해방 무렵 평산 신씨는 30호, 경주 김씨는 10여 호가량 되었다. 방죽머리는 다 각성이다. 평산 신씨의 입향조는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31세손인 사간공신재(申載)로, 1636년 병자호란 이후 경주 이씨와 함께 입향하였

다고 한다. 그러나 그 15대 장자 신중미가 충청도로 낙향하여 집성촌을 이름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에 사당과 재실이 있으며 그곳에서 묘제를 지낸다.

(6) 미산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의 창동(倉洞)·고기동(古基洞)·이리(二里)였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미산리가,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시흥군 소래읍 미산리가 되었다. 법률 제4050호에 의해 시흥시가 출범하면서 시흥시 미산동이 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신현면의 구곡(鳩谷, 구심이)·미산(米山, 살미)·사곡(寺谷, 절골)·고기동(古基洞, 여터골)·임리(林里, 슈풀이) 등이 미산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이곳 앞(동쪽)에 있는 호조벌이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미산(米山)’이라 칭한 데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倉洞·古基洞·二里
1912년	米山里
1989년	米山洞

미산동은 39번 국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동편에는 창동(倉洞), 월촌(越村), 고기동(古基洞 또는 큰살미)이, 서편에는 간대미[中岩], 양우재(養牛峴), 구시미[九水美] 등의 마을이 있다. 동편의 마을들은 시로 승격하기 전에 미산1리에 속하였으며 서편의마을 들은 미산2리에 속했다.

미산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은 고기동이다. 양우재는 어미 소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서쪽을 옷말, 동쪽을 앞말이라 한다. 간대미는 양우재 남쪽으로 구시미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구시미는 양우재 서남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라 한다.

월촌은 파평 윤씨 소부공파(小府公派)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창동의 북

쪽 건너편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창동은 고기동과 월촌 사이에 위치하는데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에 창동과 월촌동의 가구수는 모두 합쳐서 40여 호가량 되었으며, 고기동은 60여 호 정도였다. 월촌동과 창동의 대성은 과평 윤씨로 15호가량 되었다. 고기동에는 연일 정씨가 40여 호 거주하였다. 연일 정씨는 창동에도 많이 살았다.



미산동 창녕 성씨 재실 (출처: 『시흥시사』 5권, 66쪽)

미산동의 구시미와 양우재에는 풍천 임씨 죽애공파(竹崖公派)라고 하는 임열(任說)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흥원(興元, 1675~1740) 때 입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창녕 성씨는 구시미 일대에 선영과 거주지가 있는데 7세 문효공(文孝公) 사달(士達, ?~1377)의 후손들이며, 미산동에 정착한 자는 성종 때의 원종공신인 10세 좌랑공(左郎公) 성완(成琬, 1436~1500)으로 추측된다. 고기동의 영일 정씨는 정몽주를 파조로 하는 포은공파(圃隱公派)로 17세기 중반경 22세 찬명(贊命)이 용인 쪽에서 이주하여 18세기 후반에 번성하기 시작한 성씨이다.

양우재에는 일제시기에 3~4집만 있었으나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피난민촌이 되었다. 현재 20여 호가 살고 있다. 간대미마을의 일제시기 가구 수는 12호가량이며 금녕 김씨와 풍천 임씨 등이 많이 살았다.

구시미에는 30여 호가량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5~6호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구시미의 가구수가 줄어들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구시미 대부분의 집터는 포동 새우개에 사는 전주 이씨 소유였는데, 이곳에 공장을 임대하게 되자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 동네 자리에는 한 채의 인가도 없으며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선 것이다. 외지로 나간 구시미 사람들은 대부분 포동이나 신천동에서 산다고 한다.

현재 창동, 월촌동, 고기동에는 아파트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7) 방산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방곡리(芳谷里)·산정리(山井里)·죽원(竹院)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통합되어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방산리가 되었고, 1980년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시흥군 소래읍 방산리가 되었다. 법률 제4050호에 의해 시흥군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이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시흥시 방산동이 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황등천면의 산정리(산우물), 고잔(高棧), 다자동(多子洞, 다자골), 죽원(다니), 방곡(芳谷, 방골), 사음리(舍音里, 말음이) 등이 방산동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芳谷里·山井里·竹院
1912년	芳山里
1989년	芳山洞

방산동은 크게 1통과 2통으로 나뉜다. 방산 1통에는 방골, 황골, 마루미, 다니 등의 마을이 있으며, 방산 2통에는 다지골, 산우물, 고잔, 황사지 등의 마을이 있다.

방산동에서 가장 큰 마을은 방골과 고잔이다.

방산동에는 방골, 산우물, 마루미, 고잔 등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마을별로 각각 창원 황씨, 추계 추씨, 금녕 김씨, 전주 이씨(익양군과 화성군) 등이 대표적인 성씨이다.

방골의 창원 황씨는 3세 효경(孝敬)을 중조(中祖)로 하는 사직공파(司直公派) 중 장남 달윤(達允)의 후손인 고성공파(高城公派) 자손들이다. 황씨의 입향은 강릉도호부사를 지낸 5세 수(洙)나 6세 계원(啓源, 1528~1602) 때인 16세기 초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제 터를 잡고 번성한 때는 11세 원구(元耆, 1652~1734, 동지중추부사)나 12세 익(鎰)과 명(銘) 때다. 익과명의 형제에게서 다섯 아들이 나왔는데 이름은 구하(九河), 일하(一河), 정하(鼎河), 청하(淸河), 명하(明河)로 이들의 자손들이 방산동 외에도 은행동, 계수동, 미산동 등에 거주한다.

고잔마을 전주 이씨는 조선 9대 왕인 성종의 8남 익양군을 파조(派祖)로 하는데, 그의 첫째 아들 용천군의 삼자(三子)인 화성군(花城君, 俊)의 자손들이다. 화성군의 아들인 4세 광윤(光胤, 鷄林君)의 두 아들 중 둘째 옥(沃, 1609~1637, 贈執義)의 묘가 방산동에 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들은 9세 추순(秋純, 1737~1798)의 두 아들인 인전(仁傳)과 의전(義傳, 1778~1848)의 직계자손들로서 그중에서도 의전의 자손들이 제일 많고 종가는 서울에 있다. 이 마을 전주 이씨들은 ‘화성군파 고잔종친회’로 친족모임을 가지고 있다. 종친회는 ‘연(衍)자 항렬 자손까지 81명으로 구성되며, 화성군의 묘가 있는 남양에서 10월 3일에 묘제를 지내고 근방의 묘소에는 음력 10월 9일을 시제일로 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9월 첫 일요일을 별초일로 하여 위선(爲先)사업을 행한다.

방골의 가구수는 40호가량이 되었다.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호수가 많이 줄었다. 40호가량이 살았을 당시에는 거주 호수의 반이 창원 황씨였다. 이 밖에 마루미에 10여 호, 황골에 3~4호가 거주하였다.

고잔, 산우물, 다지골에는 염전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으나 방골에서는 두세 명 뿐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염전에 많이 다녔던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을 수 없는 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가구수가 가장 많았을 때에는 고잔에 40호가

지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인근 아파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 살게 되었다. 산우물에는 추계 추씨가 대부분이었다. 다지골은 각성으로 전주 이씨, 최씨, 김씨 등이 있다. 이 중 전주 이씨가 가장 오랜 산 성씨이다.

(8) 신천동

신천동은 시흥시 중심부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며, 동쪽과 북쪽으로 대야동,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쪽으로 은행동·신현동과 경계를 이룬다. 면적은 3.44km²로 시흥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신천동은 시흥시 전체 인구의 11.5% 정도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며, 은행동·정왕동·연성동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주거·상업·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였다. 신천동은 조선시대 인천부 신현면의 신촌리(新村里)와 사천리(蛇川里)였는데,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이 합쳐져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소래면으로 통합되자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은 소래읍으로 승격되었다. 법률 제4050호에 의해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의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져 시흥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신천동이 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신현면의 신촌(새말), 사천장(蛇川場, 뱀내장)이 신천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신천'은 '신촌리'의 '신'자와 '사천리'의 '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기	新村里·蛇川里
1912년	新川里
1989년	新川洞

진주 하씨 파시조인 문효공 하연을 비롯한 그 자손의 묘소가 있는 계란마을은 소래산 아래에 위치한 40여 호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피난민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지금은 취약개선지구로 바뀌어 주택 신축이 부

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계란마을 전역과 묘소가 있는 임야 그리고 마을 앞 도로 건너편까지 모두 7만여 평이 진양 하씨의 위토다. 현재 원 거주민들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 있고 도중에 이주해 온 하씨 후손들과 각성들이 화훼단지, 상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 중 하나인 신천동에서 자연마을로 남아 있는 계란마을은 문효공 하연을 비롯한 그 자손의 묘소가 있다. 한때 진양 하씨 후손들이 70여 호 이상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소산서원과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며 종친회 사무를 맡고 있는 후손이 살고 있을 뿐이다.

소산서원은 1995년에 건축되었으며 예전에도 현 서원자리에 소산서원이 있었다고 하나, 그 근거는 찾기 어렵고 다만 묘소 부근에 하연의 셋째 아들 하우명이 영당을 짓고 시묘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서원은 전국의 서원양식을 차용하여 지은 것이라고 전해지며 서원 위쪽에 있는 사당에는 하연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춘향제(春享祭)’라고 하는 소산서원의 향사는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성균관 유림의 주도로 치러지며 전국의 유림이 참석한다.

마을 내에는 문효공 하연을 비롯해 삼자(三子) 하우명(河友明) 내외와 그 아들 내외의 묘가 있고, 단종복위운동 시 사망하여 시신을 찾지 못해 설단만 있는 차자(次子) 내외와 그 아들 내외의 묘소가 있다.

(9) 포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의 포동(浦洞)과 국동(局洞)이었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인천부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부천군 소래면에 편제되자, 부천군 소래면 포리가 되었고, 1973년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어 시흥군 소래면 포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시흥군 소래읍 포리가 되었다가, 법률 제4050호에 따라 시흥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시흥시 포동이 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신현면의 포동(포촌)과 국동(국시랑)이 포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경)에 ‘포촌(浦村)’이라는 지명이 보이고 중심이 되는 마을이 새우개(포동)이므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

시 ‘포리’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명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浦里
조선 말기	浦洞·局洞
1912년	浦里
1989년	浦洞

포동의 자연마을로 걸둑마을과 새우개를 들 수 있다. 걸둑마을은 39번 국도에 서 포동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한다. 걸둑이라는 지명은 ‘호조방죽’의 둑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걸둑에는 인가가 없었으며 길가에 두 칸짜리 주막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 걸둑마을은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인구가 늘었다.

새우개는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던 마을로, 농촌지역인 국동에는 전주 이씨, 영월 엄씨 등이, 어촌인 포동은 각성이 살았다. 염전이 생기면서 염전노동을 주업 또는 부업으로 하였다.

(10) 은행동

조선시대에는 인천부 신현면 삼리(三里)였다가,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해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인천부의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이 통합되어 소래면이 되자 부천군 소래면 은행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자,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가 되었다가, 1980년 소래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가 되었다. 법률 제4050호에 의해 시흥시가 출범하면서 시흥시 은행동이 되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경) 인천부 신현면의 한정(寒井, 찬우물)·검암(儉巖, 금바위)·은행정(銀杏亭)·상기동(上基洞, 우터골) 등이 은행동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말기	三洞
1912년	銀杏里
1989년	銀杏洞

은행동의 자연마을로는 은행정, 찬우물, 금바위, 웃터골이 있다. 이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 웃터골이며, 그 동남쪽에 은행정이 위치한다. 웃터골 남쪽으로는 금바위마을과 찬우물마을이 있다. 금바위와 찬우물 사이에도 인가가 몇 집 있었는데, 찬우물에 속한 지역이지만 별도로 건넌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웃터골과 금바위에 은행단지가 조성되면서 예전 마을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은행중·고등학교가 웃터골 자리라고 한다. 은행정과 찬우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옛집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일부지역이 해제되면서 은행정에는 공장들이, 찬우물에는 연립주택이나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서 옛 마을의 경관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해방 무렵 은행정의 호수는 50호 이상 되었으나 지금은 30호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웃터골은 30호, 금바위와 찬우물은 각각 20호 정도가 거주하였다. 은행동에는 6·25전쟁 이후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는 별로 없었다.

과평 윤씨가 대성인 찬우물을 제외한 은행동의 다른 세 마을은 모두 각성바지 마을이나 웃터골에는 황씨, 은행정에는 김해 김씨가 대성을 이뤘다. 50호가량이 살던 시절에 은행정에는 김해 김씨가 8집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광산 김씨가 5집이고, 권씨, 이씨, 조씨, 지씨, 최씨 등이 있었다. 금바위에는 뚜렷한 대성이 없었다.

찬우물의 과평 윤씨는 미산동 월촌과 함께 소부공파로 12세(世) 소부공 암(言音)의 두 아들 중 둘째의 계통이어서 소부공이방파(少府公二房派)라고도 한다. 과평 윤씨는 이곳에 종산과 한천재(寒泉齋) 재실이 있다. 은행정의 김해 김씨는 횡성공파로 7~8대째 내려온다. 시제일은 음력 10월 15일로 이 날은 '수'자 향렬로부터 아랫대까지 모두 시제를 지낸다. 재실에서 준비를 하고 제사는 각 묘소마다 지내는데 재실을 지은 지는 몇 해 되지 않았다. 재실은 찬우물에 있다고 해서 '한천재(寒泉齋)'라 이름하였다.

은행정의 김해 김씨는 횡성공파로 파주에서 거주하다 약 250년 전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연유는 전하지 않는다. 윗대의 묘는 파주에 있고 현 후손의 7대조 묘소는 은행단지가 조성되면서 없어지게 되었으며, 6대조·5대조·4대조 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쪽에 있다.

3. 집성촌의 지속과 현재

시흥에 형성된 별문세도들의 흔적은 현재도 많은 마을에 남아있다. 특히 소래권 지역의 경우 파평 윤씨, 진양 하씨, 두무절이 전주 이씨 집안의 사례를 통해 집성촌의 생성과 현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 가문들은 시흥에 입향하면서 조선 전기에서부터 중기를 거쳐서 시흥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의 과거를 돌아보고 집성촌의 현재를 점검하는 것은 시흥의 미래를 향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3.2 집성촌의 현재 모습

3.2.1 은행미산동 파평 윤씨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경기도 시흥시의 여러 지역에 세거한 집안이다. 고려의 개국공신인 윤신달을 시조로 하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을 본향으로 하는 성씨이다. 윤신달(尹莘達)의 5세인 윤관(尹瓘)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쌓은 공로로 영평현(鈴平縣)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져 가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파는 함안백파(咸安伯派)를 포함하여 16개가 있으나 판도공파(版圖公派)와 소정공파(昭靖公派)가 가장 번창하였다. 윤민헌(尹民獻), 윤강(尹絳), 윤봉길(尹奉吉)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선조의 과거 급제자는 1,424명, 재상 11명, 왕비 4명을 배출한 명문세족이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파평 윤씨는 1,532가구 5,16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래권인 은행동과 미산동에는 소부공파(少府公派) 칠림공의 은행미산문중회가 시흥시 미산동 149-1번지 일원과 시흥시 은행동 344번지에 있다. 소부공파가 대성을 이룬 미산동의 월촌은 고기동과 월촌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월촌과 은행동 찬우물에 거주하는 파평 윤씨들은 일가로서 22세에서 나누어져서 제(濟)의 자손은 찬우물에, 겸(謙)의 자손은 월촌에 자리 잡았다고 전한다. 월촌의 파평 윤씨들은 소

부공파(小府公派)로 12세 소부공 암(諱)의 두 아들 중 둘째의 계통이어서 '소부공이방파(少府公二房派)'라고도 한다. 입향은 25세 창운(昌運, 1677년생, 묘 신현 읍포) 때로 추정되며, 대략 18세기 초부터 살기 시작하여 30세 방헌(邦憲, 1828년생)과 종헌(宗憲, 1837년생)이 모두 8명의 아들을 뒀으므로 이후 번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평 윤씨 중 소부공파가 은행동 찬우물에 정착하게 된 것은 15세 호당공 희성(希聖)이 임금으로부터 약 9만평의 땅을 하사 받은 후부터 인 것으로 유추된다. 호당공 희성은 종업 조광조의 문인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화를 입은 조광조를 위해 임금께 상소를 올린 것이 확인된다. 호당공이 문과에 장원급제하면서 이조정랑 등의 요직을 거쳤으나, 일찍 병사하자, 인조 임금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파평 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문중회는 시흥시 은행동의 찬우물에 있는 한천재(寒泉齋)에서 1년에 4번 제사를 지낸다.⁵⁴⁾ 한천재는 2009년 정기총회를 통해 문중의 위상에 맞는 재실로 중건기로 결정하고, '한천재 중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여의 공정을 거쳐 2010년 5월에 중건을 완료하였다.

파평 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문중회의 첫 번째 제사는 파평 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문중(한천문중)의 대종중에서 지내는 춘향제(春享祭)로, 한천재 2층의 숭모전(崇慕殿)에서 지낸다. 두 번째는 대종중에서 주관하는 추향제(秋享祭)는 묘역에서 직접 지낸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천문중의 소종중인 은행문중과 미산문중이 각각 주관하는 제사가 있다. 춘향제에서는 소부공(少府公), 판서공(判書公, 소부공의 차남), 정후공(靖厚公, 판서공의 아들) 삼분께 제향하는 것이며, 추향제는 흠구공6분에 대해 제사한다.

파평 윤씨 소부공파는 원리 정후공의 기일인 6월 24일에 제사를 모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불천위제(不遷位祭)를 한식과 청명 때 모시고, 춘향제에서 소부공, 판서공과 함께 정후공을 모신다고 한다. 춘향제는 삼위삼헌관례(三位三獻官禮)로 세 분의 신위에 각각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宗憲)으로 잔을 올린다. 9명의 헌관 과 6명의 집사가 예를 진행한다. 제례가 마쳐지면 한천재 1층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춘향제에서는 대개 떡국을 나누며, 제향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봉

54) "모든게 조상님 덕분이죠! 파평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문중의 봄 제사", 《시흥장수신문》, 2014년 4월 13일자 기사 참고.
작성자: 심우일. <http://www.shjangsu.com/6560>

투에 답아서 봉송(封送)을 한다.

은행미산동 파평 윤씨 소부공파 한천문중은 과거의 문중회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문중회에서 진행한 예절교육을 들 수 있다. 2012년에 시흥시 은행동의 파평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 문중회(회장 청파 윤도영)가 “한천문중 예절(인성) 교육”을 주관하였다.⁵⁵⁾ 당시 예절 교육은 한천재에서 진행하였는데, 교육에는 문중의 고문(명예), 종무위원, 청년회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70여 명이였다. 참석자의 연령층은 30대 부터 60대까지 다양하였다. 교육은 성균관유도회 교육원장 이상만 강사의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문중의 젊은이들에게 조상에 대해서 되새기고 문중의 묘소를 찾아 직접 별초를 하게 하는 등을 통해 뿌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당시 사회는 윤강영 총무가 맡고, 청파 윤도영 회장의 인사말 등이 있었고, 이상만 강사에 의해 “도(道)가 통했는가?”라는 강의 주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별도로 준비해 온 교육도구인 목검 두 자루와 젓가락으로 인성(人性)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선 두 개의 목검으로 사람 인(人)자 형태를 만들어 보이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연계시키고, 나무젓가락으로 사람 인(人)자를 만들어서, 밥상머리 교육과 연결하여 젊은 2세나 청소년들에게 인성(人性)의 기본인 인사성(人事性)이 밝은 사람이 되어 출선수범하기를 당부하였다.



파평 윤씨 소부공파 한천문중의 한천재(寒泉齋)

이러한 노력은 오랜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문중의 결속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적인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소부공파 종친회에서는 『소부

55)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한천재에서 파평윤씨”, 인터넷 블로그 「매일김조영」, 2012년 9월 27일자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 대조영. <https://blog.naver.com/kjy8225>

공파종보(少府公派宗報)』를 만들어서 종친회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한천재가 있는 은행동의 찬우물은 더 이상 전통적인 자연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가옥들은 사라지고 콘테이너와 공장이 즐비한 공업 지역이 되었다. 과거 시흥시의 중심이었던 신천권이 활력을 잃어가면서 한천재가 위치한 은행동 역시 심각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파평 윤씨 소부공파 한천문중의 증중산



조상숭배, 충효, 종진 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파평 윤씨 증훈 (출처: 『시흥장수신문』)



파평 윤씨 소부공파 은행미산문중(한천문중)의 묘역을 알리는 비석 (출처: 『시흥장수신문』)

3.2.2 계란마을의 진양 하씨⁵⁶⁾

진양 하씨(晉陽河氏)는 시흥시 신천동 계란마을에 세거한 집안이다. 고려 초기의 하공진, 하진, 하성을 시조로 하고 진주를 본향으로 하며, 조선초기 시흥 지역에 세거하였다. 하공진(河拱辰)의 시랑공파(侍郎公波), 하진(河珍)의 사직공파(司直公波), 하성(河成)의 단계공파(丹溪公波)로 분파되어 있다. 고려 후기 이후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하즙(河楫), 하자종(河自宗), 하륜(河倫), 하연(河演), 하위지(河緯地), 하항(河流), 하수일(河受一)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조의 과거 급제자는 144명이다.

9세인 하즙의 증손 하연(河演, 1376~1453)이 소래산에 묘를 쓰면서 사직공파가 시흥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3세인 하우명(河友明)과 14세인 하철석(河哲石)이 효를 실천한 장소가 시흥시 신천동 계란마을의 '하연 선생 묘'이다. 하우명 효자정각(河友明孝子旌閣)도 건립되었다. 시흥의 유력 경화사족(京華士族)인 진주 강씨(晉州姜氏) 문중과 혼맥을 통해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하즙의 딸이 진주 강씨인 강시(姜蓍)에게 시집을 가고 강시의 아들인 강희백(姜淮伯)과 하연은 성주 이씨(星州李氏) 이존성(李存性)의 딸과 각각 결혼을 하여 동서 간이 되었다. 더욱이 강희백의 손자가 강희맹(姜希孟)으로 두 집안은 조선초에 통혼(通婚)을 발판삼아 시흥의 유력 가문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진양 하씨는 274가구 956명이 확인된다.

(1) 하연과 계란마을

진양 하씨가 터전을 삼은 계란마을[鷄卵마을]은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자연 마을의 하나로 국도 42호선 수인로 변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화원(花園)들이 들어서있다. 국도 42호선을 타고 신천동 입구에 들어서면 곧 바로 하연 선생 묘역이 눈에 들어온다. 소래산 남쪽 하연(河演) 선생 묘 아래 진양 하씨(晉陽河氏)[진주 하씨(晉州河氏)]들이 세거지를 이루면서 계란마을이 조성 되었다. 계란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게

56)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시, 2000).

『시흥시사』,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네이버 지식백과] "진양 하씨(晉陽河氏)", "계란마을", "소산서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

된 데는 하연의 묘와 연계된 이야기가 전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1453년(단종 원년) 하연이 죽자 단종은 부친 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하연의 묘를 좋은 곳에 쓰기 위하여 지관(地官)을 보냈다. 소래산 주변에서 명당을 찾던 지관은 명당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 계란을 가져다 놓았고, 다음날 새벽에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 이곳이 명당임을 확인하게 되어 하연의 묘를 썼다고 한다. 그 후에 하연의 후손인 진양 하씨들이 묘역 아래에 터를 잡고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마을을 계란마을이라 부르게 된 것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계란마을에 주거지가 형성되게 된 것은 하연의 묘역이 조성된 이후 그의 셋째아들 하우명(河友明)이 소래산 아래에 거주하면서부터 이다. 진양 하씨들은 한창때는 80여 가구가 있었으나 6.25전쟁 이후에 토박이들은 외부로 나가고 피란민들이 들어와 계란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피란민들은 진양 하씨 문종의 땅을 빌려서 거주하였다.

하연 선생 묘(河演先生墓)는 시흥시 신천동 산12번지에 있다. 1986년 3월 3일에 시흥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었다. 하연(河演, 1376~1453)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신희(新稀)이다. 아버지는 판청주목사(判淸州牧事) 하자종(河自宗),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딸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으로 1396년(태조 5) 식년(式年)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이조정랑(吏曹正郎),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1418년(태종 18) 세종이 즉위하자 승정원지신사(承政院知申事)의 중책을 맡은 후 1423년(세종 5)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어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척불소(斥佛疏)를 올렸다. 의정부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449년(세종 31) 영의정에 이르렀다. 문종이 즉위하여 영의정으로 치사한 후에도 공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종이 집으로 사람을 보내 자문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경재집(敬齋集)』, 편서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진양연고(晉陽聯藁)』가 있다. 1454년(단종 2) 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숙종 때 경상도 진주의 종천서원(宗川書院), 경상도 합천의 신천서원(新川書院)에도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하연 선생 묘는 부인 성산 이씨(星山李氏)와 합장한 단분(單墳)의 형태이다. 봉분 앞 중앙에 상석·향로석과 높이 1.68m의 장명등, 좌우로 문인석·망주석·석양(石羊)이 한 쌍씩 있다. 정면 좌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다. 다른 묘와 달리 봉분 앞쪽 좌우

에 석주(石柱)를 하나씩 설치하여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경우이다. 높이 1.86m의 문인석은 복두(幘頭)를 쓰고 있고, 상석과 망주석 등은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연 선생과 그 부인 이씨의 합장묘

하연 선생의 묘역 아래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입구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하연의 셋째아들 하우명(河友明)의 부탁으로 좌의정 남지(南智)가 지은 비명을 후손이 간직하고 있다가 1940년 10월에 건립한 것이다. 높이 3.11m로 받침돌, 비신(碑身), 옥개석(屋蓋石) 형식을 갖추고 있다. 비신 위쪽에는 ‘영의정 시문효경재 하선생 신도비(領議政諡文孝敬齋河先生神道碑)’라고 전액(篆額)되어 있고, 비신 전면에 ‘대광보국숭록대부 행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예문춘추관 서운관사 세자사잉령치사경재 하문효공 신도비명 병서(大匡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仍令致仕敬齋河文孝公神道碑銘并序)’라고 새겨져 있다. 1995년 이가원 교수에게 맡겨서 신도비도 세웠다. 하연 선생 묘 아래에는 재실(齋室)인 소산재가 있다. 1455년(세조 즉위년) 소산재(蘇山齋)

라는 재실을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것을 후대에 증언하였고, 1995년에 국내 유림들의 중의에 따라 소산서원(蘇山書院)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묘역 주변에는 선생의 2남 하제명(1407~1457, 예조좌랑)과 손 하중호(1425~?, 판관)의 묘, 삼남 하우명(1413~1493, 동지중추부사, 호자)과 손 하철석(1423~1500, 용양위호군)의 묘가 있다.

(2) 하연 선생과 설화의 전승

하연 선생의 묘와 관련해서 일련의 설화가 여럿 전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확인된다. 먼저 명당으로서의 위치와 관련된 설화로,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인천도호부사로 부임해오는 신임 사또는 부임 첫날 모두 변사를 당한다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유인즉 혼령이 나타나 모두 공포에 질려 기절하기 때문이었다. 인천으로는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조정에서는 방을 내걸어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때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지원해 사또로 부임했다. 밤이 되자 소문대로 한 백발의 혼령이 나타났다. 그 위엄이 대단한지라 청년 사또도 기절할 뻔 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백발의 혼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혼령이 꺾꺾 웃으며 내 부탁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혼령은 “소래산 아래에 내 무덤이 있는데 그 아래 우시장이 들어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해서 편히 쉴 수가 없으니 그대가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부탁을 하려고 나타나면 모두 기겁해 죽어버리니 답답했다”고 말하며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다음날 청년 사또가 소래산 아래에 가보니 하연 정승 묘가 있고 그 아래 우시장이 있었다. 혼령이 말한 대로 지저분하고 냄새가 진동했다. 즉시 우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그 뒤로 부임하는 사또는 먼저 하연 정승 묘에 참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는 모두 영전해서 간다고 후일담으로 전한다.

57) [정경연의 풍수기행] 시흥 소래산 하연 선생 묘, 민조백관 모이는 명당, 《중부일보》, 2016.12.08.일자 인터넷 기사. <http://www.joongboo.com/>

네이버 블로그, 「운유담방(雲流談房)..... 내 삶의 에피소드」, 2020년 4월 27일자 글. <https://blog.naver.com/>

또 다른 설화로, “하연의 묘와 왜나무 전설”이 전한다.⁵⁸⁾ 하연은 나이가 들자 벼슬을 내려놓고 계란마을에 낙향하여 여생을 안락하게 보냈다. 그러다가 천수를 다 하고 별세하였는데, 일찍이 그는 자기의 뒷자리를 미리 잡아놓은 곳에 쓰게 했으며, 또한 그 주위에는 미리 왜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었다.

그 후 하연이 죽은지 수 백년이 흘러 하연의 산소 주변에는 그가 심은 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큰 숲을 이루었고, 이 숲은 보는 사람들마다 탐을 내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후손들은 왜나무를 팔아 없애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인천부 관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부사(府使)로 내려오는 사람은 도임(到任)하는 그 날로 원인도 모르게 횡사(橫死)하는 것이었다. 벌써 여러 번이나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괴이하게 여겨 힘세고 담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부사로 내려보내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는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곧 육방관속을 모두 불러서 명령하기를 ‘내가 밤을 새울 것이나 동헌(東軒) 곳곳에 불을 흰하게 밝혀 놓아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부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하더니 재상(宰相)의 조복(朝服)을 입은 사람이 부사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부사는 뜻하지 않은 일에 순간 놀랐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뜰로 내려가서 그 재상을 맞으면서 동헌 위로 오르도록 안내한 다음 허리를 굽혔다.

“신임 부사 문안 드리옵니다.”

“고맙소. 나는 아무 때의 재상 하연이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부사에게 이렇게 오면 모두가 놀라 죽고 말았는데 이제 그대에게 내 원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힘 자라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소래산에 있는 내 무덤 주위에는 내가 살았을 때 심어 놓은 왜나무가 많이 있어서 나는 가끔 밤에 그곳에서 놀았는데, 못한 자손들이 그 왜나무를 팔아버려서 거의 다 베어지게 되었소. 그러니 부사는 그 나무들을 베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오.”

58) “하연 묘소 주위의 왜나무-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의 전설”, 출처: 「지역문화/생활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이야기자료/
<https://ncms.nculture.org/traditional-stories/story/228>

“명심해서 이르겠습니다.”

부사는 옛 재상이었던 하연이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튿날 손수 자손들을 찾아가 왜나무를 베지 말도록 하고 벤 자리에도 더 심도록 단단히 일렀는데, 그런 일이 있는 후부터는 하연의 혼이 때때로 나타나 그 부사와 놀다가 가곤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니 부사는 점차 귀찮아졌고 불안해졌다. 하연은 재상이었기 때문에 상대하기도 거북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귀신과 자주 접촉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어느 날 하연이 찾아왔을 때 부사는 물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물건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귀신이나 영혼은 복숭아를 싫어해서 복숭아나무 근처에는 가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사는 어느날 하연이 찾아왔을 때 복숭아를 깎아서 내놓았다. 그러나 묵묵히 앉아 있던 하연이 부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로군, 나는 그대가 사람이 큰 줄 알고 정이 들어 자주 와서 세상경륜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는 것을 싫어하니 다시는 안오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 후부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연과 관련된 다른 전설도 전한다. 본시 하연에게는 생전에 아들이 셋 있었는데, 가운데 아들의 그림솜씨가 좋아 아버지의 영정을 석 장 그려서 한 사람씩 나누어 가졌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막내아들이 영정을 산소 앞 사당에 놓고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왜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와 하연의 사당에 모셔져 있는 영정을 보고는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가져가려고 그 영정을 드니 족자가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분통이 난 왜군들은 그 영정을 바위틈에다 쑤셔놓고 가버리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자손들이 돌아와 사당에 영정에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꿈에 하연이 나타나 말하기를 ‘왜놈들이 내 영정을 가져가려고 해서 못 가져가게 하려고 무겁게 했더니 바위틈에다 쑤셔놓고 갔다.’하므로, 자손들은 바위틈에서 영정을 다시 찾아서 모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연과 관련해서 수 많은 설화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 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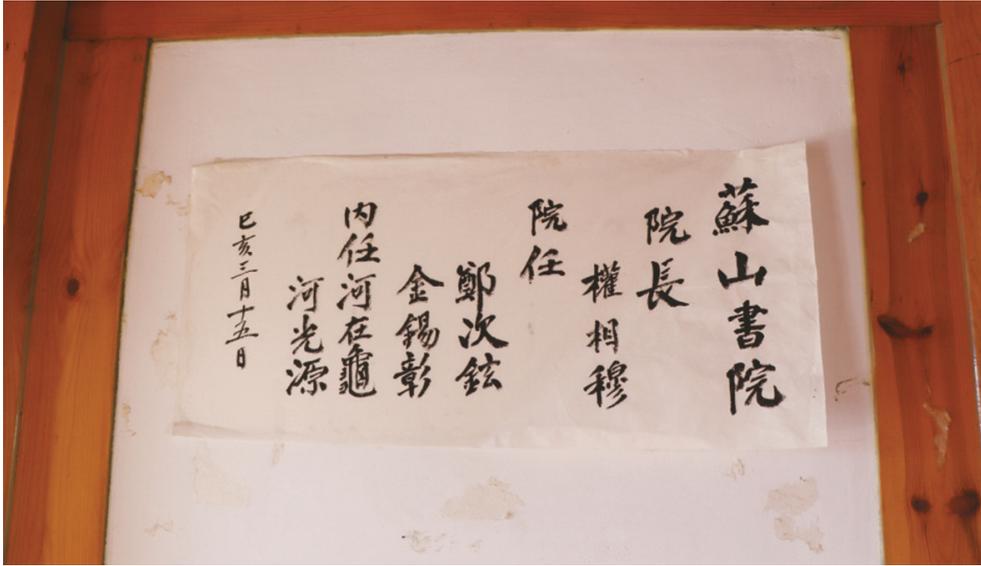
하나이다. 이러한 설화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문중에서 하연이 조상으로만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있었던 자신의 뜻에 따라 의지를 굳건히 세우고 강단 있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표현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산서원의 입구



소산서원



소산서원 내부의 2019년도 춘향제 집전자 명단



2005년 진양 하씨 시제
(출처: 『시흥시사』 권5, 53쪽)



2005년 진양 하씨 시제 후의 음복
(출처: 『시흥시사』 권5, 53쪽)

(3) 소산서원(蘇山書院)과 문효사(文孝祠)

소산서원(蘇山書院)은 문효공(文孝公) 경재(敬齋) 하연(河演, 1376~1453년)을 향사하는 곳이다. 시흥시 신천동 산12번지, 하연의 묘 옆에 자리하고 있다. 하연이 세상을 떠나자 1455년(세조 즉위년) 소산재(蘇山齋)라는 재실을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렸다. 1467년(세조 12)에 하연의 셋째아들 우명(友明)이 이곳에 영당을 세우고 소산재를 다시 지어 봄가을로 향사를 지냈다. 1963년 지역 유림과 후손들이 쇠락한 소산재를 중건하였고, 1995년 중건하면서 소산서원(蘇山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소산서원은 외삼문(外三門)인 입정문(入正門)을 들어서면, 정면에 강당(講堂)이 있다. 강

당의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동재(東齋)인 승덕재(崇德齋)와 서재(西齋)인 광업재(廣業齋)가 있다. 강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이 있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전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개방된 퇴칸이 있는 형식으로 같다. 강당 뒤편으로 사당 문효사(文孝祠)가 있는데, 내삼문(內三門)을 들어서면 보인다. 문효사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각을 두었다.

현재 소산서원은 봄가을로 향사를 지내며,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주민들의 예절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양하씨(晉陽河氏) 문효공파 종중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문효사

(4) 하우명 효자정각(河友明 孝子旌閣)

하우명 효자정각(河友明 孝子旌閣)은 1988년 5월 31일자로 시흥시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시흥시 신천동 42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우명 효자정각은 하연의 셋째 아들인 하우명(河友明, 1413~1493)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부친을 말년까

지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 효행을 기리기 위해 1473년(성종 4) 조정이 세운 정려비(旌閭碑)와 정각이다. 정려비는 높이 1.27m, 폭 61cm이고, 정각은 맞배지붕에 기와를 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작은 목조건물이다. 비각은 1700년대에 처음 세워진 뒤 여러 번 고쳤고, 1988년 전면 보수했다. 1997년 담장을 세우고, 2008년 다시 정각을 보수했다.

하연 선생의 묘역은 소래산 자락에 위치한 진양 하씨 집안의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들과 등산을 위해 찾는 주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의 계란마을 일대는 효문화공원과 함께 숲 교육장인 유아숲이 조성되고 있다. 묘역 인근은 현재 '소산서원 싹지공원'이 조성되어, 소산서원 유아숲체험원, 야생초화원, 잔디광장, 작은수목원, 하우명 효자정각 등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3.2.3. 과림동 전주 이씨⁵⁹⁾

과림동에는 전주 이씨의 여러 공파가 세거를 하였다. 두무절이[杜谷澗]와 부라위에는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었으나 파가 다르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과림동(구 지내동 제외)은 1,867명(남 1,088명, 여779명), 세대수는 910세대이다. 과림 3통은 자연부락인 부라위, 모갈, 두무절이가 있다. 마을 동쪽에는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목감천이 흐르고 있다. 목감천이 빗어 놓은 평야지대가 마을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마을 서쪽으로는 한남정맥이 잠시 쉬어 가면서 일구어 놓은 산봉우리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봉재산이다. 이산에 기대어 3개의 자연 부락이 남향을 하고 있다.

두무절이[杜谷澗]는 마을 서쪽의 봉재산 아래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절의 이름은 '두무절[杜谷寺]' 또는 '두모사(杜慕寺)'였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전한다.⁶⁰⁾

59) 『과림동 史』, (시흥시 과림동, 2014), 145~196쪽에 정리된 내용중 관련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60) 봉재산의 두모사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없으나 구전전승되는 것이 확인된다.

① 제가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고려시대에 두무절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난이 일어나서 없어졌대요. 꽤 유명한 절이었대요. 지금도 기와 깨진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강 구술, 1961년생)

② 보지는 못했어요. 기왓장도 나오구. 우리가 절터에 있는 연못을 파봤는데. 거기가 우물자리거든. 파니까 화살촉, 반달모양의 칼도 나왔어. 세월이 가면서 흔적부적 없어져 버렸지. 불상도 조그만 것 주운 사람도 있어. 옛날 사람들이 길마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빈대가 많아서 없어졌다고 그래. 깨진 기왓장이 무척 많아. 옛날 기와야. (백명석 구술, 1940년생)

두무절이에는 달성 서씨와 청주 한씨가 제일 먼저 두무절이 마을에 정착한 성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까지 마을의 주요 성씨를 이룬 것은 전주 이씨다. 전주 이씨 한남군파와 효녕대군파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한남군의 5세손인 성경(晟慶)이 목과동(木果洞)(시흥시 과림동 모갈)에 정착하면서 시흥과 인연을 맺었다. 1957년에 발행한 전주이씨 한남군파보를 통해 볼 때, 성경은 1570년생으로 직제학 부교리 벼슬을 하였으며, 그의 자손들이 400여 년간 누대에 걸쳐 과림동 모갈, 두무절이에 세거하였다. 성경과 그의 후손들 묘가 시흥시 금이동 거멸과 과림동 두무절이에 산재해 있다. 2013년 현재 한남군의 19세손인 이희정씨가 두무절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또한, 효녕대군의 후손인 수경(需敬)이 조선 정조 때인 1797년에 두무절이에 입향하였다. 전주이씨 1957년에 발행한 효녕대군정효공파세보에는 이강윤씨 등 효녕대군파 자손들이 200여년을 두무절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라위는 모갈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의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와우산과 연결시켰을 때 누운 소의 밥통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각암동(角岩洞)으로 불렸다가, 일제 강점기 때 ‘불아위’라고 불리다, 부라위가 되었다고 한다. 전주 이씨 온녕군파가 처음 입향하여 약 40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조선 태종의 11남 온녕군(溫寧君, 程, 1397~1453)을 파시조로 하여 그의 아들인 무풍군의 자손들이 대성을 이루며 살아왔다. 무풍군은 태종의 증손으로, 부인은 생육신인 남효온의 딸이다. 유년에 무풍부정(茂豐副正)에 제수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 때 12대조(중길)가 황해도 해주에서 연산군 때 폐비 윤씨의 반대파로 몰리자 피난하여 부라위에 자리 잡았다고 전한다. 부라위에 그 후손들이 터전을 잡은 것은 온녕군 5대손 광(旉, 해주부사)의 3형제 중 막내인 중길(重吉)이 등과한 후 금천현감으로 부임한 때에 이 지역을 알게되어 후에 낙향하여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한다.

12대조 중길의 묘소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다. 시제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다섯 분을 모시는데 이 중에는 황해도 해주의 선조들에 대한 설단도 포함되어 있다. 부라위에서는 음력 10월 12일에 과림동중중묘역에서 묘제를 일곱 분에 대해 지낸다. 인근의 중중산에는 ‘全州李氏溫寧君派果林宗中墓域碑(전주이씨온녕군파과림중중묘역비)’라는 비석이 서 있고, 모두 60기 가까이 되는 묘소가 있다. 과거에는 30호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이씨들이 10호 정도 남아 있고 원주민으로 전씨가 몇 호 있다.



과림동 부라위 전주 이씨 온녕군파 묘역 (출처 : 『시흥시사』 5권, 73쪽)

전주 이씨 온녕군파 과림종중은 사단법인으로 종회를 운영하며, 종중의원이 대표자를 뽑아서 대소사를 관장하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대단히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사단법인을 세우기 전에 종중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해서 종중을 운영했는데, 2002년 족보편찬 당시 회원이 649명었던 것으로 전한다.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만큼 임원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25인의 조직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시제는 음력 10월에 있고,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둘째날 총회를



과림동 부라위 전주 이씨 온녕군파 묘역 (출처 : 『시흥시사』 5권, 73쪽)

한다. 시제는 대개 10월 둘째주 주말에 진행한다. 과림종중은 종회의 족보편찬을 위한 수단을 적어 보내는 일과 가문의 75세 이상 어른에게 연 10만원의 장수위연금을 드리는 사업을 한다. 또한 후학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4.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길목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한 시대가 한 시대가 쌓은 시간과 삶의 흔적이 적층을 이루면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의 모습은 앞서 시대가 만들어 낸 삶의 결과물이 녹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만들어지고 쌓이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흔적을 오늘날 고스란히 이어받지 못한 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채로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누대의 것들이 쌓인 흔적들은 그 가치와 의미가 점차 희석되어 가면서 결국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서 서울의 배경도시로서 20세기 이래로 지속적인 변화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흥지역의 전통문화 중 특히 집성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자료와 조사 환경의 난점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으로 여러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얕은 수준의 검토만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은 매우 복잡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시흥에 뒤늦게 합류한 소래권의 경우 역사적으로 시흥 땅에 속했던 지역은 아니었으나, 시흥과 매우 밀접한 위치에 처해 있다가, 다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낙후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시흥시 소래권은 소래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과거 인천부에 속해 있었던 지역들로 일제강점기에 부천군에 포함되었다. 1930년대에 시작된 염전 개발의 하나로 소래염전이 만들어지고, 간척사업이 지속되면서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수인선 기차선이 들어오면서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소래염전 등으로 인해 평안도와 중국인 등의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전통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6.25 전쟁을 거치면

서,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새로 생겨난 마을과 기존의 마을에 외지인들이 정착하면서 과거의 마을공동체 개념의 공동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에 특히 1960~1970년대에 시행된 새마을사업과 1970~1980년대에 수도권 확장과 시흥 북부지역의 개발 가속화로 인해 한 때는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였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전통마을이 파괴되면서 전통적인 형태를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 복합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울의 도시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정착촌으로 활용된 점은 시흥이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맡고있는 부수적인 기능에 대해서 짐작하게 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급격하게 시행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 시흥은 엄청난 변화의 바퀴를 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래권 역시 수 많은 바퀴들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생활권의 변화와 현대 도시화로 인한 외부적 환경의 심각한 영향으로 전통적인 마을과 전통적인 과거의 마을제 또는 당산제 등의 형태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개발의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집단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들이 진행되었고, 내부적 요인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즉 농경을 통한 수익이 적어지면서, 대단위 농토 또는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 의해 창고형 공장과 임대사업이 확장된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창고형 공장은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원주민들을 떠나게 했다. 이제 전통적인 거주목적 또는 농경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전통이라는 이름을 지켜가는 요소 중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 일정한 집성촌의 문화를 형성하고 문중의 세거지를 이룬 집단들의 존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집성촌이나 문중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에 특정 성씨의 문중들은 세거지를 형성하면서 신분과 계층의 문제로 인해 폐쇄성과 차별화를 유지해왔다. 전통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집단의 내부적인 결속이 더 중요했으므로 폐쇄성을 유지해야 했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를 외쳤다. 이러한 집성촌과 문중의 내부 결속력 강화는 타성 또는 계층이 다른 주민들과의 차등을 조장하는 것이었고, 현재의 전통적인 마을의 파

괴를 이끄는 한 축이 되기도 했다.

지금 시흥 일대에 불어온 최근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던 상황에서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길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길은 문화이다.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녹아 있으며, 소통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며, 문화적 교류의 흔적이며, 삶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적 길은 이제 사라지고, 택지개발의 계획도에 따라서 줄선으로 그려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 위로 사람들은 걷지 않는다. 차를 타고 달리기만 하기 때문에 길과 건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과거 은행동 찬우물에서는 과거 반상을 구분하던 시절, 파평 윤씨가 사람들은 차별화를 위해 다른 성씨들을 ‘백민’이라 하여 자기 집안과 상민들을 구분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백민’들에게 반말을 썼고, 반대로 백민들은 파평 윤씨 집안사람들에게 ‘서방님’, ‘썸님’이라고 불러서 차별화를 유지해 왔다. 집성촌을 이룬 친족집단은 전통사회에서 마을 주민들과 사회적 지위를 혼맥(婚脈) 등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시흥시의 개발구역과 관련된 현실에 임하면서 종중들은 토지와 임야가 개발지역에 포함됨으로 인해 보상금과 관련된 내분을 겪으면서 외부와의 교류는 점차 단절되어가고 있다. 각 친족집단들은 일정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종친회 또는 시제 등의 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은행미산동 파평 윤씨 소부공과 한천문중의 사례와 같이 예절교육을 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거지를 형성하던 마을에서 사람이 떠나버린 현재에 집성촌 문화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인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문중의 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재당이 준비해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위계와 위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종친회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권위와 위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시흥이 변화의 길목에서 심각한 변화의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기도 인근의 집성촌과 문중문화를 유지해 온 집안들 역시 변화의

수레바퀴 위에 함께 올라타 있다. 지금까지 집성촌과 문중들이 그들의 세거지에서 폐쇄성과 차별성을 통해 그 세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면, 이제 이러한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차별성이란 말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21세기에 이른 지금은 별문세족들만의 집단세력 결속을 통한 폐쇄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어리석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다. 폐쇄성은 개방성을 통해 전통적인 문화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성은 과거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집단과 계급으로서의 차별성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업적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차별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 차별성은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존하는 차별성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내고, 한 집안의 우수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종중문화와 집성촌 문화는 좀 더 공개적으로 변해야 하고 공유되는 문화로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장건물들 사이에 묻혀있는 파평 윤씨 소부공파 한천문중의 재당 '한천재'의 모습

| 참고문헌 |

『과림동 史』, 시흥시 과림동, 2014.

『시흥군지-상』,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시흥시사 1~9권』,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문화유산-문화유산 둘러보기』, 시흥시, 2001.

『시흥시 지명유래』, 시흥문화원, 2006.

『시흥시 신현동지-방산동·포동·미산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 시흥문화원, 1999.

『시흥시 신현동지 부록-연표·농사일기·신문기사 등 자료 모음』, 시흥문화원, 1999.

『시흥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시, 2000.

『2015 어르신문화콘텐츠(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공장소)-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한국문화원연합회·시흥문화원, 2015.

『2016 어르신문화콘텐츠(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공장소)-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한국문화원연합회·시흥문화원, 2016.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인터넷신문 <<컬처인>>. <https://blog.naver.com/shculturein/221316668520>

인터넷신문 <<시흥장수신문>>. <http://www.shjangs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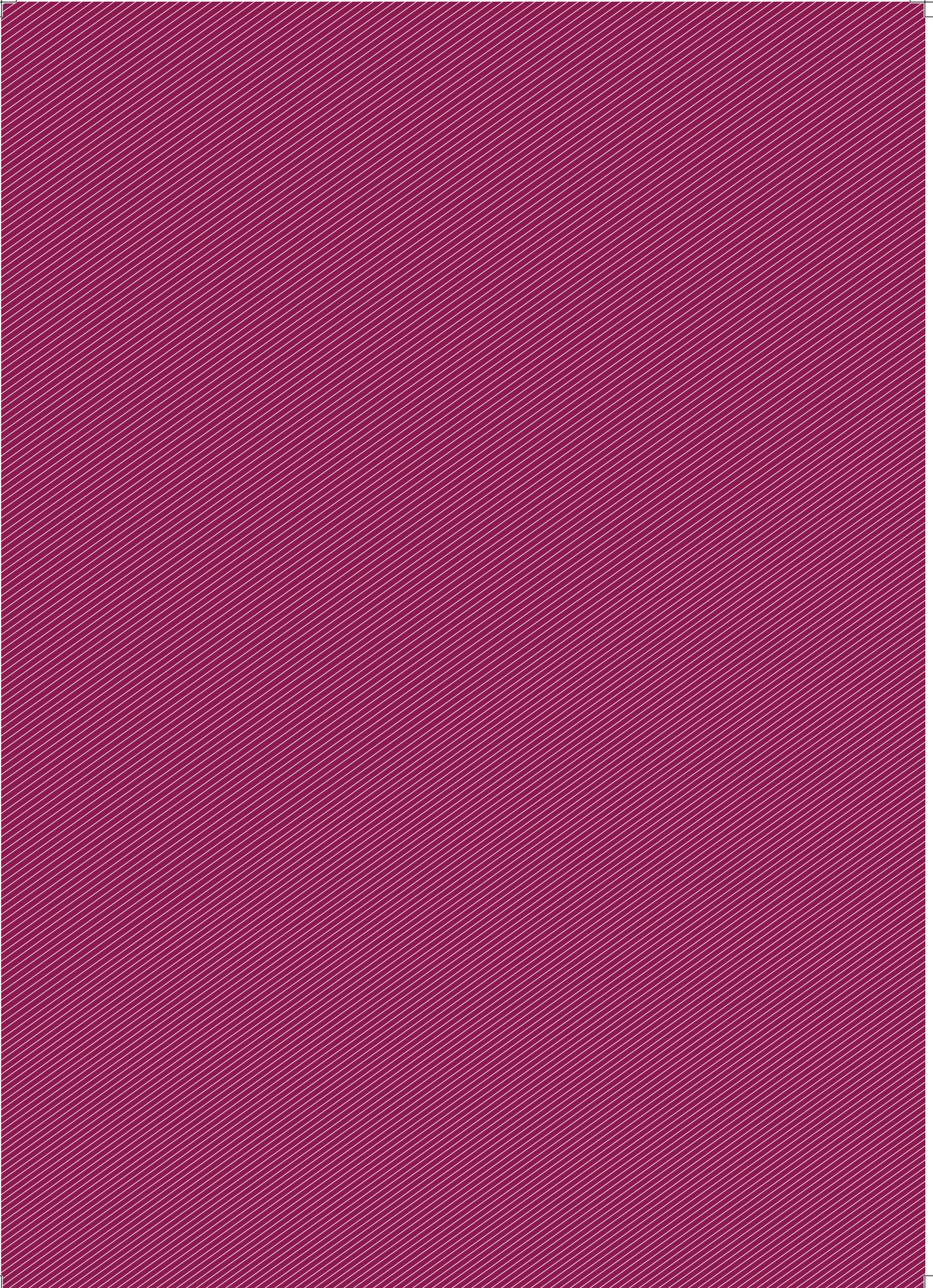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매일김조영』,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jy8225>

『운유담방(雲流談房)..... 내 삶의 에피소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pak56>

『지역N문화/생활문화』, <https://ncms.nculture.org/>



5부

시흥 신천리 마을 공동체 형성과 변화

시지은(경기대학교 박사/민속학자)

1977년 서울 양평동에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고 갈 곳이 막막했던 양평동 주민 170세대가 집단 이주하여 정착해 만든 마을이 시흥 신천리의 복음자리 마을이다. 이후 1979년 신림동, 사당동 일대 8개 지역에서 철거당한 주민 164가구가 복음자리 인근에 집단 이주해서 한독주택 마을을 만들고, 1985년에는 목동 철거민 105가구가 인근에 정착하여 목화연립을 이루게 되었다.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는 3개 마을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이며, 이 마을 공동체의 문화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시흥 신천리에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이루어 냈던 공동체문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빈민 주거공동체문화이자 의도적공동체문화의 표본이자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이주민들의 이주와 다른 지역민의 전입으로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서, 공동체문화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시흥 신천리에 철거민 이주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197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43년의 시간을 다루었다. 근대화의 정점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형성한 주거공동체와 공동체문화, 철거민 주거공동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동체문화의 변화로 나누어, 가능하면 시간의 흐름과 공동체 변화의 축을 맞추도록 하였다.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문화 생성이라는 초반기에 글의 비중이 더 실린 것은 자료의 편중을 극복하지 못한 필자의 한계이다.

1. 주거공동체 복음자리 마을 형성

1)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 그리고 신명자

복음자리 마을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제정구 선생(諸廷
坵, 1944~1999)과 정일우 신부(John Vincent Daly, 요한, 1935~2014) 그리고 현 사회복지법인 복
음자리 이사장 신명자 선생(1953~)이다. 이 세 사람은 청계천에서 인연을 맺은 뒤 청
계천 철거와 양평동으로의 이주와 철거 그리고 시흥 신천리 복음자리 마을 형성 등
을 줄곧 같이 하면서 평생의 동료이자 동지로 살았다. 제정구는 '젊은 시절의 중심
무대이기도 했던 청계천 판자촌에서의 많은 만남 중에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두 사람의 반려자를 만난 것은 젊음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것이었다. 한 분은
빈민운동을 함께 했던 정일우 신부님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아내(신명자)
이다.'⁶¹⁾라고 진술하고 있다.

제정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니던 촉망받는 학생이었
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
는, 1973년 복음교회 장성환 목사로부터 청계천변 판자촌 끝자락에 있는 송정동
활빈교회에서 야학선생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활빈교회를 찾아간 것
이 판자촌과의 첫 인연이 되었다.⁶²⁾ 도시빈민들의 참혹한 삶을 보게 된 제정구는
이후 배달학당의 야학을 맡게 되면서, 빈민들과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고 1992년
시흥·군포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
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경기도 시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15대 국
회의원에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하던 중 1998년 7월 폐암 진단을 받고 1999년 2

61) 제정구, 『신부와 벽돌공』, 비전21, 1997, 108쪽.

62) 제정구, 위의 책(1997), 131쪽.

월에 별세하였다.⁶³⁾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인 정일우는 1953년 예수회에 입회하여 1960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1966년 사제서품을 받고, 1967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서강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3년 예수회 수련장에서 몰러나 청계천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제정구를 만나게 되고, 이후 제정구와 함께 판자촌 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지로 살았다. 1991년 서울 공덕동 빈민촌에 ‘한몸공동체’를 세우고, 1997년 충북 괴산에 ‘예수회 누룩공동체’를 세우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사도직을 행하였다. 2002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4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하다 2014년 선종하였다.⁶⁴⁾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는 1973년 12월에 처음 만난 이후 제정구가 11개월간 감옥에 있던 기간과 정일우 신부가 상계동 강제 철거 지역에서 18개월간 따로 살았던 기간을 빼고는 1991년 5월까지 처음에는 같은 방에서, 제정구가 결혼한 후에는 같은 집에서 살⁶⁵⁾ 정도로 빈민운동의 길을 오랫동안 함께 걸었다.

신명자는 1953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숙명여대 국문과를 다니다가 1973년 9월에 수강하게 된 한 문학강연회에서 청계천에 있던 김진홍 목사를 만나게 되면서 청계천과 인연을 맺었다. 상상할 수 없는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의 생활에 놀라고, 당시 야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시위로 야학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당장 10월부터 야학 교사를 하게 되었다. 청계천에 처음 가던 날 보았던 제정구와 인연이 되어 1976년 4월 결혼하고, 평생 반려자이자 동지로 살았다. 1977년 양평동 철거민들과 경기도 시흥 신천리로 이주하여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고 이후 한독주택, 목화연립 등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힘이 되었다. 1985년부터 신천리의 사랑방이었던 작은자리회관이 1996년 작은자리종합복지관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동시에 1996년 나눔과 섬김을 모토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설립하여 작은자리 종합복지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 지역의 빈곤과 소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노인 등의 문제를 함께하는 공동체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63)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가집 없는 큰 자유 : 빈민의 벗, 제정구의 삶』, 학교재, 2000, 324쪽 제정구 연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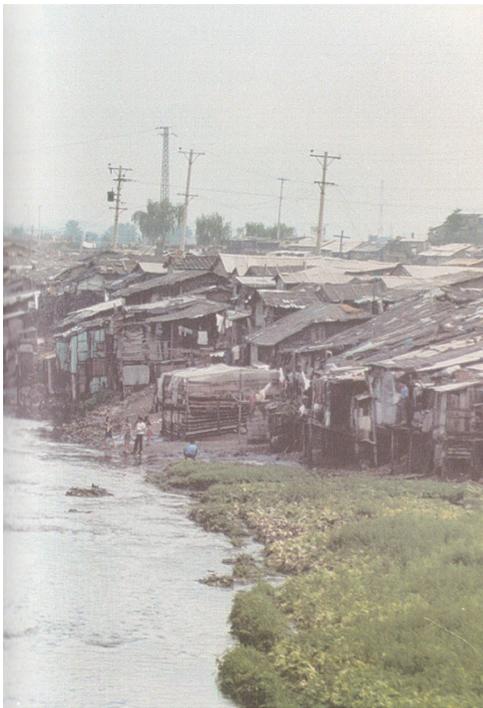
64)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어 '존 데일리(신부)'.

65)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287쪽.

2) 복음자리 마을의 형성

① 청계천 판자촌에서 양평동 판자촌으로, 그들의 사랑방 복음자리

1970년대 서울은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한 표본도시였다. 서울의 인구는 1960년에 240만여 명이었으나, 1970년에 55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판잣집 수는 1961년 84,400동에서 1970년 187,500동으로 급증했다. 그들은 서울시내 곳곳에 좁지만 촘촘하게, 또는 거대한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다.⁶⁶⁾



청계천변 판자촌(1973)



활빈교회 부설야학 배달학당 교사와 학생들(1973)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계천변에는 명실상부 판자촌이 늘어서 있었다. 판잣집은 그야말로 나무판자로 만든 집이었다. 목재소에서 제재(製材)하기 위해 원목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낸, 나무껍질이 더덕더덕 붙은 피죽을 가지런히 붙여서 집 모양을 만들고, 콜타르(coal tar) 먹인 종이에 모래를 뿌려

66) 노무라 모토유키(사진), 『노무라 리포트: 청계천변 판자촌 사람들 1973-1976: 노무라 모토유키 사진 집』, 눈빛, 2013, 9-13쪽 이태호의 글.



답십리 판자촌(1973)



개미촌 움막촌(1974)

농은 루핑(roofing)을 지붕으로 얹은 다음 돌을 얹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 말 그대로 하늘만 가린 공간이 당시 청계천 판자집이었다.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에게는 목동의 안양천 변에 블록으로 벽을 쌓고 영성한 기와를 덮은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⁶⁷⁾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인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가 1970년대 한국 빈민선교 활동을 하며 보았던 그 당시 청계천 판자촌 빈민들의 삶과 모습을 담은 사진집에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개미촌은 청계천변 제방을 파고 판자를 열기설기 엮어 지어진 움막촌으로 판자촌보다 주거환경이 더 열악했다.

1973년을 중심으로 청계천과 인연을 맺은 제정구, 정일우, 신명자는 청계천에서 야학 교사 등을 하며 그들과의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제정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적,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75년 2월 형집행 정지로 출소하고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다. 1975년 서울시가 중랑천변, 청계천변 등 서울시내 41개 하천변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곳에 녹지대를 만들기로 하면서⁶⁹⁾ 청계천 판자촌의 철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청계천 판자촌 철거가 결정되자 제정구는 1975년 여름 당시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여 56세대를 조직, 각자 추렴하여 현재 올림픽공원이 있는 방이동에 2,000여 평의 땅을 구입'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

67) 제정구, 「공간 재구성 과 서민생활」, 『공간과 사회』 3, 1993, 13쪽.

68) 아래 6장의 사진과 철거되는 판자촌 사진은 모두 『노무라 리포트: 청계천변 판자촌 사람들 1973-1976: 노무라 모토유키 사진집』에서 가져왔다.

69) 노무라 모토유키(사진), 위의 책(2013), 366쪽(경향신문 1975.10.6. 기사).



개미촌 움막집 앞 아이들(1974)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제정구가
활빈교회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장면(1974)

지 않자 3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방이동으로의 집단이주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⁷⁰⁾

청계천에서 철거당한 주민들은 현재의 목동 신시가지 지역, 즉 안양천변으로 집단이주를 당했다. 그들은 수도, 전기는커녕 안양천을 건너다닐 다리조차 없는 갈대만 무성한 곳을 다듬어 주거공간을 형성해 살게 되었다. 당시 양평동 판자촌에는 2만 세대 10만여명이 무허가 집에 살고 있었다. 청계천변이 철거되기 시작하고, 방이동으로의 집단이주가 성사되지 않게 되자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 신명자는 철거민들과 함께 1975년부터 청계천에서 안양천변 양평동으로 이사해 살았다. 양평동에 들어와서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주민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철거중인 판자촌(1976)

양평동을 오가면서 한 달 동안 준비 작업을 한

70) 제정구, 앞의 책(1997), 140-141쪽.

후, 11월 하순에 나 혼자 먼저 입주를 했다, 그 후 정일우 신부님까지 이사를 함으로써 판자촌 재입주는 완료되었다. 입주 후 곧바로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7평짜리 집의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부엌과 방으로 쓸 2평 남짓은 남기고 나머지 5평 정도를 사랑방으로 만들었다.

그 때 정일우 신부님과 네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프로젝트 하지 않는다.

둘째, 그냥 산다.

셋째, 이웃으로 살면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마다 앞장선다.

넷째, 그들 스스로 하는 일에 함께 하고 거든다.⁷¹⁾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7평짜리 판자집을 개조하여 그 중 5평을 사랑방으로 만들었다. 사랑방을 만들어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 양평동 판자촌 주민들과 살면서 두 사람이 했던 네 가지 약속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냥 사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앞장서고 거든다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옆에서 살며 그들을 위해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었으리라. 두 사람이 그 낮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만든 공간, 그 사랑방 이름이 바로 ‘복음자리’였다.

우리는 양평동에 들어가서, 75년 11월 달에 들어가고, 정신부님 12월 달에 들어오고, 간판을 단 게 1월 달에 달았어요. 추기경님 오셔서. 거기다가 양평동에다가 복음자리를 달았죠, 사랑방을. 그 이름이 복음자리였어요. 5평짜리 사랑방 이름이 복음자리였어요.⁷²⁾

위의 두 가지 진술에 의하면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1975년 겨울 양평동 판자촌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바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고 1976년 1월에 문을 열고 간판을 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자리’는 애초에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가 주민들과 함께 살았던 서울 양평동 마을의 5평짜리 사랑방 이름이었다. 정일우 신부가 있어서인지 양평동 판자촌에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기도 했고,

71) 제정구, 위의 책(1997), 143쪽.

72)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사랑방 간판에는 ‘예수회 복음자리’라고 적기도 했다.⁷³⁾



양평동 판자촌을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복음자리에 모인 아이들

복음자리라는 이름은, 한국 예수회 복음자리라는 공동모임장소, 말하자면 공동체 센터(Community Center)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자리의 어원은 성경에서의 ‘복음’과 편안한 안식처를 의미하는 ‘자리’라는 의미이지만, 삶의 터전 즉 ‘보금자리’라는 의미와 성서에 나오는 ‘기쁜 소리’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이 사랑방은 주민들을 위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복지기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었다. 동네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과 놀고 그림을 그리던 곳이 바로 복음자리였다.



사랑방 복음자리 간판

양평동 사랑방 복음자리는 가난한 판자촌 주민들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보

73) 다음 사진은 유튜브 동영상 '복음자리 15주년'(https://www.youtube.com/watch?v=97qk8cbu_wU)에서 일부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다 인간답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해 4월에 나는 결혼을 하게 되어 아내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서 사랑방이 더욱 풍성해졌다.
- 아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된 동네 엄마들이 유치원을 한 번 해 보라고 성화를 해 댔다. 당시 아내는 청계천에서 우리를 만난 후 숙대에서 한신대 신학과로 전학하여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 이렇게 해서 오전에 유치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내보다는 동네 엄마들이 더 열성이었다. 자연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 나도 유치원이 끝난 오후 시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요가를 가르쳤다.⁷⁴⁾
- 76년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해 겨울에 12월에 들어와서 (복음자리를) 1월 달에 문 열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 4월에 결혼해서 바로 큰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학기를 남겨놓고 못 갔어요, 학교를(신학대를). 아이도 생겼고 여긴 계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7월 달에. 그리고 계고장이 날라오니까 주민들이 그제 바로 철거로 이어지니까 주민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계속 논의하고, 그제 저희 집과 사랑방과 이런 데가 매일 밤까지 얘기하고, 회의하고.
- 동네 엄마들이 '우리 애들은 아무 데도 못 가니...' 하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애들 같이 모아서 사랑방에서 애들 시간 보내게 하고, 주변에 자원봉사자들 불러서 애들을 보게 했죠. 유치원 아이들. 시험지 한 장에다가 크레파스 몇 개를 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그림들을 그리고 다들,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⁷⁵⁾

양평동 복음자리 사랑방은 동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생활고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의료시설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편하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자 일종의 정책 마련의 장이기도 했다.

74) 제정구, 앞의 책(1997), 149쪽.

75)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② 양평동 판자촌에서 시흥 신천리로

1976년 8월, 양평동 판자촌에도 철거계고장이 나왔다. 2만 세대나 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사랑방에 모이던 주민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당시 안양천 주변의 판자촌은 극히 불안정한 생계활동으로 항상 생계의 위협을 받아오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극빈층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철거열풍은 이들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었다.⁷⁶⁾

계고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2만 세대라 그랬잖아요? 2만 세대가 동시에 나가면 그 일대의 집값이, 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한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도 우리집을 어딘가 여기가 아니어도 진짜 손바닥만한 데라도 우리 집을 짓고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럼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면서 주민들하고 땅을 보러 다녔어요.⁷⁷⁾

2만 세대나 되는 집이 철거되면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기자, 주변 집값과 전세와 월세금이 폭등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랑방에 모인 주민들은 차라리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하였다. 집을 짓고 살 땅을 알아보기 위해 부천시 원종동, 부천역 주변, 시흥 등지의 빈터를 보러 다니다가 시흥 신천리 땅을 알맞은 장소로 물색하였으나, 당시 주민들은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도저히 마련하지 못 할 형편이었다.

- 근데 이 분들이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생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한다. 주민 중심으로 한다,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그거를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 계속 그걸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주민들이 가서 가지고 와, 어디 땅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 가 보자 그러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제생하고, 따라가서 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와, 그럼 또 가서 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고 다녔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름에 나왔는데, 이제 가을이 돼 갔을 거 아니예요? 겨울이 돼 가

76) 임종택, 「의도적 공동체와 지역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작은자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8, 35쪽.

77)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고. 그게 77년 4월에 철거를 시작했어요. 날짜를 정해 놓고 나가라고.⁷⁸⁾

주민들이 알아보고, 제정구와 정일우신부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면서 여러 거주지를 알아보고 마땅한 곳을 물색하기도 했으나, 판자촌 주민들이 가진 돈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가진 돈으로 매입할 적절한 땅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정일우 신부와 친분이 있던 김수환 추기경의 주선으로 독일의 천주교 후원단체인 '미제레울(Misereor)⁷⁹⁾에서 5만 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기로 했다. 5만 불로 가장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선택한 곳이 바로 경기도 시흥이었고, 마침내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3번지에 5천여 평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제레울의 지원은 이후 건축비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져 10만 불로 늘었다.⁸⁰⁾

미제레울의 지원을 받게 된 데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주선과 그에 따른 정일우 신부의 독일 방문이 큰 역할을 했으나, 그 과정에 작은 계기가 하나 있었다.

제가 12월 달에 애들한테 카드를 쓰라 그랬어요, 추기경님한테. 그래서 크레파스 한 가지 색깔로 해 가지고 갱지애다 하나씩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다 모아서 하나하나 봉투에 넣어서 추기경님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76년 12월 초에. 근데 카드를 받고 추기경님이 오셨어, 양평동 복음자리에. 그 전에 추기경님 오셔서 (복음자리) 문 열어 주셨으니까 여기 관심이 많아. 근데 이 카드를 보고 '어, 가 봐야겠네?' 이 생각을 하신 거지. 오셔가지고 잘 있었냐 어찌구 저찌구 하고는 뭘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니까, 추기경님이 '그럼, 내가 미제레울에 편지를 써 줄 테니까, 정신부가 가.' 그래가지고 정신부님이 편지를 가지고 독일로 갔죠, 가고 바로 독일에서 지원을 준 거죠. 그래서 덩어리 땅을 샀어요.⁸¹⁾

78)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79) 미제레울은 우리나라 빈민구제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판자촌 생활 당시' 그때 생각해보니까, 독일 미제레울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먹였어요. 제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0명분을 지원을 받으면 400명, 500명을 먹였어요. 그렇게 먹이기 위해서 쌀 걸 사서 직접 만들어서 먹였어요... 우리 복음자리가 여기(신천리) 올 때도 미제레울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관계되어 있는 미제레울은 독일의 정부하고 카톨릭이 함께 두 개가 만든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했던 건데, 당시 1960, 70년대 한국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죠.'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80) 김찬호,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동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도시와 빈곤』 Vol.109, 한국도시연구소, 2016, 2쪽.

81)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양평동 판자촌에 마련된 사랑방 복음자리는 간판을 걸면서 김수환 추기경의 방문이 있었고, 그 사랑방에서 놀이를 하고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그 해 성탄카드를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성탄카드를 받은 추기경은 다시 양평동 복음자리를 방문하게 되었고, 철거와 이주지 물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독일 미제레올에 편지를 써서 주선을 하게 된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사랑방 복음자리와의 인연,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 양평동 철거민들의 이주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미제레올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1977년 3월 15일 땅을 계약하고 3월 31일 등기 이전을 마치고 난 후, 드디어 4월 9일에는 신천리로 이주할 1백 70세대수가 확정되었다.⁸²⁾ 당시 양평동에 2만여 세대의 판자집이 있었는데, 신천리로 이주할 170세대를 확정짓는 데는 적잖은 사연과 우여곡절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죠. 같이 가 보자. 그럼 주민들한테 같이 갈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신청을 한 세대가 전체 세대 수가 1,500세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갈 수 있는 세대가) 170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그럼 제생하고 정신부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내 놓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다 떼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이 거의 다 두장이예요, 한 장이 아니라. 앞뒤로 딱딱해서 뒤에까지 붙였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이 판자촌에서 저 판자촌으로 이사를.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가장 이사를 많이 간 집,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식구가 너무 많아서 세를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 아이가 많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다 있는 사람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가장 가난한 집들을 찾아낸 거예요.⁸³⁾

82) 임종택, 앞의 글(1998), 36-37쪽.

83)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미제레올 지원금을 받게 되고 신천리 땅을 매입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5평짜리 작은 사랑방 복음자리와 제정구의 집에는 이주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청과 취소가 반복되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세대가 1,500여 세대에 이르게 되자, 매입한 땅에 최대한 이주할 수 있는 세대수인 170세대를 선정하게 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민등록상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한 집, 아이가 많거나 식구가 많아서 세를 얻기가 어려운 집 등 '가장 가난한 집'을 찾아내 170세대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미제레올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땅을 매입하고 이주할 170세대가 4월 9일 확정되었다. 이주 세대가 확정된 4월 9일 두 집이 먼저 이주를 했다. 다음날 4월 10일은 부활절이었고, 안양천 뚝방에서 부활절 고별미사를 드린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를 포함한 네 집은 1톤 트럭 하나에 짐을 싣고 신천리로 이주를 하였다. 이후 매일 몇 세대씩 이사를 오게 되었고, 6월 말 경에는 170여 세대가 신천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③ 복음자리 마을, 스스로 마련한 주거공간과 입주

양평동에서 신천리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루에 몇 세대씩 이주를 하긴 했지만 이주가 곧 안정된 거주공간으로의 입주는 아니었다.

- 한때는 봄이면 복사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탐스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영글어가던 곳,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포도덩굴을 베어낸 자리에다 철거를 피해 서울시청에서 빌려온 비상천막을 세운 것이 1977년 4월 11일이었다.
- 원래 이 곳은 과수원으로 사용되던 땅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친다 해도 과목도 치우고 땅도 골라야 했다... 다행히 앞서 우리 판자촌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셨다던 고위 관리의 협조로 천막입주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다.
- 세대수는 불어나는데 먹을 물이라고는 3면이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논둑 밑에서 솟아나는 조그만 웅덩샘뿐이었다.
- 그러던 어느날 백 톤을 목표로 파기 시작한 우물에서 처음으로 물이 솟아나왔다.
- 마침내 13일에 기공식을 하고, 영등포구청에서 빌려온 새마을 사업용 리어카 30대로

논을 메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⁸⁴⁾

과수원을 거주지로 바꾸기 위해 이주민들이 했던 고생은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였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물도, 화장실도 준비되지 않은 땅이었다. 이주민들은 과목을 치우고 천막을 칠 땅을 고르고 우물을 파는 등 황무지를 개척하듯 과수원 땅을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집 짓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천막을 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비상천막을 빌려오고, 고위 관리의 협조로 이주한 지 9일 만에 전기가 들어오고, 과수원의 흙을 파서 논을 메우기 위해 영등포구청에서 새마을 사업용 리어커 30대를 빌려 흙을 나르는 등 기관과 관리의 협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⁵⁾ 당시 제정구는 학생운동과 빈민운동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서 요주의 인물로 관리를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는 의외의 것이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이 의외의 협조를 이해할 수 있다.

- 1977년 1월 정일우 신부님이 집단이주를 지원받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님 서한을 가지고 독일에 가 계실 때였다. 중앙정보부 서울대 담당요원이 높은 사람 한 분을 모시고 왔다.
- 아주 공손하게 나오길래 나도 집단이주를 계획하노라 솔직하게 밝혔다.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군,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 이렇게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다녀간 뒤 이번에는 황송스럽게도 구청장이 직접 방문을 했다.
-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차를 타고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다. 그 분은 전재덕 씨로 당시 중앙정보부 제2차장이었으며, 그 뒤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집단이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⁸⁶⁾
- 그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일 때예요. 그 당시 정보부 차장이 전재덕이었어요. 전재덕 차장이 갑자기 ‘제형, 제형 집에 있어요?’ 하고는 집에 들어왔어요.
- ‘제형이 이런 데서 저기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84) 제정구, 앞의 책(1997), 127쪽, 163~167쪽.

85) 제정구, 위의 책(1997)과 임종택, 앞의 글(1998)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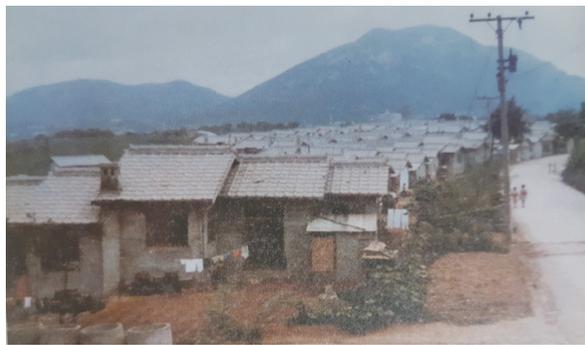
86) 제정구, 앞의 책(1997), 155~157쪽.

서 그 사람이 땅을, 여기 땅을 구해줬어요.

- ‘부친은 땅값이 비싸서 못 가니까, 고개 너머에 너네한테 맞는 땅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2만 5천원, 3만원 정도 하는 거를 5,400원에 샀죠.⁸⁷⁾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전재덕이 직접 양평동 판자촌에 있는 제정구를 찾아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도울 일이 없는지를 물었고, 이에 제정구는 철거와 집단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후 이주할 땅을 알아보고, 알선하고, 전기를 끌어다 주는 등 집단이주를 하기 위한 일련의 협조는 이 고위직 간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제정구와 철거민 집단이주를 도운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신명자 이사장은 ‘김재규가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의 사람들도 조금 다른 게 있거나 모르겠어요.’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러한 기관의 협조 덕분에 이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13일의 기공식에 이어 14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손수 땅을 갈고 벽돌을 만들고 집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두 달 간의 여정은 주민 각자가 어떤 분야에 재주와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6월 14일에는 정일우 신부의 미사 집전으로 건축기공식을 하고, 7월 28일에는 상량식을, 9월 24일에는 입주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되었다. 동네 안의 8m 도로에다 천막을 치고 미리 결성된 추첨관리위원회에서 경찰관 임회 하에 각자의 집 위치를 결정하는 추첨이 끝난 후, 김수환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입주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복음자리 마을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⁸⁸⁾



거주지로 조성된 복음자리 마을

87)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88) 위의 사진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1975년부터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 복음자리」(글: 정재학; 사진: 전호성, 『아산의 향기』 통권 160호, 아산복지재단, 2017. 겨울), 23쪽에서, 아래 사진은 「철거민정착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김찬호,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6.12), 22쪽에서 가져왔다.

기공식을 하고 입주식을 할 때까지 주민들은 스스로 땅을 고르고, 진 땅을 메우고, 벽돌을 찍고, 집을 짓고, 내부건축을 마무리하였다. 경제적인 여건 상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 집을 짓기는 불가능했을 뿐 더러, 집단이주를 결정하고 이주 지역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었던 것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중에 목수, 미장이, 조적(組積, 쓰미) 등 어떤 분야에서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시도와 신뢰에 의한 수행이라는 점이다. 집단이주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주민들 중에는 당시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건축을 담당해야 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주택 건설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를,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책임지면서 주택 건설은 이주민 전체가 함께 하는 공동체 활동이 된다. 마치 전통사회에서 마을 노동공동체인 두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공동노동을 마친 후에 노동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복음자리 마을은 주민들의 재정 사정에 따라 집의 규모가 달랐다. 9월 22일 골조를 끝내고, 6평에 75세대, 9평에 45세대, 12평에 40세대, 15평에 10세대 등 총 170세대가 추첨을 통해 이사를 했다. 골조만 끝낸 집에 들어가서, 12월 초 지붕까지 없는 건축이 완전히 끝나고 이듬해 1978년 봄까지 하수도 공사, 페인트 칠하기 등을 차차 해 나갔다. 이들 건물 중 6평짜리는 임시주택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⁹²⁾

- 170세대가 집단이주했는데, 이게 제일 작은 평수가, 땅 분양 평수로 10평, 15평, 20평, 25평까지 땅 평수로 이렇게 했고, 집 평수로 6평, 9평, 12평, 15평 이렇게 했거든요. 그니까 땅을 6천 평인가 열만가 샀을 거예요.
- 복음자리마을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 허용되는 것들이, 뭔가 법이 허술할 때 었을 거 같아요. 제삼이 시흥군청에 가서 맨날 싸워가지고, 6평짜리가 집이 허가가 안 나는 거

92) 김찬호,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군 소재 복음자리 마을」,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6.12. 26-27쪽.

에요. 그런 집은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4집을 묶어서 24평 해 가지고. 연립이란 개념이 없을 때예요. 다 쫓아다니면서, 법을 다 어디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해라, 해라. 매일 매일 시흥군청에 가서...⁹³⁾

같은 철거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재정상황이나 식구 수 등이 달랐기 때문에, 이주할 지역의 땅을 매입하고 땅 분양 평수를 신청받았다. 땅 분양 평수에 따라 집 평수도 달라져서 제일 작은 집은 6평일 정도로 작은 집이 되었고 가장 큰 집이라야 15평이었다. 6평의 집은 너무 작아서 법적으로 집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시흥군청에 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축 허가 내 주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당시에는 임시주택인 상태에서 입주하고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주민이 된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는 당시 주민들의 건축 작업에 들어가 벽돌을 찍고, 나르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을 입주식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사제로서의 역할, 이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제정구, 정일우 신부 그리고 마을 입주식, 주택 건축을 마치고 남은 재료로 지은 회관과 마을 안 풍경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⁹⁴⁾



복음자리 마을 건설 당시 벽돌 찍기

93)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94) 위 두 장의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홈페이지(www.bokumjari.or.kr)에서, 아래 여섯 장의 사진은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보고서: 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연립』(시흥문화원, 2012. 12)에서 가져왔다.



복음자리 마을 입주식



복음자리 예수회



복음자리 최초의 마을회관, 복음노인정



복음자리 마을 안 풍경

이렇게 조성된 복음자리 마을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옆집과 줄줄이 붙어있는 형태였지만, 누구에게 위협받거나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보금자리가 되었다.

2. 공동체생활과 문화 그리고 주거공동체의 확장

1) 공동체생활문화의 기반 마련

① 복음자리 신용협동조합

한국의 신협운동은 1960년 장대익신부, 멧리가벨 수녀가 부산에서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고, 신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64년 4월 26일 전국의 55개 조합대표가 모여서 신용협동조합 연합체를 창설하면서이다.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 복음자리 마을은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다. 천막에서의 5개월은 최소한의 생존조건에도 못 미치는 환경이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쫓겨온’ 것도 서러운데 여기 오니 원주민들의 천대는 더 기가 막혔다고 한다. ‘마치 뭐라도 훔치러 온 무리로 취급’했고 ‘천막거지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상대하기를 꺼렸다. 청년들이 다른 마을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 끼리 잘 뭉치는 것도 아니었다. 마을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78년 신협이 세워지면서부터였다.⁹⁵⁾

복음자리 마을 신협은 빈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여 사는 제정구의 준비된 전략이 있었기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보다 공동체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8년 1월, 집단이주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조그만 마을회관까지 준공이 되었다. 4월 초에는 마을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교동에 있는 협동교육원에 1개월 코스의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 1개월간 기거하면서 받는 교

95) 김찬호, 앞의 글(1986), 31~40쪽 요약 정리.

육이었다.⁹⁶⁾

복음자리 마을 집단이주와 주거공간 마련으로 쉴 틈이 없었던 제정구는 마을 회관의 준공까지 마치고 나자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신협 설립을 위한 교육이 숙식을 하면서 1개월 과정이었으니, 교육 내용과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3년부터 청계천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아온 제정구는 신협 설립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지역운동 또는 공동체운동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신협이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 매일 낮에 있었던 일을 저녁에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살다보면 더 넉넉해지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넉넉한 사람들이 1할의 이자를 받고, 달러 이자죠. 그 이자를 받고 옆집에 빌려주는 거예요. 이 집은 병원에 가야 돼, 학교에 학비를 못 내, 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옆집에서 만원을 빌려주고 만 천원을 받는 거죠. 처음부터 선 이자 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삼이... 그런 얘기는 매일 매일 돌아다니죠. 누구네 집에서 누구 집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많이 받았단다, 누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간댔다, 학비를 못 냈다. 이런 얘기들이 매일매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고 하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 어쨌든 저희가 이 일대에서 같이 마을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음자리 짓고 바로 시작한 게 신용협동조합이잖아요. 신용협동조합은 제삼은 청계천에 있었을 때부터 신협에 대한 교육은 이미 받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 지역운동을 하려면 거의 다 신협은 해야 됐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삼이 복음자리 짓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했던 게 신협이에요.⁹⁷⁾

어려운 사람들의 보금자리는 마련되었지만, 불안정한 생계와 경제적인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 와중에 식구가 아프다거나 학비를 내지 못하는 급한 상황이 되면 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10%의 이자를 내

96) 제정구, 앞의 책(1997), 222쪽.

97)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게 되는 상황이었다. 여유있는 조합원에게는 저축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는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신용협동조합이기에, 당시 복음자리 마을에서 마을 구성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경제적인 조직인 신협은 매우 절실했을 것이다.

복음신용협동조합은 처음에는 다섯 사람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구, 김만호, 심병현, 백경현 같은 이들이다. 당시 이주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 관념이 거의 없었기에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협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회도 진행되었다.⁹⁸⁾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복음신협은 78년 5월 7일 창립총회를 갖고 54명으로 출발했다. 일반적인 신용협동조합은 서민저축기관으로서의 은행 역할에 그치지만, 복음신협은 그러한 일반 신협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유대 못지않게 사회적 인간관계를 위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복음신협이 자신들을 스스로 정의하는 바 ‘출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사람)들을 스스로 활동케 하는 협동조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출자액의 10배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했기에, 주어진 물리적 환경을 삶의 자리로 조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경험이었다⁹⁹⁾고 한다.



1978년 복음신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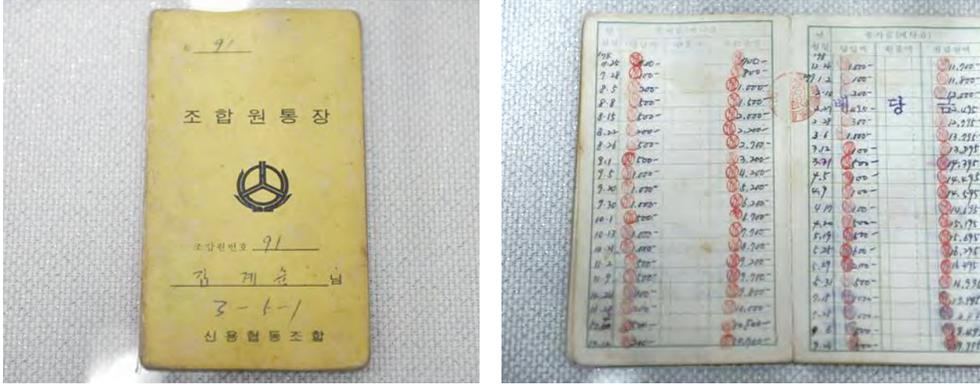


초창기 복음신협 사무실

98)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 5쪽.(위성중 구술자료 중)

99) 김찬호, 앞의 글(1986), 31~40쪽 요약 정리.

초창기 사무실과 소식지 그리고 조합원 통장을 보면 1980년대 전후 복음신협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⁰⁾



복음신협 조합원 통장

당장 급한 주민들의 경제사정을 해결해야 하기도 했고,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설 수 있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신협은 많은 일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일이 렉스 토끼 조합이었다. 이후 우(소)협동조합, 판넬조합, 신용협동조합, 잼 공장을 조합원 형태로 시작했다.
- 신협에서는 단오제와 이사장배 축구대회, 노래자랑대회를 시행했다. 신협 창립일 및 단오제로 출발한 이 행사는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 자리에서 바자회를 열어 복음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¹⁰¹⁾

복음신협은 신협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가지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을 벌였다. 물론 모든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성실성과 별도로 시장

100) 첫 번째 1978년 복음신협 사진은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복음신용협동조합' 항목에서, 다음 네 장의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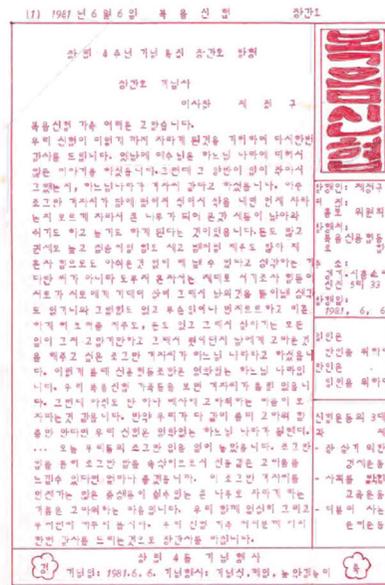
101)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 12-14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경제나 국가 경제에 따라 갈리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공동 출자와 공동 생산의 협동조합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중 잼 공장은 특히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솥단지를 걸어 놓고 주걱으로 손수 저어 가면서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 때 엄마가 만든 것처럼 정성을 들여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¹⁰²⁾

공동 일자리 창출 외에 단오제, 축구대회, 노래자랑대회를 열면서 신협은 마을 주민들이 문화활동과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많은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창립 4주년을 맞으면서 소식지 '복음신협'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지를 통해 신협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사회사를 간략하게 보고하기도 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알리기도 했다. 소식지의 1면에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신협운동의 3대 과제: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라고 일종의 강령처럼 적고 있다. 당시 복음신협이 추구하고,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초대 이사장이자 복음신협 소식지의 발행인이었던 제정구는 2년만에 이사장직을 내놓아 이후부터는 신협의 모든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복음신협은 다른 신협보다 자산이 작고 연륜도 짧았는데 이는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이었다. 작은 신협이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기도 했다. '다른 신협에 비해 복음신협이 마을행사 등 공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배당금이 적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¹⁰³⁾도 하고 '신협 부지를 구입하면서 부동산자산이 많으니 수익이 많



1981년에 창간된 소식지 '복음신협'

102) 시흥문화원, 위의 책(2012), 22~23쪽 (신광표 구술자료 중) 신광표에 의하면, 잼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복음자리 잼 공장은 2009년 청정원을 경영하고 있는 대상으로 인수되었다고 한다.

103) 김찬호, 앞의 글(1986), 54쪽.

을 리 없어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돈이 없어 조합원 총회가 열리면 곤혹을 치르기도¹⁰⁴⁾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복음신협은 일정정도 성장을 하게 되었다. 9년째 접어드는 해인 1986년 현재 복음신협은 약 6억 원 규모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조합원도 1,000명에 가까워졌다. 조합원은 복음자리 주민 뿐 아니라 신천리와 은행리 주민도 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구호 아래 협동하고 서로 신뢰를 쌓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음신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로 발전했다.¹⁰⁵⁾ 1987년에는 한독마을과 목화마을 이주민들이 가입하면서 1,000번째 조합원이 등록을 하면서 조합원이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¹⁰⁶⁾ 1978년 5월에 창립한 복음신협은 조합원들과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하면서, 1981년에 소식지를 발간하고, 1987년에는 조합원 1,000명을 넘어서고 복음신협의 독자적인 건물을 지을 정도로 규모와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¹⁰⁷⁾



복음신협 준공식(1987)



복음신협 기공식(1986)

② 복음장학회

복음장학회는 1979년 서강대학교 김어상 교수가 이 마을 학생 2명에게 매월 보

104)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 13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105) 김찬호, 앞의 글(1986), 34-41쪽.

106)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 12-13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107) 복음신협 준공식과 기공식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내준 장학금이 발족 동기가 되어 1983년 3월 창립되었다. 그 때 내세운 장학회의 정신과 목적은 '1. 서로 믿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정신을 후세에게 물려준다. 2.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며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



복음장학회 제4차 정기총회

줌으로써 참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3. 우리가 이룩한 삶의 터전이 더욱 굳건한 사회, 경제적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희망한다'였다. 그리고 그 장학생 선발기준은 '1. 부모가 없거나 재난을 당한 자, 2.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3.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4. 장래성이 있는 자로서 이 사회가 인정하는 자'였다.

한 달에 500원 이상의 회비만 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었던 복음장학회는 1979년 김어상 교수가 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980년에는 제정구, 정일우 신부 등이 주도하여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981년에는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983년 창립총회 이후에는 복음장학회에서 단오제 때 바자회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선임하고 있다.¹⁰⁸⁾

1986년 현재 회원 258명에 총자산 2,100만원을 모아, 한 해에 약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회비 외에 구판매사업, 젓갈장, 장학회의 집 운영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과 물물교환센터, 척사대회, 장학생 초청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복음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그리고 활동의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설립당시의 이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투명해지고, 자기 자녀에게 돌아오는 장학금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장학생 선발을 두고 잡

108) 사단법인 제정구장학회 홈페이지(<http://www.jjgss.or.kr/>) ; 김찬호, 앞의 글(1986), 41~42쪽, 54쪽 종합, 사진은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제정구장학회' 항목에서 가져왔다.

음이 많아지기도 했다.¹⁰⁹⁾ 하지만 복음장학회는 1979년의 계기와 1983년 창립 이후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 장학금 지급,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아갔다.

③ 마을잔치와 청년회 그리고 복음단오제

복음자리 마을에서는 잔치가 자주 벌어졌다. 잔치는 이주하고 나서 곧 벌어졌고, 입주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 이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자리는 마을잔치의 놀이판이다.
- 그러한 잔치 분위기는 5월 8일 외부에서 들어온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개최하면서부터 형성되어온 것이다. 도착에서 입주 때까지(1977.4.10.~9.24) 세 차례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 대보름 때, 한가위, 성탄절. 설사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만 되면 아무 때고 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 이런 마을잔치는 일 년에 몇 번 치뤄진다. 그 중 가장 커다란 것이 신협창립기념 단오제인데, 기념식, 동요부르기대회, 마라톤, 씨름, 줄다리기, 마당굿, 불꽃놀이, 뒷풀이 등 여러 판이 벌어진다.¹¹⁰⁾

위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복음자리 마을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입주를 하기 전, 5개월 동안 천막생활을 하며 공사를 하는 중에도 잔치를 세 번이나 벌였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마을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일상적인 모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월 8일 외부에서 들어온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잔치가 벌어졌고, 과수원의 흙을 파서 논을 메우는 작업이 4월 14일부터 시작되고 5월 28일에 편편해진 공터에서 체육대회 겸 경로잔치를 벌였고, 7월 28일 상량식을 하면서 신청한 건평에 따라 주민들에게서 상량식 축의금을 각출하여 잔치를 벌였다. 잔치보다는 언제나 그 준비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주민들간에 '우리는 하

109) 김찬호, 앞의 글(1986), 42쪽, 54쪽.

110) 김찬호, 앞의 글(1986), 42-44쪽, 49쪽.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¹¹¹⁾고 한다.

함께 이주해 온 주민이 공동체의 작은 일에도 소박한 음식을 마련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형태의 잔치였지만, 잔치라고 늘 즐겁고 흥겨운 것만은 아니었다.

- 제정구씨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며 한편에서는 술 취한 논쟁과 껍싸움이 계속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관전하는, 말 그대로 요지경 그것이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과 싸움박질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었고, 우리의 축제란 한을 푸는 천태만상의 잔치였으며 또한 고사였다. 한 번씩 그런 고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 더불어 고생하면서 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체임을 체득하고 싸움과 화해 그리고 잔치를 통해 하나됨을 확인해 가게 되어 조금씩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¹¹²⁾

잔치는 늘 즐거운 일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벌어진다. 손수 마련한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시작한 잔치가 나중에는 논쟁과 싸움으로 진행되기 일쑤였을 것이다. ‘요지경’과 ‘천태만상’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하여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액을 막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행위인 ‘고사(告祀)’에 비유할 정도로 복음자리 마을의 잔치는, 액을 풀어내서 몰아내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웃이며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었으리라.

마을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는 복음단오제였다. 단오제는 신협과 청년회를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단오제는 신협 창립일인 5월 7일을 기념하면서 열린 마을잔치였는데, 마을 청년회가 준비와 진행 등을 모두 주관했다고 한다. 단오는 원래 음력으로 5월 5일이어서 6월 초중순일 때가 많지만, 신협 창립일인 5월 7일이 단오와 숫자상 유사하여, 단오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111) 임종탁, 앞의글(1998), 38-39쪽.

112) 김찬호, 앞의글(1986), 44쪽.

- 복음자리청년회는 내 기억에 1977년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1978년 정도에 설립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청년회였다가 나중에 소래장청년회로 변경했다. 청년회는 복음자리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 청년회는 주로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벌였는데 노래자랑대회와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다. 단오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 신천성당을 통해 신천동과 은행동에 있는 분들까지 가입했다.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름도 소래면의 이름을 따서 소래장청년회로 바꾸었다.¹¹³⁾

신협이 1978년에 창립되었고, 복음자리 청년회 역시 1978년에 설립되어, 신협과 청년회의 활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청년회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봉사활동과 문화활동, 노래자랑대회, 체육대회, 단오제 등을 주관하였다. 사실상 마을의 문화사업을 모두 청년회에서 도맡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단오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마을만의 사업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큰 잔치였다고 보인다.¹¹⁴⁾

- 신협에서는 단오제와 이사장배 축구대회, 노래자랑 대회를 시행했다. 신협 창립기념일 및 단오제로 출발한 이 행사는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운동단체, 노조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바자회를 열어 복음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 단오제 행사 때는 씨름대회, 줄다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열렸는데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진행됐다.¹¹⁵⁾

단오제에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수도권의 시민단체, 운동단체, 노조 등이 참여했다고 하니, 이는 당시 빈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던 제정구의 영향으로 인한 참여라고 여겨진다. 단오제 때 씨름대회와 줄다리기, 불꽃놀이 등이 펼쳐졌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단오제 때 시작을 알리는 고사도 하고, ‘복음자리 우리땅’이라는 것

113)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 11~12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114) 위의 두 장의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홈페이지(www.bokumjari.or.kr)에서, 아래 두 장의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115) 시흥문화원, 위의 책(2012), 14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복음자리 마을잔치



복음단오제



1984년 복음단오제 길놀이



1985년 복음단오제와 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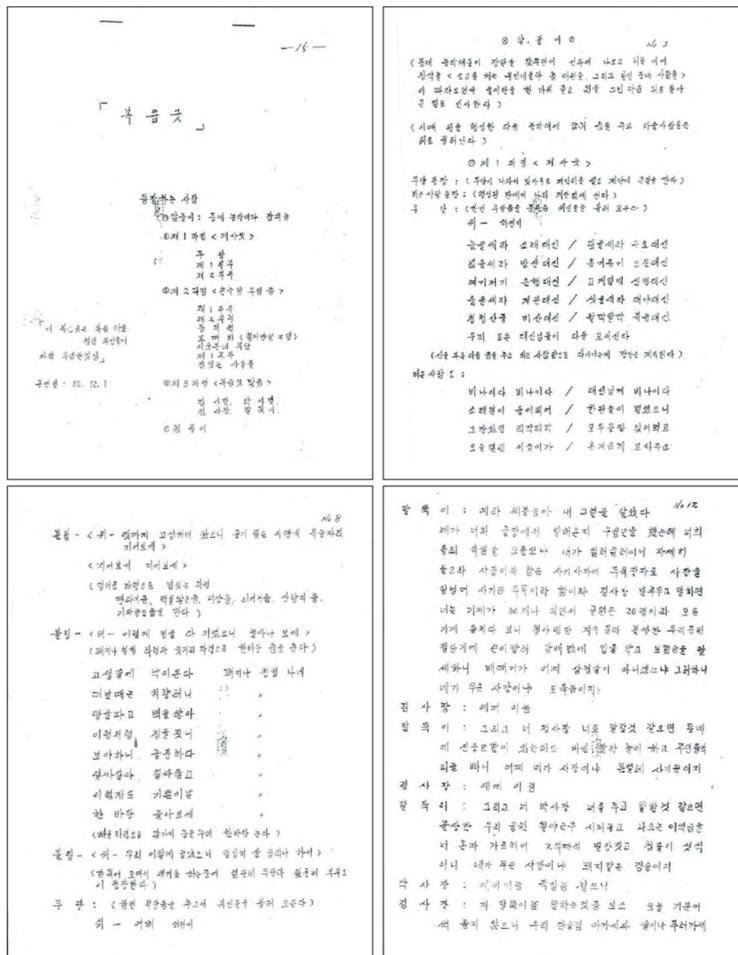
밭을 든 풍물패의 길놀이, 단오제를 맞아 바자회가 성황리에 벌어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오제 때는 상품권 추첨이 많아서 인기가 좋았다고 하며, 고사 장면에서 ‘참교육’, ‘꼭두쇠’의 깃발이 보이듯이 여러 단체가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단체가 참가하면서 단오제의 규모가 커지기도 했지만, 다음의 표현으로 복음단오제가 복음자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신명과 동시에 해소의 날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복음단오제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공동체 식구들은 물론 온동네 주민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 날은 온통 술에 취해 풍물에 맞춰 춤추는 날이다. 이 잔치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나기 때문에 동네 막걸리가 동이 났다. 모닥불과 막걸리 통을 중심으로 한판 어우러지는 주민 잔치는 공동체 식구들의 일년 동안 묵은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기도 했고, 동네

주민들의 한을 모두 풀어내는 날이기도 했다.¹¹⁶⁾

마을잔치 중에 단오제가 가장 컸지만, 청년회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공연도 벌어졌음이 확인된다. 아래 사진은 '복음굿'의 대본으로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만 제시한다.¹¹⁷⁾ 다음 '복음굿'은 1980년 12월 1일에 공연되었고, 앞면에 '이 복음굿은 복음마을 청년 괴신들이 자작 꾸민 것임'이라고 적혀있다. 공연 순서는 앞놀이, 제1과정 제사굿, 제2과정 촌극 및 무당춤, 제3과정 복음굿 탈춤, 뒷풀이로 되어 있다.



1980년 '복음굿' 대본 일부

116)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305쪽(박재천의 발문 중)

117) 복음굿 대본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공연의 내용은 양평동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다가 철거를 당하게 된 주민들이 신천리에 자리를 잡았으니 잘 살아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가들의 모습을 말뚝이가 혼내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다. 등장인물로는 무당과 부부, 동직원, 도깨비, 이웃 무당, 집짓는 사람들, 김사장, 박사장, 전사장, 말뚝이로 현대적인 인물과 도깨비, 무당, 말뚝이 등 전통 연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민들의 기원을 들어주고, 판자촌을 철거하고, 악덕기업주들을 혼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연 형태는 대사와 비념, 노래, 불림 그리고 탈춤으로 진행되는데 역시 전통 연희의 연행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복음자리 마을 청년회가 마련한 공연이 이렇게 풍물, 탈춤 등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양평동에서 신천리로 이주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을 짓고 난 후, 마을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모임들이 생겼다. 문화 모임들이 생긴 계기는, 신천리로 이주한 1977년 5월 28일에는 편편해진 공터에서 체육대회 겸 경로잔치를 벌일 때 이화여대생들이 와서 탈춤을 추기도 하였고,¹¹⁸⁾ 상량식을 할 때는 대학 탈춤반들이 와서 놀기도 하면서 마련되었다. 집을 다 짓고 나자 마을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어, 대학생들에게 풍물과 탈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¹¹⁹⁾ 70년대 후반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대학생 풍물반, 탈춤반, 민요반 등 대학 문화패들의 영향과 마을 주민들의 욕구가 맞물려 마을의 문화 모임들이 생기자,¹²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복음굿’이라는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 마을이 생긴 지 3년 만에 자신들이 창작한 내용으로 공연을 올린 것이니,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한 열망이 열



복음자리 탈춤봉사단(꼭두쇠의 전신)

118) 임종택, 앞의 글(1998), 38쪽.

119)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20) 탈춤봉사단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마나 높았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④ 공동체 가족

제정구의 공동체 생활은 그야말로 ‘함께 사는 것’이었다. 제정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을 시도했고, 실제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가 양평동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 생활의 씨앗은 싹텄고, 제정구와 신명자의 결혼 이후에도 이 생활은 이어졌다.¹²¹⁾



공동체 가족 (정일우 신부, 제정구, 신명자)

양평동에 살 때 제정구는 ‘언젠가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꿈은 이루어져 한지붕 아래 정일우·민기식 신부, 제정구의 가족, 김영준의 가족, 박재천의 가족



제정구와 공동체 가족들 (왼쪽 수염 기른 이는 정일우 신부,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있는 신명자, 사진에서 가운데가 제정구)

이 자리잡고, 마을 다른 곳에 수녀원과 신명호 집이 있으면서, 1982년 겨울이 올 즈음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마을에 흩어져 살던 박재천과 김영준의 가족이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합류하여 한 식구가

121) 양평동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면모를 다음의 진술로 살펴볼 수 있다. ‘결혼하고 양평동 판자집에서 살 때 집이 코딱지만 해서 우리 둘이 밖에 못 눕는 그런, 정신부님 혼자 눕는 저 옆방하고. 마루가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부엌인데, 이 방까지의 거리가 한발, 두발 밖에 안 돼요.(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되었다.¹²²⁾

제정구와 신명자 그리고 정일우 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가족의 사진은 신명자에 의하면 1985년 즈음이라고 한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정일우 신부, 제정구·신명자 가족, 김영준·김경자 가족, 박재천·이현옥 가족, 신명호, 수녀님들이며 신명자 이사장의 기억에 의해 확인되었다. 공동체 대가족을 구성하여 사는 삶은 이 여러 사람들의 꿈이자 이상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엄마들은 정말 쉴 틈이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일은 사실 두 번째였다. 매일 같이 찾아드는 손님들, 명절, 식구들의 생일, 동네에 행사가 있는 날, 부활절이나 성탄절, 축일, 같이 살던 수사님이나 수녀님들의 소임 이동으로 환송식과 환영식이 있는 날, 주택사업 등 이러저런 일로 찾아드는 손님들과의 식사... 이렇듯 잔치는 떠들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노래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웃집에 상당히 피해를 주기까지 했다.¹²³⁾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주 후의 허탈감을 이기기 위해 정 신부님, 수녀님 두 분, 그리고 평신도 몇 세대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집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산다는 것은 아픔, 불편함, 속상함,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인간이 되기 위한 용광로였다. 열어놓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것이었다... 공동체 생활은 편리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은 생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아픔이 오히려 보람이 되는 것이다.¹²⁴⁾

박재천과 제정구의 진솔대로 다른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은 쉼 없는 일정과 행사, 손님 치르기로 분주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불편함, 속상함, 아픔이 셀 수 없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했을 터이고,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참 인간이

122)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295~296쪽(박재천의 발문 중), 위쪽 사진은〈사회복지법인 북음자리〉홈페이지(www.bokumjari.or.kr)에서, 아래쪽 사진은아산복지재단, 『아산의 향기』(2017)에서 가져왔다.

123)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305쪽(박재천의 발문 중)

124) 제정구, 앞의 책, 291~293쪽.

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뒤돌아서면 한없는 기쁨과 위안이 되었다는 내용 속에서, 당시의 어려움과 뿌듯함이 매일매일 교차했을 고단함이 느껴진다.

이들의 공동체 가족 생활은 1987년, 박재천이 서울 행당동 산동네로 이사하고, 김영준이 서울 무악동 산동네로 이사가고, 신명호가 1994년 결혼하면서 복음자리를 떠나고, 정일우 신부는 상계동 철거민들과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괴산으로 내려가면서 흩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함께 살 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이야기하고 평상시에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¹²⁵⁾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공동체의 확장

1977년 복음자리 마을이 조성되고 난 후 복음자리 마을의 성공은 또 다른 집단 이주의 모델이 되어 1979년에는 서울의 당산동, 신림동, 봉천동 164세대의 철거민이 복음자리 근처로 이주하여 한독주택을, 또한 1985년에는 목동 이주민 105세대가 복음자리와 한독주택 근처로 옮겨와 목화연립을 짓게 하였다.¹²⁶⁾ 이렇게 철거이주민들의 거주지가 확장되면서, 복음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자리회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한독주택 건립

한독주택은 1979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공식이 197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주 과정은 1978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의 시흥동, 당산동, 신림동, 봉천동, 사당동 등 8개 지역에서 철거당한 164세대가 복음자리 인근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한독주택마을이 형성되었다.

복음자리 마을의 경우 같은 양평동 지역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이주지를 선정하고 집을 지은 것과 한독주택과 같이 여러 지역의 철거민들이 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과는 차이가 났다. 당시에는 많은 지역에서 계속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흥·신림동 등 빈민지역에는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들어

125)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307-308쪽(박재천의 발문 중)

126) 김찬호, 앞의 글(2016), 1쪽.



1978년 한독마을 기공식



건축 중인 한독마을



건축 중인 한독마을



가 활동을 하면서 연대를 하고 있었다. 철거가 되는 동네에는 활동가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함께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렇게 여러 마을의 철거민들이 모인 164세대가 복음자리 마을 길 건너 은행동 찬우물 북쪽에 부지를 구하고, 한독주택을 건립하게 되었다.

한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부지 매입이었다. 복음자리 마을은 독일 미제레울에서 지원받은 10만 불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 10만 불은 주민들에게 용자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복음자리 마을 주민들은 이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집을 짓고 살면서 곧 시작된 신흥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관념과 생활이 바뀐 데다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제정구의 신념과 철학이 스며들어, 주민들이 지원받고 용자받은 돈을 모두 갚은 것이다. 이렇게 회수된 돈으로 한독주택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애초에 독일 미제레울에서 지원받은 돈이 종자돈(seed money)이 되어 순환하게 된 것이다. 한독주택 주민들이 갚아 회수된



1979년 당시 한독마을 모습

돈은 다시 종자돈이 되어 1985년 목화연립 부지 마련에 사용하게 된다.

한독주택을 지을 부지인 은행동 찬우물 북쪽에는 당시 도로변에 2층 주택 한 채가 유일하게 있었고, 온통 논·밭·과수원이었다. 여기에 먼저 마을회관을 먼저 짓고 주택 건설이 진행되었다. 한독주택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복음자리 마을의 경우처럼 모든 주민들이 건축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집을 짓는다는 마음과 자세로 건축 과정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해서 2층짜리 연립인 한독주택이 완성되었다. 8평이나 9평의 집에 방 1~2칸, 거실, 주방이 있는 이층집 6동 164가구가 1979년 2월에 입주하였다. 복음자리 마을의 이름이 양평동 사랑방이었던 복음자리의 이름을 가져와 지은 것이라면, 한독주택은 주민들 스스로 독일 미제레울에서 맨 처음 지원한 돈으로 지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한국과 독일에서 한 글자씩 따서 ‘한독’이라고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¹²⁷⁾

② 목화연립 건립

목화연립은 1980년대 중반 서울시 목동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주민 36세대를 서울시 강서구청과 시흥시가 신천동 한독마을 공터에 합동으로 임시 천막을 지어 거주하게 하였고 이후 이들이 입주할 건물 3개 동 105세대가 지어졌고, 1986년 9월에 철거민들이 입주하여 조성한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부 보상금을 받아 입주한 사례로¹²⁸⁾ 알려져 있다. 복음자리 마을이나 한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화연립도 철거민들이 마련한 거주공간이지만, 이주의 과정은 많이 달랐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대 초 목동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대적인 철거가 준비되었고, 결국 그 개발 이익은 정권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양평동보다는 규모가

127) 이상 한독주택에 관한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과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한독마을’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사진 중 위의 4장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고, 완성된 한독마을의 모습은 디지털시흥문화대전 ‘한독마을’ 항목에서 가져왔다.

128)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목화마을’ 항목 중.

크지 않았지만 당시 목동 철거민들은 김포가도까지 펼쳐져 살고 있었다. 철거가 진행되자 남의 땅인데도 먼저 집을 짓고 사는 가옥주에게는 땅값을 비롯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세입자에게는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정부를 향해 '세입자도 사람이다'를 외치며 지난한 투쟁을 계속했다. 목동에서의 이 철거 싸움은 100번을 넘는 시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주거 역사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된다. 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그야말로 다양했다.

나중에는 김포가도를 막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김포가도를 막고 앉아서 계속 데모하고, 한 번은 아예 똥을 그냥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걸 퍼서 김포가도에 뿌린 그런 적도 있고, 수없이 닭장차에 실려서 어디 버려지고, 버려지고 해서 온 곳이 목화마을이에요. 여기는 철거투쟁 해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고 나온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중의 일부가 여기로 오게 된 거죠, 105세대가.

당시 철거 투쟁에는 대학생들의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세입자도 철거할 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례로 기록된다. 목화연립 역시 복음자리 마을이나 한독주택 주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집 짓는 데 참여했다. 물론 건축은 전문가가 맡았지만, 그 옆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은 건축에 참여했다. 목화연립의 이름은 목동 사람들이 철거돼서 왔으니, 사이 좋게 화합해서 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한독주택을 지을 때 복음자리 마을 주민들이 갠 미제레울 지원금의 도움을 받았고, 한독주택 주민들 역시 복음자리 마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은 지원금을 모두 갚았다. 이 종자돈은 목화연립을 지을 때 다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¹²⁹⁾

목화마을 주민들은 목화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은 복음자리마을, 한독마을과 더불어 한 공동체로 인식하며 함께하였다.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방 한 칸, 주방 겸 거실, 연탄 보일러실이 있는 목화연립은, 당시 월세 계약을 목화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했다고 한다. 'ㄷ' 자 건물 형태인 목화연립은 이웃집의 드나들이 보여 사생활 보호는 어려웠어도 이웃 간의 소통이 수월하기도 하고 치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젊

129) 이상 목화연립에 관한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후 주변에 저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마을도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목화마을은 목화연립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¹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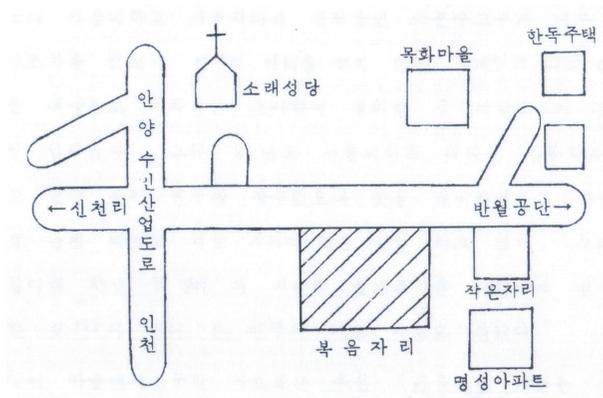
1985년 목화마을 기공식



완공된 목화연립

③ 공동체의 중심 작은자리회관

1977년 복음자리마을, 1779년 한독주택, 1985년 목화연립이 건립되면서 신천리 일대에는 세 개의 철거민 공동체가 인접하여 자리잡게 되었다. 각 마을은 주택을 짓는 동시에 구석에 남는 자리를 활용해서라도 마을회관을 지었다. 복음자리마을의 경우 마을회관 안에서 탈춤과 풍물을 배우기도 했고 공부방도 있었다. 세 개의 마을이 형성된 공동체를 간단하게 도식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¹³¹⁾



130) 내용은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목화마을' 항목 중에서,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131) 그림은 김찬호,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6.12), 22쪽에서 가져왔다.

마을이 세 개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주 주민들은 당면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마을 잔치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기를 공간이 필요해졌다. 복음자리 공동체를 이끈 제정구, 정일우 신부 등이 외국 재단의 지원을 받아 복음자리마을과 한독마을 사이에 3층 건물을 짓고 1985년 2월 작은자리를 개관했다. 개관부터 1986년까지 초기에 제정구 가족 등과 복음자리마을로 들어온 샬트르 성바오로회 소속 수녀들이 공동으로 운영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한글, 서예, 풍물 교실, 복음유치원 등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동네 주민들의 환갑잔치, 결혼식 등을 거행하는 장소였으며 해마다 성탄과 연말에는 주민 잔치를 크게 열었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야 민주 단체의 회합, 노조 준비 모임 장소의 역할도 했다.¹³²⁾

작은자리의 설립 이유와 활동에 대해 위와 같이 요약된 내용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복음자리마을이 독일의 후원단체인 미제레울에서 지원을 받고 이 지원금이 종자돈이 되어 한독주택, 목회연립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과 같이 작은자리회관 역시 외국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 작은자리복지관을 지었잖아요? 이 작은자리복지관은 미제레울에서 온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걸 네덜란드 세레모에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줘서 지었어요, 작은자리는. 네덜란드에 있는 카톨릭 단체.
- 신부님이란 제삿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열 명 중에 한 명이 만원 밖에 없어서, 만원도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기준이에요... '작은자리'라고 얘기했던 거는, 가장 작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문턱이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야'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작은자리로. 문 앞에 머릿돌에다가도 그 선서를 적어놨는데...
- 1층은 사랑방이고 도서관이고 유치원이고 신협도 들어있었고, 2층은 숙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¹³³⁾

132)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작은자리' 항목 중에서.

133) 2020년 10월 16일,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마을 형성에 독일 미제레울 재단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 것과 같이, 신천리 철거민 이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자리회관은 네덜란드 카톨릭 단체 세레모에서 지원한 돈으로 건립이 가능하였다. 그 공간의 이름을 ‘작은자리’라고 지은 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건립된 작은자리회관 1층에는 사랑방, 도서관, 유치원,¹³⁴⁾ 신협이 입주하였고, 2층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서 향후 노조, 청년회, 연구소 등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해 나가는 장소, 마을 인근의 공장 노동자들과 청년들,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이자, 지역 공동체 구성을 위한 ‘중심센터’로서 작은자리회관이 된 것이다.¹³⁵⁾ 현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의 머릿돌에 ‘깜박이는 심지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닌 자기만큼 있는 자리 모든 이들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자리’라는 문구가 ‘작은자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¹³⁶⁾



1985년에 건립된 작은자리회관



현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앞의 머릿돌



머릿돌에 새겨진 작은자리 문구(머릿돌의 우측 하단 원 표시)

134) 유아원은 북음자리마을에서 1979년에 시작한 북음유아원과 한독주택에서 1980년에 시작천사유아원이 합쳐서 작은자리로 이주해오면서 북음유아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임종택, 앞의 글(1998), 43쪽.)

135)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 ‘설립배경과 연혁’ 중.

136) 사진 중 1985년 작은자리회관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에서 가져왔고, 머릿돌은 필자가 촬영했다.

3. 마을공동체 활동과 변화

1) 마을공동체 활동

① 작은자리회관의 활동

1985년 2월 개관한 작은자리는 초기에는 제정구 가족 등과 샬트르 성바오로회 소속 수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한글, 서예, 풍물 교실, 복음유치원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고, 동네 주민들의 환갑잔치, 결혼식 등을 거행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해마다 성탄과 연말에는 주민 잔치를 크게 열었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야 민주 단체의 회합, 노조 준비 모임 장소의 역할도 했다.

1987년 이후에는 신명호가 운영을 맡게 되었고, 청년 모임도 활성화되었다. 복음청년회, 한독청년회와 지역 청년·지역 노동자가 결합하여 한울림청년회로 발족했다. 한울림청년회는 지역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철거민 공동체를 넘어 시흥 지역 주민운동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울야학을 운영하고 노동상담과 해고자 상담 활동도 벌였다.¹³⁷⁾ 이러한 작은자리 회관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자리 회관은 크게 네 가지 일이 중심이 되었다. 첫째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중심센터로서 복음신협, 복음장학회 등 주민 조직의 운영 공간이었다. 그동안 마을의 조그마한 창고 방에서 활동했던 복음신협과 장학회가 내용을 가다듬어 작은자리 안에 등지를 틀었다. 둘째, 환갑잔치, 결혼식, 경로잔치, 돌잔치 등 마을 주민들의 행사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였다. 주민들은 복음신협이나 장학회 총회, 송년회 등 특별한 날들을 만들어 함께 어우러져 놀면서 서로의 공동체 의식

137)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작은자리' 항목 중에서.

을 확인해갔다. 셋째, 주민 문화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문화 활동을 펼쳐나갔다. 한글 교실, 풍물, 서예, 독서 모임, 청소년 영화마당, 시민 월례 강좌, 작은 도서관, 밥상 공동체 등 주민복지센터로서 활발히 일했다. 넷째, 청년 운동과 지역 운동의 산실이였다. 인근의 공장 노동자를 위한 한올 야학, 노동상담과 노조 설립 지원, 1987년 한울림청년회 결성 등 지역 청년 운동이 작은자리에서 싹텄다. 청년들은 작은자리를 거점으로 기타반, 소리반, 풍물반, 독서토론티반, 시사토론티반 등 모임을 조직하고 지역 일에 적극 앞장섰다.¹³⁸⁾

작은자리회관의 활동을 살펴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핵심 사업인 신협과 장학회 운영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였다. 공동체에서 신뢰와 나눔의 기반이 되었던 신협과 장학회가 조그만 창고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차에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1987년 복음신협이 독자적인 건물을 지어 독립하게 된 것에도 이러한 작은자리의 안정적인 공간 제공이 한몫 했을 것임은 당연하다. 다음으로는 신협 총회, 장학회 총회, 송년회 등 공동체 조직 활동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 활동, 강좌, 도서관, 밥상공동체 등 주민 문화 공간을 포함한 주민 복지센터로서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1996년 작은자리회관이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는 데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활동이다. 다음의 청년 운동과 지역 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것은, 1980년대 당시 사회적인 변혁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울에 있는 도시연구소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신명호 선생님은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논문 쓰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방을 얻어 가지고 살다가 '나 여기 그냥 살란다'고 주저앉았죠. 나중에 도시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게 됐지요. 여기 작은자리 안에서 책상 하나 집어넣고.

근데 2층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당시는 노동조합들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노동조합 결성하는 데 여기 와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전교조 지부 만들 때 정말 여기 와서 많이... 일반 노조도 많이 했고.

작은자리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을의 회관으로서 역할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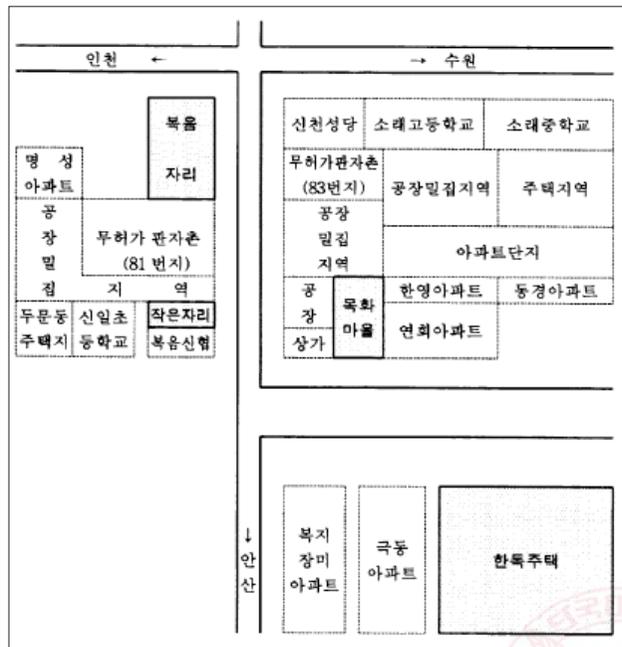
138)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 '설립배경과 연혁' 중.

지만, 보호 받으면서 회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¹³⁹⁾

작은자리는 당시 노동조합들의 회합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공간이 되었던 듯하다. 작은자리가 정일우 신부, 제정구 그리고 카톨릭과 든든한 인연이 있는 공간이었으며, 주민들을 비롯한 청년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경찰 당국 같은 데서 함부로 들어오거나 간섭할 수 없었던 공간으로 여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작은자리는 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시흥을 넘어선 지역 청년·노동자 운동 등 시흥 사회운동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위와 같이 지역 사회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낸 작은자리는 1996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무엇보다도 공동체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복음자리마을, 한독주택, 목화연립 세 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유연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90년대 초 공동체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¹⁴⁰⁾

이 일대가 전부 논밭 밖에 없었는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전부 논밭 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오면서 인력이 있으니까, 노



139)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40) 그림은 임종택, 앞의 글(1998), 42쪽(작은자리, 『지역사회센터의 전망과 역할』, 1995, 45쪽 재인용)에서 가져왔다.

동력이 있으니까 소규모 공장도 하나 둘 들어오고, 어떤 도시가 형성이 돼 갔죠. 한독, 목화 생기고는 그 옆으로 조그만 빌라, 연립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분들도 잘 사는 집들이 아니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같이 동네를 이렇게 마을로 보고, 또 성당에 신부님이 좀 계셨고, 어쨌든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청년들이라든지 동네 아주머니들, 자매님들이 다들 복음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경계를 하고, 나누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철거민들, 판자촌 가난뱅이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복음자리, 목화, 한독 따로 살지 않잖아요? 그 마을에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 같이 사는 걸로 하고, 차츰 서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¹⁴¹⁾

작은자리는 복음자리마을과 한독주택 그리고 목화연립 세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출발했지만, 주변에 소규모 공장과 다른 연립,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세 마을만의 공간이기 보다는 인접 주변의 주민들과도 서로 어울리며 함께 하는 공간으로 그 범위와 활동 내용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92년에 주로 나타나는데, 1992년에 청년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청년들의 모임이 중심을 잃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청년회 조직이 와해되었다. 또 1992년에는 2층 공간이 제정구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면서 작은자리의 고유한 영역은 그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작은자리를 중심으로 한 모임과 활동도 주춤하기 시작하다가 작은자리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실무진이 조직되었다.¹⁴²⁾

이렇듯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자, 1992년 이후에는 복음자리 공동체를 넘어 시흥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향토사 시민 강좌, 한글 교습, 풍물 교육, 예비 학부모 교실, 가정 보건 강좌, 청소년 영화 마당 등 시흥시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¹⁴³⁾ 지역 사회운동의 근거지이자 활동가들의 회합 장소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만남과 교육, 문화와 복지를 향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141)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42) 임종탁, 앞의 글(1998), 46쪽 재정리.

143)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 '설립배경과 연혁' 중.

② 수인산업도로 신호등 설치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집단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권리와 인식의 공간을 확보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1986년 제정구가 하왕십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에 목화마을과 한독주택 주민 150여명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산업도로를 거쳐 신천리 시장까지 진출해 파출소와 읍사무소를 돌며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은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으며 시위 주동자 누구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1986년 아시안게임 때 마을 옆을 지나는 산업도로로 성화가 봉송되고 있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성화 봉송을 축하하며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을 터이고, 당시 읍사무소에서도 솜씨 뛰어난 청년회의 풍물패에 축하 분위기를 종용했으나, 청년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¹⁴⁴⁾ 이렇게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행위들은 공동체 활동의 성과라고 하겠고,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수인산업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주해 온지 얼마 안 되어 마을 곁에 산업도로가 놓여졌다. 산업도로는 속도의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길인만큼 여기서 사고를 당하면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되는데, 그런 사고가 잦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방면으로 신호등 설치를 거듭 건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미뤄질 뿐 사고는 계속 늘어만 갔다. 길을 건너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또 다시 지난 봄 거기서 한 어린이가 크게 화를 입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86년 3월 10일 주민 300여 명은 오전 8시를 기해 일제히 산업도로 한 복판에 들어앉아 길을 봉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안양과 인천을 잇는 큰 도로를 그렇게 막아 버리니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그렇게 2시간을 버티었다. ‘살인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신호등을 세워 달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도중 광명 경찰서장, 시흥군수가 도착했다. 그들은 타협을 시도했지만, 선부른 흥정이 통하지 않았다... 군수와 경찰서장으로부터 각서의 형식으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고서야 그들은 농성을 풀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 한바탕 잔치를 벌였고 몇 년을 끌던 신호등이 그날 밤 세워졌다.¹⁴⁵⁾

144) 김찬호, 위의 글(1986), 37-38쪽 정리.

145) 김찬호, 위의 글(1986), 36-37쪽 정리.

복음자리마을 공동체에서 가까운 곳에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길에 고속으로 다니는 차들, 특히 트럭들이 많이 다니게 되었다. 그 길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러번 큰 사고가 났고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을 산업도로 한복판에 나가게 한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 여기가 39번 국도고, 2차선인데 산업도로에서 트럭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죽기도 많이 죽고, 신학기 돼서 학교 가다가 1학년 애가 죽었어요. 애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학교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다 길을 막았죠, 하루 나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니라, 이 일대 사람들이 다 가서 막은 거죠. 그 길을 막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수원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막았으니까 올스톱 됐어요.
- 그래서 경찰서장이, 광명에 경찰서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길이 막혀서 올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리고 약속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해서 즉시 설치했어요.¹⁴⁶⁾

신학기에 학교를 가려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나자, 복음자리마을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신천리 일대의 주민들이 모두 산업도로 나가 길을 막은 것이다. 길이 막혀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광명 경찰서장, 시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급히 출동하였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즉시 신호등이 설치되었다. 그동안 신호등 설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알게 되었다. 이 일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가능하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복음자리마을, 한독주택, 목화연립이라는 이주민들의 세 개 마을이 아니라,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동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③ 막사이사이상 수상과 제정구의 삶

1986년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146)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공동으로 수상하였다.¹⁴⁷⁾ 1980년대 목동, 상계동 등 강제철거에 맞서 도시빈민운동에 함께 하고, 1985년 천주교 도시빈민회, 198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설립 등에 기여한 데 대한 것이었다.



1986년 막사이사이상 수상식에서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



철거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제정구

1986년 막사이사이상 수상 무렵

두 사람의 막사이사이상 수상

으로 가장 기뻐한 이들은 철거민이고 복음자리 주민들이었다. 그들이 두 사람의 수상을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는지 다음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86년 정구 형님과 정 신부님은 필리핀에서 지역사회 지도 부문에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기뻐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니라 복음자리 주민들과 당시 철거를 당하고 있던 상계동 173번지 주민들이었다. 상계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천막 앞에 '제정구, 정일우 선생 천막 사이사이 상 수상'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환영했으며, 복음자리 주민들은 마을 공터에 무대를 설치하고 두 분의 혼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 신부님은 신랑이 되고 정구 형님은 신부가 되어, 신랑은 상투를 올리고 신부는 얼굴에 연지를 찍고 머리엔 족두리를 쓰고 전통 혼례가 올려졌다. 주민들은 모두 배를 움켜잡고 웃음보를 터뜨리며 그날 밤을 술과 춤으로 지냈다.¹⁴⁸⁾

두 사람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당시 상계동에서 철거를 당하고 있던 주민들

147) 아래의 사진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홈페이지(www.bokumjari.or.kr)에서 가져왔다.

148)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306쪽(박재천의 발문 중).

이 '천막사이사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사람이 철거민들과 얼마나 천막 투쟁을 함께 했는지를 말해주는 근거이자 철거 투쟁을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뿔어 나오는 민중적 재치라고 할 수 있다. 복음자리 주민들은 또 어떤가. 두 사람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남성인 두 사람의 혼례식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그 엉뚱함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리고, 밤새 축하의 춤과 술을 즐겼다. 빈민운동과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두 사람의 강한 연대와 신뢰를 결혼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 생각된다. 그들의 소박하고 엉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 두 사람은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 중 한 사람이자 자랑스러운 동지였으리라. 주변에서 두 사람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막상 상을 받은 제정구는 기뻐할 수 없었다.

내가 막사이사이상의 수상 소식을 접한 곳은 천주교 빈민운동 활동가 모임의 수련회장이었던 풍수원성당에서였다... 참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판자촌에서 그리고 철거민들 속에서 살아 온 덕에 나는 이미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상이 아니던가... 수련회에 참석했던 동료들은 한없이 기뻐했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뭔가 일을 잘못 했거나 위선이 있었거나 아니면 나의 삶과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불만이 있었기에 하느님이 그걸 달래시느라고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는 것일까?¹⁴⁹⁾

수상 소식을 접하자 동료들이 한없이 기뻐한 것과 달리 제정구는 이미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최대의 상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느님이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제정구의 이러한 생각은 가난하게 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데, 왜 이러한 삶에 대해 크나큰 상이 주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의아심이자 일종의 불안이기도 했다. 제정구의 이러한 생각은 제정구의 삶이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일종의 예견이기도 했다.

제삼하고 정신부님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86년에 막사이사이상을 탔잖아요. 저희가

149) 제정구, 앞의 책(1997), 183쪽.

풍수원 성당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왔어요,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됐다고. 정신부님은 그 때 외국에 계셨는데, 제샘이 ‘하느님, 제가 뭘 잘못 했습니까?’, 그 날 하는 얘기가 ‘이거 뭐가 잘못 됐다. 잘못 되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아, 그게 무슨 뜻일까?’ 했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진 않겠구나. 하느님이 다른 데 쓰시겠구나’ 이런 강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정치권에서도 ‘제정구가 있었지.’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도 ‘아, 제정구가 있었지.’ 해외에서도 ‘제정구가 있었지’ ‘아, 그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막사이사이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살면서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재밌게 그랬던 거 같아요. 여기서 있을 때 주민들이 제정구가 무슨 지도자야 이런 거 아니었죠. 그냥 주택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소장님이었고, 저는 이름이 없었어요. 항상 그냥 이름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엄마였죠. 제샘도 그냥 이름아빠예요. 맨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공식적으로 드러난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상도 지역사회 지도자상이예요. 그 후로 우린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삶이.¹⁵⁰⁾

막사이사이상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제정구가 느낀 의아심과 불안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고 이는 적중했다. 철거 이주민들과 가난하지만 함께 즐기고 나누고 부딪히며 참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상이자 축복이라고 살아왔던 제정구였다. 그런데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칭해지는 막사이사이상을 그것도 지역사회 지도부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유명세를 타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제정구는 알고 있었던 듯하다. 신명자의 표현대로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제정구와 신명자의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상을 수상하기 전까지는 판자촌 생활, 사회운동연합 활동, 빈민문제 연구와 철거 운동 등을 주로 했던 제정구는 상을 수상한 이듬해인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겨레민주당 창당, 진보정치연합 대표를 역임하고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한겨레민주당 후보로 종로구에서 출마하고 낙선을 한다. 1988년 국회의원 낙선 이후 1992년 민주당 공천으로 시흥·군포 선

150)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거구에 출마하여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¹⁵¹⁾

빈민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이 이러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제정구는 예견하였고, 그 예견처럼 그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끄시는 다른 길로 나아가 그만의 단호함과 엄격함으로 정치생활을 하였다. 제정구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제정구와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정일우 신부는 제정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가 빈민촌에 있던 거리에 있던 국회에 있던 그의 삶은 늘 이러했으리라, 씩씩하게 신명나게.

플리얏은 단단한 갑옷을 입었고 커다란 칼과 창을 차렸으며 평생 동안 전쟁만 해온 거인이다. 그러나 다윗은 젊고 또 작다. 전쟁이 뭘지조차 모르고, 아는 것이 있다면 양 치는 것과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배운 돌팔매질뿐이다. 그 아마어마한 거인 앞에 무기라고는 자그마한 돌멩이 다섯 개, 말이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런데 고인은 늘 다윗처럼 붙어서는 안 되는 상대-독재, 부정, 부패, 불의, 거짓-와만 싸웠다. 씩씩하게도, 신명나게도 싸웠다.¹⁵²⁾

2) 마을공동체의 변화

① 한독주택과 복음자리마을 재건축

1990년대 들어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의 건설이다. 먼저 재건축에 들어간 마을은 한독주택이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시흥, 안산에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축아파트가 늘어났는데, 시흥의 한독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

경기도 시흥, 안산 지역이 서해안시대 도래와 함께 공업단지의 배후 시흥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발전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 그동안 아파트 건설이 크게 활기를

151)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앞의 책(2000), 323-324쪽 제정구 연보 참조.

152)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위의 책(2000), 292쪽(정일우 신부의 발문 중에서)

떠났다... 녹원건설의 시흥시 은
 행동녹원아파트는 한독연립 재
 건축아파트로 수인산업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소
 사·역곡역과 시흥대로 및 광명
 시, 오류동에서 15분 거리에 위
 치해 있으며 기존 주택지역서
 상권은 물론 편의시설이 잘 갖
 춰져 있다.(기사 일부)



서해안시대 도래와 신축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신문기사
 (매일경제, 1996년 3월 8일)

신명자 이사장에 의하면 ‘한
 독주택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먼저 원했다’고 한다. 철거민의 보금자리였던 한독마을
 은 1979년 164세대의 연립으로 지어진 후 20년 만인 1997년 재건축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녹원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은행마을 녹원아파트는 모두 2개 동, 299세
 대로 지어졌으며 1997년 11월에 입주하였다.



은행마을 녹원아파트와 그 주변

1997년 한독마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인 2010년에 복음자리마을의
 재건축도 진행되어 신천동 휴먼시아아파트로 새롭게 지어졌다. 1977년 170세대로
 형성되었던 복음자리마을은 모두 7개 동, 313세대의 아파트로 지어졌으며, 2010년 7
 월 입주하였다.¹⁵³⁾

153) 사진은 다음부동산(<https://realty.daum.net>)에서 가져왔다.



신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전경



신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현재의 목화연립



현재의 목화연립 3개 동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던 한독주택과 복음자리마을의 재건축이 이루어졌지만, 목화연립은 1986년에 지어진 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독주택과 복음자리마을이 원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녹원아파트와 휴먼시아아파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일종의 스티그마(stigma, 낙인 내지 오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딱히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이름에 옛 마을 이름이나 지명을 갖다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한독과 복음자리가 재건축된 아파트에는 철거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입주한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 철거민이라고 불리웠던 것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을 새 아파트에 붙이기 꺼려했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다 노인이 됐고 자녀들이 들어간 집들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 복음자리 하면 철거민들, 이런 게 뭐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었어요. 동네

에서 집단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자리 하지 말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데 오히려 살았던 사람들이. 노인들은 그래도 복음자리가 좋지. 그래서 복음자리라는 이름을 안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휴먼시아라고 자기네들이 쓰고, 근데 버스 정거장 이름은 복음자리예요.¹⁵⁴⁾

한독주택과 복음자리 마을이 재건축 되고 목화연립은 지어진 지 35년이 되어 가면서, 애초에 이주했던 주민들은 그 자리, 그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든 원 이주민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작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복음자리 같은 경우는 통계상 정확하진 않은데 (원래 살던 사람들 입주율이) 50%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한독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목화도 원 세대가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원래 이사오셨던 분들이) 40% 정도는 산다고 봐요. 거기도 다 자녀들이 사는 거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거나 자녀들이 위에 살고 밑에 지하방으로 가지거나. 대개 보니까 이 복음자리 마을도 자녀들이 살고 부모들은 그 옆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노인정은 다 옛날 복음자리 노인들이 다 차지하고 계세요. 복음자리 마을 주변에 다 살고 있어요.¹⁵⁵⁾

한독주택과 복음자리 마을이 재건축 되는 사이에 이 부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변에 공장도 들어오고 작은 아파트나 연립도 생기면서 마을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반 마을 공동체를 보면 복음자리마을 옆과 목화연립 옆으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무허가 판자촌은 목화연립 건립 전후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복음자리 길 건너에 판자촌이 새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김찬호 선생님 와서 연구할 때 그 건너편이 판자촌이 새로 생겼어요. 이 일대가 전부 무허가판자촌이었어요. 무허가판자촌에서 어르신들을 마을에서부터 무료로 식사를 조그맣게 해 드리고 했어요... 이게 철

154)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55)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거가 된 게, 제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거가 됐어요. 2000년인가, 20001년인가? 이 분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한 18명인가 작은자리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한 분씩, 한 분씩 집을 다 구해 드렸어요. 건축 회사에서 가구당 700만원을 내 줬는데, 제가 한꺼번에 1000만원씩 달라고 해서 동시에 모시고 왔어요. 건축회사에서 저를 믿고 300만원을 더 받으시게 해 준 거죠. 아직까지 그 분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¹⁵⁶⁾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마을 주변에 무허가판자촌이 형성 되었고, 개인 소유지였던 그 곳에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서 판자촌은 철거를 당하게 된 것이다. 판자촌에 살던 독거노인들이 당장 이주할 곳이 없게 되자, 작은자리 회관에 모시고 있으면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 독거노인들이 이주비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축회사와 일종의 협상을 하여 모종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그 어르신들이 아직도 작은자리로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고, 노인정에는 옛날 복음자리 노인들이 대다수라고 하니, 작은자리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옛 복음자리마을 공동체의 보금자리 역할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② 공동체 문화의 변화

앞에서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의 초기 공동체 활동으로 크게 신용협동조합, 장학회, 복음단오제, 작은자리회관을 정리하였다. 2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과 도시 정비 등 주변의 빠른 변화와 도시의 성장으로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마을 공동체의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를 이주 공동체 초기에 중요한 공동체 사업이자 문화였던 신용협동조합, 장학회, 복음단오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복음신용협동조합은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현재는 경기시흥신협 본점, 신천지점, 신천1지점을 두고 있다.

156)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신용협동조합이 지금 세 개 분점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듯이, 신용협동조합도 많은 변천이 생겼죠... 재경부에 신용협동조합이 다 들어가면서 부실 신협을 다 없앴어요. 부실 신협을 없애고, 충당금 자체를 만들게 하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으로서 조여들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런 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소액으로 내가 내일 학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 줬어요, 지금은 그런 신협은 아니죠. 그냥 금융기관이죠. 신협이 그 충당금을 못 쌓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올해 다 끝날 거라고 하네요. (신협 2층에 신용문화센터는) 이제 하려고, 뭘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무 역할도 못 해요.¹⁵⁷⁾

초창기 신협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심과 건전한 경제 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마을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운영된 조직이다. 경제활동 외에 신협 창립제를 기준으로 해서 단오제와 마을 축구대회, 노래자랑 대회 등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외에 신협 조합원들과 함께 잼 공장, 토끼 사육 등 공동 출자와 공동 생산으로 운영되는 여러가지 협동조합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사진에서처럼¹⁵⁸⁾ 신협 부설 열린학당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복음신협은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도시화 되고, 재경부에서 정식적인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금융기관으로서 재경부가 요구하는 충당금을 맞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무사히 거쳐



복음신협 부설 열린학당 제1기 졸업식(1996)

157)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58)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다.

경기시흥신협¹⁵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 개의 지점을 두게 될 정도로 안정적인 규모를 갖추었다. 2017년에 39차 정기총회를 하였다고 하니, 경기신협은 여전히 1978년 복음신협 창립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과의 경제적인 거래는 예전과 달라져서 신용이나 재정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마련된 신협문화센터의 활용도 활발하지 않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 지금 전무가 여기(복음자리 마을) 초기 상쇠예요. 신협이 금융기관화 되면서 함께 하고 꿈을 꾸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재정적인 안정은 다 이루었으니, 옛날에 못 해 봤던 것들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해요.¹⁶⁰⁾

복음신협은 이제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기관으로 변모하면서 시흥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예전의 마을 공동체 정신을 현재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 본점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 본점과 신협문화센터

복음장학회는 1983년 창립총회 이후 2~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여 1991년 5기 집행부를 선임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에 6기 집행부

159) 인터넷 검색 결과(<https://udb.kr/local/1475959>)에 의하면 '경기시흥신협'으로 인허가일자가 2001년 6월 28일로 확인된다. 2017년에 경기시흥신협 39차 정기총회를 하였다고 한다.

160)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가 발족이 되면서 ‘복음장학회 발전을 위한 준비모임’이 결성되고 2001년 연성장학회로 개칭했다가 2002년 ‘제정구장학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¹⁶¹⁾

복음장학회는 1979년 서강대 김어상 교수가 2명의 아이들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3년 창립을 하고 2~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여 1991년까지 집행부를 정상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91년에 5기 집행부가 선임되고 1999년에 6기 집행부가 발족이 된 것을 보면 7~8년 동안 활동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명자 이사장의 ‘아이들 학비 때문에 생겼다가 복음장학회를 아무도 안 했죠, 나중에 다 손 놔 버리고.’라는 진술로 복음장학회 활동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2001년 복음장학회를 연성장학회로, 다시 제정구장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의 재건축과 도심화에 따른 변화와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복음’ 공동체에서 시흥 전체를 아우르는 연성으로, 다시 초기 창립자인 ‘제정구’의 이름으로 변경하게 된 연유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동네 전체 사람들이 ‘장학회를 다시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모아서 했어요. 복음장학회로 하면 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소래장학회로 할까, 연성장학회로 할까, 이 이름 때문에 논의를 무지 많이 했어요... 여기 오피니언리더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정구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제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것이냐? 제생이 엄청 화낼 거다. 저 안에서, 저 묘지에서 벌떡 일어나 나올 거다 했는데 안 되고 다 설득을 한 거죠. 제정구 정신이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인데 그 정신을 가지고 갈려면 그 이름을 써야 된다, 너무 주장을 많이 해 가지고. 하여튼 모두가 다 같이 통과를 해서, 제정구 장학회가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¹⁶²⁾

일정정도 활동이 중단되었던 복음장학회를 오피니언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장학회 범위를 시흥 전체로 넓히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리고 장학회의 이름을 ‘연성’ ‘소래’ 등 시흥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논의하다가 결국 제정구의 정신을 기리고 잇기 위해서라는 강하고 지속적인 주장과 설득에 의해 2002년 제정구장학회

161) 사단법인 제정구장학회 홈페이지(<http://www.jjgss.or.kr/>).

162)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로 바꾸는 것을 확정짓게 된다.

제정구장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장학회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과 지급은 물론 역사캠프, 국악캠프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학회는 전문적 인성 교육의 터전으로 청소년 계절 학교를 운영하고, 봉사·취미·적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로 청소년의 사회성과 문화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해외 연수·체험 학습·테마 여행을 통해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한편 학과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해 지식·기술·예체능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징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탈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사각지대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그룹 홈의 설립과 지원, 청소년·교사·학부모의 연수 프로그램 실시, 역경 속에서도 면학의지가 뚜렷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청소년 대상의 지속적인 상담과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¹⁶³⁾



제정구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그 방식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제정구)기념사업회도 돈을 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조그만 건물 하나 사고, 그 위에 공부방 하나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조그만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빛이 많았거든요? 돈을 만들어서 올해 다 갚았나 봐요... 돈을 내기도 하

163)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제정구장학회' 항목 중, 사진은 사단법인 제정구장학회 홈페이지(<http://www.jigss.or.kr/>)에서 가져왔다.

지만 행사에서 돈도 만들고 해서, 1년에 20명 정도의 장학금을, 조금 돈이 더 많으면 25명. 2000~2500(만원) 이 정도의 장학금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1년에...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애인데,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는데 학원비가 없다 그러면 학원하고 연계해서, 학원비를 좀 덜 받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원 원장님도 그 학생을 돕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열 달이면 열 달 학원비를 주고 그래서 1:1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학 갈 때까지 돕고 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돕고 있어요. 그냥 장학금을 무작위로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제정구장학회의 장학금 선발방식은 2000년 대 들어 특히 문화예술장학생 선발이 많아졌는데, 더 독특한 점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돈으로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역 내에서 찾아서 연계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제정구의 철학을 대응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장학회가 꿈을 지켜주고 격려해 주는 ‘어른’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바로 때마다 일마다 벌이는 마을 잔치였고, 그 중 가장 큰 잔치가 바로 신헌 창립기념일을 기해 벌이는 복음단오제였다. 복음단오제는 청년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들어서 그야말로 지역 축제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복음단오제와 마을 잔치는 다음과 같이 많은 인원이 모여 신명나게 진행되었다.¹⁶⁴⁾

성황리에 진행되던 복음단오제와 마을잔치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춤하고 중단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에 단오제가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신일초등학교에서 진행되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¹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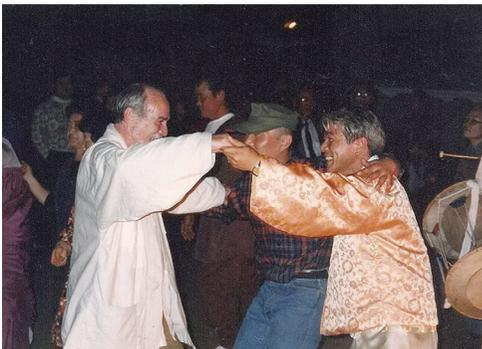
164) 복음단오제 사진은 시흥문화원, 앞의 책(2012)에서 가져왔고, 정일우 신부 회갑연 사진은〈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홈페이지(www.bokumjari.or.kr)에서 가져왔다.

165) 시흥문화원, 앞의 책, 14쪽.(김광남 구술자료 중)

장청년회가 해체된 것은 복음자리마을에서 행사를 할 때 자꾸 민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던 신협에서 그만두기로 했지요. 더구나 제정구 의원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구심점을 잃었지요... 이렇지만 단오제 행사가 없어지면서 청년회도 힘을 잃었어요. 청년회가 힘을 잃으니 단오제 행사도 다시 열기가 힘들고... 제정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갈수록 결속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이슈도 안 만들어졌어요. 또 행사를 할 때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깐 재미도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단오제 행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제정구 의원님 돌아가시고도 몇 년을 더 했는데, 신일초등학교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지역결속력이 더 없어지게 되었죠.¹⁶⁶⁾



1992년 임신년 복음단오제



1995년 정일우 신부 회갑잔치



2001년 신사년 복음단오제

166) 시흥문화원, 위의 책, 20-21쪽(신광표 구술자료 중)

복음단오제의 중단은 청년회 활동의 약화와 제정구의 작고에서 비롯된 영향이 커 보인다. 복음단오제는 청년회의 약화와 행사 때 들어오는 민원 등으로 그 활력을 점점 잃다가, 제정구 작고 이후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중단되었다.

2010년 중단되었던 복음단오제는 2014년부터 복음자리마을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작은자리돌봄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제정구장학회 등이 참여하는 소래단오제로 개최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 신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참여한 신천복음단오제를 다시 열게 되었다. 2018년 개최된 신천 복음 단오제는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신천복음단오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여 6월 16일 시흥신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30여 가지의 전통놀이 및 체험마당과 단오 기념 대형 비빔밥 비비기, 명랑운동회, 주민노래자랑, 줄다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시흥시립전통예술단과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대동놀이 단오한마당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강강수월래도 펼쳐졌다.¹⁶⁷⁾



신천동 마을축제



신천 복음단오제

중단되었던 복음단오제가 신천복음단오제라는 보다 폭넓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시흥의 많은 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신천복음단오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놀이로 공동체 정신과 공동체적 신명을 이어가게 되었다.

167) 내용은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신천복음단오제' 항목 중에서, 사진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http://www.jakunjari.or.kr>)에서 가져왔다.

4. 복음자리작은자리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전환

1985년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작은자리 회관이 1996년 작은자리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복음신협과 복음장학회 운영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었고, 1980년대 청년운동·노동운동·빈민운동·교육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해 왔던 작은자리회관이었다. 1990년 초 청년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약화와 제정구의 정치 활동으로 그동안 작은자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활동들이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 이제 작은자리회관은 지역 사회운동의 근거지가 아니라 시흥시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96년 작은자리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복지관의 주요 사업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이후 사회 민주화에 따라 제도화된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복음자리 마을 공동체 운동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1989년 시흥시 승격과 도시화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3개 마을만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르며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중심이 필요했으며, 가난 극복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와 결합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이 있어 1996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한다. 사회복지관으로 전환된 작은자리는 다양한 복지 활동으로 주민복지센터 및 지역복지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해갔다. 작은자리 회관 안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주민 모임들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어깨동무 공부방 자원 교사 모임 및 자조 모임’, ‘밥상 공동체’ 등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 모임이 주축이 되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녹색 가게’, ‘지역 주민 학교’, ‘어깨동무 공부방 운영’, ‘천사 축제’, ‘나눔 밥집’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교육, 가족과 실직 가정을 위한 자활 지원 활동, 성인 및 어르신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 활동 및 평생 학습관 운영, 작은자리 장애아동발

달센터, 작은자리 사례관리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복지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시흥시 지역복지의 지평을 여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의 핵심 가치는 창립 주체의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작은자리복지관은 이러한 정신과 철학을 기초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주민과 함께 동행(同行)하며,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주민의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오고 있다.¹⁶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전경



한 건물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제정구 생명마당 '생명의 눈, 가난의 눈, 공동체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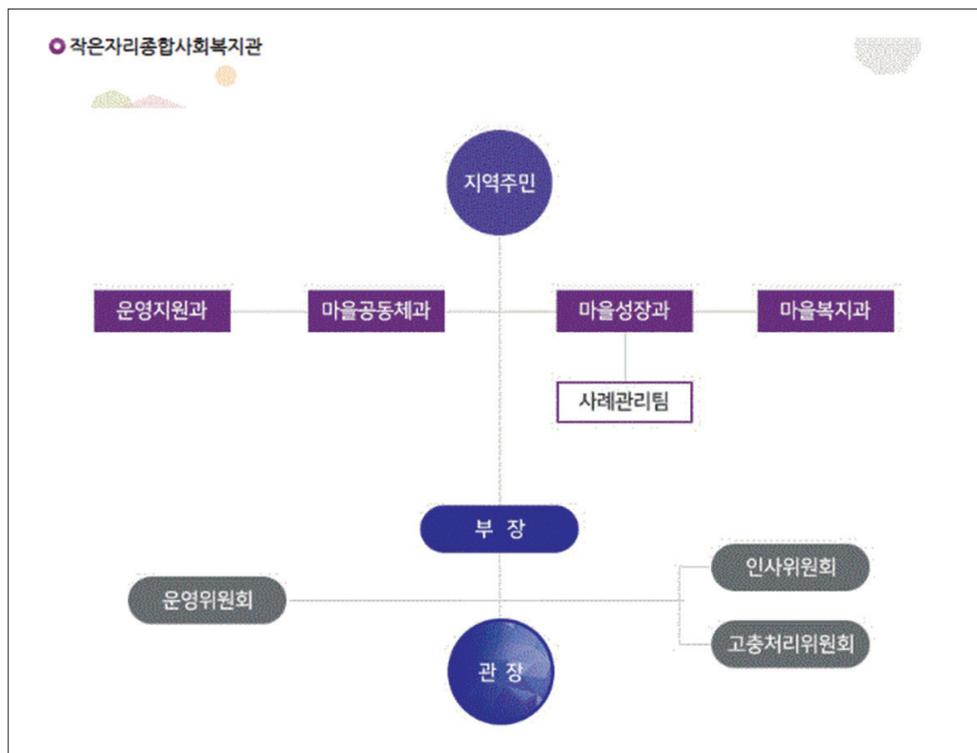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의 제정구 생명마당

작은자리는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기 위해 교육, 문화,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의 핵심 정신인 작은자리 정신 즉 '주민은 단지 수혜자나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당당한

168)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 '설립배경과 연혁' 중.

주인이며 존엄성과 가능성을 지닌 능동적 주체이며 권리자라는 것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자 자세라고 보고 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기 위해 작은자리복지관은 이 작은자리의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1996년 10월 작은자리회관에서 작은자리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였고, 2001년 다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하였고, 작은자리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복지관의 현재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과, 마을성장과, 마을복지과라는 구성에서 단순히 시혜와 베풀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복지를 이루어 나가는 작은자리 정신이 배어나온다.



2)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설립과 활동

작은자리회관이 작은자리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는 1996년 10월 이전인 1996년 2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사실 먼저 설립되었다. '복음자리는 가난한 사람

들과 참 이웃으로의 삶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라는 공공정책을 통해 심각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당면문제와 계층간의 갈등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혼란 등 수많은 문제를 함께 하고자 했으며 '법인의 재원인 독일 미제레울의 '인류 공존공영의 정신'과 예수회 이나시오 로올라성인의 공동체적 수도정신' 그리고 설립자이신 정일우신부와 제정구선생의 '삶·철학·영성'이 녹아있는 자리'라고 표방하고 있다. 사회복지라는 공공정책, 독일 미제레울의 재원, 설립자의 '삶·철학·영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립 과정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96년이잖아요, 작은자리가 법인이 된 게. 저희가 독일에서 가져온 씨드머니가 복음자리를 짓고, 한독을 짓고, 목회를 지었어요. 그 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상계동으로 갔어요. 상계동이 철거를 했거든요? 86년에 투쟁을 했고, 87년에 6월 항쟁 때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를 해서 명동으로 갔고, 명동에 있으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주거, 집단이주를 할 계획을 하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돈이 상계동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서 멈췄어요...정신부님하고 제샘이 '집을 돈으로 보는 사회에서 이 집 짓는 거를 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고, 이 돈이 일부 갔었고 다시 왔죠.

그러다가 독일에다가 96년에 '우리는 이 돈을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러니까 미제레울에서 가져가서 더 필요한 곳에 써라.' 했더니 독일 쪽에서 '다시 받을 계정이 없다.(웃음) 지금까지 보면서 제정구가 하는 일이면 어디다 써도 오케이이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복지가 아니고 사회사업이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시혜를 베푸는 사업이 맞는 거죠, 그 전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제샘이랑 정신부님 두 분 다 가장 싫어하는 게, 그냥 주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의로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 전달체계나 이런 것에서 건강한 그룹들이 전달체계를 앞으면 이게 또한 망가진 어떤 게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해야 할 때라고 본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작은자리회관 지을 때 세레모 지원도 받은 게 여기 포함되

어 있고, 미제레올 씨드머니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받은 때서 도시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도시연구소에 받을 거기에 준 거예요.¹⁶⁹⁾

사회가 변화하면서 시혜 차원의 사회사업이 아니라,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절실히 보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한 단체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복음자리공동체의 주역들이 절감한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즈음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주택, 목화연립 건립의 종자돈이었던 미제레올은 지원금이 상계동 철거민들을 거쳐 다시 복음자리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더 이상 주택 건립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지원금을 미제레올 재단에 돌려주려던 때였다. 미제레올 재단에서 제정구 등을 믿고 지원금을 어디에 써도 된다고 결정하자, 그 재원을 기반으로 정격적인 복지기관의 설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은자리회관을 지을 때 네덜란드 세레모 재단에서 지원받은 것과 미제레올 재단의 지원금 그리고 있는 모든 재원을 모아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세우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의 작은자리 정신을 기반으로 하기에, 나눔과 섬김을 모토로 하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가장 편안한 복음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작은자리 정신으로 구현하고 있는 활동은 그야말로 다양하지만,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⁷⁰⁾

01.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다양한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2. 빈곤을 극복하고 생명을 일구어 갑니다.
03.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4. 소외된 여성과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05. 지역 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 및 자립자활을 만들어 갑니다.
06. 다문화 여성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함께 합니다.

169)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중.

170)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홈페이지(www.bokumjari.or.kr) 내용과 사진.



01. 소외된 이들과 공동체활동



02. 저소득층 자립자활활동



03.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활동



04. 소외된 여성 사회진출 지원 사업



05. 어르신 자립자활 활동



06.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공동체활동, 경제활동, 취업활동, 문화활동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들이 법인에 자리잡고 있다. 법인에 속해 있는 '기관'과 법인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기관명	기관의 사명 및 주요사업
기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웃 공동체 실현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교육, 취업지원 사업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하는 신명나는 지역사회
	시흥시니어클럽	노인들이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족문화 형성

구분	기관명	기관의 사명 및 주요사업
함께하는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 자활센터	저소득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창업지원, 자활기업 육성
	(사)제정구장학회	'아이들은 하늘입니다'를 모토로 청소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주거문제 해결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KOCO)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 변화 가능성을 보고 가난한 주민들의 삶에 동참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주민운동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주민지도자, 주민조직가를 교육훈련하고 조직
	한국도시연구소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 정책대안, 시민 주체 도시사회 운동 모색
	(사)제정구기념사업회	제정구 선생의 '가짐 없는 큰 자유' 삶을 따라 가난의 마음과 공동체정신 계승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이와 같이 많은 기관을 두고, 많은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데에는 1970년대부터 해 왔던 지역공동체 활동이 기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활동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립하면서도 지속적인 연대를 해 오기 때문이다. 법인 복음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리고 법인 복음자리와 함께 하는 기관에 모두 관여하고 있고 연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신명자 이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법인 복음자리의 활동 기준과 활동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한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리 신명자 이사장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활이었어요, 자활.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사회 영역에서도 중요한 숙제이고. 그래서 여기를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하는 데 옆에서 약간이서 포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랑 폐식용유 갖다가 빨래비누 만들어 팔아서 학교에 교복 없는 애들 교복을 사 줬어요. 노인들도, 이

동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복지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는 복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주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점점 노인은 노인으로서 소외되어져 가고, 받는 데만 익숙해져 가고 이런 거 같아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활, 자립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려울 때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도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또 다른 도움으로 전해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도 있으니 자활과 자립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자립과 자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지 시스템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해도 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하고, 법인에서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진 않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끌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직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수별로 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현장 학습을 가요. 근데 해외현장을 갔다 오면 선생님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는 이슈가 분명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은 철거문제가 있고, 그 이슈 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 그걸 경험하고 보는 데서 엄청나게 공부하게 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년까지 그런 교육을 계속 했죠. 올해는 상황이...

복지시스템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법인이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법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다. 법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법인 가족들과 공감해야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인이 정한 사명과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에 있었는데, 가장 먼저 협동조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활에서 첫 번째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기업으로 나간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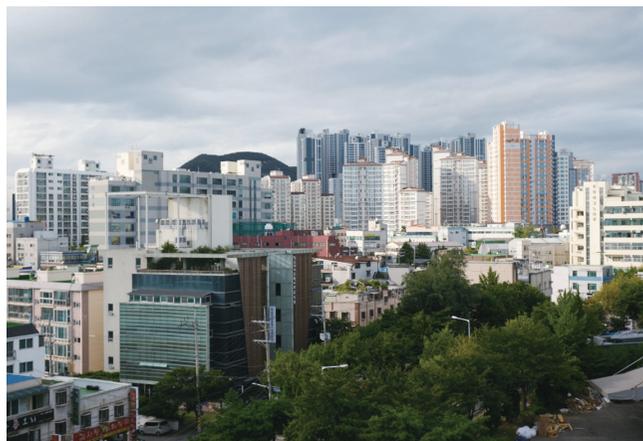
거는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나갔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동아리와 많은 공동체를 만들고 지향하고, 또 그 공동체들이 또 활동하게 해 주고 또 깨지기도 하고, 깨지면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지요.

사실 법인은 이것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이게 피가 흐르도록 부모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저희 법인은 이 기관들을 교육하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 저희는 지금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어쨌든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조직도 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신명자 이사장의 표현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군이면서, 그러한 조직들이 서로 연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모양이 훼손당하거나 무시되지 않고 '자기만큼 있는 자리, 모든 이들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자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손은 끊임없이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모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리 홈페이지 화면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리와 신천동 일대

[참고한 자료]

[도서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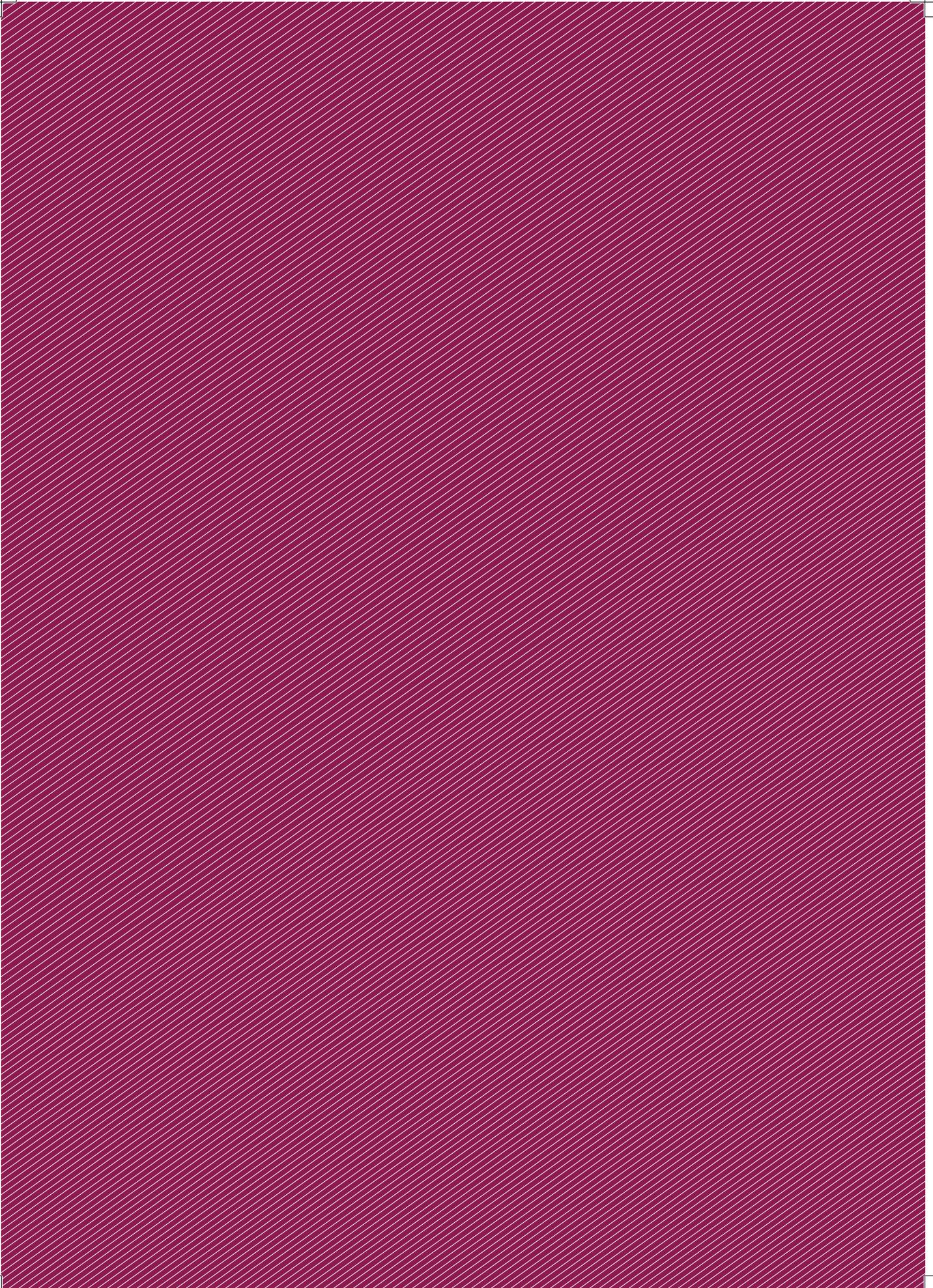
- 글: 정재학; 사진: 전호성,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1975년부터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 복음자리』, 『아산의 향기』 통권160호, 아산복지재단, 2017. 겨울.
- 김찬호,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동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도시와 빈곤』 Vol.109, 한국도시연구소, 2016.
- 김찬호, 『철거민정착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 마을』,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6.
- 노무라 모토유키(사진), 『노무라 리포트: 청계천변 판자촌 사람들 1973-1976: 노무라 모토유키 사진 집』, 눈빛, 2013.
- 시흥문화원,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보고서: 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연립』, 2012.
- 임종탁, 『의도적 공동체와 지역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작은자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제정구, 『공간 재구성과 서민생활』, 『공간과 사회』 3, 1993.
- 제정구, 『신부와 벽돌공』, 비전21, 1997.
-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편, 『가짐 없는 큰 자유 : 빈민의 벗, 제정구의 삶』, 학교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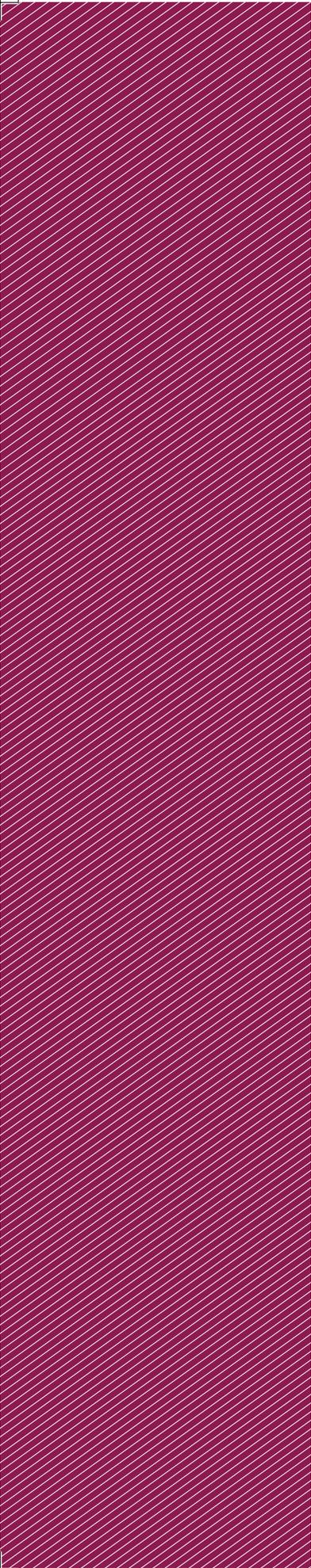
[면담 자료]

- 2020년 10월 13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2020년 10월 16일, 신명자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인터넷 자료]

- 경기시흥협동조합(<https://udb.kr/local/1475959>).
- 다음부동산(<https://realty.daum.net>).
- 디지털시흥문화대전(<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의 '목화마을', '복음신용협동조합', '신천복음단오제', '작은자리', '제정구장학회', '한독마을' 항목.
- 사단법인 제정구장학회 홈페이지(<http://www.jjgss.or.kr/>).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홈페이지(www.bokumjari.or.kr).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어 '존 데일리(신부)'.
- 유튜브 동영상 '복음자리 15주년'(https://www.youtube.com/watch?v=97qk8cbu_wU).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http://www.jakunjari.or.kr/>).





6부

시흥시, 전통마을과 근현대 마을의 공간점유 방식과 의미

장수아(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글을 시작하며

도시의 성장은 기존 도시화 영역을 중심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역이 확장되면서 교통 인프라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서 확장된다.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성장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도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외부로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의 확장은 기존 도시의 기 점유된 토지와 도로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보다 경작지나 자연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에 새롭게 도시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민원의 문제나 기존 거주 집단 주체와의 협의 문제 등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권내 타 도시의 도시화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기까지 자연발생도시로 촌락형태로 있던 곳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철도역이나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작지의 신설, 혹은 새로운 도로체계를 만들면서 근대화된 도시공간의 모습을 갖추면서 변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변화의 정점은 1970년대 이후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부천시의 경우 1970-80년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평택시의 경우 경부선과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실제적으로 1970-80년대 급격하게 도시화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수원시와 같이 기존의 성읍이 존재하고 대규모 도시화 이루어졌던 경우는 경부선의 신설과 더불어 나타난 수원역이 기존 도시와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둔 채 점차 각 지점들의 도시화 영역이 확장되고 1990년 대 아파트 단지와 산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거대도시로 성장한다.

경기도 권내 타 도시의 역사에서 볼 때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에 도로 구조가 재편되고 경작과 연결되는 산업시설들이 나타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지만 시흥시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나 1990년대까지 도시화의 모습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고 반월산업단지와 더불어 반월 특수 시화지구가 들어서면서 시흥의 도시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시흥시는 갯벌을 화두로 하는 생태 친환경 도시로의 정책과 방향으로 자연지형이 갖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시흥시 = 생태 갯벌도시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흥시의 입지적 특징은 1차적으로는 서울과 근접하고 인천, 부천, 안양, 안산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시흥시의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인천과 같은 대도시와 근접한 사실은 서울이 필요로 하는 교통인프라,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로서의 주거단지가 서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서울 주변도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초 고속화 되어가는 교통시스템은 서울의 영향권이 경기남부에 위치한 평택권 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지하철 1호선을 통해 서울에서 쇼핑이나 문화적 소비를 하거나 근무지가 평택의 경우에는 출퇴근도 가능하게 되어 서울주변의 대부분의 도시는 서울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울과 주변도시들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 지속될 경우, 도시 자체의 독립적인 미래상을 그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서울이나 주변 대도시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을 때 토지공간의 점유 방식과 역사적 흔적들도 좀처럼 간직해나가기가 쉽지 않다.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 단지의 출현 등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져왔던 자연촌락의 공간들을 쉽게 잠식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시흥시에 대해서 이 지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 서측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인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도시 처럼 7-80년대의 근대도시의 확장이나 90년대 까지도 아파트 단지의 무분별한 확장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역으로 도시화의 속도가 가장 늦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왔던 고유한 공간의 흔적들이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인 것이다. 경기도 서부권역에서 가장 자연마을과 자연지형의 원형들이 잘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모습은 사뭇 조심스럽다. 안산과 인접한 산업단지는 이미 포화되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유 되었고, 이 외의 주요 지점들 또한 아파트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도시의 거대한 변화가 예

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마을의 모습과 점차 변화되어가는 양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흥시가 가진 자산과 공간적 가치를 통해 미래의 상에 대해 조심스레 제시해보고자 한다.

도시공간 형태^[마을공간]에 대한 이해

시흥시에 대한 도시형태 유형학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도시형태 유형학은 두 가지 관점이 내재되어있는데 하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이다.

도시를 형태로 바라본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형태로 인식하고 그 형태의 원인을 찾고 유추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간의 형태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공통되는 지점들을 찾아서 유형화함으로써 공통된 사항들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공통된 사항으로 도출된 형태들을 통해 일정한 공간적 정체성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공통된 형태를 통한 유형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차이를 갖게 되고 서로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각 마을의 개별성과 고유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도시 공간 형태를 통한 접근은 보편성과 개별성의 정체성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도시공간의 형태는공간 구조화를 만든 길, 이로 인해서 형성된 블록, 그 블록 위에 구성된 필지 조직, 그리고 그 위에 축조된 건축물이다. 이 네 가지 요소의 근원으로 당연히 지형^[물과 땅]을 전제한다.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조직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도시화의 정도와 밀도의 정도에 따라서 블록의 형태를 갖게 될수 있고 블록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마을에서는건축물 밀도가 낮기때문에 블록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쉽지는 않다.

도시 형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하나는 공시적 관점으로 한 시대의 도시 공간 형태를 묘사하고 공간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한 관계를 유형으로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통시적 관점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도시공간 변화의 일정한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다.시흥시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고 도시화영역의 주로 아파트 단지와 시화호 주변의 산업단지 중심으로 형성되었기때문에 자연발생적인 도시화보다는 계획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 관점을 제외하고 공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공간형태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갖는다.

1. 모든 도시공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2. 거주자들 간에 형성된 커뮤니티는 공간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갖고, 역으로 공공의 기억이 형성된 공간은 장소 성을 갖는다.
3. 모든 도시공간은 집단의 기억을 담으며, 도시는 이러한 기억들의 집적체이다.
4.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는 공간을 삭제하며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을 경계하며, 도시 위의 도시를 지향한다.
5. 도시공간은 물리적 이동속도가 컨트롤 돼야 하고, 시간성을 담는 역사와의 소통을 지향한다.
6. 역사적으로 적층 되어온 도시공간에 대한 존중은 지형의 역사를 포함한다.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시흥시 도시공간의 형태[마을공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현재 시점의 도시와 도시 초기 모습을 비교하면서 초기의 도시공간이 현재 어떠한 유형으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사료에 의한 접근보다는 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한 공간구조와 공간형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형태의 근거를 찾는 역사적 사료의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의 특징을 묘사하고, 형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시간적 범위] : 도시형태 유형학적 접근은 물리적인 공간과 도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항공사진, 현장답사 및 사진을 주요한 분석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근대시기 이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지도와 항공사진을 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초기 수치지형도인 1917년 지도의 기점 이후로 한정한다. 주요한 시기는 1960년대 마을의 모습과 현재의 시점을 주로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1960년 지도에 나타나는 마을의 모습은 전통적인 즉 자연발생 마을로 간주한다.

연구자료

항공사진 전체 62 장과, 구지도 15개를 연도별로 시흥시 전체 영역을 재구성하여, 각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클로즈업 및 재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지도와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1. 지도 9장

1917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90년대 / 2000년대 / 2015년

2. 항공사진

2020 항공사진

[지도 및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시흥시 도시공간의 특징과 자연마을의 현황

시흥시는 경기도 남서부 서해안과 인접하고, 인천, 부천, 안양, 광명시와 인접하며 화성시와는 시화호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행정구역상의 전체 도시면적은 135.79km²이며 인구는 2020년 약 479,000명에 이른다. 인구는 1966년 약 128,000명의 인구에서 약 3.7배가량 증가하였다. 실제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2000년에 약 두 배 이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도시 공간의 특징

지형적 특징

시흥시의 지형은 매우 독특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과의 경계지점인 소래포구를 따라 갯벌과 갯벌을 막아 형성된 습지와 넓은 논 경작지가 형성되어있고, 이 논 경작지를 에워싸고 있는 삼각형 형태의 산줄기들이 시흥시의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동측으로는 관모산 율흥산, 양지산을 따라 부천의 함박산과 건지산 방향으로 산 줄기가 형성되어있고, 양지산에서 갈라져 북서쪽으로 연결되는 봉매



[부천시 현재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삼면이 마주보는 공간구조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산이 부천과의 경계를 만든다. 서측으로는 인천과의 경계를 성주산, 거마산, 소래산, 장아산을 따라 산 줄기가 끝이 나면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끝난다. 남측에는 수리산 자락에서 서측으로 연결되는 관모산 군자봉, 봉화산 분향

산과 오이도 지점에서 산줄기가 끝이 난다. 관모산 지점에서는 북측 논 경작지 한 가운데로 광석산이 연결되어 끝이 나고, 소래포구와 이 광석산 사이에 무리재산, 학미산, 범배산등이 마치 서측에 고립된 모습으로 분포되어있어 시흥시 전체의 산줄기와 평지의 구성을 볼 때 마치 “소” 자의 형태를 띤 모습으로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소”자의 형태를 갖고 있어 북측, 동남측, 서남측이 각각 삼각형의 모서리 형국을 갖고, 북측의 끝은 산줄기가 모아지는 남측에 오난산이 위치하고, 동남측의 끝은 운흥산과 관모산 사이에 만들어진 물왕저수지가 위치한다. 관모산에서 서측으로 길게 연결되는 산줄기는 시흥국가산업단지의 평지와외 거대한 벽을 형성하고 있다. 시흥시 지형에서 또다른 독특한 점은 광명-안양과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운흥산과 양지산 산능선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리산과의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목감천을 따라 형성되어있는 점이다. 이로서 남서측 끝의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영역과 동측의 목감천을 따라 산능선 동측에 분포되어있는 지역은 공간적으로 볼 때 “소”자 형태의 내향적 공간형태와 분리된 분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으로 산능선의 동측에 형성된 괴림동 일대는 시흥시 중앙부분과는 공간적으로 매우 단절 분리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지형에 의한 거대 공간구분을 하면,시흥 국가산업단지 지역과 괴림동 일대를 제외하고 삼각형 공간구조를 갖는 매우 중앙 집중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이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현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천 - 논 경작지 - 갯벌

시흥시의 하천은 삼각형 배치의 각 산줄기 끝 부분에서 시작해 동남측 방향으로 흘러간다. 부천과 연결되는 성주산과 봉매산 사이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정남측으로 흐르다가 시흥 IC 부근에서 두 하천으로 분리되어 하나는 신천동 일대를 지나 서측으로 흘러가는 “신천” 이고, 다른 하나는은계 호수공원에서 오난산을 지나 남측으로 더 이동하여 넓은 논경작지인 중앙부분을 남서측으로 관통하며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서측 소래포구 방향으로 흘러간다. 수리산 자락에서 발원한 보통천은 물왕 저수지를 거쳐북측으로 올라가다가 장현천과 만나면서 서측 갯벌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공간구조에서 각 모서리 부분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중앙부의 논 경작지 평야지대로 모여 서측으로 흘러 갯벌을 형성하며 바다로 연결된다. 이렇듯 지형적인 공간구조는 하천의 구조 또한 그대로 연결되어 매우 중앙 집중적인 흐름과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천-논 경작지-갯벌의 연결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삼면이 마주보는 공간구조

시흥시의 이러한 삼면이 서로 바라보이는 공간구조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구조는 지형에 순응하게 되는데, 산이나 구릉에 의해 공간이 분할되거나 시각적인 소통이 분리된 공간에서 도시화의 현상은 이러한 공간적 특이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예를 들면 근동지방인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크고 작은 구릉이 매우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언덕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경계형성과정에서 도

시들 간에 분리 차단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연마을을 점령 및 지배하는 방법이 구릉지 상부를 점령하여 식민지촌을 건설하고 점차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구릉지 사이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분리 고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저변에는 지형에 의해 공간적 분리된 현상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계곡지형에 도시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계곡 중앙부에 형성되는 하천을 따라 도시가 선형화 되고, 이 선형화 된 도로를 따라 도시가 길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경사지를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중앙부의 하천과 중심 도로축을 따라 서로 마주하게 되는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럴 때 매우 독특한 도시경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마주하는 도시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계곡 한쪽에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도시와 반대편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도시들이 서로 마주하며 도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한 도시에서 도시경관을 마주하게 바라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매우 중심성이 강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듯 지형의 공간적인 특성은 도시의 성격과 도시경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흥시의 경우 이렇게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 형태의 공간구조와 중앙부의 하천과 논 경작지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연속은 시흥시 미래상을 수많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동측 끝 선형의 외톨이 과림동

지형적인 공간구조로 볼 때 과림동은 시흥시와 분리되어 있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수리산-구름산과 운흥산-양지산 사이의 골 형태의 공간은 공간적으로는 광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목감천을 따라 분리되어 있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목감천 서측에 논 경작지와 산경사지의 경계부분에 크고 작은 수많은 골을 따라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측으로 형성되어 있는 골들이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약 10여개의 마을들이 서측 경사지형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데 이 일대의 마을은 양지산 동측의 경사지형의 골을 따라 동측의 목감천을 바라보며 마을들이 분포하는 매우 중요한 공통된 유형들을

만들고 있다.

교통 인프라 시설의 분포 - 기울어진 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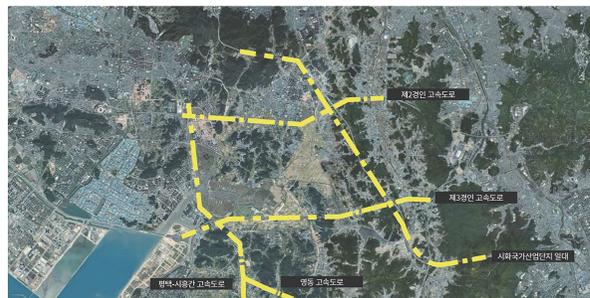
다른 대부분의 서울 주변의 도시와 유사하게 시흥시 또한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지형에 의해 형성된 공간적 구조는 삼각형 형태를 갖는데, 고속도로의 분포는 이와 달리 지형적 공간이 무시된 채 동서-남북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다.

1990년대 준공된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권을 동서축으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시흥시 지역에서는 남측과 북측을 관통하고 있다. 북측의 제2경인 고속도로는 성남-인천을 연결하는데, 과림동 일대에서 양지산을 관통하여 삼각형 공간구조의 끝에서 남측으로 이격된채 신천동 일대를 가로질러 서측 인천으로 연결된다. 이 도로의 관통으로 인해 삼각형 공간구조의 끝 부분이 고립된 공간을 만들고, 현재 이 지역은 시흥시에서 제일먼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 되었고, 대야동과 신천동으로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인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는 수리산 남측에서 관모산 남측, 봉화산 북측을 거쳐 분향산및 월곶포구 일대에서 북측으로 꺾여서 인천으로 연결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는 안산과의 경계지점을 만들고 있고, 대체로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어있는 산 지형 속에 자리잡고 있다.

동측 남북축으로 연결되는 운흥산과 양지산 줄기를 따라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가 형성되어있으며 성주산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거마산 방향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배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분포는 과림동 지역이 산지형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및 단절된 성격을 이중으로 더욱 단절 및 분리시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고속도로 - 교통인프라 시설의 분포[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진다.이 외에도 군자 지역에서 평택으로 연결되는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가 안산의 반월국가 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고속도로가 기울어진 사각형 형태를 만들면서 시흥시 공간을 관통하고 있어, 삼각형 “소” 자의 형태를 갖는 지형적 공간구조에 겹쳐지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분절된 공간을 따라 도시화 성격들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2) 도시화 지역과 자연마을의 관계

시흥시의 도시화 영역을 현재 지도와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매우 독특한 현상을



삼각형 끝 모서리 부분에 분산되어 형성되는 도시화 현상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화 영역이 서로 제일 멀리 위치하는 삼각형 끝 부분을 따라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시흥시 전체의 종합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비전을 따라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의한 교통접근성과 주변 도시지역과의 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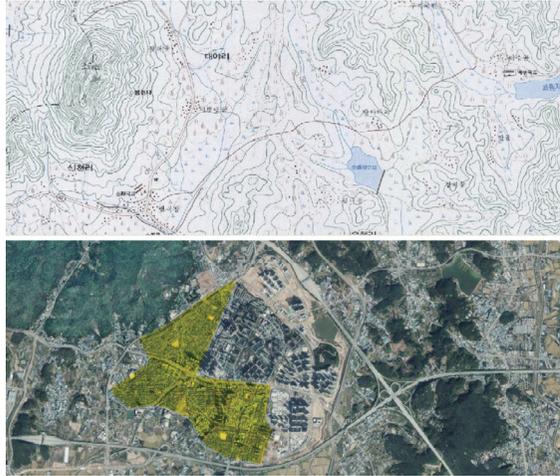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소래산 동남 측의 신천동-대야동-은행동 일원, 남서측의 물왕 저수지 주변의 목감동-조남동-산형동-물왕동 일원, 그리고 현재 한창 아파트 단지와 시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 중인 남측 중앙부의 능곡동 일원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서측 끝 부분의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월곶포구 일원을 합해 총 4개 권역이 도시화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남측 중앙부에 조성되는 시청사및 능곡동 일대의 도시개발은 이러한 시흥시가 갖는 분산된 성격의 도시에 중앙 집중적인 성격을 찾아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신천동-대야동-은행동 일원 - 고립된 도시 그리고 도시 위의 도시

시흥시 북측 끝부분에 위치하는 신천동-대야동-은행동 일원의 도시화는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공간구조가 무질서하게 혼재된 채 도

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남측은 주로 저층 주거와 불규칙한 배치로 분포하고 있는 공장들이 모여서 “L”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 지도를 살펴보면 도시공간구조는 현비둘기 공원 일대가 작은 구릉지로 조성되어있고 이 경사지형을 피해서 서남 측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있다. 도로체계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자연발생 촌락구



신천동 일대에 형성된 아파트 중심의 도시화 지역
[상, 1960년대 / 하, 현재(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조가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화된 현상을 갖고 있다. 1980년대 지도와 1990년대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소래산 서측으로 부분적으로 격자형 도로체계를 갖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발생 촌락에서 존재했던 도로들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1980년대 지도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42번 국도 수인로를 따라 남측으로는 “Z”형태의 도로구조를 갖고, 북측에는 격자형 도로체계가 기울어진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초기 도시공간구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초기의 모습이 도로구조에서 잘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측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중심의 공간구조는 비둘기 공원 일대를 따라 방사형의 모습을 띄며 개발되고 있는데,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에 의해 동측의 과림동 일대와 완전히 단절되고 있고, 남측으로는 경인제2고속도로에 의해 시흥시 중앙부의 넓은 경작지와 분리된 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측의 산지형과 동남측 두 개의 고속도로는 당분간은 이 지역의 도시화에 억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공간의 밀도화를 어느 정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고립된 도시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도시는 시흥시 초기 자연촌락의 흔적이 그대로 도시화 되는 격자형 도로구조와 건축물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된 고층 아파트 등의 도시변

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도시위의 도시로서의 가치가 잘 담겨 있다. 이곳의 공간적 질서는 부족해 보이지만 역사적 정체성을 지우지 않고 시대별로 잘 적층해서 그 역사적 층위들이 잘 담겨 있고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물왕 저수지 주변의 물왕동 일원 - 교통 접근성에 의한 도시화

물왕 저수지 일대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물왕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산과 동측 수리산의 수려한 경관으로 이지역의 주요 관광지였으나 이러한 경관적인 장점과 더불어 서울-안양-수원-안산-인천 등 시흥시 주변의 주요한 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근접해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과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 경기남부 권과 경기 북 서부 권을 연결하는 평택-과주간 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근접해있어 광역권의 교통접근성이 매우 높다이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화는 주로 작은 골들을 따라 아파트들이 배치되고 있고 이러한 도시화의 확장은 물왕 저수지와 산 지형의 제약으로 동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 다른 시흥시 동남 측의 고립된 영역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수리산과 운흥산 관

모산 사이의 협소한 계곡지형에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산업도로 그리고 목감 IC, 동시흥 IC, 조남 IC, 도리 JC 외 총 5개의 교차광장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조각난 공간들과 교통시설들이 중첩되어있어 도시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율이 높다.

1910년대-1960년대 지도를 현재와 비교해보면, 도시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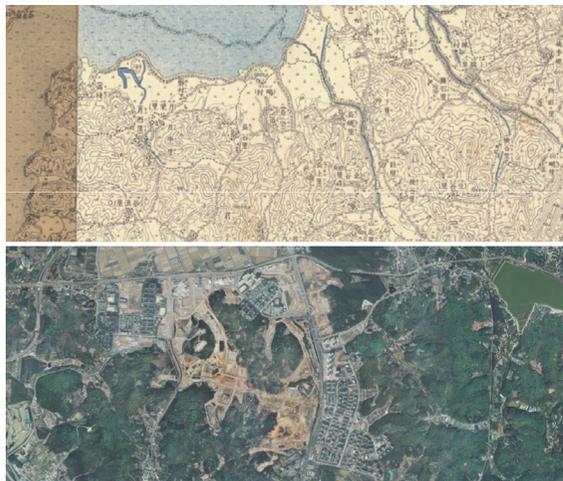
물왕저수지 일대에 형성된 아파트 중심의 도시화 지역
[상, 1917년 / 하, 현재(출처 : 축토지리정보원)]

있다. 물왕저수지는 1945년에 조성된 저수지로 산현리와 물왕리 일대의 작은 촌락들이 1919년 지도에 나타나는데, 저수지 조성으로 마을이 수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물왕리 [물왕골], 하지골 등이 이 일대의 주요한 마을로 조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하지골은 1919년 지도상에서 매우 큰 촌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왕 저수지 동측에 위치한 을미, 별말, 남왕, 원조남, 소능피 등의 마을이 분포하였는데, 이들 마을 중 을미와 산현리 동측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은 남겨져 있다. 이로서 물왕 저수지 일대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은 을미 한 곳뿐이다.

새로운 도시화가 전통적인 자연마을을 심하게 지우지는 않았지만, 경관적인 측면에서 고층의 집단 아파트 단지의 건축물 군은 단층위주의 소규모 마을 촌락과는 매우 대조적인 형국을 만들고 있고, 더욱이 이 지역의 고속도로 중심의 교통 인프라 시설들은 골 지형에 분포하는 마을들의 모습을 더욱 숨기고 고립되는 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되는 마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능곡동 일원 - 시흥시의 중심 그러나 도시 지운 도시

능곡동 일원은 시흥 시청사를 중심으로 안산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는 산 지형을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330번 국도가 동서축으로 직선화되어 논 경작지를 시흥시 남측에서 관통하고 있는데, 이 도로 남측의 “동서로”를 경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북향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15개 자연마을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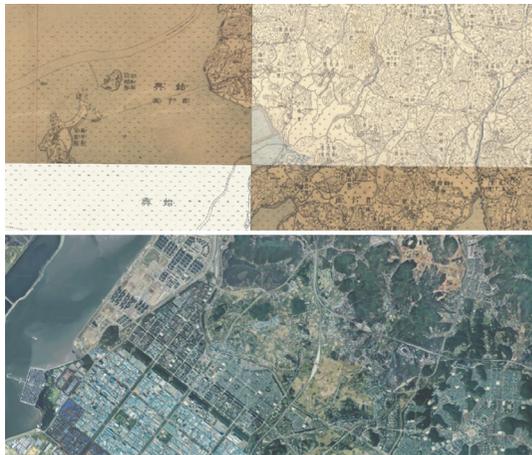


능곡동 일대에 형성된 아파트 중심의 도시화 지역
[상, 1917년 / 하, 현재(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을 모두 지워버린 채 아파트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체계를 삽입하여 개발 중에 있다. 이 일대의 사라진 마을은 상곡, 마전, 별감, 통섬이, 월곶리^[월동], 별말, 장곡리의 내골, 매굴, 진마루, 섬말, 장현리, 새재, 두일, 셋말, 능곡리의 삼거리 등^[1960년대 지도에 나타나는 마을명칭 참고]이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과거 안산시가 진행한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산시는 행정구역상의 전체 도시영역 중에서 서측 끝부분의 신길동 일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자연촌락의 흔적을 온전히 지워버렸다. 다른 경기권역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도시위의 도시로서의 역사적 흔적들이 적층되어 지형-도로-필지-건축물들의 형태에서 상당 부분 남겨진 것에 반해 안산시는 모든 자연촌락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산지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골 지형 안쪽 까지 모든 옛길의 형태는 온전히 지웠고, 지형을 존중하여 오랜 세월 동안 경작해온 땅에 대한 해석방법과 문화가 축적되어있는 필지, 그리고 일정한 씨족 공동체로서 세대를 거듭해 유지되어왔던 공동체 또한 지워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워진 자연마을들은 대부분 과거 간척사업을 통해 논 경작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바닷물과 만나는 경계지형에 형성되었던 마을이었고, 이는 해안가 마을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경작중심의 농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 지도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염전의 영역은

이 일대의 마을구성원들이 삶의 방식과도 직결된 촌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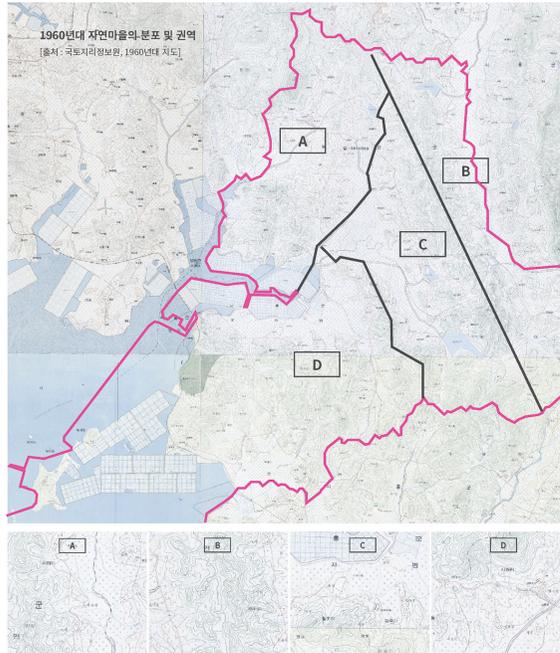


사회국가산업단지 일대에 형성된 산업단지 및 도시화 지역
[상, 1917년 / 하, 현재(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사회국가산업단지 - 염전의 사라짐과 해안경관의 변화

사회국가 산업단지의 조성은 시화방조제 건설과 반월산업단지 이후에 진행되었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간척지를 매립해서 거대한 대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은 철저히 격자형 도로구조를 갖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 지역은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최 남단 측에는 공장들로 채워진 공업단지가, 그리고 간석매립지 중에서 기존 내륙과 연결되는 북측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있다. 현재 매립이 완성되어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서측 지역은 교육과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도시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간석지 매립지역으로 인공대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이로 과거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은 정왕역 일대와 죽울동 일대에 촌락이 존재했으나 초기 촌락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왕역 일대는 과거 수인선 군자역이 존재했던 곳으로 현재는 수원-분당선의 정왕역으로 역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존재하고, 수인선의 위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간석지로 매립 조성된 지역은 방조제 건설 이전까지 1980년대 지도에서 그대로 염전의 모습이 나타난다. 염전은 정왕역에서 오이도[당시 섬]로 연결되는 격자형 구조를 갖는 두 개의 영역이 정왕역 북측과 남측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염전의 공간적 구조가 현재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로서 시흥시 남서측 끝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오이도를 비롯한 분향산, 죽울동 일대의 해안경관은 사라지게 되었다.

주요 도시화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마을과의 관계

위에서 주요 도시화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다.

1. 도시화 지역은 산개 흩어져 4개의 도시 영역 끝 부분에서 진행된다.
2. 능곡리 일대를 제외한 3 곳의 도시화 지역은 기 존재했던 자연마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3. 도시화의 영역은 교통인프라 시설에 의해 공간적인 영역의 한계를 두며 진행된다.
4. 신천-대야동 일대는 자연마을 - 1980년대 - 1990년대 - 현재에 이르는 도시화의 특징들이 그대로 적층되어 역사적 층위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5. 고층 아파트 위주의 도시화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자연마을과는 매우 대조적인 경관을 만들고 있다.
6. 시흥시가 갖고 있던 바다와의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간석 매립지에 조성된 새로운 도시개발로 인해 고유한 경관과 해안마을의 성격이 상당부분 약화 되었다.

3) 자연마을의 분포 현황

자연마을은 우선 자연발생적 마을을 의미한다. 전통마을이라는 표현과 달리 자연발생 마을 혹은 자연마을이라 함은 도시 계획적 의도를 통해 개발된 마을이 아닌 일반적인 씨족공동체에 의해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 가정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은 씨족 공동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이나 해안가의 염전과 같은 특정한 시설이나 고용과 관계된 시설로 인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거나 혹은 이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포함한다.

시흥시의 자연마을의 분포는 기본적으로 앞 단락에서 살펴본 지형적 특징에 따라 영역을 한정하고 공통된 유형을 갖는 지역으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1960년대 지도를 통해 자연마을의 분포를 살펴보고 권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짓는다.

A 권역은 시흥시 북서측에 위치한 권역으로 대야리, 신천리, 방산리, 포리, 미산리, 은행리, 안현리, 계수리로 마을이 북서측의 산지형을 배산으로 두고, 남동측에 논 경작지와 전체적으로 남향의 입지로 하고 있다.

B 권역은 남북 축으로 형성되어있는 산줄기의 동측에 위치하고, 시흥시 공간구조에서 동측에 고립되어있다. 이 지역들의 지형적 특징이 목감천을 바라보며 동측으로 논 경작

지가 형성되어있고, 산능선을 따라 동측 방향으로 골이 열린 구조를 갖는 마을들로 괴림리, 무지리, 논곡리, 목감리, 조남리의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C 권역은 양지산줄기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서측방향의 논 경작지를 바라보며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매화리, 도창리, 금이리, 물왕리 등이 포함된다.

D 권역은 북측을 바라보면서 논경작지와 갯벌을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 염전이 주로 발달되어있는 영역과 연계되는 북측으로 지형이 내려가는 위치에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하중리, 하상리,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서해바닷가 측으로 정왕리, 죽울리 그리고 내륙쪽에 위치한 거모리 군자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도시화 진행으로 사라진 능곡리 등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1960년대 지도에 나타나는 마을은 총 30개의 리로 구성되고 있다. 이 중에서 시흥 시청사 일대의 능곡리, 장현리, 장곡리, 계수리 등은 이미 마을이 사라졌기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연마을의 입지적 특징과 변화

1) 자연마을의 특징

1960년대 지도를 통해 시흥시에는 30개리에서 건축물들의 군집을 통해 약 111개의 촌락들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림동을 비롯한 양지산 동측에 약 20개소, 양지산 서측에 약 22개소, 신천리 일대에 약 27개소, 그리고 시화방조제로 연결되는 서남측에 약 42개의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는 장곡리와 능곡리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들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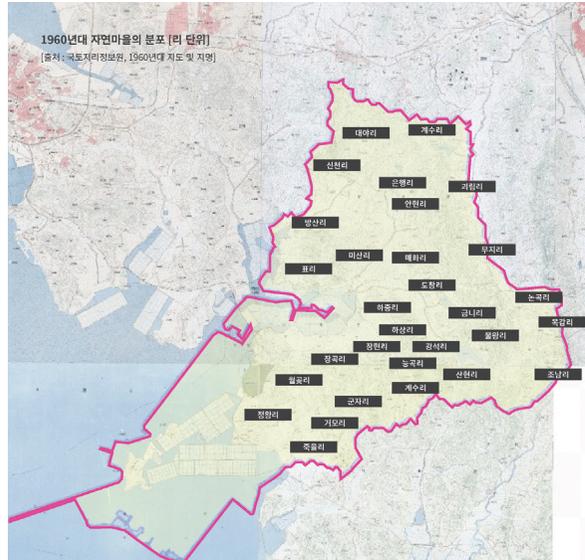
마을의 입지에 있어서 영향 요소

전체적인 자연마을의 분포는 4개 권역과 상관없이 유사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 입지에 영향을 주는 지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논 경작지와와의 관계
논 경작지 인접 / 바다 혹은 갯벌 인접 / 산지형
2. 지형적으로 언덕 및 경사지형과의 관계
언덕 지형 / 평야 지형
3. 언덕의 형태의 관계
안쪽으로 굽은 골 지형 / 돌출된 언덕 지형
4. 경사지형과 향
남향 / 북향 / 서향 / 동향
5. 도로와의 관계
도로 하부측[논, 갯벌 경작지 방향], 도로 상부측[산지형 방향]

시흥시 자연 마을의 입지적 특징

마을의 위치를 지형적 요소와의 관계로 살펴볼 때, 대부분의 마을들은 논 경작지와 인접하면서 경작지를 바라보는 배치를 갖고 있다. 시흥시 영역 서측에 위치하는 마을들은 바다와 근접 혹은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을들의 위치는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을은 지극히 적으며 경사지형의 방향과 남향의 축이 어



긋날 경우 거의 모든 마을들의 배치에서 남향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동측의 양지산 축을 중심으로 동서로 위치한 마을들은 이 지역 대부분의 골들이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과림동 일대의 골의 방향은 대부분 동측 목감천을 향해 열려 있으며, 양지산 서측의 마을들은 대부분 중앙의 논 경작지를 바라보면서 서향으로 공간이 열려 있다. 이때 마을들이 입지하는 위치는 골 내측에서도 남향 경사면으로 주거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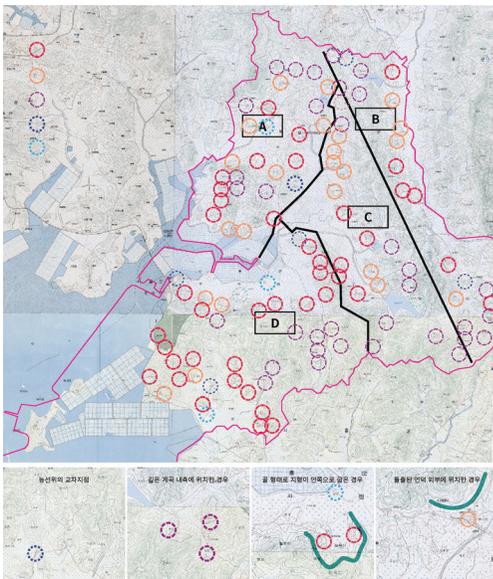
위 항목에 대해 마을들의 배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기본이 되는 지형에 의한 공간은 산 능선의 흐름으로 인해 형성되는 볼륨에서 논 경작지 중심의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마을들은 논 경작지 방향으로 입지해 있으며, 서측의 바다와 접하고 있는 마을들도 마을의 배치 방향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논 경작지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왕리 일대의 마을들은 서측의 바다를 향한 입지가 아니라 남측의 논 경작지를 향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10년대 지도에서 나타나는 안산시 해안가 마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골 안쪽의 논 경작지를 향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방향이 남향으로 되어있을 경우 대부분의 마을들은 남향의 논 경작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마을들의 주산업이 어업보다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마을 분포는 산 지형보다는 논 경작지와 인접한 영역에 많은 마을들이 입지하고 있다.

2. 지형의 경사도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마을들은 평 지형에 형성된 논 경작지나 바닷가 갯벌 인접한 곳에 입지하고 있지 않다. 장곡리 일대의 섬밭, 신천리 일대의 새밭, 포리 일대의 포리교 주변 일부 촌락들이 입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논경작지 상위부분의 산과 만나는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언덕에 입지하고 있다.

3. 골 지형의 언덕과 돌출된 지형의 언덕 중에서 골 지형의 언덕에 대부분의 마을이 입지하고 있으나 돌출 지형의 언덕에도 상당수의 마을들이 위치한다. 넓은 경작지와 인접하면서 안쪽으로 형성된 골 지형에 위치한 마을은 약40개소, 돌출된 지형에 입지한 마을이 약 20개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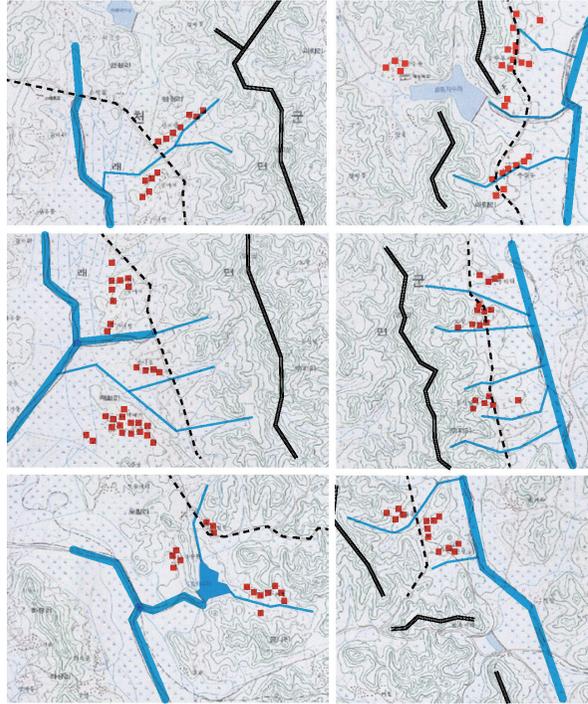


4. 이러한 마을의 입지는 일조권과 연결되는 향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마을들은 남향을 선택하고 있다. 양지산 자락에 동서방향으로 골이 형성된 마을들은 예외 없이 골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천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서방향의 하천의 북측에 위치하여 남향의 배치를 하고 있다.

4. 마을을 연결하는 길은 산과 논 경작지가 만나는 경계부 중에서 마을 하부 측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도로 하부 측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5. 도로는 굴곡진 지형이 골과 돌출된 재 혹은 언덕을 만드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지형에서 도로가 나란하게 관통하며 지나갈 때 도로를 기준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과 경사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과림동 일대의 마을들은 대부분 도로의 위쪽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서측의 매화리와 도창리 일대의 마을들은 도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도로 위쪽에 마을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하천을 중심으로 골이 안쪽으로 길게 들어갈 때, 하천을 중심으로 촌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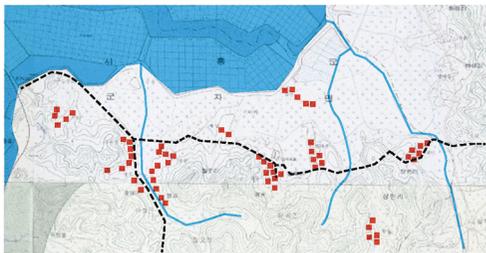


양자산 서측마을 입지유형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0년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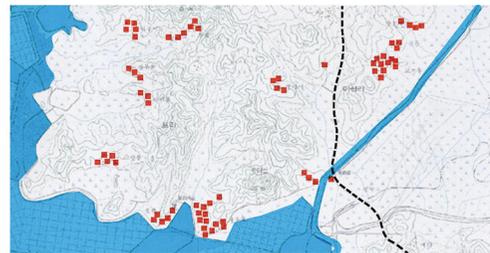
양자산 동측마을 입지유형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0년대 지도]



정곡리 능곡리 일대의 마을 입지유형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0년대 지도]



포리 일대의 마을 입지유형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0년대 지도]

이 골 초입에 서로 마주하며 분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월곡리, 장곡리, 장현리, 하상리 성마루,포리 일대의 포리 초등학교 주변 등의 사례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이로서 마을의 단면 구성을 요약 해보면, “산 능선-산의 급경사 부분-상부 마을-도로-하부마을-경작지-하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상부 측에는 주로 밭 경작지 하부 측에는 주로 논 경작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작지의 구분은 물의 유입이 용이한 평야지대까지 논경작지가 이루어지고, 이외의 경사를 갖는 언덕지역은 대부분 촌락과 밭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자연마을의 변화

자연마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새로운 도로체계를 갖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지만 이외에도 자연마을의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 시설의 설치는 기존의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절토를 통해 산과 언덕을 잘라내고, 성토를 통해 기존의 열린 시야가 막히게 되거나 고립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시설의 증가는 고속도로 이외의 크고 작은 산업도로나 자동차 중심의 도로들이 시흥시 전역을 관통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주요 교통 결절지점[분기점]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중심의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주거와 연관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물류위주의 교통량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물류 교통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물류창고, 건축자재 적재소, 폐기물 처리시설, 각종 공장이나 산업관련 시설들이 자연마을의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렇게 시흥시 공간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인프라 시설-주요 아파트 단지의 등장-물류 교통량 증가-각종 산업시설들의 자연마을 점유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중심으로하는 주거단지의 등장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현재까지는 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지만, 물류창고나 산업관련 시설들에 의한 자연마을의 점유는 전지역에 퍼져서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에 좀더 깊은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

1960년대 지도에서 나타나는 111개소의 자연마을들은 앞선 단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장곡리와 능곡리 일대는 자연마을이 대부분 온전히 사라졌고, 물왕 저수지 일대의 자연마을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경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천리 일대의 도시화 지역은 자연마을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겨진 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은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체계의 삽입, 필지의 단위가 사라진 블록과 아파트의 동 배치에 의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기존의 자연마을과 직접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필지와 도로체계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자연마을이 오랜 세월동안 유지하거나 분화시켜왔던 땅의 분할방식과 땅의 점유방식이 주로 경작지나 건축물의 점유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시켜왔지만 아파트를 통한 공간변화는 이러한 모든 흔적들을 지우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간을 심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의 보상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렇게 토지환수 및 보상을 통해 진행되는 도시화는 공간의 역사 뿐만 아니라 마을이 갖고 있던 공동체 또한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절토와 성토를 통한 토지 형태의 변화, 기존 마을의 공간적 요소들의 변화, 이러한 요소들 간의 구성의 변화, 경관의 변화, 마을 구성원 및 공동체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토지형태의 변화는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변화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왕리 저수지 일대의 경우 산 지형이었기 때문에 토목사업 과정에서 토지 원형의 모습이 절토와 성토를 통해 변화가 크게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곡리와 능곡리 일대에서도 토지형태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체계의 삽입을 위해 경사지형의 절토 성토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하는 지역은 마을의 원형뿐만 아니라 토지의 원형의 모습까지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연마을의 역사적 측면은 온전히 지워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 양지산 동측의 자연마을의 변화 - 산업관련시설의 점진적 점유

양지산 동측 자연마을의 변화는 1960년대 지도에 나타나는 촌락들의 분포 및 수량과 비교해볼 때 커다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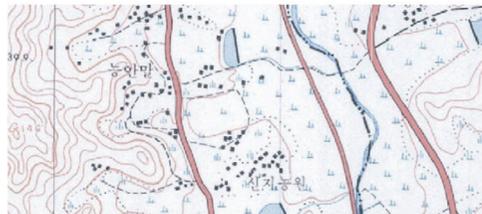
타난다. 한 사례로 무지내동 일대[1960년대 지도 능안말]를 살펴보면 초기 마을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의 모습이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기 마을의 모습은 14채 정도의 건물이 골 안쪽 남향을 바라보며 배치되어있지만 1990년대 들어서 하천의 정비및 하천 측에 새로운 기존 도로와 나란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건축물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2000년대 지도에서 농원을 비롯한 일반 건축물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도로 주변에 퍼져나간다. 2008년 항공사진에는 많은 부분에서 창고유형의 건축물들이 가득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고, 2020년 오늘날의 항공사진과 비교해보면 12년의 경과 속에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점유되고 채워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무지내동 일대 [1960년대 지도 능안말] 자연마을의 변화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08, 2020년대

이러한 유형의 자연마을의 변화는 양지산 동측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창고나 산업관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농업 중심의 마을 구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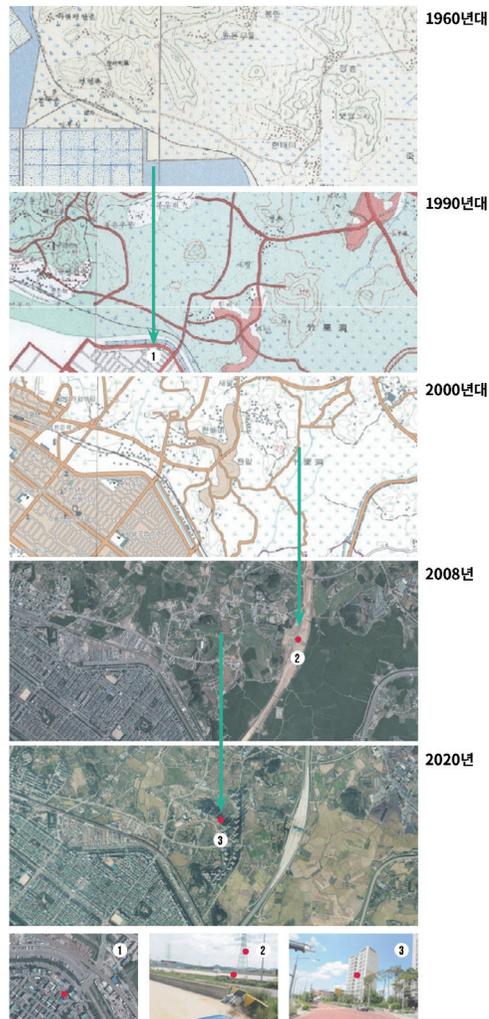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자연지형은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나, 공간의 점유 방식이 과거의 경작중심지역이 점차 건축물에 의해 점유되고 밀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창고유형의 건축물의 점유는 점차 자연마을의 경관을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사례 2) 죽울동 일대 자연마을의 변화 - 고층 아파트 주거의 점형태의 점유

죽울동은 1960년대 지도에 의하면 죽울리로 남측에는 바다와 갯벌 그리고 염전이 남서측으로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정남측 가운데 논경작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를 북측에서 에워싸고 있는 형국으로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었고, 죽울리는 작은 섬처럼 구릉지 남측에 마을이 형성되어있었다. 이처럼 지형이 골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골을 따라 환형으로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고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섬에도 여전히 마을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2000년대 까지 그 모습이 남아있지만 2008년 항공사진을 보면 시흥-평택간 고속도로가 조성되고 2020년 오늘의 항공사진에는 갑자기 고층 아파트들이 선형으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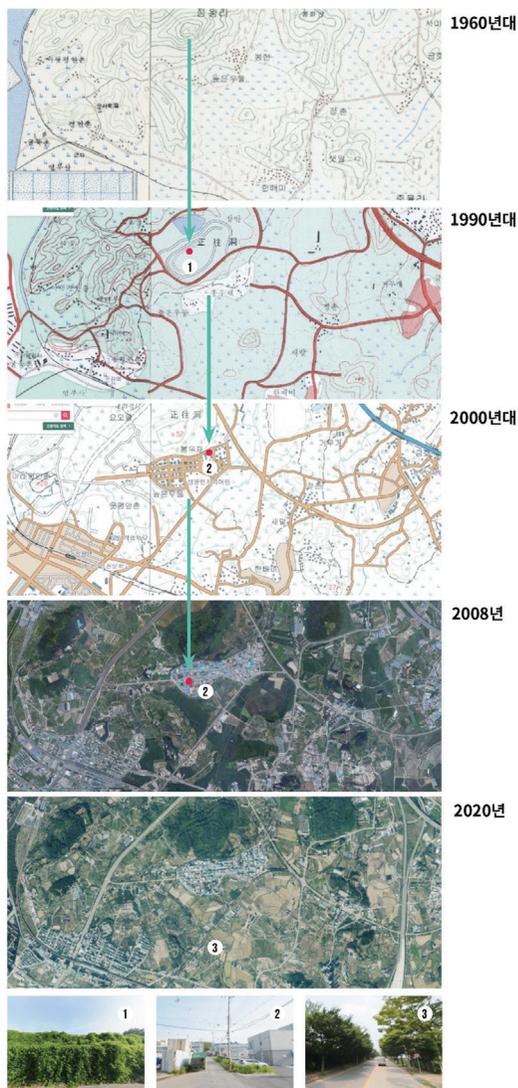
사례2) 죽울동 일대 [1960년 지도 죽울리] 자연마을의 변화



시흥국가산업단지 방향에 위치한 정왕동, 죽율동, 군자동 일대는 오늘날까지 초기 마을의 모습이 지형이나 마을구조 등 비교적 잘 남아있지만, 죽율동에 출현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삽입은 간석지 매립지역인 정왕본동의 도시화가 북측으로 점차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례 3) 정왕동 일대 자연마을의 변화 - 새로운 규칙형 도시조직의 삽입

사례3) 정왕동 일대 [1960년 지도 높은 우물] 자연마을의 변화



정왕동은 봉화산과 봉우재가 나란히 높은 구릉산을 형성하며 정왕동 북측에 위치하고, 바로 아래에는 봉현마을과 높은우물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마을 아랫편에 담수호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봉화산은 해발 67m, 봉우재는 해발 84m 높이의 산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시화방조제 건설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로 두 산을 절토하여 오늘날 두 개의 산이 사라져 버렸다. 현재 봉우재는 해발고도 52m이며 봉화산은 해발고도 약 35m로 주변 지대와 같은 평탄지형이 되어있다.

1990년대이후 2000년대에는 봉우재-높은우물 일대에 규칙성을 갖는 격자형 도로구조를 타원형의 순환로가 감싸는 듯한 이질적인 도시조직이 출현하게 된다.

이 도시조직은 대부분 산업시설물들이 점유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자동차 관련 공업사, 고물상, 정비업소, 기타 주요 관련 공장들이 점유하고 있어 하나의 작은 산업단지의 느낌을 만들고 있다. 좌측의 일부 촌락이 남아있지만 기존했던 봉우재 마을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을단위로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소단위 블록의 삽입을 통한 자연마을 지역에 이식되는 현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

시흥시의 자연마을은 타 도시와 비교해볼 때 매우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그 원형이 남아있고, 그 마을 공간구조의 흔적도 많이 남아있어 주변의 인천, 부천, 안산의 도시와 비교해볼 때 이러한 자연마을은 시흥시의 커다란 자산임에 틀림없다.

시흥시의 자연마을은 특히 서해바다와 연결되는 하천과 이러한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있는 넓은 논 경작지와 갯벌 그리고 염전의 흔적들이 훌륭하게 남아있으며, 서해안 마을이 갖는 전형적인 공간구조로 볼수 있는 “산지형 - 소하천을 따라 형성되어있는 골 지형, 언덕, 그리고 크고 작은 섬 지형 - 역사 속에서 점차 간석지를 확장시켜 넓은 논 경작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삼면에 나란하게 분포하고 있던 111개소의 마을들이 모두 중앙의 넓은 들을 바라보고 있고, 중심부의 하천은 서측의 갯벌과 만나면서 염전지대”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지형적인 체계가 자연마을들과 어우러지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흥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1개소의 자연마을은 이미 변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연마을이 사라지는 방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점유로 인해 빠른 시간에 지워지기도 하고, 대규모 교통 인프라 시설에 의해서 자연마을 공간들이 조각나고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은폐되고 숨겨진 지역들에서는 조금씩 산업건축물들에 의해 작은 필지단위로 점차 점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단위 블록형태의 점유방식도 점차 증가

할 것이다.

시흥시의 전체적인 자연마을의 변화는 점 형태의 이식된 도시조직이 전염병 퍼지듯이 확산되어 갈수 있다. 이러한 점 형태의 도시조직의 이식과 확장은 식민도시 건설이나 영토에 대한 변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연마을이 갖는 가치를 높게 제안하고, 땅과 자연마을이 품고 있는 오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그 어떤 개발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자연마을을 단순히 보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연마을의 흔적을 시흥시의 커다란 자산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사례의 도시정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3. 파리 도시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1) “헤영병떼 파리“ 사업을 통해본 주요 이슈

2014년 새로운 파리시장 안이달고[ANNE HIDALGO)는 전례없던 새로운 도시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도시정책의 주요 비전은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따른다.

도시맥락의 배경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적 연대, 주거안정과 안전, 탄소배출 감소, 고용확대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강화를 주요한 도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헤영병떼 파리” 라는 사업을 공표하였다. 이 사업의 주된 도시정책 이슈는 파리 시장 후보당시의 공약집에 잘 나타나 있고 이 공약을 재선이 된 지금도 높은 지지율 속에 진행하고 있다.

- 7가지 핵심 공약 [정책]

1. 모든 시민은 안정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
3. 혁신적이며 부드러운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4. 파리의 DNA 로서의 문화예술을 강화한다.
5. 지식네트워크와 혁신을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6. 안전은 모두의 권리다.
7. 친환경및 청결, 생태도시,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 효율성 있는 도시를 만든다.

이상과 같은 도시정책방향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장 루이 미시카 부시장

에 의해 제안된 사업이 “헤엄병때 파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느 특정한 대상지에 특정한 도시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공간 생산방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업 이었고, 이는 파리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도시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 40개 도시에서 “C40” 회원 도시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에서도 “서울형 저이용 공간혁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리의 이러한 “헤엄병때 파리” 사업의 배경과 방향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도시공간 생산방식이었던 교통 인프라 시설 위주의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도시 밀도를 높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 하고 있다.
2. 기존 도시와 도시 외지역이 만들어왔던 경제적 순환과정이 주로 도시 외 지역은 생산을 도시지역은 소비를 담당하고, 도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다시 도시 외 지역에 배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이동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경제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도시의 모습을 혁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다시 압축하면, 생산-소비가 이원화 되어 분리 되어왔고, 이렇게 이원화 분리된 생산-소비가 도시공간과 더 나아가 우리 국토 전반에 걸친 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도시공간이 만들어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인구집중과 부동산 문제와 주거불안, 반복되는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 지역 간 소득 불균형과 계층의 분화와 갈등 문제의 기저에 생산-소비 장소의 분리가 도시에 그대로 대입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생산-소비의 거리를 축소하는데 있다. 가령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 조작 품종을 대량으로 경작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화학제품의 사용은 소비자가농산물 생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생산-소비간의 지속적인 거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혀 일원화되고,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의 거리를 좁혀서 일원화 시킨다면 물류이동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감소될 것이며, 신뢰의 회복뿐만 아니라 경작과 생산에서의 노동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려는 것이 “헤엄병때 파리”사업에 깔려 있는 의미이다.

3. 생산과 소비에서 우리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0.92kg/ [1인 1일] 서울시 전체는 하루에 약 8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섬이나 다시 도시 외 지역을 선정하여 매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은 어디서 비롯될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생산자-소비자 간의 문제에 있다. 이 문제를 공간적 단위로 생각하면 생산자 공간과 소비자 공간으로 구분하면 도시와 도시외지역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쓰레기 배출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고,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혹은 이러한 거주 단위와 집이 되고, 집들이 모여 아파트 동이 되고, 동이 모여 단지가 되는 이러한 가족 단위가 공간 단위로 맞물려 가는데, 쓰레기 순환의 단위를 도시로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대규모로 매립지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건축물과 블록 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처리는 “생산-소비-재활용 혹은 폐기-새로운 에너지 및 자원”이 순환되도록 하는 공간적 단위를 건축물과 도시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 단위로서의 블록 : 파리 안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의 정책내용에는 이러한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의 단위로서 하나의 단일 건축물과 최소단위의 블록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와 농산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쓰레기를 하나의 단위 내에서 순환되도록 제시한다. 에너지의 경우, 건축물 내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 기술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물 옥상에 도시농업과 중간층에 테크나 기타 건축 공간을 통해 벽 녹화와 다양한 도시농업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내에서 농산물 경작과정을 생산의 개념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거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간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단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2014년 헤엄병때 1차 사업에서 제안된 “삼지창에서 포크까지”의 프로젝트는 8층 규모의 친환경 건축방식을 도입한 계획안이다. 지붕 층에는 도시농장을 두어 거주민들이 공동경작하게 하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8층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를 통해 공동 요리 및 식사를 하고, 지상 1층에는 프리마켓을 두어 잉여 농산물을 주변지역민들과 나누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파티장을 두어 도시농장에서 경작된 농산물을 통해 가공된 술과 식재료를 가지고 거주민들

과 나누는 문화의 장소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농산물 쓰레기(음식쓰레기)는 지렁이를 이용한 재활용 상자를 통해 거름으로 재생산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름은 다시 옥상의 도시농장에서 경작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순환된다. 물 또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옥상 도시농장에서 활용하는 등 건축물 내에서 하나의 순환과정을 발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단위를 만들고 있다.

5.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다양성에 대한 것이다.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대부분의 도시들은 거대 자본에 의해 획일화된 상품과 도시공간들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전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은 이러한 대량 생산[물품과 도시 공간]의 물결에 그 가치를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대량생산방식의 문화는 오래된 것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새로운 것에 중독되게 만든다. 프렌차이즈와 같은 상업시설들이나 획일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의한 도시 공간 생산방식은 도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실시키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의 내면에는 노동의 과정 즉 생산의 과정에서 공유되고 공감 되었던 문화가 그 뿌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있어 문화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돈을 주고 향유하는 소비문화가 되어버렸다.

프랑스 “헤엄병대 사업”에서 사회적 연대나 공공성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단순히 관객으로서 향유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품이 아닌, 문화 그 자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도시농업, 창업센터,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생산과 연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염두하고 있는 것은 소비과정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연대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6.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생물기술을 통해,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경작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농산물 소비는 극대화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우려하듯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종의 획일화와 다양성의 파괴에 있다. 생태계의 교란이나 생물환경의 파괴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통해 폭염, 홍수, 흑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처럼 다양한 생물학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태환경의 파괴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환경에 대한 노력은 도시 외 지역에서 해야 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에서 해야 할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하에서 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코 바뀔 수 없기에 “헤엄병때 파리” 사업에서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공간 [건축물]에 “생물다양성 구현”이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헤엄병때 사업을 통해 만들어 지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생물 다양성 구현”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붕녹화 및 정원, 벽 녹화, 대지 면적 내에서 녹지 공간 등을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토지와 물의 순환성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물, 공기, 토양, 녹지는 콘크리트와 같은 미네랄 재료에 의해 차단되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순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간에는 반드시 다양한 생물[지렁이, 곤충, 새와 같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다양성은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관점에서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7.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작고 다양한 유희공간과 활용 가능한 도심내의 공간들을 점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도시 사업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의 도시 문제는 영토가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성장의 문제이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적인 집중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근대시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화가 덜되었던 비도시 지역에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오늘날의 서울[파리의 6배 크기]이 되었고, 이후에도 분당, 고양, 과천, 화성, 안산 등처럼 지속적으로 위성도시를 건설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경기권역 대부분의 도시가 마치 서울의 베드타운처럼 서울에 종속된 도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확장은 수많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 더 빠르게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합리화 하는 근거로 작용되어왔다.

오늘날 도시정책의 핵심에는 지역균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이 그 근간에 깔려 있고, 이미 형성된 도시공간을 더 이상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 밀도를 증가 시키고,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도시정책 변환에 수반되는 것은 도시공간개발 방식이다. 과거에는 도시재개발 구역, 도시 재건축 구역, 혹은 지구단위 개발 구역 등으로 거대한 영역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정하고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민간 건설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입찰하는 방식 이었다면, “헤엄병폐 파리”사업 방식은 이러한 사업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소규모의 필지 단위 혹은 소규모 공간 단위를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소규모 단위공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발 하는 것이다.

2) 시흥시의 자산과 잠재력

모든 도시의 답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다. 한 도시의 비전은 그 도시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도시의 답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다.

1. 풍부한 생태환경

도시화의 속도가 늦었다는 사실이 역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이 유지된 결과를 낳았지만, 이것이 곧 자산이다. 눈여겨 볼 점은 산 지형-논 경작지형-하천-갯벌-바다로 이어지는 순환 형 생태환경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생태환경과의 순환성에 있는데, 산 지형을 따라 뻗어있는 수많은 소하천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물의 흐름은 땅의 흐름과 연결 되어있고, 이러한 땅과 물의 흐름은 다양한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원천이다. 더욱이 소래포구를 통해 시흥시 중앙부까지 진입되는 바닷물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시흥시 전체가 생태도시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중앙 평원으로의 공간적 집중

삼각형 형태를 갖는 “소” 자 공간구조는 시흥시 공간이 갖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된다. 세 개의 산줄기가 중앙평원을 향하고 있고, 세 모서리에서 주요 하천이 흘러 중앙으로 모이고, 각 산능선을 따라 길게 움푹 들어간 골의 형태와 돌출된 언덕들이 반복되는 지형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마을들이 모두 중앙으로 열려있는 구조는 시흥시의 비전을 공간구조자체가 이미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평원이 경작지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는 바닷물과 연결되는 갯벌과 염전이 위치한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시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순환체계가 중심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통, 물류, 경관뿐만 아니라 생태의 순환체계가 중심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심부가 도시화되면 안된다. 중심부를 비워놓고, 다양한 삼면에서 모아지고 다시 흩어지는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심부는 그대로 경작과 평원 그리고 물의 지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3. 경작수도로의 시흥시

과리에서 최근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 “경작수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생산-소비, 생산자-소비자를 이원화시켰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시였지만, 생산-소비의 간극을 좁혀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도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도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작수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더 이상 도시가 농산물을 소비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작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 도시는 이렇게 도시 자체적으로 생산과-소비가 순환구조를 갖고, 모든 종류의 배출물들이 다시 순환되는 도시로 변해 갈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시흥시는 이미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바로 중앙부에 위치한 경작지이다. 삼면에 위치한 마을들이 자연스럽게 도시화로 진행되고, 중앙부에 경작지가 그대로 유지되면, 삼면의 마을과 중앙부의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물과 농산물과 쓰레기가 중앙부의 경작지를 각 3개의 축을 따라 지원 및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생태도시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중앙부가 도시화가 되면 안 된다. 자연생태와 경작의 중심으로 비워져 있어야 한다.

4. 풍부한 역사적 정체성을 간직한 마을

부분적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훼손되거나 지워지는 마을들이 있지만 여전히 100개의 자연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수 백년을 걸쳐 쌓아온 땅의 역사와 그 땅을 일궈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시흥시의 자산이다. 획일화된 도시공간의 생명력은 길지 않다. 오래된 길은 생명력이 길다. 그 이유는 축적된 역사가 공유되어왔고, 이렇게 공유된 역사가 또 다시 축적되면서 수많은 콘텐츠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생명력은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풍부함에 있다. 생태자연환경, 오래된 땅과 물의 이야기, 갯벌과 바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있는 자연마을의 이야기는 시흥시가 갖는 가장 큰 잠재력인 것이다.

5. 논-밭 경작 필지, 길, 건물의 흔적의 존중

모든 종류의 도시공간은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담겨진 장소”이다. 점차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연마을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길, 필지, 건축물, 기타 인공구조물 등으로 그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필지와 땅을 해석하고 이용했던 흔적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흔히 논과 밭은 건축물 이상으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한 공동체 혹은 한 개인이 땅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갖고 일궈온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길은 이러한 문화가 공유되는 지점이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그 길을 통해 바라본 경관에 대한 기억이 공유되고 그것은 무의식에 저장되어있다.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기억들의 층은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기능적인 필요가 요구될 때, 이러한 도시공간의 요소들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 존중은 무조건적인 보존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유한 마을의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이 담겨질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여야 한다. 토지를 환수하고 보상하는 절차를 통해 사고 팔아버리는 상품으로서가 아닌 세대를 거쳐 수많은 기억과 문화가 축적되어온 장소의 가치가 새로운 도시계획과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존중된 계획을 통해 시흥시는 공간적인 소통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와의 소통도 풍부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6. 격자형 구조의 도로체계가 아닌 방사형과 순환구조의 도로체계

삼각형 형태의 공간구조에 고속도로를 통해 이미 4각형 형태의 공간구조가 삽입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삼각형의 공간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부와 산줄기의 삼면과 세 모서리가 연결되는 방사형태의 도로체계가 필요하고, 도시화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앙부의 전략적인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순환 형 공간구조가 필요하다. 방사형 도로체계는 광역권의 교통망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화가 가능한

대중교통망을 배치하고 순환 형 도로체계는 부드러운 교통을 위한 트램웨이나 자전거길, 저속 주행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중심부를 기준으로 세 모서리방향으로 방사 형태는 고속의 대중교통을, 순환의 교통체계는 보행과 부드러운 저속 중심의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다.

4. 결론

시흥시의 전략적인 자산은 전체적인 자연환경, 공간적인 특이성과 수많은 역사적 정체성이 충분히 담겨있는 자연마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흥시가 위치한 지리적 측면에서는 고도화된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때문에 도시화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논과 밭 그리고 오래된 시골마을이 무분별하게 지우거나 밀어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자연마을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사항들을 존중하면서 생명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도시화가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라면 그 도시화의 기본 단위는 이 자연마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존중되고 고려되고 연결되는 생명력 있는 도시가 만들어 질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연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마을에 대한 유형화 작업은 역사적 가치와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혁신 단위로서 이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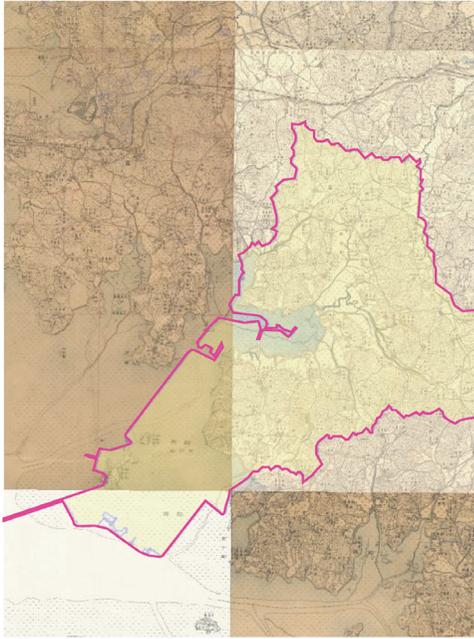
| 참고자료 |

시흥시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년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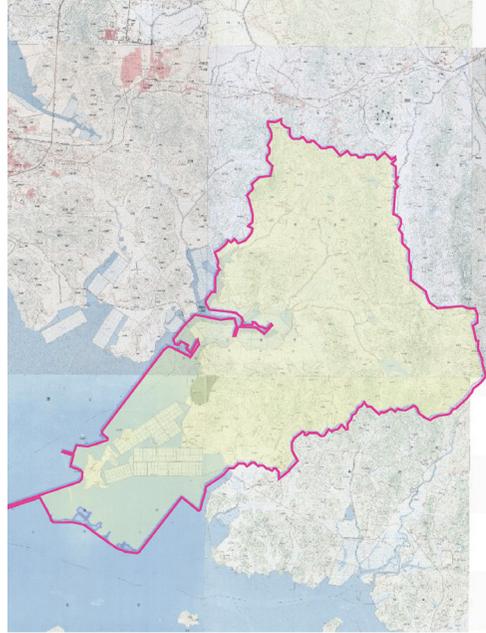
- 1917-18 · 지도
- 1963 · 지도
- 1969 · 항공사진[흑백]
- 1969 · 항공사진[흑백]
- 1970 · 지도
- 1975 · 지도 [부천시 관내도] - 출처 : 부천시
- 1977 · 지도
- 1977 · 항공사진[흑백]
- 1982 · 지도 [부천시 관내도] - 출처 : 부천시
- 1983 · 항공사진[흑백]
- 1984 · 지도
- 1985 · 항공사진[흑백]
- 1987 · 지도
- 1990 · 지도
- 2001 · 지도
- 2011 · 지도
- 2015 · 지도
- 2018 · 항공사진[흑백]
- 2018 · 원미동 일원

1917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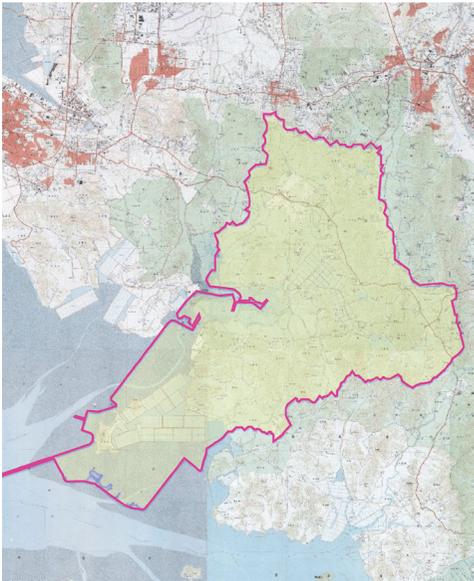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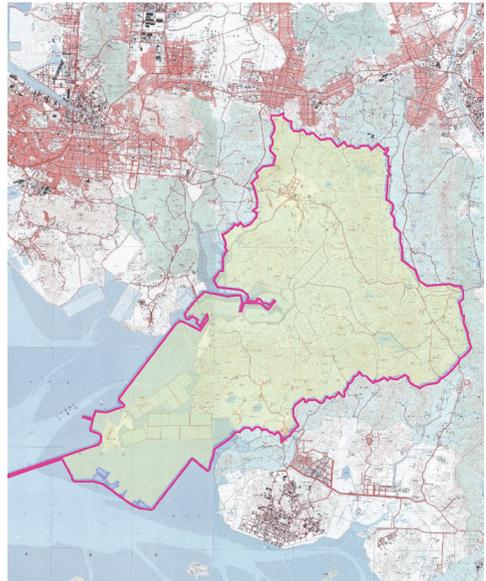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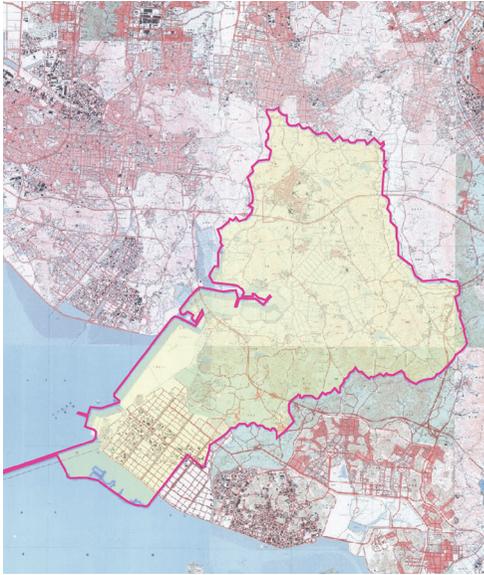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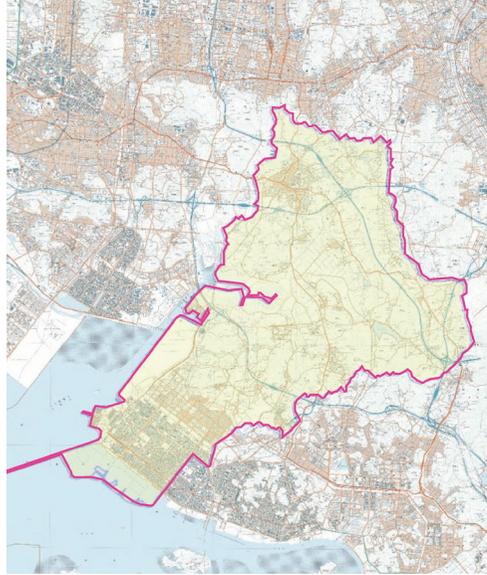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5년대



2015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바라지의 고장 시흥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집필 이현군, 김준기, 강호정, 김은희, 시지은, 장수아

편집 도서출판 유니크

인쇄 도서출판 유니크(031-935-5772)

ISBN 979-11-967685-5-3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